

조선어리본문법  
(문장론)

파라, 백교사전출판사  
1980

917  
1111  
2165

조선어리본문법

파라, 백교사전출판사

191165

# 조선어리본문법

(문장론)

준박사, 부교수 김용구

파주, 백파서적출판사

1986

# 차 례

총 론 .....	( 4 )
제1장. 문장론의 기초이론 .....	( 16 )
제1절. 문장의 본질과 기본포식 .....	( 16 )
1.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 .....	( 19 )
2. 문장의 본질 .....	( 23 )
3. 문장의 기본포식 .....	( 29 )
제2절. 문장론적관계의 표현 .....	( 44 )
1.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 .....	( 45 )
2.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단어형태 .....	( 48 )
3.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어 .....	( 51 )
4. 어순 .....	( 54 )
5. 억양 .....	( 58 )
제3절.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제로 .....	( 59 )
1. 문장의 구성성분, 구성제로의 개념과 그 호상관계 .....	( 60 )
2. 문장의 구성성분 .....	( 63 )
3. 문장의 구성제로 .....	( 65 )
제4절. 문장분류에서 나타서는 기본문제 .....	( 68 )
1. 문장분류의 기준 .....	( 68 )
2. 대용과 형식의 통일에서 본 문장분류 .....	( 70 )
제2장. 단어들의 결합관계 .....	( 76 )
제1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과 기본분류 .....	( 77 )
1.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 .....	( 79 )
2.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분류 .....	( 83 )
제2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실현방식 .....	( 91 )
1.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 .....	( 93 )
2.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 .....	( 96 )
제3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분류인 조선어의 《구》 .....	( 98 )
1. 조선어 《구》의 구조 - 문법적특성 .....	( 101 )

3638 KOREAN

2. 조선어 《구》에서의 친술성문제..... (107)

3. 조선어 《구》의 순위상 특성..... (109)

제4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으로서의 《부》..... (111)

1. 조선어 《부》의 구조-문법적특성..... (112)

2. 조선어 《부》의 기원표식..... (116)

3. 조선어 《부》의 순위상 특성..... (117)

제3장. 문장성분..... (120)

제1절.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과 단위..... (121)

1. 문장성분에 대한 일반적해설..... (122)

2.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에 대한 확정..... (127)

제2절. 문장성분의 갈래..... (134)

1. 분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 (135)

2. 분화어문장성분의 갈래..... (138)

제3절. 문장성분의 표현..... (151)

1. 맛물린성분의 표현..... (151)

2. 의관성분의 표현..... (155)

3. 단독성분의 표현..... (158)

제4절. 조선어문장성분의 상관상 특성..... (159)

1. 문장성분의 점진관계..... (160)

2. 문장성분의 귀일관계..... (162)

3. 문장성분의 조응관계..... (166)

제5절. 우리 말 어순의 특성..... (170)

1. 어순에 대한 과학적리해..... (170)

2. 우리 말 어순에 작용하는 법칙적현상..... (173)

3. 우리 말 어순의 유형과 기능..... (180)

제4장. 문장류형..... (185)

제1절. 문장의 내용상 분류..... (186)

1. 친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187)

2. 친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190)

3. 친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193)

제2절. 문장의 형식상 분류..... (196)

1.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197)

2.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200)

제3절. 문장의 기능-구조적류형..... (211)

제5장. 복합문..... (215)

제1절. 복합문에 대한 일반적해설..... (215)

1. 복합문의 개념..... (215)

2.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 (227)

제2절.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과 그 기능..... (234)

1. 분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 (235)

2. 분화어복합문 이음수단의 기능..... (237)

제3절. 분화어복합문의 유형상 특성..... (243)

1. 분화어복합문의 유형..... (244)

2. 분화어복합문의 유형상 분류의 합리성..... (248)

3. 두개이상의 《단일문》들로 이루어진 복합문(종합구성복합문)..... (253)

제6장. 문장류형..... (258)

제1절. 문장류형에 대한 일반적개념..... (259)

1. 문장류형의 본질과 특성..... (259)

2. 문장류형의 기원표식..... (265)

제2절. 우리 말 문장류형의 유형과 그 특성..... (269)

1. 미모용집법과 그 구조-문법적특성..... (270)

2. 문어용집법과 그 구조-문법적특성..... (272)

3. 《축어》용집법..... (274)

제3절. 우리 말 문장류형의 구성방법..... (280)

1. 분화어용집법의 표현수법..... (280)

2. 미모용집법을 끌어올림경역으로 고치는 방법..... (283)

## 총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리론연구분야에서도 보람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문법연구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문법리론을 다듬겠 람구하고 그 성과들을 여러 문법제들과 각종 출판물들에 실천하였다.

우리 문법학제에서는 또한 조선어문법의 개별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화되고 활발한 과학토론이 지들되면서 문장리론의 수준을 높이는 데서도 큰 전진을 보았다.

그러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 인민의 문화적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미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가 더 철저히 선 문장론을 사회에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장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언어학에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20권, 347페이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풍부히 하여나가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84페이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은 모든 리론활동에서 온전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의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리론활동을 전개할 때 그 리론의 과학성과 생활력은 확

고히 담보된다.

언어과학의 연구, 리론문법서술에서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언어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 때만이 민족어의 문법구조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전면적으로 밝혀내어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그것을 쓰는 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문법론, 문장리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조선어리론문법의 문장론은 주체의 방법론에 튼튼히 립각하여 조선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과 기기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어 언어실천에서 해명을 기다리는 주요 문장론적현상을 옹기 데해할 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한다. 이리하여 문장론은 조선어의 모든 주요 문장론적현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미 우리 인민에게 확고하게 인식된 전형적인 문장론적현상, 새로 발생발전하는 현상, 해외적인 문장론적현상 등에 일관된 고유한 특성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해명한다.

조선어문법 문장론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개화발전한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어의 전형인 문화어의 구체적인 언어현실에 튼튼히 의거하여 리론을 전개하고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장리론서술에서는 문화어를 본보기로 하여 문장론적현상을 분석해나가야 한다.

문화어에 의거하고 문화어로 진행되는 언어생활에서 문법적현상, 문장론적현상의 본보기를 찾는 것은 자기 나라 혁명에 유익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언어를 발전시켜나가는 주체적립장의 발현이다.

문법, 문장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문법적해해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외국문법론의 성과와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등은 다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젓어 우리 말의 문법적현상, 문장론적현상을 다른 나라의 문법구조에 알맞는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문장리론의 주체적발전은 고사하고 현실의 요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시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주요요리의 하나이다.

문장리론을 출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대응서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되어야 할 새로운 말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으며 대중이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하게 되어야 한다.》(《영화예술론》, 117~118페이지)

당성원칙을 견지하며 로동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문장리론을 전개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본보기로 되어야 할 문법을 서술하는 데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투쟁은 온갖 낡은 반동적언어리론의 침투를 막으며 낡은 언어요소를 반대배격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문법리론이 언어의 구조적요소들에 대한 리론적일반화의 결실인만큼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고찰에서는 일정한 계급적립장에 서 일정한 언어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종합하게 된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목적의식적작용의 한 과정이다.

언어요소들에 대한 고찰이 언어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의 반영인것만큼 거기에는 반드시 계급적립장이 반영된다. 따라서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전개하는 데서는 어느 계급의 립장에서 어떤 언어요소들을 표준 또는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데 따라 그 계급적성격이 규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의 문법리론이 로동계급적립장, 로동계급의 당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에서는 낡은 반동적언어리론의 영향을 허용케 하는 자그마한 표현도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낡은 언어적요소에 환상을 가지게 하는 사소한 해석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은 로동계급적립장에 서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리념이 반영된 말과 글, 근로인민대중이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한 언어적요소들에서 권형성을 찾고 일반화하는 것을

본성적요구로 내세워야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교조주의적요소를 극복하는 것이다.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립장을 떠나서 떨어놓고 지난날의 언어요소들을 취하며 낡은 사회의 언어유물, 문법현상에 매여달린다면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무계급적인것, 비혁명적인것으로 만들며 문법분야에 이채적요소를 끌어들이게 된다.

문법리론, 문장리론 분야에서 부르조아적어용리론, 관념론적 반동언어리론의 자그마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구조주의언어리론》, 《변형문법리론》, 《만능문법리론》 등 이색적 사조와 방법론을 반대배격하는 것은 당성, 로동계급성을 관철하는 구체적방도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반동언어리론이 활개침에 따라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도 여러가지 부르조아적, 교조주의적, 사변적 《문법리론》이 떠돌고있다.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주체적립장에서 보지 못하고 떨어놓고 서방의 《문법리론》을 밀수입하여 들어맞추거나 고답적인 남의 《문법리론》을 답습하여 《모조화》하는 일이 깨리질 없이 허용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문법학계의 형편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류포되고있는 반동언어리론, 반동적문법리론을 반대배격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창된 민족의 녀이 스며있는 문법리론을 한겨주키 위하여서도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이 반영된 문법리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문법리론, 문장리론 분야에서 부르조아적, 교조주의적, 사변적 《리론》을 반대하고 조선어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양각색의 비과학적인 방법론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문장론의 주체성, 혁명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문장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서술에서 인민성, 과학성 원칙을 관철하며 력사주의적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고찰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며 규정과 규범을 해설하는 데서 인민대중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민성원칙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방도로 된다.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구체적언어자료를 면질없이 다루며 전형적인것과 비전형적인것을 바로 가르며 예증을 올바르게 하

는 것 등은 과학성원칙을 관철하는 방도로 된다.

문법현상, 문장론적현상의 취급에서 때로는 사적고찰, 학술사적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역사주의적원칙을 지키면서 오늘의 요구에 맞게 자료들을 분석일반화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여 주체가 충분히 실행문장을 건설하기 위한 귀착점은 결국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살리는 방향에서 자료를 다루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경에하는 수형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김일성동지작필》 20권, 338페이지)

언어와 같은 민족적세보의 존재가치는 민족적특성을 훌륭히 보존하는데 있다. 문법구조는 민족적특성이 잘 보존되어있는 언어적소이다.

우리의 문장론은 우리 말 문법구조, 문장구조에 작용하는 합법칙적현상을 손색없이 밝혀내며 문장조직의 민족적특성을 궤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전개되었을 때 진실로 주체성이 보장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것으로 된다.

우리 말 문법구조,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훌륭히 살리는 방향에서 서술된 문법리론, 문장리론만이 주체가 선 리론문법, 리론문장론을 이룬다.

참으로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며 인민성,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은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말 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서술된 조선어리론문법의 문장론은 리론문장론의 성격을 지닌다. 낱은것을 끌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립장에 서는것은 리론문장론시술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 립장이다.

경에하는 수형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화, 력사학, 어문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리

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말로 많습니니다.》(《김일성동지작필》 17권, 551페이지)

천에하는 제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낱은것을 끌어버리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여나가는 혁명가들이기에 언어생활에서도 시대정신에 민감할뿐 아니라 언제나 모범이다.》(《영화예술론》, 115페이지)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을 새로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면 이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낱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야 할 측면도 적지 않다.

우리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인민대중의 문화적소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더 높은 수준의 리론문법, 리론문장론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리론문법은 해당 민족어의 문법구조에 작용하는 일반적합법칙성을 해명하면서 이 분야에서 학계가 거둔 성과를 일반화하며 새로운 문체점을 세워 문법리론의 보다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 이로부터 리론문법은 문법론체제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체, 규범문법이나 실천문법이 해결하지 못한 조미의 문제, 문법리론발전의 요구에 따라 제기되는 논쟁적문제, 그리고 특수한 문법적현상에 대한 리론적해명을 추게 된다. 복잡하고도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법적현상에 대한 높은 리론적해명을 위하여서는 언어실천의 요구와 오대동안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절실한 체험을 기대하는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 이론화하여야 한다.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은 우리 학계가 거둔 이 분야에서의 기존성과에 의거하면서도 낱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찾아내는 립장에서 논쟁적인 문체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일정하게 체계화된 견해를 중심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문법시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은 규범문법을 더욱 주체성있게 완성하며 실천문법을 과학적토대우에서 건설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제공한다.

모든 리론이 실천의 요구에 의하여 생겨나고 실천과의 통일속에서 발전하는것과 같이 문법리론, 문장리론도 언어실천과 밀접히 결부될 때 자기 발전을 다그쳐나가게 된다. 이로부터 리론문장론에 서는 문법교육실천, 문장조직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제기되는 요구

도 의면하지 않았다.

리론문장론으로서의 이 문장론은 문장리론분야에서의 세계적 추세도 그것이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한에서 반영하였으며 우리의 소박한 주장도 그것이 과학적근거와 현실적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한에서 체제화하였다. 이것은 주로 진문가들을 상대로 하여 집필한 이 이론문장론의 사명 및 성격과 관련된다.

문장론의 대상과 파악은 문장론의 사명과 성격으로부터 풀러나 온다.

문장론은 문장에 관한 지식, 문장의 구조적특성과 문장조치의 규칙을 밝히는 문법론의 한 분파이다.

조원민족어는 문장구조에 있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문장론에서는 바로 조원민족어에 고유한 문장구조의 특성,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의 령관관계의 합법적성을 밝힘으로써 문장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며 혁명실천에 이바지한다. 문장론이 지닌 이러한 사명으로부터 그 연구대상과 파악이 나온다.

그러면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문장론의 연구대상문체와 관련된하여 지난 시기 내외문법학계에 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오직 문장뿐이다》라는 단정을 내렸는가 하면 다른 극단에 선 견해들은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다불아닌 단어결합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두 극단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문장안에서 단어들이 연결되는 특성들과 문장의 유형,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문장론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조선어의 구체적현실에 눈을 돌릴 때 지금까지의 견해들이 일정한 제약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장론이 문장일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특수현상, 그리고 우리 말 문장에 작용하는 모든 규칙들을 제대로 다 밝혀내지 못한다.

문장론이 단어결합일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단어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문장류형과 단어결합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문법적현상을 다 밝혀내지 못한다.

사람들의 판단과 그 구조는 공통적인 성격을 띠수 있다. 그러

나 그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은 철저히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민족어마다 문장조치의 형식이 다르며 따라서 문장류형과 문장의 구성 요소들의 결합방식도 다른것이다. 문장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의를 관심을 돌려야 한다.

조선어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무엇보다도 조선어의 모든 문장류형들과 그 구조적특성이다.

다양한 형식을 갖춘 우리 말의 단일문과 복합문들, 그 구조적 요소들의 령관관계의 문장론적특성은 조선어문장론의 연구대상이다. 문장론은 여러가지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형식을 갖추어나가는 특성과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의 기능을 연구하며 문장에 있는 여러 문장론적현상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조선어문장론에서는 문장일반인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어에 고유한 형식과 수단 및 수법으로 조직된 문장의, 구조와 유형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문장으로 된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사상감정의 표현과 전달의 과정이다. 이 때에 이용되는 언어수단은 문장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식의 문장을 단위로 하여 사상감정을 전달하며 또한 문장을 단위로 하여 사상의 사상감정을 리해하게 된다. 문장은 언어행위를 가능케 하는 기본단위이다.

전일적인 구조로서의 문장이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과 구별되는 점은 일반과 개별, 전체와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서뿐아니라 문장의 기본표지들을 나타내는 여러 언어적 수단과 수법들의 질적 정도에서도 나타난다. 문장에는 진술을 현실화하여주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 진술어양 등이 반드시 있게 되며 진술을 완결된것으로 토막지어주는 상관단위들의 합리적인 맛물림, 각종 문장론적단위들의 배열순위 등의 규칙도 작용한다. 문장론에서는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이러한 여러 언어적 수단과 수법, 각종 단위들의 맛물림과 배열의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와 문장류형, 그리고 문장의 기본표지를 나타내는 각종 언어적 수단과 수법들에 대한 연구도 문장론의 주요한 대상의 하나이다.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다음으로 단어들의 결합이다.



단어들의 결합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체로 또는 구성성분으로 되는 문장론적 결합체이기때문에 문장론의 연구대상이다.

문장은 보통 두개 이상의 단어들의 문법적인 연결로 이루어진다. 이때의 문장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로 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에 작용하는 법칙과 규칙을 밝히지 않고서는 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다 알수 없다.

다양한 형식과 여러가지 구조를 가지는 조선훈어문장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 리제경은 기분이 좋아서 씩없이 무슨 말인가 하였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인사를 하였다.

이 언어행위의 토막에서 구조 - 기능상 1차적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맺는 단위는 《리제경은》, 《기분이 좋아서》, 《씩없이》, 《무슨 말인가》, 《하였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인사를 하였다》의 9개이다. 이것은 문장의 구성성분의 문법적맞물림이다. 2차적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맺는 단위는 《기분이 좋아서》, 《무슨 말인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의 5개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들이다. 이것은 문장의 구성체로 안에서의 문법적맞물림이다. 문장론에서는 바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체로 되는 이러한 단어결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단어결합이란 문법적맞물림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전체로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체로 되는 단위이다. 이리하여 구조-기능상으로 1차적인 맞물림관계에 놓이거나 2차적맞물림관계에 놓이면서 삼관관계를 이루는 단위는 다 단어결합으로 되며 따라서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된다.

앞에서 해오른 문장에서 《기분이 좋아서》, 《무슨 말인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나 《씩없이 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 《친절히 인사를 하였다》, 《기분이 좋아서 인사를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였고》 등이 날개의 문장론적맞물림관계에 놓이는 한에서는 다 단어결합(또는 단어들의 결합)이다.

《진술적결합》이라고 불리는 《리제경은 인사를 하였다》도 현실에 대한 관계가 진술의 구조, 억양의 요소 등으로 아직 불필화되어 있지 않고 날개의 맞물림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도 단어결합이다.

이 경우에는 단어결합과 성분결합이 교차되어있다. 이리하여 문장론적대상으로서의 단어결합(또는 단어들의 결합)이 독자적인 분야로 연구되는것이다.

문장론이 이와 같은 문장의 구성체로 또는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단어결합을 의미한다면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할뿐 아니라 문장리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출수 없다. 단어결합(또는 단어들의 결합)을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잡는것은 필연적이다.

(붙임) 단어결합의 한계를 어떻게 그으며 단어결합과 단어들의 결합의 구분을 어떻게 지어놓는가 하는것은 문장론적성격을 띤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제2장에서 한다.

조선훈어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또한 문장론적관계를 맺으면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체로 되는 개별적단어이다. 문장론은 문장론적관계를 틀어간 단어를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문법론의 다른 분과와 달리 단어의 기능을 연구하게 된다.

문장론적관계를 틀어간 단어는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서도 교차되며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에서도 교차된다.

- 푸풍!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푸풍과도 같이 터져올랐다. ①
- 《뫼살이요?》
- 《뫼다섯살.》
- 《그래?!》 ②

예 ①에서의 《푸풍!》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명-감탄문이며 예 ②와 같은 언어교체의 토막들의 유형은 서로 다르나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의 연속이다. 각각 하나의 끝맺이가 있는 사상감정을 나타낸 이러한 문장의 구성체로는 문장론적관계를 틀어간 단어이다. 이때의 문장론적관계를 그 단어가 맺는 현실과의 관계이다.

복사론적 및 형태론적 대상인 《푸풍》, 《뫼다섯살》, 《뫼다섯살》, 《그래》는 문장론적관계를 틀어가면서 《푸풍!》, 《뫼살이요?》, 《뫼다섯살》, 《그래?!》라는 진술단위로서의 문장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언어의 기본단위로서의 단어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서의 문장을 구성한것이다. 이리하여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으로 되면서 문장론적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단어가 맺게 되는 문장론적판계란 현실과의 판계만이 아니다. 문장안에서 문법적으로 서로 연관관계를 맺는 고든 단어도 문장론적판계속에 들어간 단어로 하고 할수 있다. 앞에서 제로는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폭풍과도 같이 터져올랐다.》에서 매개 단어들은 서로 문법적연계를 맺으면서 문장론적판계속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모든 문장은 문장론적판계속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단일체라고 말할수 있다.

문장론적판계속에 들어간 단어들은 그것이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제로 되는 한에 있어서는 언제나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된다.

품사론, 형태론, 단어조성론에서는 어디까지나 개별적단어들의 어휘-문법적 및 형태-구조적 특성이 단독적으로 고찰된다면 문장론에서는 일정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이 상관관계속에 서 고찰된다.

문장론은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거나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제로 되는 단어가 나타내는 문장론적기능을 밝혀낸다.

문법론의 기본분과의 하나인 문장론은 문장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며 조선어문장구조에 작용하는 규칙과 범칙을 해명한다.

조선어문장구조에 작용하는 규칙과 범칙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과학적인 문장론을 건설할수 없으며 문장조직의 능력을 키울수 없다.

조선어문장에는 조선인민의 오랜 관습에 따라 굳어지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고유한 규칙과 범칙이 작용하며 바로 이 규칙과 범칙은 단어들인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판계를 맺으면서 연결되는 데서나 문장론적단위들을 알맞춤하게 선택하여 리용하는 데서 작용한다. 이러한 규칙과 범칙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곧 언어실천에서 조선어에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지켜나가는 과정이다. 조선어에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잘 지켜나갈 때 바른 말, 바른 글이 이루어진다.

문장론은 바로 우리 인민들이 조선어에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문장도 잘 만들고 문법이 통하는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도를 제시해주는 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삼는다. 아울러 문장에 관한 제반 이론적문제에 대하여 해명을

준다.

이러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론문장론은 주체의 방법론에 철저히 립각하여 지난 시기 문장론분야에서 발로된 부족점들을 분석총화하며 우리 문법학계가 거둔 이론적성과를 일반화한다.

이론문장론은 이미 나간 규범문법, 서술문법, 실천문법의 분장론분야를 끊임없이 보충완비할수 있게 하는 이론을 제공하며 발전하는 언어실천의 현실적요구도 붙어준다.

조선어이론문법 문장론은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문장의 구성제로들이 맞물리는 제반 특성과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특성, 문장론적관계표현의 여러 수단과 수법의 활용규칙을 일반화하여놓음으로써 우에서 제기된 기본과업을 실현한다. 아울러 조선어문장의 유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제화한데 기초하여 거기에 작용하는 범칙성을 밝히고 언어행위의 전달방식에 관한 문제도 이론적으로 해명하여놓음으로써 문장론은 자기에게 맡겨진 기본과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문법론의 주요분과의 하나인 문장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상과 같은 과업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세로운 높이에 이르는 과학적문장론건설의 이론적기초를 확고히 마련하게 된다.

우리는 문법리론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규범문법, 실천문법 등을 더욱 보충완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옹호하게, 알아듣기 쉽게 쓰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다 우리 말과 글을 **옹호**하게, 알아듣기 쉽게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27페이지)

자기의 말과 글을 옹호하게, 알아듣기 쉽게 쓰는 리치를 깨치며 민족어의 문법구조를 꿰뚫고있는 원리와 규칙들을 파악케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의 문법리론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언어과학도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문법리론분야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권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매리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주체의 방법론에 튼튼히 립각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언어실천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문법리론을 전개해나갈 때 그 성과는 확고하다.

## 제1장. 문장론의 기초리론

철에하는 시노자 김정일동리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려면 앞뒤가 맞게 논리를 세우고 체계정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영화에술론》, 69페이지)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기 위하여 논리를 잘 세우고 체계정연하게 이야기하는것은 올바른 언어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은 언어행위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앞뒤가 맞게 논리를 세워서 체계정연하게 진술해나가는 과정이다. 언어행위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논리를 세우며 체계를 잡아 진술하는 행위는 전일적인 문장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것은 전일적인 문장이야말로 본리적계기가 뚜렷하고 진술의 끝맺이가 있는 언어행위실현의 현실적단위이기때문이다.

끝맺이가 있는 사상감정의 전달과 리해는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의 단순한 리얼로써는 실현되지 못한다. 오직 문장이라는 전일체를 통하여서만 끝맺이가 있는 사상감정이 전달되고 리해되며 따라서 언어교체가 실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언어교체를 원만히 하려면 문장을 훌륭하게 리용하여야 하며 자기가 주장하려는 사상감정을 제대로 옹기대면 바로 문장을 깎을 말아야 한다.

바른 문장, 바른 글을 깎을 때는 힘을 기르자면 문장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문장론의 기초리론은 문장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근본을 이룬다. 그것은 문장론의 기초리론에서 문장론의 바탕에 놓이며 선차적으로 알아나가는야 할 문제 에 대한 해명이 주어지기때문이다.

### 제1절.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

문장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에 대하여서

는 문법이 과학으로 성립되어서부터 오늘까지 논의되어왔으나 서로 다른 리장과 방법에서 서로 다르게 리해되어왔다.

언어교체가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전달하고 리해하는 과정인지만큼 언어교체의 단위인 문장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사유의 형식문제와 리관시켜 고찰되어왔다.

문장론적범주를 논리학적범주와 직선적으로 리관시켜 고찰하는 리해들은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판단과만 결부시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판단의 형식》, 《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만 리해하였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사유의 범주와 직선적으로 결부시키는 데서 모순을 느끼 사람들은 이번에는 문장의 글수 형식기표식에만 매여달았다. 그리하여 문장구조의 《안비》, 술어의 《형태구비성》에서만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찾았다.

(별인) 추시경은 문장의 정의를 버리면서 《물로부터 돌 더위: 그로 한말을 이룬이나라》라고 하였다. (《추시경연구집》 1957년판, 83페이지)

그가 단어합성의 구성단위에 해당하는 《기》라: 말에 《다》(문장)라: 개념을 대응시키고: 정는 《말들라》(구성문, 문장군에 해당하: 말)의 대상으로 삼은것으로 보야 문장의 기본표식은 문법적인것에서 찾으려고 한것같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장에 관한 추시경의 견해는 아직도 논화적만것이었다. 문장이 돌 또는 돌이상의 총사(단어)로 이루어진것이라 하때 단어합성이나 단어결합과 구별되지 않으며 사상감정: 끝맺이와 그 형식화문제: 외면한것으로 된다. 더욱이 그의 정의에 따르면 단어나 하나의 단어로 된 완결된 진술단위는 문장이 될수 없다.

그밖에도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리해하: 리서 지난시기 대문도: 주관적인 두 견해가 있었다.

그 하나는 《엘은 단점을 나타내: 간출기가 잘: 다.》라고 하면서 《사상이 단정》, 문장형식: 《독립성》과 《사상이 진: 성》을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삼: 리었다.

《사상의 단정》, 《사상의 진: 성》이란: : 어떤 문이적범주이며 문법학적해석이다. 문법적범주인 문장을 문이적범주와 동일시할수 있으며 문법학적해석으로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 문장가게 리해할수 없다.

다른 하나의 주관적인 견해는 《문장: 어사의 결합이다.》라: 하면서 품사론의 문법적결합제, 《어사집합의 완전성》, 《용결합의 결수성》에서 문장의 기본표식을 찾는 견해이다.

《어사취합이 완전됨》, 《중결형의 필수성》이란 틀어낸 형태-구조적 표식이며 형식주의적해석이다. 복잡한 사상감정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형태-구조표식 하나만으로는 완전하게 해명할수 없다.

해방후 우리 문법학계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구명하는 데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우리의 문법학자들은 문장의 본질을 밝히고 그 기본표식을 찾는 데서 조선어의 현실에 파고드는 탐정에 썼다. 그리하여 문리주의 또는 형식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문장이 담고있는 여러 체계들과 문장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표식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문법학계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밝히는 데서 문장이 담고있는 내용적측면과 문장구조의 다양한 형식을 통일시켜보았으며 구조-문법적측면과 의미-기능적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문장이 문법적범주이며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행위, 언어교체의 기본단위이며 문법적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일체라는 데 대하여 대체로 일치한 리해를 가져게 되었다. 그리고 문장의 기본표식을 진술성 또는 《술어성》에서 찾는 데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문장이 지닌 여러 체계들을 더 보지 못하였거나 문장의 본질적인 표식을 철저히 문법적측면에서 정밀하게 고찰하지 못한 약점도 있으며 적지 않은 논쟁점을 남긴 것도 있다.

최근에 우리 학계에는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나왔다. 그러한 견해들은 문장을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거나 문법적규칙에 따라 배열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 리해하며 《일정한 사상적내용을 실체로 전달할수 있도록》 기능이 갖추어진 단위, 《일정한 사상적내용》을 문법적형식에 담아 나타내는 《말과 글의 기초단위》로 보았다. 이들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풀이성》이라는 보다 일반화된 것에서 찾았다.

문장의 본질을 내용과 형식의 통일속에서 고찰하고 문장의 기능을 일반화한 이 주장들이 우리 말 문장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견해들에도 문장의 본질적특성들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점이 있으며 문장의 기본표식을 《풀이성》

이라는 과학성없는 용어로 일반화한 제한성도 있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과학적으로, 긍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체계들을 전편적으로 고찰한 데 기초하여 문장이 지닌 본질적특성들을 분석일반화하여야 한다.

## 1.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체계들

문장이 사람들의 복잡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며 다양한 생활 화폭을 그려내는데 이바지하며 언어교체를 실현케 하는 기본수단으로 되는데로부터 거기에 여러 체계들이 반영된다.

무엇보다도 문장에는 문리-의미체계기가 반영된다.

문장이 문리-의미체계를 반영한다는 것은 문장이 일정한 재관 지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이며 사람들의 사유활동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문장이 담고있는 현실적의미이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 사물의 사유활동의 결과, 그리고 문장이 담고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의미가 반영되지 않고는 어떠한 문장도 성립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장은 언어교체의 단위인데 언어교체란 다름아닌 일정한 사상, 일정한 현실적의미를 전달하고 리해하는 과정이며 그 사상, 현실적의미란 바로 인식의 결과, 사유의 결과이기때문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리-의미체계기는 많은 경우에 판단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 보통계급의 수렴은 력사를 전진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온다.

○ 우리 나라 아름다운 나라이다.

3개의 실체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하고있으며 그 짜임이나 전달방식도 인연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3개 문장은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 현실적의미를 전달하고있는데서는 같다. 즉 이 문장들은 문리-의미체계기가 뚜렷하기때문에 완결성을 가진 신술단위로 되었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 사유의 형식인 단락을 통하여 표현되며 판단의 전형적인 구조는 현실적의미를 《제시+풀이》의

책임으로 나타내는데 있다. 이 3개의 문장은 이러한 단단의 구조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리-의미적 체계는 반드시 《제시+물어》의 짜임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시+풀이》짜임의 어느 한 편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진술내용이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요 완결된 것으로 안겨진다면 다 문리-의미적 체계를 담은 것으로 된다.

- 화장한 봄날의 별이 흠뻑 젖어 있다.
- 가도 가도 황금벌이다. 잔잔이 휘파람이 바람을 분다. 만물너이다.
- 4월의 꽃바다! 만경봉에 펼쳐진 약동의 화폭! 아름다운 그림 같다. 자연의 화경이나 현상을 묘사 또는 지적하는 이러한 진술내용도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고 일정한 완결성을 가지고 안겨오는 것이다. 그 짜임이 어떤 것은 《풀이》만으로, 어떤 것은 《제시》만으로 되어있지만 이 진술들은 문리의 의미적 체계를 뚜렷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자립적인 문장을 이룬다.

우리 말에 있는 독특한 구조의 문장(명명문, 무주어문, 불완전문, 단어문장)들이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표현화되지 않은 진술의 주자나 객자(또는 진술의 풀이)를 문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판단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문리-의미적 체계의 실재를 말하여주는 것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리-의미적 체계는 언어교체를 실현케 하는 모든 진술단위를 바로 문장으로 되게 하는 기초적 요소이다.

나름으로 문장에는 의지-심리적 체계가 반영된다.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 체계란 진술내용에 첨가되는 진술자의 의지적 욕구와 심리적 충동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문장에 의지-심리적 체계가 반영되게 되는 것은 언어교체의 특성 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교체란 진술자에 의하여 인식된 일정한 현실적 내용이 전달되면서 대화자의 일정한 반응은 무식으로 하는 의지적인 과정이다. 진술자는 이러한 반응을 위하여 진술에다 자기의 의지적 욕구나 심리적 충동을 첨가하게 된다. 이러한 의지적 욕구나 심리적 충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술에 더하는 주관적 체계이다. 이리하여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 체계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관적 체계의 표현으로 된다.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 체계는 문리-의미적 체계에 덧붙

기, 책임수도 있고 문리-의미적 체계와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스스로 표현화되는 것일 수도 있다.

- 인본+목적+목적은 무엇이 표준? 잊어 말아야 한다! ①
- 조성을 하나! ②
- 아, 이새에 한 필 손글씨를 읽네! 한가롭다! 풀이여! ③
- 비제는 조선에서 김장 물은 가라! ④
- 《앗! 조공하!》 ⑤
- 아령사? ⑥

이 여섯 개의 문장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짜임이나 진술방식도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6개의 문장은 진술자의 장단 의지적 욕구와 심리적 충동을 나타내고 있는 데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예 ①, ②, ③은 문리-의미적 체계기우에 의지적 욕구와 심리적 충동이 뒷받침되어 있다. 예 ④, ⑤, ⑥은 주로 의지-심리적 체계기우에 의지적 충동이 뒷받침되어 있다.

우에 든 예문들이 다 언어교체의 단위가요 통신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담담한 자립적 문장이지만 거기에 첨가되는 의지-심리적 체계의 표현성과 수법은 서로 다르다. 어떤 것들은 전일적인 문, 인구조와 인련의 특수한 언어수단들로 의지-심리적 체계기우를 표현하여 어떤 것들은 억양적 요소로(글에서는 문장부호로) 의지-심리적 체계기우를 물질화한다.

우리 말 문장에 담고 있는 모든 감정-정서적 내용과 색채, 진술자의 주성도로와 욕구 등은 다 의지-심리적 체계기를 이룬다. 우리 말의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약속문》, 《추동문》, 느낌문 등은 이러한 의지-심리적 체계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으로 된 언어행위에서는 대화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문리-의미적 체계기와 함께 의지-심리적 체계기들로 교체기능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에 반영되는 심리-의지적 체계는 언어행위를 더욱 풍만하게 하며 문장투형을 다양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또한 문장에는 반드시 문법적 체계기들이 반영된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법적 체계기란 민족어의 문법규칙에 따라 문법

적 수단과 수법이 이용되는 현상이다. 문법적 체계가 반영되지 않는 《진술단위》는 문장으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적 수법을 지닌 문법적 수단과 수법이 없는 《진술단위》란 《별거뿔은 본리》와 개념의 무질서한 라벨로만 된 문장아닌 《문장》이기 때문이다. 판단의 구조와 감정의 요소들은 오직 민족어의 문법적 수단과 수법으로 뚜렷한 문법적 형식을 갖춘 문장에 의해서만 끝맺이가 있는 것으로 실현된다. 문장이 갖춘 문법적 형식, 끝맺이가 있는 형식화야말로 문장에 반영되는 문법적 체계의 집중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장이 제대로 사상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되려면 문법적 체계가 높고 제대로 첨가되어야 한다.

그 구조와 유형에는 관계없이 모든 문장은 반드시 문법적 체계를 가져야 언어교체의 단위로써 존재한다.

- 학생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 이 편지는 반드시 남달음으로 나에게 가담하여야 한다!
- 만세!

문리-의미적 체계들로만 주로 엮어진 문장이나 문리-의미적 체계위에 의지-심리적 체계들이 덧씌워진 문장이나 의지-심리적 체계들만 주로 표현화된 셋째 문장이 다 문장론적 관제속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루어졌다. 문장론적 관제속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장론적 관제, 문법적 관제 속에 있는 단어들의 편제체로 문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체는 일정한 문법적 수단과 수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 문법적 수단과 수법이란 각종 지리토와 어술, 구조적 단위들의 연결방식 그리고 어암의 요소들의 체계 등이다. 위의 문장들은 문법적 체계들에 의하여 각각 문장의 직격을 갖추었다. 이하의 문법적 범주로서의 문장을 바로 문장으로 되게 하는 비결은 오직 문법적 수단과 수법의 실제, 문법적 체계의 구비에 있다.

문장이 다양한 구조와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에서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그 문장에 각이한 문법적 체계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문법적 체계야말로 문장의 민족적 특성을 규정하며 문장의 존재방식을 특정짓는 항구적인 징표이다. 이하의 문장의 문법적 체계는 모든 문장이 지니게 되는 필수적 요소로 된다.

문장이 남고 있는 이 모든 체계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통일되어 있다.

문장의 문리-의미적 체계들은 다른 모든 체계들이 실현되는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문리-의미적 체계가 없다면 의지-심리적 체계나 문법적 체계들이 바탕을 잃게 된다. 문리-의미적 체계를 바탕으로, 전제로 할 때 의지-심리적 체계도 더욱 뚜렷이 안겨오며 문법적 체계도 자기의 실질적 내용을 가지게 된다.

문장의 의지-심리적 체계는 문리-의미적 체계들을 더욱 윤색하며 언어교체의 효과를 끌어주는 요인으로 된다. 의지-심리적 체계가 덧붙음으로써 문리-의미적 체계, 문법적 체계들은 더욱 뚜렷이 안겨진다.

문장의 문법적 체계들은 문리-의미적 체계나 의지-심리적 체계를 신제적인 것으로 출질화해 주는 확고한 담보이다. 문법적 체계가 없다면 어떤 문장도 자기 《얼굴》이 없으며 형식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문법적 체계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문리-의미적 체계나 의지-심리적 체계란 사실상 공허한 것이다.

우에서 분리와 같이 모든 문장은 문리-의미적 체계들로 기초지어지며 의지-심리적 체계들에 의하여 더욱 풍만해지며 문법적 체계들로써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문장이 갖추게 되는 문리-의미적 체계, 의지-심리적 체계, 문법적 체계들은 문장의 본질을 제약하는 직접적 전제로 된다.

## 2. 문장의 본질

문장의 산물인 언어가 실제로 통신적 및 표현적 기능을 실현케 하는 단위는 문장이다.

문장도 민족적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형식을 갖춘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언어란 민족적 특성으로 가득 찬 언어, 민족어이다. 사람들은 민족어로 교제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목적의식적으로 꾸려나간다.

사람들의 언어교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그 언어적 환경도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정황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제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 언어가 리용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교체를 실현한다. 이

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교체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문장이다.

문장과 동떨어져있는 개별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언어교체를 실현시켜주는 전일적인 단위로 될수 없다. 문장만이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 되며 언어교체 실현의 현실적인 수단으로 된다.

그러면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이란 끝맺이가 있는 론리-의미적체계, 의지-설리체계 및 문법적체계들이 뚜렷한 전술단위로서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있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들로 완결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이다.

○ 아 내 나라 주해의 내 조국

수령님 모시고 같이같이 빛나라

○ 배누한! 조선의 기상을 간몸에 안은 조종의 산이여!

○ 흥년벌의 산들바람이 웃김을 가별게 달린다.

이 세계의 문장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때 없이 론리-의미적체계, 의지-설리체계, 문법적체계들을 통일적으로 갖추었으며 완결된 사상감정을 나타냈다는에서 공통적이다. 어떤 문장에서든 하나의 단어로 문장론적관계를 드러내고 다른 문장에서는 여러개의 단어결합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냈지만 각각 하나의 전술단위,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로 되어있다는데서는 공통적이다. 세 문장은 문장으로서의 특성을 손색없이 갖추었다.

만일에 이러한 전술단위들이 문장의 여러 본질적체계가운데서 어느 한 측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단어들의 기계적인 《리별》이나 무질서한 《배렬》로 된다. 단어들의 기계적인 《리별》이나 무질서한 《배렬》도는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

문장에 대한 이러한 리해는 다양한 문장의 구조적특성들을 분석일반화한데 기초하며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체계들을 통일시켜보고 모든 문장이 지니게 되는 기능을 일반화한것이다.

문장은 무엇보다도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완결된 사상이란 논리적으로 맞물리고 끝맺이가 뚜렷한 용구 사상이다. 완결된 사상이 없이는 어떤 언어교체도 성립되지 못하며 문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문장이 담고있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정

노, 이야기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호상관계, 판단의 구조 등은 다 완결된 사상을 전제로 하여서만 파악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진석이 담고있다. 현실적의미, 진술자의 의도, 인식된 결과 등이 사상의 완결성으로 하여 대화자(독자)에게 원만히 전달되어 파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의 완결성은 문장을 규정하는 첫째가는 본질적특성이다.

문장이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측면은 곧 문장에 반영되는 론리의미적체계의 구형이다. 문장의 론리-의미적체계가 문장형성의 기초적요소라는 리유도 사상의 완결성이 모든 문장의 본질적속성을 규정하는 전차적요인이라는 사실과 잇달아있다.

· 사상의 완결성은 상대적일수도 있고 절대적일수도 있다. 《흥년문》, 《생략문》 그리고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모든 《단일문》 등은 사상의 상대적완결성과 관련되어있는 반면에 알립문, 《완전문》 그리고 모든 복합문 등은 사상의 절대적완결성과 관련되어있다. 이 중간에 놓이는 모든 문장류형은 사상의 상대적완결성일수도 있고 절대적완결성일수도 있다.

모든 문장은 우선 사상의 상대적 및 절대적완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야 끝맺이가 있는 언어행위의 단위로 된다.

문장은 다음으로 일정한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사람들의 언어행위의 다양성은 복잡한 사상뿐 아니라 여러가지 의지나 감정의 요소도 나타낸다. 이것이 문장에 반영되어 문장으로 하여금 판단이외의 요소도 포괄하는 보다 복잡한 언어행위의 단위로 되게 한다.

문장에 포괄되는 감정, 정서는 단편적이거나 산발적인것이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지향성을 띠고 나타난다.

○ 아 일제나 친근한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우리들은 심장으로 높이 부르네 ①

○ 아 삼지연의 새벽길

태를 이어 빛나라 조선의 길이여 ②

○ 《이 강산이 피바다 될 때 이 나라에 형질이 이렇게도 없느냐고 소리쳐면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③

○ 흥년모배기를 어서 다그쳐가세! ④

이러한 문장들에서 감정과 정서, 의지적요소들은 문장의 어느 한 단어나 일부 구조적요소에만 실리는것도 아니며 문장의 끝에도

된다. 문장의 이러한 고유한 문법적형식이 없다면 문장은 실제상 재하지 못하며 따라서 조선사람의 교제수단으로 되지 못한다.

문장이 내용상으로 담겨 되는 완결된 사상이나 지향성있는 감정, 정서도 문법적형식에 의하여 물질적인것으로 안겨진다. 문법적형식화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상의 완결성, 그 어떤 감정의 지향성도 물기화될수 없다.

○ 주제, 태양, 따르다, 우리, 인민, 되었다, 맑다, 깨끗하다, 흥성, 나음, 슬기롭다, 기성, 인다, 온 나라, 활짝, 피다, 무란꽃

○ 방한, 한동안, 쉼, 흘렀다

첫째, 둘째 때에는 일정한 뜻을 담은 여러 어휘나 표현들이 잇달아 라렬되었다. 그러나 사상의 완결성이나 그 어떤 감정, 정서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정한 목적에서 선택된 어휘나 표현들이 아직 문법적으로 형식화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동일한 어휘나 표현을 문법적으로 형식화한 다음과 같은 문장이나 비교하여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문법적형식화가 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하는데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된다.

○ 주제가 태양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흥성의 피어나 슬기로운 기상을 안고 온 나라에 활짝 피무란꽃!

○ 방한에는 한동안 쉼이 흘렀다.

이와 같이 일정한 목적에서 선택된 언어적요소들은 문법의 관살 밑에 놓일 때 끝맺이가 있는 용구 사상감정을 전달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적형식화가 문장조직의 필수적조건이며 문장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중요요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야말로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합구적이며 필수적인 요인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곧 문장이 담고있는 문법적기질의 구현이다. 문장의 문법적기질이 모든 문장에 필수적이라는 리유도 바로 문장의 문법적형식화가 모든 문장을 문장으로 되게 하는 본질적정표라는 사정파 잇닿아 있다. 말하자면 문법적형식화는 문장의 모든 기질들을 실현시켜주는 귀결점이라고도 할수 있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도외 같은 형태론적수단론로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어순의 수법, 이음론적수단, 그리고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제약하는 모든 문법적 수단과 수법 등에 의하여 문법적형

는 어떤 단어의 표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것도 아니다. 문장 전체 구조를 통하여 칭송, 소원, 불탄, 흥취 등의 감정, 정서적요소들을 부각지향성있게 전한다.

감정, 정서는 모든 문장에 필수적인것은 아니나 사람들의 깊은 내면세계까지 반영하는 언어행위에서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이야기기들은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는 전술자의 호소, 대화자의 심진행되는 환경에 어울리는 여러 감정과 의지의 표현, 대화자의 심장을 부여잡게 하는 감탄과 감정적색채, 전술자의 강한 요구와 주장 등 모든 요소는 문장만이 담겨 되는 감정, 정서의 내용이다.

문장이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측면은 문장의 의지-심리적기질의 구현이다. 문장에 반영되는 의지-심리적기질이 모든 문장에 필수적인것은 아니나 교제의 목적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일부 유형의 문장에 뒷설리거나 스스로 담겨진다는 리유도 바로 목적지향성있는 감정, 정서의 요소가 문장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라는 사정파 잇닿아 있다.

우리 말에서 목적지향성있는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문장유형은 모든 느낌문과 시킴문, 추진문, 《약속문》, 《추동문》, 물음문이 더 그밖의 문장유형도 감정, 정서를 나타낼수 있다. 시킴문에는 주로 전술자의 의지가 반영되고 물음문에는 주로 의지-감정이 부여되며 느낌문에는 감정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진다. 그밖의 문장유형들에는 감정, 정서가 뒷설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우리 말 문장은 술어에 나타나는 문법적수단과 수법의 특성, 어순배열의 특성, 감정-정서를 나타내는 언어적수단들의 풍부성 등으로 하여 어느 나라 말보다 감정-정서적요소를 나타내는데서 자유롭다.

문장은 또한 문법적으로 형식화된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란 민족어의 문법규칙에 따라 문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것을 말한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는 문법적수단과 수법, 문장의 구성과 구조 등의 특성으로 구현된다.

모든 문장은 민족어에 고유한 규칙과 법칙에 따라 문법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문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조선어문장은 그 구성과 구조, 어순배열, 억양 그리고 문장론적판계의 각종 표현 수단과 수법 등으로써 고유한 형식을 갖추게



식화의 완전성이 실현된다. 이어이어 「반기식」의 기이기가 111  
하여 문장은 현실적으로 언어표세의 기본수단으로 된다.

○ 불은 혁명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부다지: 난관" 자체의 힘으로 불  
고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물, 혁명하는 인민들이, 유성 인본세이여 트쟁  
풍이다. ①

○ 만정대는 혁명의 요람 ②

○ 외표부태변인 더일군사적결탁 폭로 ③

첫째 때는 문장조직에 참가한 모든 단어들에 문법적형태를 갖  
추고 일정한 배열규칙에 따라 결합된 문장이며 둘째 때는 슬어어만  
토가 없고 다른것에는 다 토가 붙은 문장이며 셋째 때는 아무런 토  
도 붙지 않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문  
법적형식화가 완전하게 되어있다. 즉 둘째, 셋째 문장에서는 어순,  
어양, 진술구조 등이 통일되어 문법적형식화를 나타냈다. 조슬어에  
고유한 토의 앞맞출한 리용, 조슬어의 어순규칙의 적용, 조슬어에  
고유한 진술구조(주어를 나타내는 의존어가 앞에 오고 물어를 나타  
내는 주도가 뒤에 온다든지, 슬어는 반드시 문장의 끝에 자리잡  
는 다든지 하는것 등)의 특성, 조슬어문장에 고유한 억양의 요소들  
의 체계 등은 이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민일에 «나 아버지 언재 왔다. 알았다.», «대변인, 외교부,  
폭로, 미일군사적결탁»과 같은 «진술»이 있었다면 그것은 문법시형  
식화의 불완전성으로 하여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것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 이것은 문장조직에서의 민족적  
특성의 발현이며 사상의 완전성, 감정-정서의 지향성, 또는 문법  
적체계들의 명해성을 실지로 보장하는 물질적정표이다.

우리 말 문장은 문법적형식화의 수단과 방법이 매? 발전공부  
화된 특성을 지니고있다. 즉 문장구조의 다양성, 형태단어들의 체  
계적성격, 억양의 요소들의 풍부성, 진술형에 나타나는 구조-문법  
적특성 등은 우리 말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민  
음적인 요인으로 된다.

우에서 본 사상의 완전성, 감정과 정서의 지향성, 문법형식화  
의 완전성은 문장의 본질적속성을 이루는 기본내용들이다. 이 세가  
지 내용들은 초상 밀접히 통일되어 나타난다.

이 기본내용들 가운데서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은 문장의 본질

규정하는 한구적인 속성이다. 그것은 다른 측면, 즉 사상의 완  
전성, 감정과 정서의 지향성도 언제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에  
의하여서만 물질화되며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문장의 사명과 기능  
도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된다는 사  
정과 관련되어있다.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이야말로 문장을 바로  
? 장으로 되게 하며 다른 모든 문장론적단위와 구별해주는 항구적  
요인이다.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완전성은 문법적법칙으로서의 문장의 존  
재방식을 규정하는 물질적정표이며 문장의 기본포식을 확정하는 전  
체로 된다.

### 3. 문장의 기본포식

문장의 기본포식이란 문장을 다른 단위와 구별시켜주는 주되는  
포식이다.

문장의 기본포식을 어니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법  
학자들은 오래동안 논의하여왔다. 이러한 논의에는 문법적현상을  
· 하는 립장과 방법이 반영되었다.

로리주의적립장에 전 전해들은 문장의 기본포식을 판단의 구조  
와 관련시켜 고찰하였으며 형식주의적 립장과 방법을 고집하는 건  
레들은 종결슬어에 나타나는 진술형의 형식적수단들을 중요시하  
있다.

그밖에도 문장의 기본포식을 «주어+슬어»의 구조에서 찾거나  
이조-문법적통일체, 어음-의미적통합관계 등에서만 찾는 형식주의  
· 견해들도 있었다.

최근시기 우리 문법학제에서는 문법적립장에 서서 문장의 기본  
· 식을 찾아야 한다는 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진술내용의 현실에  
· 한 관계»를 문장의 기본포식으로 잡는 견해들이 많아졌다. «진술  
· 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슬어성», «붙어성», «진술성» 등의  
· 슬어도 일반화되었다. 그러면서도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  
· 내용이 그 표현을 설명하는 데서는 서로 다른 립장을 취하는 일  
· 사,

그러면 문장의 기본포식은 어디에 있는가? 즉 문장을 다루는 단

위와 구별시켜주는 주되는 표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문장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특성, 즉 문장내용을 현실적인것으로 파악케 하는 특성이 현실성이기이다.

현실성이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을 실제적인것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물질적 정표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문장이 나타내는 사상의 완결성,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정서 등이 문법적형식화에 의하여 물질적인것으로 안겨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의 각종 표식으로 구현되는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상의 완결성은 모든 문장이 지닌 기초적 속성이라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현실성을 나타내주는 언어적수단이 없이 《별거뻗은》상태에서 안겨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직 관념적형태로만 있게 되어 구체적으로 안겨지지 않는다.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정서도 그 자체로서는 현실적인것으로 안겨지지 않는다.

문장의 론리-의미적체계, 심리적체계, 문법적체계 등으로 통일된 현실적내용(현실적의미)은 오직 현실의 환경, 현실의 시간관계, 현실에 참가하는 인물관계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수단들의 노움에 의해서만 실지로 파악된다. 그러한 언어적수단이란 《진술형도》, 시간과, 말차림도, 암태적의미의 표현수단 등이다. 바로 이와 같은 언어적수단을 통하여 현실을 현실적인것으로 파악케 하여주는것이 현실성이기이다. 현실성이야말로 문장의 현실적내용을 실지로 파악케 하며 문장을 다른 문법적단위와 구체적으로 구별시켜주는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이와 같이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되는 현실성이란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며 이야기내용과 현실과의 관계, 이야기내용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기이다.

사람들은 객관적현실속에서 살고있는것만큼 서로 주고받는 말의 내용이 현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야만, 다시말하여 그 현실성정도가 물질적으로 표시되어야 그 문장내용을 실지로 파악하게 되며 언어표계가 이루어진다.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그 진술이 현실성을 띠는가가 되지 못하는가, 현실성을 띠는다면 어느 정도인가, 현실성정도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것 등을 확인하는것으로 표현된다. 진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현실성의 표현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 문장을 똑같이 그리고 똑바로써 이해하게 된다. 문장내용에 대한 똑같은 이해, 똑같은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원만한 언어교제가 실현된다.

○ 남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①

○ 조국은 맑은 아침의 나라이다. ②

○ 꽃은 아름답다. ③

첫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남조선혁명이 반드시 승리함》을 현실적인 사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필연성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진술이 가지는 현실성의 정도를 뚜렷이 하였다. 이 문장의 진술내용이 가지는 현실성정도는 《주자+한정+꽃이》의 구조와 《반드시》라는 어휘적수단과 진술역양이 붙은 《~한다》라는 진술형에 의하여 형식화되었다. 이 문장은 진술성을 갖춘 문장이다.

둘째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조권이 맑은 아침의 나라임》을 현실적인 사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긍정과 진리성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진술의 현실성정도, 실제적의의를 뚜렷이 하였다. 이 문장의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주자+대상적표식+대상적표이》의 구조와 《~이다》로 끝나는 진술형과 진술역양에 의하여 형식화되었다. 역시 진술성을 갖춘 문장이다.

셋째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꽃이 아름답음》을 현실적인 사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긍정과 향구적표식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진술의 현실성의 정도(실제성)를 뚜렷이 하였다. 이 문장의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는 《주자+표식적표이》의 구조와 《~다》로 끝나는 진술형과 진술역양에 의하여 형식화되었다. 여기에도 진술성이 표현되어있다.

세 문장은 어휘-의미적, 논리적 내용은 서로 다르고 그 구조와 언어적수단의 첨가정형 등도 다르지만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 현실성정도를 뚜렷이 하였다는데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이 진술의 현실성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어휘-문법적, 어음-구조적 수단을 가지고있다는데서도 공통적이다. 이와 같이 일련

의 어휘-분별적, 어음-구조적 수단들에 의하여 진술내용의 현실과 의 관계가 뚜렷해지는 특성, 즉 진술성을 가짐으로써 이 문장의 현실성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된다. 이리하여 언어교체의 전달 반응의 과정이 실현되었다. 다시말하면 이 세 문장은 각각 진술성의 표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술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달의 목적을 완전히 이룩한 것으로 되며 듣는 사람(대화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야기내용을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되게 한다. 이리하여 이 문장들은 상당한 언어교체의 단위로 현실화되었다.

이 사실을 동일한 진술내용, 동일한 문리적내용을 가진 다음과 같은 단위와 비교하여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 남조선혁명의 승리
-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 아름다운 꽃

이것들은 아직 단어들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사상의 단편》, 《개념의 묶음》을 나타낼뿐 그 어떤 완결된 판단도,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즉 이들 단어들합체가 나타나면는 진술내용이 현실적인 것인지, 비현실적인 것인지 혹은 필연적인 것인지, 희망적인 것인지, 당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 도무지 확인할 수 없다. 이들 단어들합체 들은 진술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리하여 단어들의 결합체로만 이루어진 진술로써는 실제적현실의 전달과 파악(전달-반응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것들은 언어교체를 실현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언어교체의 단위로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앞에서 해로운 세계의 문장은 각각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체와 그 문리적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내용을 현실과 관계를 맺게 하여주는 표식, 진술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훌륭한 언어교체의 단위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술내용이 현실과 맺는 관계를 문법적으로 형식화 하는, 즉 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범주가 바로 진술성이다.

진술성이 진술내용을 현실에 귀착시켜주는 성격은 여러 가지이다. 즉 진술내용의 현실성 정도는 비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진술자에 의한 평가로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과 긍정의 관계로만 표현된

누적일 수도 있다.

모든 문장부형은 그것이 문장 부형의 특성에 따라 문장의 현실성이 진술성을 가진다. 이때 문장의 현실성이 진술성이 아니라 다른 수 있다.

- ① 사가문(사)는 단(단)부형이다.
- ② 시(詩)는 시(詩)부형이다.
- ③ 노래(歌)는 노래(歌)부형이다.
- ④ 시조(詩調)는 시조(詩調)부형이다.
- ⑤ 시구(詩句)는 시구(詩句)부형이다.
- ⑥ 시구(詩句)는 시구(詩句)부형이다.
- ⑦ 시구(詩句)는 시구(詩句)부형이다.
- ⑧ 시구(詩句)는 시구(詩句)부형이다.

예컨대 시(詩)의 장이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 문장의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문장부형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진술성(言說性)은 단어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문장부형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즉 은은히도 수리용이 천성들"은 시구(詩句)의 현실성을 가진 것일 수 없다.

문장론적 범주로서의 양태성은 무엇보다도 일정한 언어적 범주이다.

소위 관념의 형성

이러한 과정과 부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은  
한 인본주의 철학이다. 즉 관념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어떠한 과정도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자성은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인본주의 철학의  
특징, 의욕, 추경, 의욕 등)나 이와 같은 사람의 의욕, 의욕, 추경,  
내면적화와 관계(의욕,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를 다룬다.

- 1) 양자성의 형성
- 2) 양자성의 형성
- 3) 양자성의 형성
- 4) 양자성의 형성
- 5) 양자성의 형성
- 6) 양자성의 형성
- 7) 양자성의 형성
- 8) 양자성의 형성
- 9) 양자성의 형성
- 10) 양자성의 형성

이러한 과정과 부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은  
한 인본주의 철학이다. 즉 관념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어떠한 과정도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자성은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인본주의 철학의  
특징, 의욕, 추경, 의욕 등)나 이와 같은 사람의 의욕, 의욕, 추경,  
내면적화와 관계(의욕,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를 다룬다.

이러한 과정과 부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은  
한 인본주의 철학이다. 즉 관념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어떠한 과정도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자성은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인본주의 철학의  
특징, 의욕, 추경, 의욕 등)나 이와 같은 사람의 의욕, 의욕, 추경,  
내면적화와 관계(의욕,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를 다룬다.

관념론의 형성

이러한 과정과 부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은  
한 인본주의 철학이다. 즉 관념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어떠한 과정도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자성은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인본주의 철학의  
특징, 의욕, 추경, 의욕 등)나 이와 같은 사람의 의욕, 의욕, 추경,  
내면적화와 관계(의욕,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를 다룬다.

- 1) 양자성의 형성
- 2) 양자성의 형성
- 3) 양자성의 형성
- 4) 양자성의 형성
- 5) 양자성의 형성
- 6) 양자성의 형성
- 7) 양자성의 형성
- 8) 양자성의 형성
- 9) 양자성의 형성
- 10) 양자성의 형성

이러한 과정과 부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은  
한 인본주의 철학이다. 즉 관념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어떠한 과정도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자성은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인본주의 철학의  
특징, 의욕, 추경, 의욕 등)나 이와 같은 사람의 의욕, 의욕, 추경,  
내면적화와 관계(의욕,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를 다룬다.

이러한 과정과 부속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은  
한 인본주의 철학이다. 즉 관념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어떠한 과정도 부정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양자성은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형성에서 인본주의 철학의  
특징, 의욕, 추경, 의욕 등)나 이와 같은 사람의 의욕, 의욕, 추경,  
내면적화와 관계(의욕,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 의욕, 추경)를 다룬다.

설치 기구로 이루어져서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정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이  
것은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립식 제품(조립식 가구, 조립식 기계 등)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다. 조립식 제품은 운송과 보관이 용이  
하며, 사용과 수리가 간편하다. 또한, 조립식 제품은  
디자인의 자유를 허용하며,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조립식 제품은 조립 과정이  
필수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립 과정의  
간편함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조립 지침과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립식 제품의  
구조와 조립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립 과정의 단순화와 조립 시간의 단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조립식 제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의 선택과 조립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에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조립식 제품의 구조와 조립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적 감각과 과학적  
감각의 조화를 이룬다. 미적 감각은 아름다움의  
추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감각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 두 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정의 관리를 용서장본원 : 피아기 내이기 : 포판내용 : 과학적  
 ...  
 ...  
 ...

《어셈》이라는 용어는 문장 성분인 《어》의 기능 : 수행하는  
 ...  
 ...  
 ...

《어셈》의 기능 : 문장 성분인 《어》의 기능 : 수행하는  
 ...  
 ...  
 ...

《어셈》의 기능 : 문장 성분인 《어》의 기능 : 수행하는  
 ...  
 ...  
 ...

《어셈》의 기능 : 문장 성분인 《어》의 기능 : 수행하는  
 ...  
 ...  
 ...

다음으로, 진술성 표현의 물질적표식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리해특  
 확립하여야 한다.

진술성 표현의 물질적표식을 종결술어와 맺음형이 세만 찾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역시 문장론적표식의 형태론적표식주  
 의 표현에 해소시키는 것으로 된다.

조선어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특히는 억양의 민족적특성을  
 고려한다면 맺음술어와 미음술어의 다양한 형태, 《어간형태》, 《두  
 형태》 등에서 진술성이 집대성된다고 볼수 있다. 이들 술어의 다양  
 한 형태를 다 《진술형》으로 일반화해도 좋을것이다.

- 우리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맺음형-진술형) ①
- ②. 세과에서 오는 끝이타면서? (미음형-진술형) ②
- ③. 동사부 잘 지라면 끝은은 거름이 많아야 한다. (미음형, 미음형-진  
 술어) ③
- ④. 나는 실행사, 너는 실행. (어간형-진술형) ④
- ⑤. 봄비나 겨울 시내를은 풍물. (《무형태어》-진술형) ⑤

진술성을 나타내노 억양을 《물어억양》이라 하고 종결술어에만  
 떨어지는것으로 리해하는것도 잘못이다. 이것은 선불-물동적전일  
 체인 억양과 선불-물동적요소인 억양의 요소를 혼동한데서 나온  
 잘못이다. 진술대류의 현실성정도를 나타내는데 적용하는 억양은  
 오직 진술억양이며 그것은 문장구조전체와 관련되어있는 현상이다.  
 진술억양은 진술성 표현의 항구적인 표시이다.

진술억양은 문장의 구성요소소들의 내적통일을 실현하며 질서내용  
 과 현실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주며 문장의 양태적류형도 지라준다.  
 진술억양은 문장이 통인적기능을 수행하도록 높낮이선과 물동  
 으로 문장구조전반에 조적색을 더하여주면서 사상잡정을 목적지함  
 성있게 전달하도록 한다. 진술억양을 이루는 요소물로서는 말소  
 리의 높낮이, 시기, 정단, 휴지, 음조, 유색, 그리고 뜻마루 등  
 이다.

진술억양은 문장의 문법적형식화의 힘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진술성 표현의 항구적인 표시으로 된다. 억양이 문장적 항구적인 표  
 식이타고 하는것도 바로 진술성 표현의 항구적표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다음으로 진술성과 양태성의 표상판제론을 ...





... (faded text) ...

1. 언어학의 어휘학의 의미의 상관성

... (faded text) ...

... (faded text) ...

1. 언어학의 어휘학의 의미의 상관성

... (faded text)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부속 9 절...)

조절어에서 문장에 들어가서는 단어들의 형태상 특성, 어울리는 단어들의 차례, 단어조성특성 등이 문장론적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밀박타에는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작용한다. (예:○일밖에 모르는 부지런한 솜씨, X 부지런한 일밖에 모르는 솜씨)

문장론적단위들의 어휘적의미가 나타내는 상관성은 이와 같이 모든 문장론적관계를 제약하는 기초적조건의 기능도 띠어

다음으로, 조절어에서 문장론적단위의 구체적인 기능도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따라 확정된다.

동일한 모든 문법적형태는 문장에서 동일한 문장론적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예를대 《그림에》, 《우리 나라에서 근의 위치》에서의 《그림에》, 《우리 나라에서》는 규정적인 관계로 되지만 《그림에》 이후의 《우리 나라에서》는 상황적관계로 되며 《반장동무의 집》에서의 《반장동무의》는 《집》과 문장론적관계를 맺으나 《반장동무의 부지런한 일솜씨》에서의 《반장동무의》는 《부지런한 일솜씨》 전체와만 맞먹린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문장단위의 기능론 확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론적단위들의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은 이와 같이 그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해주는 뚜렷한 요인으로도 된다.

이상에서 본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각론적관계를 제각각 특성으로 조절어의 신속·정확성을 보여주는 표현의 하나로 된다. 다른 여러 조절어에 있는 문장론적관계의 표현을 관찰하는 데서 분명히 할 착안점의 하나가 있다.

(참고) 위에서 이야기된 어휘적의미의 상관성도 다른 어휘론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안된다. 이렇게 어디 어휘적의미가 문장론적관계의 표시가 되고요한다. 문장론에서는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이 문장론적 단위의 문장론적관계의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하다.

### 2.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단어형태

조절어에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생산적인 수단은 단

어 형태이다. 조절어의 단어형태는 주로 단어의 줄기(이간)에 붙는 자리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부 도움토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문장론적관계의 구체적인 표시자는 맺음형, 이음형, 규정형, 상황형의 토들과 격토출어다(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같은 《형태단어》들은 토의 도움이 없이 어휘적의미의 상관성과 어음으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단어는 문장언어에서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면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면계의 기능, 해당 단어의 문장론적지위를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사립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의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여기서 7개의 단어는 다 형태단어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 단어들은 이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 확대보어, 규정어, 술어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단어결합체안에서의 상관관계도 나타낸다. 동시에 《사립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의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와 같은 단위들의 위치를 규정한다. 이것이 이 문장의 형태단어가 문장론적관계표현에 작용하는 기능이다.

단어의 형태체계가 매우 발전된 조션어에서는 문장론적관계의 정밀한 차이가 거의나 토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성이 있다. 맺음형, 이음형, 규정형, 상황형이라는 형태론적범주 자체가 주로 용언적품사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하며 격토가 거의나 색연적품사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하여준다는 사실 등은 더 조션어의 단어형태가 지니는 문장론적관계포시의 기능이 매우 정밀하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차리토에 의하여 표현되는 조션어단어형태의 고유한 특성은 특히 단어의 내부적형태와 의적형태의 호상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참고) 단어의 의미구조를 이르는 《내적형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내부적형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내부적형태는 문장안에 들어가는 두개의 자립적단어사이에서 의존어(שלמער)가 지니는 형태이다. (예:맑은 아침, 책을 읽다)

이 내부적형태는 두 단어들사이의 문법적면계의 성격과 해당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하면서 단독으로 변화체계를 가지나 (맑은, 맑을, 맑던, 맑고...)언어행위의 실현된 고리에서는 변화체

를 가지지 않는다. (맑은 아침이, 밝은 아침에, 맑은 아침을...)

외적형태는 문장안에 들어가는 두개 이상의 자립적단어들사이에서 의존어가 단어결합이나 그 이상의 전개된 단위로 되었을 때 도어(지배어)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예: 맑은 아침의 나라, 재를 읽는 학생...)

이 외적형태는 단어결합과 단어(또는 단어결합)사이의 문법적 관계의 성격과 그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해주면서 자기의 변화체계를 가진다(예: 맑은 아침의 나라. 맑은 아침에 산보한다. 맑은 아침을 맞이하였다...). 이 외적형태로 이루어진 단위가 또다시 다른 단어에 지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내부적형태로 변한다. (예: 맑은 아침의 나라에 사는, 맑은 아침의 나라를 찾은...).

이와 같이 조선어에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내부적 형태와 외적형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즉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확해진 구조에서 한 단계 낮은 질서의 외적형태는 그보다 높은 단계의 질서의 내부적형태로 되며 한 단계 높은 질서의 문장론적단위의 내부적형태는 언제나 그보다 낮은 질서의 문장론적단위의 외적형태로 된다. 그리고 모든 내부적형태는 그 자체가 언어행위속에서 변화체계를 가지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이것은 하나의 법칙적현상으로 된다.

(붙임) 예언, 행동동사, 행동사 등이 격변화체계를 가지는 일부 인도-구라파어의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의 변화관계는 다르다. 즉 거기에서는 내부적형태나 외적형태가 동시에 변한다. (예: 포어에서의 КРАСИВЫЙ ДОМ, КРАСИВОГО ДОМА, КРАСИВОМУ ДОМУ...)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조신어단어형태에 작용하는 이상과 같은 법칙적현상으로부터 문장에서 주도어(지배어)의 문법적형태는 해당 단어의 형태로 되면서도 기능이 있어서는 그앞에 있는 일부 또는 모든 단위에 작용한다는 특성이 나타나온다.

- 맑은 아침의 나라인 조선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날로 늘어만 간다.
- 지배인과 기사장과 부지배인이 번갈아 내려왔다.
- 누가 미끼가까 묻는다.

조선어의 외적형태는 내부적형태보다 더 다양한 형태를 띠며 각종의 《합성트》로까지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할수 있다는 특성도 바로 우와 같은 법칙적현상과 관련된다.

○ 경제에서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문법에서는 특별히 단어의 문법적형태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형태론적형태와 문장론적형태로 나눈다. 형태론적형태란 바로 단어의 한계안에서 나타나는 형태이고 문장론적형태란 단어밖에서(단어 결합이나 문장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위에서 제 모든 모든 내부적형태는 물론, 외적형태도 다 형태론적형태이다.

그러나 일부 인도-구라파어와 같이 단어결합에서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가 동시에 각각 변화체계를 가질 때 문장론적형태를 가지게 된다.

조선어에는 이러한 문장론적형태가 따로 없이 단어에 내속된 형태가 앞에 있는 전일적인 단위에 작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즉 문장안의 위단위가 앞단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모두들 공감신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었다.

○ 이달도 경쟁에서 이겼답니다.

우에서 본 단어의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의 특성, 형태론적형태의 문장론적기능의 특성은 조신어의 단어형태가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데서의 특성을 말하여준다. 특히 단어결합관계에서 마지막 단어가 그앞의 의존어에 대하여 문법적으로 통솔하는 특성은 조신어의 형태론적형태가 지니는 기능의 다양성을 말하여준다.

조선어 단어형태의 풍부성과 그 기능의 다양성은 동시에 조선어에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3.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어

(붙임) 여기서는 보조어, 즉 보조적단어를 넓게 잡았다. 그러하여 자립적단어에 보조적으로 붙어서 그의 문법적의미를 보충정밀화하는 모든 단어를 이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문법적관계,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인 보조용언, 능완진경사, 접속어(접속부사, 접속적기능을 노는 용인파제언의 접속형으로 된 단어...), 《특수어》(단어결합체로 된 보조적단어) 등을 들수 있다. 이렇게 보조어를 넓게 잡으려는 이들 단어들의 문장론적기능을 중요시한 까닭이 있다.

단어의 형태체계가 매우 발전하여있고 그 기능이 또한 다양한 조신어에서 보조어는 원래 문법적의미의 표시자, 문장론적관계의

표현수단으로 널리 쓰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조어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단어는 자립적 단어, 완전의미의 단어로 쓰이면서 어휘적의미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도 그것들은 상당한 정도로 어휘적의미를 간직하고 법화과정에서 들어가고 있다. 어휘적의미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문법화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조건어보조어가 인도 구라파어의 보조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어의 분석적형태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조건어에서 보조어가 첨가되는 문장론적단위는 분석적형태에 들어가지 않으며 《자립어+보조어》의 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체로 있게 된다. 이때의 자립어나 보조어가 각기 자기의 문법적형태를 가지며 기능상으로만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조건어에서 보조어는 어휘 문법적단위로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된다.

조건어에서 보조어는 오늘에 와서 문장론적관계표현의 생산적 수단인 하나로 되고 있다.

- 모두다 한사람같이 보내기전투에 펼쳐나섰다.
- 덩과 수령을 위하여 한류술 비쳐자.
-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각별히 깊었다.
- 도착하자 바람으로 일터 달라붙었다.

보조어가 나타내는 문장론적관계는 단어와 단어, 단어결합과 단어(또는 단어들의 결합), 문장과 문장들 사이의 원관관계로 될 수 있다.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하는 보조어와 관련하여 그 형태를 어떻게 리해해야 옳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즉 보조어들이 나타나서 곁행태, 규정형, 이음형, 상활형 등을 화석화된것으로 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변화체계속에 들어있는 형태단어의 하나로 보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조건어의 보조어 가운데서 일부 《무형태단어》로 된 접속어, 불완전명사, 《특수어》들을 내놓고는 거의 모두가 하나 또는 몇개의 제한된 지리로나 도울도론 가진다. (예: ~t 대로, ~는 통에, ~는 바람에, ~노처에, ~에도 불구하고, ~에 관한(관하여), ~를 위하여(위한), ~나다 손치며라도,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만, 혹은, 또는...)

보조어가 격형태, 서술형 등 형태변화체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면 자립적인 형태단어로 될것이고 따라서 문법화되었다고도 말할수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형태단어란 다른 단어와의 문장론적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형태체계를 가지는 자립적단어이기때문이다. 자립적단어가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보조어가 하나의 격형태, 서술형을 가지는 경우는 그것을 화석화된 형태로 보고 형태변화체계를 가지지 않는 비자립적단어로 다루어야 할것이다(예: 흥분된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본래로 이야기하다...). 이것들은 《무형태단어》(《무정형》)와도 다르다. 《무형태단어》는 부질에 있어서 자립적단어에 고유한 원상이다. 일부 보조어가 《무형태단어》로 된것이 있는데(예: 후, 또, 및, ~는듯, ~는커녕, ~는 한...)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무형태단어》인것이 아니라 형태체계를 가지는 자립어들의 일정한 형태가 《용축》되어 있거나 《들어든》 《무형태》일 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조건어의 보조어는 기본적으로 화석화된 형태를 가진 문법화의 언어요소들이라고 할수 있다.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어와 관련하여 또한 그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를 어떻게 리해해야 옳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즉 보조어에 붙는 자리토에 문법적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어전체(토까지 포함한 전일체)에 문법적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조건어보조어는 어휘론적 및 문법적 특성으로 보아 그 대부분 이 문법화과정에 있는것이라는 사실과 그것들이 화석화된 형태를 가진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조어전체가 하나의 문법적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서도 보조어의 자리토에는 그 토가 가지고있는 고유한 문법적의미도 보존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기능은 일정하게 자리토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볼수 있다.

문법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디는것자체가 인도-구라파어의 절속사나 전치사 및 계사 등 보조어와 다르며 보조어의 자리토는 그것 혼자서는 아무런 관계도 나타내지 못하며(특히 자립적단어에 이미 자리토가 있는 조건어에서) 보조어가 나타내는 어휘적의미는 문장론

적판계에 상당한 작용을 줄다. 결국 조선어의 보조어는 어휘적의미를 다분히 가진 문장론적판계의 표시자이다.

토제계보다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 문장론적판계표현의 생산적인 수단으로 되고있는 조선어의 보조어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보유하면서 그 문장론적기능을 더욱 정밀화하여가고있다.

문장론적판계표현에 정사를 붙여나라 보조어도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은 우리 말의 풍부한 점의 하나이며 우리의 언어생활을 더욱 정밀화하여주는 요인의 하나이다.

#### 4. 어 순

문장론적판계는 어순의 수법에 의해서도 표시된다.

어순이란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관습에 의하여 굳어지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단어들의 배열순서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배열순서에는 그 민족어에 고유한 규칙이 적용한다. 이것이 어순의 민족적특성이다. 어순의 민족적특성이 바로 그 민족어에만 고유한 문장론적판계의 표시로 된다.

조선어문장에는 조선인민에게 한결같이 리해되고 인정되는 어순배열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문장론적단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적용한다.

토제계가 발전되어있고 보조어도 상당한 정도로 풍부하다 하여 어순배열이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토제계가 발전되고 보조어가 풍부할수록 거기에 알맞는 어순의 질서가 있는것이다. 더우기는 조선어에《무형태단어》,《무성형》의 단어들에 많고 문장론적 단위들이 필요에 따라《어간형태》,《절대격형태》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조건에서 어순의 의의는 자못 크다.

자유로운 어순배열의 특성을 지니는 우리 말에서 어순은 기본적으로 문체론적기능과 문장론적판계를 다 나타낸다.

조선어어순이 나타내는 문장론적판계만 어순배열에 의하여 해당 문장론적단위들의 지위가 결정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민족어에 고유한 정상어순에 의하여 보장된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

로 일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투쟁의요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①

○ 산들산들 봄비같은 새싹들이 흠트는 농촌풍경을 한결 혼돈하게 하였다. ②

○ 데회참가자들 한결같이 미제국주의침략책동 규탄 ③

우의 데에서 문장을 이루고있는 단어나 단어결합체들을 열거하면 그 어순이 자유로운것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는것을 알 수 있다.

예①과 같이《~것은 ~이다》라는《논리적구조의 문장》에서는《제시》부분과《활어》부분의 순위가 바뀔수 없고《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것은》이라는 단어들의 결합체안에서도《당원들과 근로자들이》를 내놓고는 다른 단어들의 순위가 합부로 바뀌지 않는다.

예②에서와 같이《새싹들이 흠트는》이라는《구》를 가진 문장도 그《구》와 직접 문장론적판계를 가지는 단위들의 순위는 바뀌지 않으며 다른 단어들도 까닭없이 순위를 바꾸지 않는다.

특히 예③과 같이 대부분의 단어들에서《무형태단어》,《어간형》,《절대격형》으로 된 문장에서 어순을 합부로 바꾸면 단위들의 문장론적판계가 달라지거나 뜻이 모호해진다(예에 따라서는 뜻이 파악되지 못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문장론형에 따라서 어순배열의 규칙이 엄격한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엄격성이 덜한것도 있다. 이것은 조선어어순배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며 민족성의 언어생활관습의 반영이다.

어순의 이동판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에도 어순의 문장론적판계표현의 기능은 보존되며 그 밖에 다채로운 문체론적색채까지 나타낸다.

○ 가없이 맑은 가을의 날씨는 풀너는 농촌별을 시원스레 감싸주었다. ④

○ 우리는 어제도 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⑤

○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부러울것없이 자라며 배운다. ⑥

이와 같은 문장들에서 일부 단위들(또는 모든 단위들)의 어순을 바꾸면 그 문장론적판계는 변하지 않으나 문체론적색채는 달라진다. 문장론적판계가 변하지 않고 문체론적색채가 달라진다는것은

문장론적기능의 보존과 뜻밖의 정밀화를 말하여주며 여술이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어술의 이능은 제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의 관습에 따  
라 굳어진 일정한 《규범》에 맞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조신어어술의  
수법이 문장론적관계표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다.

조신어에서 의존어가 주도어(지배어)의 앞에 자리잡는다든지,  
확대된 단어결합체로 된 단위는 그의 주도어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든지, 《의미적원관》이 가까운 단위일수록 서로 가까이 배열된다는  
지 하는 특성도 어술의 문장론적관계표시의 기능을 제양하는 요인  
으로 된다. 이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단위들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며 하나의 기능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같은  
현상도 생기나온다.

이와 같이 어술의 수법도 조신어에서 문장론적단위의 문장론  
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법의 하나이다. (어술이 바뀔면서 문장론적관  
계를 달리 나타내는 특성에 대하여서는 제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 5. 의 양

문장론적관계는 의양의 수법에 의하여서도 표시된다.

의양이란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배치통일을 보장하며 동시에 구  
성단위들의 구회를 지어줌으로써 문장론적단위의 기능을 잘라주는  
선물-물동적통일체이다. 선물-물동적통일체인 의양을 이루는 요  
소는 이란 말소리의 높낮이선, 길고짧음, 세기, 휴지, 음색, 음조,  
·뜻마루 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말은 튼튼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의양도 좋으  
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김일성동지작집》 18권, 1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마와 같이 우리 말은 의양도 좋으  
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의 의양이 좋다는 것은 그를 구성하고 있는 의양의 요소  
들이 알맞춤하게 갖추어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의양의 여러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론적기능이다.

의양의 문장론적기능에 의하여서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내적통일이 이  
루어지고 의양의 요소들의 모소들에 의하여 문장론적단위들의 구획이 서어  
진다.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문장론적관계란 여러 측면을 담고  
있다. 문장의 구성성분들이 현실과 맺는 관계, 문장안에서 여러 단  
위들이 호상 관련되는 관계, 문장에 반영되는 여러 계기들의 호상  
관계 등이 그것이다. 의양은 바로 다른 문장론적 수단, 수법과 함  
께 이러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내적통일과 구획을 뚜렷이 하는데 이바지한다.

의양은 무엇보다도 문장 또는 그 구성단위들의 현실과의 관계  
를 뚜렷이 하여준다.

○ 기상 1 ①

○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②

○ 《아, 최물이 꼭꼭처럼 쏟아져서 구만요!》 ③

첫째 예문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문장으로 되는 것은 《기상》이라는 단어와 현실과의 관계가 구획되었  
기때문인데 이때 그 현실과의 관계는 바로 다급한 선물로 된 진술  
의양이 나타나며 준다.

둘째 예문에서의 확실-필연성의 현실적관계는 일정한 뜻마루  
를 가진 진술의양에 의하여 구획되었다.

셋째 예문에서의 감정-정서적계기, 양태성의 표시는 일련의  
의양의 요소들의 통일로써 훌륭히 구획되어졌다.

이와 같이 의양(이때는 진술의양)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재료를  
과 현실과의 관계를 뚜렷이 표시해줌으로써 문장의 기본포식인 진  
술성을 형식화하여 준다.

의양이 문장형성의 항구적포식의 하나로 된다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장의양의 이러한 기본기능으로부터 문장의 양태적  
류를 구분하는 의양의 기능도 나온다. 이러한 동일한 구조, 동  
일한 형식으로 된 문장이라도 의양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  
적류형으로 된다.

○ 북비가 내리오, (살림문)

○ 북비가 내리오? (물음문)

○ 북비가 내리오! (느낌문)

역양은 다음으로 문장의 구성단위들의 문법적연계의 상관하는 단위들의 문장론기위치를 규정해준다.

우리 말 역양의 요소들은 접속 또는 병립의 방식으로 연결된 문장론적단위들의 문법적연계와 문장론적기위를 규정한다.

○ 생산도 화합도 생활도 합일유격대식으로!

○ 가정과 마음과 일터에는 위생문화적환경이 훌륭히 마련되었다.

○ 나라와 민족, 언어와 풍습, 언어와 풍습, 지역과 거주지를 말리하는 그분이였지만 주체사상을 실행하는 데서는 한결같았다.

첫째 째는 병립의 방법으로 세계의 단위가 연결된 것이고 둘째 째는 접속의 방법으로 연결된 세계의 단위가 하나의 단위(「마련되었다」)에 관계한 것이고 셋째 째는 접속과 병립이 얽혀서 연결된 문장단위이다. 이 모든 경우에 접속과 병립을 형식화해주며 매개 단위의 문장론적기위를 규정해주는 것이 단어형태와 함께 역양의 요소들이다.

조선어에서는 역양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 단어결합, 「구」, 「단일문」도 연결하는 문장론적수법으로 된다(이때 다른 문장론적수법이 함께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역양은 또한 문장의 개별적구성단위의 성격을 밝혀주는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한다.

○ 어케 어버지가 도착하셨나?

이 예문의 세계 단어가운데 아무것이나 뜻마루가 오고 그 뒤에 휴지가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어가 특별히 구획되는 데서 기에 「전술의 무계」가 떨어져지며 답변도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예: 「예, 어제입니다.」, 「예, 아버지입니다.」, 「예, 도착하셨습니까」)

이때 역양의 요소들인 뜻마루와 휴지로 표시된 문장론적관계는 문리-정서적강조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그 밖에도 역양 또는 역양의 요소들은 문장에서서 어음-의미적단위인 통합을 구획하고 문장의 현실-론리적성분화를 돕는 것과 같은 문장론적기능을 나타내며 음색, 어조 등 요소들은 문장의 정서적색채를 나타내는 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붙임) 언어행위에서 일정한 감정-정서적체계를 나타내는데 작용하는 역양의 요소를 어조라고도 한다. 적지 않은 문법책들에서 역양과 어조를

구분하여 쓰지 않고 있는 데 이것은 과학적태도라 할 수 없다. 역양은 보다 넓은 폭을 가지는 개념이며 어조는 역양의 구성요소로서의 음색과 음조가 통일되어 주로 감정-정서적색채를 나타내는 선율-음용적요소이다.

예컨대, 「홍분된 어조」, 「성난 어조」라고 할 수는 있으나 「홍분된 어양」, 「성난 어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어조)가 전일적인 전술역양의 구성요소인 선율-음용적요소임에 반하여 다른 하나(어양)는 전체 문장의 내용과 관련된 선율화이 선율-음용적요소임에 이르는 것을 말하여주는 범주로 된다.

어조는 역양의 한 요소이다. 역양은 어조도 포괄하는 전일적인 선율-음용체이다.

문장론적관계를 표시하는 역양은 많은 경우에 다른 문장론적수단과 함께 작용하며 드물게는 단독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역양은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역양은 음악적 선율과 리듬이 드러난 것처럼 전인성을 가지고 민족성원들의 미감에 적극 작용한다. 조선어는 좋은 역양을 가지고 있는 발전된 언어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문장안에서 단어들의 어휘적의미가 맞물리는 특성을 고찰한 데 기초하여 조선어의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단(단어 형태, 보조어)과 수법(역양, 어순 등)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통일되어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서 문장의 구성단위들을 연관시키거나 구획한다. 이러한 연관, 이러한 구획이 있어야만 문장의 뜻과 악이 가능하다.

### 제3절.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

문장을 잘 짜고 문장의 뜻을 푼바르 리해하자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구획을 잘 짓고 그 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구획을 잘 짓고 그 기능을 잘 알자면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단위문계를 정확히 풀어나가야 한다.

문장의 구조적요소들이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단위들의 총체이다.



문장의 구조적 요소들은 그 성격과 질서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문장의 직접적 구성요소로서 관계단 높은 질서에 놓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문장의 간접적 구성요소로서 관계단 낮은 질서에 놓이기도 한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제로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서로 다른 질서에 놓인 문장의 구조적 요소들에 관한 문제이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제로에 대한 좋은 이론적해명은 문장의 구조적 요소들에 적용하는 합법칙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고리를 이룬다.

(붙임) 문장의 구성성분, 구성제로 또는 문장의 구성요소, 구성단위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밝히지 않고 누누 뒤어쓰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개념들의 차이를 명백히 짓고 있다.

문장의 구성성분은 문장의 직접적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구성제로는 주로 문장이 간접적 구성요소로 의미한다. 그리고 구성요소는 또는 문장론적 단위를 이루는 구조적 요소들을 말하며 구성단위는 일정한 단계적 질서에 놓인 구조적 요소들을 말한다.

### 1. 문장의 구성성분, 구성재료의 개념과 그 호상관계

모든 문장구조는 자기의 구성성분과 구성제로로 이루어진다.

문장의 구성성분이란 친일적인 문장구조안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다. 조선훈어의 경우에 그것은 문장성분으로 된다.

○ 우리의 학임명하는 당사상사형의 원은 무기이다.

○ 한글말에 넘치는 어미의 그 사랑 편지를 한품에 알아줍니다.

이 예들에서 문장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여럿인데 친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서로 상관하는 단위는 각각 다섯개이다. 즉 다섯개의 구성성분,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졌다.

문장의 구성제로만 친일적인 문장구조와는 관계없이 문장구성 이전에 이미 주어진 소재로서 문장의 《전축》제로 되는 단위이다. 조선훈어에서 문장의 구성제로는 문장론적 관계속에 놓여간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이다.

○ 조엄란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온, 조선혁명의 질우에서 이룩된 모든 변혁들과 빛나는 성과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힘도를 여니 서는 생각 할수 없다.

○ 달빛이 우 은 화계 비쳐드는 별실안은 흔흔하였다.

(붙임) —은 구성성분(문장성분)을 표시하며 —은 구성제로(단어 또는 단어결합)를 표시한다. —는 구성성분과 구성제료가 일치하는 경우로 된다.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들은 다 문장의 구조적 요소들을 이루지만 그것들은 서로 질서를 달리하는 단위들이다.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이 친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나눈 상관단위라면 구성재료(단어 또는 단어결합)는 개별적인 상관관계에서 나눈 상관단위이다.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데서는 언제나 분석과 종합의 과정이 있게 되며 종합된 것을 다시 분석하는 작업이 따른다. 바로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이 종합→분석의 질서에 놓이는 단위라면 구성재료(단어 또는 단어결합)는 분석→종합의 질서에 놓이는 단위이다. 문장의 구성성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제로로 이루어지나 문장의 구성재료는 오직 하나의 구성성분의 제료로만 된다.

이와 같이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는 그 한계와 질서에서 서로 다르지마는 다 하나의 문장구조를 이루는 문장론적 단위이다. 이 관계를 건축물(집)에 비교하면 하나의 건물전체는 친일적인 문장구조로 되며 지붕, 방, 현관, 골뚝과 같은 부분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되며 벽돌, 볼로코, 타이크, 무재, 기와 등과 같은 소재는 문장의 구성재료로 된다.

조엄란에서 문장성분은 하나의 단어 또는 일련의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지며 단어결합체는 문장의 직접적 구성재료로도 되고 간접적 구성재료로도 된다.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가 직접적 구성재료로 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결합체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간접적 구성재료로 되는 경우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가 낮은 질서에서 문장성분의 구성요소로 되는 때이다.

① —를 날이였다. (단어—직접적 구성재료)

② 화환한 봄날이 였다. (단어결합체—직접적 구성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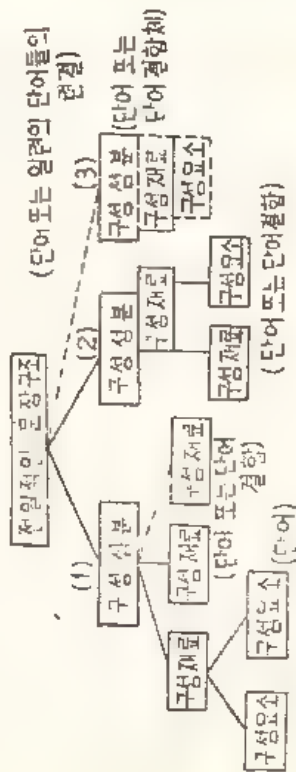
② 회창학 4월의 봉남. (단어 간접적구성체로)

- 4월의 봉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 (단어결합체-간접적구성체로)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체로는 일치할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예①은 일치하는 경우이고 예②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조원어에서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체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적성격을 띠면서 문장의 구성단위를 이루게 된다. 즉 하나의 구성성분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체로 이루어지며 이 낮은 단계에 있는 구성체로는 그것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단계에서 단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구성성분으로도 되며 그보다 낮은 단계의 구성요소로도 된다. 단어가 가장 높은 단계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 된 문장이며 단어가 가장 낮은 단계의 구성요소로 되는 경우는 단어결합체안에 들어있는 단어이다.

이 판례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해설) 도표의 (1)은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체로가 정연한 단계적 질서에 놓인 경우이고 (2)는 구성성분과 구성체로가 기본적으로 일치되나 구성체로는 또다시 자체안에 두개 이상의 구성요소들을 가진 경우이며 (3)은 구성성분, 구성체로, 구성요소들이 일치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 또는 품고 한 단어결합으로 된 문장의 경우이다. 그리고 전일적인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할 때는 그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구성성분, 구성체로)들도 문장의 구성요소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구성성분, 구성체로, 구성요소는 일치할 수는 있으나 어찌든 서로 다른 질서의 것이다.

문장을 분석하는 데서는 먼저 그 구성성분을 잘라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일적인 구조적단위인 구성성분의 단위와 기능을 잘 알아야 문장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하여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을 가르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문장의 구성성분을 가르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작업을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라 한다.

문장을 짜고 문장대용을 이해하는 데서는 또한 그 구성체로도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문장의 구성체로를 아는 것이 단순히 그 체계를 알아내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문장구조를 이루는 개별적인 단위들의 상관관계까지 알아냄으로써 문장의 구체적인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구성체로들을 가르고 그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살피게 된다. 두개 이상의 단위결합체로 된 문장의 구성요소들을 가르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작업을 단어결합의 성분화라 할 수 있다.

문장의 성분화와 단어결합의 성분화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체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 문장의 구성성분

조원어에서 문장의 구성성분은 곧 문장성분이다. 문장성분은 전일적인 구조를 갖춘 문장을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나눈 의미-기능적단위이다. 문장성분은 언제나 전체적인 각도에서 전일적인 문장을 놓고 몇개의 기능적단위로 나눌 때 생긴다.

- 우리 나라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덕케 하는 송성심에 대한 (보어) (주어)
- 미망도 많고 일과도 많다. (술어) (술어)
- 혁명의 길은 영광에 찬 것이다. (규정어) (술어)

문장의 성분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문장성분의 한계성문제를 출제 풀어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단어로 된 문장에서부터

두 극단의 견해밖에도 문장성분을 형태-의미적 또는 순수 문법적 입장에서 가르고 《주성분》, 《부성분》을 입위적으로 설정하며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을 지나치게 많이 설정하는 등의 주장들도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의 제한성은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진 것이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상관하는 단위들의 기능을 일관화한 것이라는 논을 돌리지 않은 데서 나왔다. 문법적성분화의 전제에 충분히 서서 조건의 문장구조를 분석한다면 그 단위는 더 정밀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3장 1절에서 서술된다.)

조건어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들의 문장론적기능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건어문장의 민족특성에 대한 해명과 문장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구성성분들의 단위를 어떻게 잡는가에 관해 많은 경우 주어, 술어, 보어, 삽입어, 규정어의 《5성분설》에 머물렀으며 일부 《비상관성분》과 《주성분》을 인정해왔다.

조건어문장에서 구성성분들이 확대되어나갈 때 단계적성격을 가진다는 특성과 문장성분사이의 의미-기능적 및 구조-문법적 특성을 체계적립장에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기존 성분화의 《전통》을 벗어나 조건어적인 문법적성분화를 실현하며 문장성분의 기능도 조건어담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도 3장에 서술된다.)

조건어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들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한 데 기초하여 체계적립장에서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를 진행하는 것은 이론문장론진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 3. 문장의 구성재료

조건어에서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 것은 문장안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나 단어들의 결합체이다. 달리 말하면 문장론적관계속에 들 어간 모든 단어이다. 그것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속에서 노는 문장론적기능에는 관계없이 개별적단위로서의 상관관계만을 가지는 요소물이다.

단어들의 개별적인 상관관계는 때로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일

여러개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들로 이루어진 문장에 이르러까지 문장성분의 구획을 어떻게 지으며 그 기능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옹계 풀어나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극단에 선 두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 하나는 문장안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립적단어들을 문장성분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장성분화가 진행된다.

○ 우리 나라에는 사람들의 키를 후덜게 하는 홍성심에 대한  
 (규정어) (보어) (규정어) (보어) (삽입어) (규정어) (규정어)  
미담도 많고 일화도 많다.  
 (주어) (술어) (주어) (술어)

이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자립적인 단어들까지 문장성분으로 보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대답할바를 몰랐다.》나 《일을 것을 가져오너라》와 같은 구조에서 불완전명사 《미》, 《것》도 문장성분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를 동일시한 데서 나왔다. 즉 전일적인 구조에서의 문장론적단위의 기능을 의미하면서 오직 《의존어+주도어》의 상관관계만을 고찰한 것이다. 이것은 전일적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문장성분화의 사명에 어긋나는 고찰이며 현실적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주장은 전체 문장구조에서 1차적으로 상관관계를 맺는 단위만을 문장성분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형님의 아버지는 일요일이나 쉬는 날에 제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 군합니다.》에서는 4개의 문장성분이 구획될 따름이다.

이 견해는 문장에 있는 각종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들과 구조적요소들의 상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폐단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라기보다 의미-문리적성분화나 음-의미적성분화(통합)의 편에 기울어지게 된다. 규정어라는 성분이나 확대된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 성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조건어의 특성에 맞는 분석태도는 아닌 것이다.

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고 분장성분보다 다른 절  
서에 놓인다.

○ 조선행령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①(문장성분과 단어가 일치하  
는 경우)

○ 화정한 봄빛이 짙어가는 마경다운 참관자들로 가득 찼었다. ②

(문장성분의 관계와 단어결합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서 예로 든 《화정한 봄빛이 짙어가는》은 단어결합체이며  
그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그것과 다  
른 질서의 것이다. 즉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진  
속제도》의 전지에서 구획된 단위들의 상관관계이다. 이 결합체안  
에서의 단어들의 상관관계는 단지 개별적인 《의존어+추도어》의 상  
관관계이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성 이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 언  
어요소들의 결합인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장의 구성제로서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는 개별적상관관계만을 가지는 문장의 구조적요소  
들이다.

여기서 단어결합체의 한계성문제가 나선다. 즉 두개 또는 그이  
상의 단어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결합의 질서는 어평  
계가 가르며 그 한계는 어느 단계에까지도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이것이 해결되면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의 성분과의 관계가  
뚜렷이 그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법학계에는 일정한 논의들이 있었다.  
어떤 문법적전해들은 《의존어+추도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자  
립적단어들의 결합만을 단어결합의 질서로 보고 접속, 병립, 편집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모든 단위는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지 않았다.

다른 문법적전해들은 《의존어+추도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자  
립적단어들의 문법적전해뿐만 아니라 접속, 병립, 편집의 방식으로  
연결된 모든 상관적단위들을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었다.

이러한 두 극단의 견해들에서 《추자+출이》(또는 《추어+출  
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단위들을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데서는 한결같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예 단어결  
합의 질서에서 빼고 문장성분 또는 《문장의 구조적중심》의 질서로  
만 다루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추자적단어결합》 또는 《진술적  
단어결합》이라는 《특수한》 단어결합체로 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술구조》 또는 《진술적단위》라는 《결충적》단위로 보려고도 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은 조선행령에서 《의존어+추도어》의 관계를 가지는 모든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단어들의 결합으로 보면서 역기에 《자립적단어+자립적  
단어》의 구조뿐만 아니라 《자립적단어+비자립적단어》로 된 구조까지  
넣었다. 이 견해는 단어들의 결합을 단어들의 연결과 동일시한 것으  
로 된다.

이밖에도 모든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곧 단어결합으로 보면서  
단어결합의 상관관계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를 동일시하는 견해,  
어음·의미적으로 구획되는 단위만을 문장의 구성단위로 보면서 단  
어결합의 질서와 문장성분관계를 다 부인하고 어음·의미적으로 구  
획되는 단위 즉 《통합관계의 단위》만을 문장의 구성제로서 다루는  
견해 등도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쨌든 조선행령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진  
면적으로 보지 못한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행령문장구조의 구  
성제로들의 문법적편집의 특성과 그를 실현시켜주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에 대한 전면적고찰이 부족한 데서 나온 제약성이다.

조선행령문장구조의 구성제로들은 문법적편집장에 철회히 서서 단  
어들의 형태-구조적특성, 억양의 요소들의 표현형태, 문장안에서  
단어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그 한계  
성과 유형을 정확히 갈라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2장  
에서 한다.)

이러한 편집장에서 출발하여 문장의 구조적단위를 고찰할 때 조  
선행령문장구조의 구성제로들인 단어결합은 다음과 같이 구획된다.

○ 우리 나라에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럽게 하는 추성집에 대한  
비담도 많고 일화도 많다.

(비담) 는 단어결합체의 표시이고 ~는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의 표  
시이다. ①, ②, ③은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들이 1, 2, 3의 일체  
하지 않는 경우이고 4, 5는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의 요소인 단어가 일  
체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 글 5개의 단어결합체들이서 《사람들의 가슴을 후럽게

하는》에서의 《사람들의 가슴을》과 《후덥게 하는》을 어떤 단위로 보며 그만에 각각 들어가는 단어들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조선어문장구조의 구성체로늘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띠는 특성으로부터 《사람들의 가슴을》과 《후덥게 하는》은 전일적인 단어결합체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는》의 구성요소로, 즉 2차적단계의 《단어결합체》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둘 2차적단계의 《단어결합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많은 경우는 단어로 이루어짐)들은 3차적단계의 질서, 즉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어결합체가 본질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질서의 것이고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질서의 것이라는 특성과 관련된다.

조선어문장의 구성체로(단어결합)들의 문장론적기능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선어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문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조선어의 단어결합상 특성을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문장의 구성체로 이루어는 요소의 상관관계를 단순히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비슷한 것으로만 보던 나머지 《주자적결합》(예: 아버지가 사온 책), 《수성적결합》(예: 아버지의 책을), 《관련적결합》(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상적결합》(예: 책을 읽는 학생) 등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 의존어의 기능을 《주어》, 《규정어》, 《상황어》, 《보어》 등의 구실을 노는 것이라고 불 하였다. 이러한 구분방법에서 불합리를 느낄 견해는 이번에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을 《귀착어 + 통술어》의 관계에서만 고찰하기도 하고 (예: 책을 읽는 학생) 《설명어 + 피설명어》의 관계에서만 고찰하기도 하였다. (예: 책을 읽는 학생).

조선어문장에서 구성체로늘의 배열상특성, 그 의미-기능적상관성, 구성요소의 구조-문법적특성 등을 체계적립장에서 고찰한다면 문장의 구성체로늘의 기능은 조선어답게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도 2장에서 한다.)

조선어문장의 구성체로늘의 특성과 그 구성요소들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한 때 기초하여 체계적립장에서 그 유형과 기능을 확정하는 것은 이론문장론진실의 또한나의 중요한 과제로 된다.

## 제4절, 문장분류에서 나서는 기본문제

문장분류에 관한 문체는 조선어문장에 적용하는 여러 특성을 더욱 폭바로 파악해 하며 경우에 맞게 언어표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기초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장분류에 관한 과학적해명은 문장리론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장분류는 언어표제의 성격과 환경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된다. 즉 언어표제의 다양성은 문장분류의 다양성을 조건지어주며 이로부터 문장분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문장분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때에만 언어행위의 여러 성격과 다양한 언어표제의 모습을 옮겨 파악할 수 있다.

문장분류를 잘 하자면 분류기준을 옮겨 세운에 기초하여 문장의 내용적측면과 형식적측면을 과학성있게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장분류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문장분류를 위한 과학적기준을 세우는 것과 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1. 문장분류의 기준

우리 말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옮겨 보고 그것들 기준으로 하여 문장의 여러 갈래를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태도이다.

문장형식의 다양성이라 할 때 그것은 주로 문장구조에 나타나지는 민족적특성의 다양성이며 여기로부터 그 민족어에만 알맞는 문장유형이 갈라져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장의 유형을 옮겨 가르치려면 문장의 민족적특성을 옮겨 살리는 방향에서 그 유형화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만봉년의 가을이었다. ①
- 산천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졌다. ②

예 ①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문장은 다른 나라 말에 서는 달리 표현되며 예 ②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문장도 다른 나라 말에 서는 다른 구조로 조직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서로 다른 형식

과 서로 다른 구조로 나타내어 이기에 민족적특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조어에서는 ㉠과 같은 《단어결합체문장》(또는 《단독성분문장》, 또는 《무주어문》)이라는 독특한 문장류형이 있게 되며 ㉡와 같은 동일한 술어의 중복으로 되는 접속복합문의 유형이 구분되게 된다.

문장의 민족적특성은 특수한 문장투형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다른 나라 말과 같을 수 있는 문장도 그 구조-문법적특성에서는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 품명가치를 안달기까지!

○ 오늘의 조어는 어제의 조어와 다르다.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 단어들의 수효, 어휘적의미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말도 ㉠, ㉡의 그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어들의 형태(특히 진술형), 어순배열, 문장구조적모소들의 의주방식, 한마디로 말하여 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있어서는 ㉠, ㉡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즉 ㉠, ㉡의 구조-문법적특성은 조어문장에만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나타낸다. 이리하여 조어에서는 《전유문》이나 《단일문》으로 되는 것이 다른 나라 말에서는 《인칭명령문》이나 《중속복합문》으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의 민족적특성은 문장의 특수한 유형의 존재 또는 동일한 유형의 서로 다른 구조-문법적특성에서 나타난다.

문장류형을 민족성원들의 지향과 요구, 맛과 과학적으로 세구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장의 민족적특성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의 민족적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한 문장분류만이 주체가 선 문장류형화인 것이다. 민족적특성을 올바르게 살피도록 하는 것은 문장류형화를 과학성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 2. 내용과 형식의 통일에서 본 문장류형

모든 문장은 내용적측면과 형식적측면을 가진다. 이로부터 모든 문장을 내용상 측면과 형식상 측면으로부터 보고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문장의 내용상 측면이란 문장이 담고 있는 뜻이며 진술내용이다. 문장의 내용상 측면은 진술의 목적과 성격 및 방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문장의 형식상 측면이란 문장이 갖은 형식-구조이다. 문장의 형식상 측면은 문장을 이루는 구조적요소들과 진술성표현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내용상 측면에서 나는 문장의 유형은 의미적투형이며 형식상 측면에서 나는 문장의 유형은 형식-구조적투형이다. 이리하여 모든 문장은 우선 의미적투형과 형식-구조적투형의 하나에 속한다.

○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전을 꾀한다.

○ 체력소리가 울리자 마차는 더 제제 땅을 구른다.

예 ㉠, ㉡는 내용상 측면으로 볼 때 긍정문, 알림문이며 보통어말문이다. 그러나 예 ㉠, ㉡는 형식상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문장은 확대단일문이며 둘째 문장은 단순복합문이다. 이때문들은 내용상 투형에도 속하며 형식상 투형에, 즉 의미적투형과 형식상 투형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문장은 이와 같이 일단은 내용상 측면과 형식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이 내용상으로도나 형식상으로도 일정한 유형이 속한다는 것은 문장의 측면이며 그 2대류형안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특수성의 측면이다. 리론문장론에서는 바로 문장류형이 가지거나 보편성의 측면과 특수성의 측면을 통일시켜 교차하게 되며 특히 문장류형이 가지는 특수성의 측면에 더 눈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문장류형의 특수성이야말로 문장의 민족적특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분야이기때문이다.

구체적인 문장분류에서는 문장류형별로 내용상 측면(의미적측면)과 형식적측면(형식-구조적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여 일반화할 수도 있고 따로 따로 의미적측면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형식-구조적측면에서 갈라볼 수도 있다. 앞의 경우에는 문장분류상 두 측면(의미적측면과 형식-구조적측면)의 교차현상이 없지만 뒤의 경우에는 두 측면(의미적측면과 형식-구조적측면)의 교차현상이 생긴다. 예컨대, 의미적측면에서 알림문이라고 본것을 다시 형식-구조적측면에서 단순문, 단일문, 복합문, 복합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문법적전해들은 문장분류에서 뒤의 방법을 취했거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쳐 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예컨대, 《조선어 문법》이 따르듯이 《구조적특성에 따르는 분류》, 《이

야기의 부직에 따르는 분류》와 《짜임의 복성에 따르는 분류》, 《말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르는 분류》와 《문장의 구조와 형식에 따르는 분류》를 대응시켰거나 《단일본》과 《복합본》, 《화대문》과 《단순문》, 《전개문》과 《비전개문》, 《학구성문》(또는 두 구성문)과 《외구성문》(또는 일부구성문), 《완전문》과 《불완전문》 등을 대립시켰으며 그리고 《단어문장》, 《무주어문》, 《중단문》을 일면적으로 설정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일부 문법체들에 반영된 견해들은 문장분류의 내적측면과 외적측면을 리해하는 데서도 한결같지 않으며 특히 《기능적류형》과 《구조적류형》의 일부를 리해하는 데서도 일정한 혼신까지 이루어놓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정층적으로 반영된 것이 《감탄문》에 대한 각이한 리해이며 《불완전문》과 《중립문》, 《계칭에 따르는 문장》 류형을 《구조적류형》에 인위적으로 소속시킨 분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장에서 하기로 한다.)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어문장분류를 위하여 선행한 분류방법을 분석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한 분류방법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문장을 《기능적분류》와 《구조적분류》의 테두리 안에 넣고 더 작은 갈래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기능적분류》와 《구조적분류》에 관한 선행리론을 분석 평가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분류를 위한 전제로도 될 것이다.

### 1) 문장의 기능적분류와 관련된 문제

지남 시기의 많은 문법적 견해들은 내용상 측면에서 나누는 문장분류를 기능적분류라는 이름 밑에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이 분류에서는 내용상 측면에서 본 문장류형을 다 포괄시키지도 않았으며 지어는 내용상 측면에 속하지 않는 류형까지도 이 류형에 넣는 일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남 시기의 적지 않은 문법적 견해들은 기능적분류를 엄밀한 과학적 타산 밑에 하지 못하였다.

(불의)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장의 내용적분류가 곧 기능적분류로 되나 기능적분류와 내용적분류가 똑같은 개념인 것은 아니다. 문법적 기능이란 상관관계 속에서 현어지는 기능이고 그것은 상관단위들의 의미에 기초하여

파악되는 만큼 조건의 기능적분류도 의미-내용적분류에 속하는 것만은 사실이나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의미-내용적분류는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기능적분류도 포괄한 보다 큰 분류이다.

그러나 내용상 분류에 포괄되는 모든 작은 갈래의 문장류형을 기능적분류에서 다 포괄하면 《기능적분류》라는 용어를 《형식-구조적분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장의 기능적분류를 엄밀한 과학적 타산 밑에 하지 못한 지남 시기의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일정한 혼신까지 이루어놓았다. 그러하여 《전달의 목적에 따르는 분류》와 《전달의 성격에 따르는 분류》만을 기능적분류의 테두리 안에 넣거나 《언어행위의 주자와 객자와의 예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류형까지 설정하였다. 예컨대, 《전달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위치를 의면하였거나 느낌문을 알림문, 물음문과 같은 계열에 놓은 것이라든지 《존경의 문장》과 《비존경의 문장》의 대응을 기계적으로 설정한 것 등은 기능적분류의 본질적 성질을 말하여준다. 이렇게 되면 느낌문의 고유한 위치가 무시되고 사설상 기능적류형이 아닌 《존대의 문장》, 《해오의 문장》, 《하오의 문장》, 《하계의 문장》, 《해라의 문장》 및 《반말의 문장》 같은 비문장본질현상까지 나오게 된다.

또 다른 문법체들에서는 기능적분류라는 이름 밑에 알림문, 물음문, 시김문, 느낌문이 설정되고 한가지 계열에 망라되었다. 느낌문을 알림문, 물음문, 시김문과 같은 질서의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못된다. 이렇게 되면 문장의 내적측면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기능적분류의 본질적 성질이 토출된다.

그밖에도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기능적분류에 내적측면에서 본 모든 문장류형을 포괄시키려고 하면서도 조건어문장의 모든 류형들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약점을 남기었다.

문장을 그 내적측면에서 볼 때 조건어문장은 더 다양하게, 더 정밀하게 구분된다. 조건어문장의 기능적류형을 더욱 과학적으로 가르치면 그 다양하고 정밀하게 구분되는 문장류형들의 기능-문법적 특성에 더 예리한 눈초리를 돌려 문장분류를 더 정밀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술의 목적》, 《진술의 성격》뿐 아니라 《진술의 방식》에 따라서도 문장을 나누며 양태적관계의 특성, 전달방법의 특성 등에 따라 더 세밀한 문장류형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 포함된 서술은 4장에서 한다.)

기능적분류를 할 때 문장의 세 가지 성분은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품사(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된다. 문장의 품사는 문장의 품사(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된다. 문장의 품사는 문장의 품사(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된다.

### 2) 문장의 구조적분류와 관련된 문제

지난 시기의 지의 모든 문법적건해는 문장의 외적측면, 형식적측면에 따르는 분류를 구조적분류라고 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형식적측면에서 본 문장부류를 다 가르치지 않았거나 지어 형식상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들까지 인위적으로 구조적분류의 대상으로 잡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난 시기의 구조적분류에서는 미해결문제가 많고 불충족한 점이 많다.

(붙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장의 형식적분류가 곧 구조적분류이거나 구조적분류와 형식적분류가 똑같은 개념인 것은 아니다. 언어에 있어 구조적분류는 문장의 품사(문장부류)를 말하며 문장은 문장의 품사(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된다. 문장의 품사는 문장의 품사(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된다. 문장의 품사는 문장의 품사(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된다.

문장의 구조적분류에서 미해결문제를 많이 남기고 불충족성을 드러낸 지난 시기의 저지 않은 문법적건해들은 문장분류에서 문장의 형태-구조적측면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문장부류의 인위적인 대립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훈어의 문장구조의 특성에 맞지도 않는 유형들까지 설정하였다. 해진대, 복합문의 접속수단의 특성과 구조적대응의 특성으로 보아 조선훈어복합문의 고유한 구조-문법적특성에 맞지도 않는 종속복합문, 병렬복합문, 《주문》, 《부문》 등의 설정, 《안전문》과 《불안전문》의 인위적인 대립, 주어의 필수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구성문》과 《외구성문》의 기계적인 대립, 그리고 《문장성분을 갈라낼 수 없는 문장》인 《단어문장》 등의 설정은 지난 시기 구조적분류의 비과학성을 보여준다.

문장을 그 형식적측면에서 본다면 조선훈어문장은 매우 다양하고 정밀한 유형들로 구분된다. 구조적분류도 포함한 조선훈어문장의 형식-구조적분류를 더 과학성있게 체계화하자면 그 다양하고 정밀한

문장들이 구조-문법적-기능에 응당한 품사를 띠고 문장부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해진대, 접속복합문, 병렬복합문, 인접복합문 등에 포함되는 수많은 작은 절재의 구조-문법적유형의 변종상, 단독성분으로 이루어진 여러 유형의 문장, 확대단일문의 변종으로 된 문장 등 조선훈어적인 문장부형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4장에서 한다.)

구조적분류를 위주로 하는 문장의 형식상 분류의 주체성과 과학성이 보장될 때 조선훈어문장분류에서의 온갖 미해결문제와 불충족점이 극복될 것이다.

조선훈어문장분류에서는 이밖에도 기능-구조적분류(대용-형식상 분류)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가진 조선훈어문장들 가운데는 완전히 대용적인 것-로도 되지 못하고 《간접형식》유형의 문장이 있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문장부류의 고-기능성으로 되는 것이다.

○ 창조로 문장을 나눈다.

○ 《회우동이나냐》

《예.》

해①은 확대구조의 단어결합체로 된 《명명문》이다. 《명명문》이 단어(또는 그와 동등한 것)로 이루어진 《단어문장》이다. 《명명문》이라 하면 기능상 유형이겠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구조상 독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단어문장》이라 하면 구조상 유형이겠는데 사실이 문장은 보다 기능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진다. 이러한 문장들은 《단어(또는 단어결합체)-명명문》, 《물음(또는 논점)-단어문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문장 내용상 측면과 형식상 측면이 결합된 문장 유형으로 된다.

조선훈어문장의 유형상 특성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 분류를 재검토할 때 하는 것은 리투문자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다.



## 제2장. 단어들의 결합관계

천에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어문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문법적요구를 잘 지키지 않으면 글의 뜻이 달라지거나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똑똑히 알수 없습  
 니다.》

글을 정확히 구성하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뜻바로 인식하려면  
 조선어문법을 잘 알고 문법적요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본리적으로 제인 글, 이해하기 쉬운 글은 문법에 대한 이해는 인  
 식이 있을 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구성체모인 단어  
 들의 결합관계를 비롯한 조선어문법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

결합관계를 이룬 단어들은 구체적인 언어행위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서 문장의 구성성분 또는 구성체로 된다. 이것은 언어와 언어행  
 위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고 합성된 단어나 단어의 결합이 언어행  
 위의 단위인 문장속에서만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과 관련되  
 여 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많은 경우에 결합관계를 이룬 단어들의 결  
 문법적런결로 이루어진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에 맞게 단어들의 결  
 합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사리 안겨질 때 언어행  
 위는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언어행위가 순탄하고 진술내용이 쉽게  
 파악된다는것은 그만큼 언어표계가 원만히 진행된다는것을 의미  
 한다.

사람들의 언어표계의 기본수단인 문장은 보통 여러 단어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잘 고려되어있고 결합  
 관계를 이룬 언어적요소들이 제자리를 알맞게 차지하게 되면 잘 짜  
 인 문장이 이루어지고 잘 짜인 문장은 언어표계를 원만히 하게 하  
 는 요인으로 된다.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합법최성을 옮겨 밝히  
 고 그것을 활용모있게 활용할수 있는 이론적기초를 마련하는것은 문

상은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조선어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작용하는 합  
 법최성을 이론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장리론의 과학적도대를 더욱 굳  
 진히 하도록 한다.

## 제1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과 기본류형

지금까지 많은 문법적전해들은 주로 《자립적단어+자립적단어》  
 된 단어들의 종속적런결만을 《단어결합》의 고찰대상으로 삼았  
 나. (예: 아름다운 꽃, 책을 읽는다, 예우 기쁘다)

다른 많은 전해들은 또한 이취론적단위로서의 《단어결합》, 《자  
 립적단어+자립적단어》의 병렬적구조,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구조된 단어들의 문법적런결까지를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이름  
 에 문장적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예: 인민군대, 책과 연필을,  
 1개. 대한, 먹이 버리다 등). 그리하여 문법에서는 흔히 《단어결  
 합》과 《단어들의 결합》을 구분하여 써왔다. 즉 《단어결합》은 자립  
 적단어들이 서로 의존관계에만 놓인 《종속적》말물림이며 《단어들  
 의 결합》은 《단어결합》의에도 자립적단어와 보조어가 서로 밀접히  
 맞물리거나 자립어의 자립어가 《종속적 및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결합관계틀이다. 말하자면 《단어결합》은 주로 자립적단어  
 들의 《종속적결합》만을 의미하였고 《단어들의 결합》은 보다 넓  
 은 의미에서 문장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포괄하였  
 다. 그러면서 많은 문법연구자들은 《단어결합》과 《단어들의 결합》  
 이 류형을 설정하는때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리하여  
 결합되는 단어들의 의미-문리적런계를 위주로 하여 《종속적결합》  
 (예: 집을 짓다, 나의 집)과 《병렬적결합》(예: 책과 연필, 먹고 입  
 고 쓰고 사는)으로 나누는가 하던 결합되는 단어들의 문법적인 령결  
 방법에 따라 그 류형을 크게 《결합》과 《접속》으로 나누고 다시 《종  
 속적접속》, 《병렬적접속》의 갈래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예: 결으  
 면서 읽는다, 책과 연필을)

문장에서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연결되는 수법을 더 넓게 잡아 《맞물림법》(결합), 《이음법》(접속), 《잇달법》(판권)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그리하여 《산에는 기물나무와 사과나무가 우거지고 열매를 맺었다.》에서 《산에는 ... 우거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맞물림법》으로, 《기물나무와 사과나무》, 《우거지고 ... 맺었다》는 《이음법》으로 된 문법적 연결이라 인정하였으며 《아, 고마워라, 조국이며!》, 《듣건대, 최우등생이래!》에서 《아》와 《고마워라》, 《듣건대》와 《최우등생이래》 사이에는 《잇달법》으로 된 문법적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 모든 견해들은 과학적 타당성과 함께 제한성도 있다. 그 제한성은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을 문법적 질서 이외의 테두리에서 설명하였거나 조선어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에 적용하는 고유한 특성을 문법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데 있다.

조선어 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상 특성은 특별하며 매우 뚜렷하다. 조설어의 다양한 문장구조는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에서나 방식, 유형에서 더욱 저밀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종전 《단어결합》, 《단어들의 결합》의 개념만으로는 그것들을 다 반박하지 못하며 그 분류도 종전의 방식대로만 따를 수 없다. 이로부터 《단어들의 결합관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이름 밑에 조선어 문장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의 특성, 문장의 구조적 단우들이 연결 방식과 성격을 신면적으로 밝혀야 할 필연성이 나온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현실적 대용과 기본 유형을 파악성있게 밝히는 것은 문장의 구성재료들의 연결상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는 데서 출발적 전제로 된다.

- (붙임) 여기에서는 《단어결합》,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인 문법적 연결이라 하고 그 개념을 다 포괄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라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수어권은 조선어로서의 용어인 《단어결합》, 어휘-문장론에서는 《단어결합》, 《단어들의 결합》, 문장론적 단위로서의 《종속적 결합》, 《일련적 결합》, 《부》, 《구》 등을 다 포함한다.
- 인민군대(공고한 단어결합)
  - 일기예보(합성결합)
  - 사회주의 경제건설(복합결합)

- 나의 일리(《종속적 단어결합》)
- 아름다운 것에 대한 저항(《단어들의 결합》)
- 혁명과 진실(단어들의 결합으로서의 《부》)
-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단어결합으로서의 《구》)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이루어진 실질적인 뜻명어를 《합성결합체》, 《복합결합체》, 《단어결합체》, 《단어들의 결합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단어결합과 단어결합체, 단어들의 결합과 단어들의 결합체가 각각 이개의 것이 아니라 측면을 달리한 명명이다. 즉 단어결합체란 단어결합의 결과물이며 단어들의 결합체란 단어들의 결합체이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단어들의 결합이므로 단어들의 결합체)
-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단어결합이며 단어결합체)
- 따라서 《단어결합》, 《단어복합》, 《부》, 《구》 등도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어결합체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이다.

### 1.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

단어들의 결합관계란 상대적인 구회성을 가지는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묶여진 뜻명어를 이루면서 문장의 구성체로 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거기에 있는 요소들의 구조적 특성, 연결성적 및 연결방식에 따라 구조적인 유형들로 갈라진다.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문법적 현상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합친다, 《부합어》, 《단어결합체》, 《단어들의 결합체》, 《구》 《부》 등 모든 단위를 포괄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모든 단위들은 자기에 대해 고유한 구조-문법적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합친말 《일기예보》나 《부합어》라고 할 수 있는 《사추의 경제건설》, 단어결합체인 《나의 일리》, 《공장에서 온 청년》, 그리고 《단어들의 결합체》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 《아름다운 것에 대한 저항》, 《구》라고 하는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 《구》인 《혁명과 진실》 등과 같은 단위들은 그 구조나 연결방식이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서로 모여 있으면서 독자적인 진술단위로는 되지 못하고 일정하게 묶여진 뜻명어로서 문장구조체로만 된다는 데서는 같다. 이것들이 바로 일정

한 구조-분할적특성을 지니면서 그런결정성과 연결방식을 서로 달  
리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문장론적단위들이다.

(붙임)《부합어》란 이미 합친말로 된 단위에 다시 하나 또는 그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복잡한 하나의 뜻됨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예: 사회주의경제건설, 조성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구체적으로 어머  
한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무엇보다도 두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서로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결된다는데 있다.

이것은 합친말로부터 《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위에 다 적  
용되는 특성이다. 예컨대, 합친말 《일기예보》만 놓고보더라도 단어  
《일기》와 《예보》가 《의존어+주도어》의 관계로 어울려 하나의 문장  
론적단위를 이룰수 있다. 즉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로 될수  
있다.

이 합친말의 구성부분인 개개의 단어들은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진다. 이 상대적구획성으로 하여 《일기》가 따로 떨어져쓰일 가능  
성을 준다.

《부합어》라고 할수 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 이 단위의 구성부분은 4개의 단어들도 배외없이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를 이루었다. 《사회》, 《주  
의》, 《경제》, 《건설》이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나 《사회주의경  
제》, 《건설》과 같은 개별적단위들이 그것자체로서 언어행위의 구성  
체로 될수 있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형태단어들은 이루어진 단어결합인 《공장에서 은 청년》의 경우  
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상대적인 구획성  
을 가진 3개의 자립적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연결된것이다. 《일기에  
보》의 경우와 다른 질이란 구획성이 좀더 심하다는것이다.

우에서 예로 든 그밖의 모든 결합관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고있으면서 문법적으로 연결된 단위라는  
사는 공통적이다.

상대적인 구획성은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단루적인 비파생적단  
어나 원일적인 문장과 구별해주는 기본적인 표식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다음으로 두개 또는 두개이  
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어울리며 묶여진 하나의 뜻됨이를 이룬  
다는데 있다.

이때의 묶여진 뜻됨이란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합친말인 《일  
기예보》는 보다 밀접히 의존되어있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된 하나  
의 통일적뜻됨이다. 《날씨예보》로 하면 통일성이 파괴되어 어울리  
지 않는 《일부기》결함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통일적인 뜻됨이로서  
의 단위로 되지 못하는것이다. 이때의 《일기》와 《예보》가 《종속적  
으로》 결합되었다는 사실은 문법적인 맞물림관계를 의미하며 밀접  
한 통일체의 관계를 이루었다는것은 어휘-문법적인 상관성을 말하  
여주는것이다.

결합의 공고성의 정도에 있어서 앞의것보다 좀 타트기는 하지  
만 《공장에서 은 청년》도 세 단어들이 보다 밀접하지 않는 의존관  
계에 놓인 통일적뜻됨이다. 이것은 통일성의 정도에서 《일기예보》  
보다 훨씬 밀접하지 못하다.

《당과 수령의 은덕》, 《사회주의경제건설》,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 《혁명과 건설의 성과》,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  
등도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어들로  
하나의 통일적인 뜻됨이를 나타내어주는 단위이다. 이때의 통일적  
인 뜻됨이란 상대적으로 분할된 개념을 나타내는 단위들의 통일적  
인 결합관계의 단위이다.

통일적인 뜻됨이가 되지 못하는 그 어떤 《연결체》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컨대, 《아 꼬마워라, 조국  
이여!》에서의 《아》와 《꼬마워라》, 《는진대, 최우등생이래!》에서  
의 《는진대》와 《최우등생이래》는 하나의 뜻됨이로 되지 못할뿐아니  
라 그 어떤 통일적개념도 나타내지 못하므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 들어가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뜻됨이에 묶여진다는것은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단루적인 비파생적단어나 전일적인 문장과 구별되는 중  
요한 표식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본질적표식은 또한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독자적인 전술단위로 되지 못하고 문장의 《전속체표》로만 된다는데  
있다.

때를 들면,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의 경우에조차 그 어떤 진술성도 없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진술단위로 될수 없다. 즉 이 결합체는 진술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 언어적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형식상으로는 《주자+풀이》(또는 《주어+술어》)의 구조를 가지는 듯한 이 단위에는 진술비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물결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우에서 때로는 그밖의 모든 결합체에 틀어간 모든 구성요소들(단어)은 단독적인 상관관계에 의하여 통일체로 되었을뿐이다. 따라서 그 결합체는 언어행위의 단위로 되지 못하며 진술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통일체는 문장안에 들어갈 때 문장의 구성체로서 일정한 기능적단위로 될바름이다.

진술성을 가지지 못하며 오직 문장의 구성체로만 된다는데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전일적인 문장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표시가 있다.

결국 조선훈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그것이 합친말이나 《복합어》로 이루어지건 《자립적단어+자립적단어》, 《자립적단어+보조적단어》의 구조로 이루어지건, 그리고 이 모든 유형의 범함으로 이루어지건 문장을 이루는 구성체로로는 될망정 그 어떤 독자적인 진술단위로는 되지 못한다. 그것은 조선훈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대상성》, 《용언성》, 《수식성》 등은 가지나 그 어떤 《진술성》도 가지지 못하기때문이다.

앞에서 때로는 《일기예보》, 《사회주의경제건설》, 《혁명과 진실》 등은 대상성을 나타내며 《공장에서 온》, 《책을 읽다》 등은 용언성을 가지며 《아름다운것에 대한》, 《날마다 계속되게》 등은 수식성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단어결합체들은 그 어떤 진술성도, 《반진술성》도 가지지 못한다.

(붙임) 전례에 따라서는 《공장에서 온》, 《날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과 같은 단어결합체가 그대로 주자 또는 객자의 행동이나 상태를 시술하고 있다는데서 《시술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그 어떤 요소적인것이라도 진술성은 없다. 시술성과 진술성은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두개 또는 그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체는 본질에 있어서 상대적구획성과 통일성

으로 특징지어지는 문장의 구성체로이다. 단어들의 결합체가 지니는 상대적구획성으로부러 그 구성요소들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일 가능성이나 오며 통일성으로부러 그 구성요소들이 밀접히 편견되어 하나의 묶어진 뜻덩이로 파악될 가능성이 나온다.

단어들의 결합체가 지니는 상대적 구획성과 통일성의 특성은 그것을 문장의 다른 구조적단위와 구분하는 본질적정표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결합체들의 이상과 같은 본질기특성을 용체 파악하는것은 조선훈어문장구조의 여러 단위들을 공정하게 파악하며 그 류형화작업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

## 2.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류형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조선훈어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치밀하고도 다양하다. 따라서 그 류형도 많다. 이로부터 조선훈어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좋은 분류원칙에 따라서 정밀화하여야 할 요구가 필수적으로 나신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좋은 분류원칙에 따라 그것들을 체계 가르치지 않으면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 이리하여 이론문장론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화를 보 다 과학적으로대우에 율려세우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해명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류형을 크게 삼는 경우에도 주로 구성요소들의 본리적인 연결성적에 따라서만 잡았다. 그리하여 자립적단어의 결합에서만 《종속적단어결합》, 《비결적단어결합》의 갈래를 설정하였다.

- 아름다운 나라(종속적결합)
- 먹고 입고 쓰고산다(비결적결합)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또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의미-구조적측면에서 크게 단순단어결합과 겹개(화태)단어결합으로 나누었다.

- 짐을 짓다 (단순단어결합)
- 공장에서 온 청년 (겹개단어결합)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의존어와 주도어가 맺는 상관관계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주어결합》, 《보어결합》, 《상황결합》, 《규정결합》으로 나누고 특수하게 《인용결합》 등을 설정하였다.

- 기말이 나부기다(주어결합)
- 기말을 놀다(보어결합)
- 놀이 놀다(상황결합)
- 붉은 기말(규정결합)
- 잔다고 말하다(인용결합)

지난 시기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유형화하는에서 나타난 본질적 약점은 일관성이 없기 때로는 구조적 측면에서, 때로는 논리-의미적 측면에서, 그리고 때로는 기능적 측면에서만 가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유형을 과학적으로 갈라낼 수 없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유형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면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지밀성과 다양성에 더 주의를 돌리며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이 반영되는 여러 측면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일관성이 있게 구조-문법적립장을 굳건히 지키면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선어적인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어에서는 자립적단어들사이의 결합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먼저 자립적단어들이 《의존어+주도어》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자주성이 실현된 사회
- 모든 민족의 자주권
- 노랑을 이루한 인민을
- 가주의 길로 나아간다
- 근제 단결된 인민의 힘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의존어+주도어》의 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의존어의 형태는 내부적형태를, 주도어의 형태는 외적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때의 외적형태가 그앞에 있는 의존어까지 포괄한 전일적구조의 문장론적기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 유형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단어결합으로서 《결합》의 방법으로 연결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들

이 《결합》의 방법으로 결합되는 관계를 (T X L)X로 표시할 수 있다.

(붙임) 이때의 X는 두개이상 단위들의 종속적변절을 표시하며 T는 의존어, L는 주도어이다. X는 주도어의 외적형태로서 변화체제를 가진다. X로 표시된 외적형태가 바로 이 결합체전체의 문장론적위치를 규정해 준다는데 조선어적인 특성이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다음으로 자립적단어들이 《병렬어+병렬어》의 구조로 연결되는 것이다.

- 나타와 민족의 자주성
-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기쁨
- 낮과 밤을 모르는 투쟁
-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
- 꾸준하고도 원내성있게 일한다

《병렬어+병렬어》의 관계에서도 내부적형태와 외적형태가 있다. 이때에도 내부적형태는 변화체제를 가지지 않으나 외적형태는 변화체제를 가진뿐 아니라 결합체전체의 위치를 규정해준다는데 또 한 조선어적인 특성이 있다. 이 유형은 단어심숙으로 된 결합관계로서 《전속》의 방법으로 연결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단어심숙으로 된 결합관계는 조선어에만 고유한 유형으로서 그 결합관계는 (T+L)X로 표시될 수 있다.

(붙임) 단어심숙으로 된 결합관계에서 《병렬어+병렬어》라고 한 것은 《병렬적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문법적으로는 《의존어+주도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첫 유형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병렬어》라는 조선어인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T+L)X관계에서는 《전속》의 방법을 주로 표시하고 뒤따라(주도어)의 형태를 X로 표시하였다. 언어심숙에서는 이 X만이 변화체제를 가진다. 이 유형의 결합관계에서 T, L는 다 병렬어이다. 이 결합유형은 《병렬》도 아니고 《병립》도 아닌 바로 《전속》의 방법으로 결합된 조선어고유의 현상이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또한 자립적단어들이 《병립어+병립어》의 구조로 연결되는 것이다.

- 전망, 전군, 전민이 학습한다.
- 순간의 철제도 담보도 허용하지 않자.
-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타오르는 속도전의 불길
- 터속 아담판계, 더욱 힘있게 가꾸어지는 모습

《병렬어 + 병렬어》의 관계에서 내부직형태, 외직형태가 따로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태단어, 동일한 억양의 요소의 《병렬》이 있을 따름이다. 이 류형에서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은 구조-어양상으로 구획성과 친일성의 통일로써 표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류형은 단어병렬으로 된 결합관계로서 《병렬》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류형은 조선어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나 억양의 요소들과 형태에의 표면화정도에서 민족적특성을 가진다. 단어병렬도 조선어에서 많이 활용되는 류형의 하나로 된다. 《병렬》의 방법으로 된 결합관계를  $\Gamma X \cdot L \cdot X \cdot C X \dots$ 로 표시할 수 있다.

(붙임) 단어병렬에서 《병렬어 + 병렬어》라고 한 것도 조진격이다. 단어 《병렬》보다는 더 《병렬적》인 것을 《병렬》이라고 한 것은 조선어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관해된다. 즉 억양상구획성이 보다 뚜렷하고 마지막 단어의 형태에는 결합체 전체를 통솔하는 형태가 교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별도로 두었다 (예: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등). 더욱 아름답게, 더욱 활모있게만. 그리고  $\Gamma X \cdot L \cdot X \cdot C X \dots$ 의 관계에서 《병렬》의 방법을 《...》로 표시하고 각기 단어들의 형태를 X로 표시하였다. 이때의  $\Gamma, L, C$ 는 병렬어를 나타내며 X는 병렬어의 형태(또는 《잠제적형태》)를 나타낸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독특한 류형으로서는 또한 《제시 + 확인》의 구조를 가지고 앞단어를 되받아 강조하거나 뒤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어들의 일정한 련결을 지어주는 것들을 들 수 있다.

- 당, 이는 우리의 심장.
- 우리 모두가 혁신자.
- 학생 셋이 모여서 ...
- 두우, 배추, 오이, 호박 들 남새류

《제시 + 확인》의 관계에서 련결하는 두 축이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뒤에 위치하는 단어가 주로 형태변화체계를 가진다는 것이 조진어적인 특성이다. 이 류형은 단어련결의 방법으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로서 《련결》의 방법으로 련결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련결》의 방법으로 된 결합관계를  $\Gamma \leftarrow \rightarrow L \leftarrow \rightarrow C X$ 로 표시할 수 있다.

(붙임) 《련결》연상을 달리 리해하는 견해도 있다. 즉 《아, 꼬마위리》에기의 《련결》은 《련결》연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 꼬마위리》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며 또 고유한 의미에서의 《련결》도 적용되지 못한다. 련결이라는 것은 련결은 련결이 되 의 존관계가 보다 적고 위치상 련결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Gamma \leftarrow \rightarrow L \leftarrow \rightarrow C \dots$ 관계에서는 《련결》의 방법을  $\leftarrow \rightarrow$ 로 표시하고 뒤단어(결속말)의 형태를 X로 표시하였다. 이 단어결합루형에서 뒤단어(결속말)의 형태 X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잠제적형태》로도 된다. 앞단어에도 형태가 표시될 수 있으나 그것도 《잠제적》성격을 띤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에서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결국 《결합》, 《접속》, 《병렬》, 《련결》, 《병렬》의 네가지 류형으로 나누어진 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이 네가지 류형의 구조들을 묶어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 결합류형:  $(\Gamma X L) X (예: 모든 민족, 두림을 이루한)$
- △ 접속류형:  $(\Gamma + L) X (예: 나라와 민족, 아름답고 풍부함...)$
- △ 병렬류형:  $\Gamma \cdot L \cdot C X (예: 자주, 자립, 자위의; 공장에 서, 농촌에서...)$
- △ 련결류형:  $\Gamma \leftarrow \rightarrow L \leftarrow \rightarrow C X (예: 우리 모두, 학생 셋이...)$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는 《결합》, 《접속》, 《병렬》, 《련결》의 결합관계가 엄격히 나타나지 않는다.  
○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말의 문장구조(직추과 결합의 엄밀)  
○ 더욱 아름답게, 더욱 문화적으로 꾸러지는 우리의 생활(병렬과 결합의 엄밀)  
○ 환희; 우리 행복, 우리 기쁨(련결과 결합과 병렬의 엄밀)  
이것은 단어들의 합성적결합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선어적인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간직된다.

다음으로 조선어에서는 《자립적단어 + 보조적단어》의 결합관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 수렴에 대한 충실성
- 오는 특색 한내한다.
- 보는 바와 같이 진감하다.
- 불약을 먹어본다.
- 붉은 것이 된 것을 분간한다.

- 퍼꾸림에도 불구하고 습지 않는다.
- 비오는바람에 무성한다.
- 알코도 남는 일이다.

조션어에서 《자립적단어 + 보조적단어》의 구조는 그 상관관계가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도 합법적성이 작용한다.

자립어와 보조어의 상관에서 의미-기능상으로는 후자가 전자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 같지만 구조-문법적으로는 후자가 전자를 통솔하며 지배한다. 즉 자립어의 문법적형태는 보조어에 귀속되기 위한 기능을 볼 때 결합체전체의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은 보조어가 수행한다. 그리고 이플 결합체가 반드시 제3의 결합요소를 요구한다는 것도 구조적특성이다.

《자립어 + 보조어》의 결합체에서 보조어의 의미와 형태가 어울려서 결합체전체의 문장론적기능을 확장한다는 것도 조션어에 고유한 특성이다. 《자립적단어 + 보조어》의 구조에서 자립적단어형태가 대개는 고정되어있고 보조어의 형태는 화식화되거나 고정된 변화형태를 가진다. 즉 《결합》의 방법으로 된 결합체로 되는 것이 기본이며 《접속》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결합체를 가운데 어느 하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데서 그밖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합성적 결합관계로도 나타날 수 있다.

○ 붉은빛과 흰빛과 물(결합과 접속의 합성)  
○ 보논바그래로 발하다. (결합과 연결과 결합의 합성)  
(붙임) 《자립적단어 + 보조적단어》의 결합관계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단어 결합은 아니다. 그러나 단어들의 결합관계라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단어들의 뒤결의 현 유형으로는 되는 것만큼 여기시 다루었다. 문장의 구성체로서 문장성분보다 낮은 집시의 요소들이 연결된 결합체인것만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순수 구조상 측면에서 볼 때 단어 결합관계와 관계(확대)단어 결합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단순단어 결합관계란 결합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두 개로 되고 있는 결합관계이다.

- 인기에 모
- 혁명과 건설
- 꾸준하고도 인내성 있다
- (약물) 띄어 버리다
- 아름다운 꽃
- 푸치 편 (해당화)

관계(확대)단어 결합관계란 결합체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세 개 이상으로 되고 있는 결합관계이다.

- 자주, 자릴, 자위의 사상
- 당파 수범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
- 사회주의 경제 건설
- 달려오는 증용차가 멎기를 가리키다
- 꾸준하고도 인내성있게 일하는 솔씨
- 공장에서 온 청년

순수 구조상 측면에서 본 단어 결합관계는 그 내부구조를 살펴볼 때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결합의 성격과 방식에서 나타난다(자세한것은 다음 절에서 서술함). 그리고 그것들도 결국은 구조-문법적 측면에서 본 유형인 《결합》, 《접속》, 《병립》, 《원접》등도 갈라진다.

조선어에는 그밖에도 《자유롭지 않은 단어결합》의 이름 밑에 또 판되는 《공고한 단어결합》, 《성구론적단어결합》, 《특수보조어적단어결합》 등 유형이 있다.

- 담의 유일사상체계, 사회주의 범우생활(공고한 단어결합)
- 쇠손을 쓰다, 더위를 타다, 집을 버다 (성구론적단어결합)
- (세침이) 편다 잡디라도, (왔다) 손 치디라도, (속히술) 쉼 치디라도 (특수보조어적단어결합)

이러한 단어결합체들은 예외없이 문장구조의 구성체로 되며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문장론적단위로 된다. 이것은 문장론적으로는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개별적인 단위로 있을 때는 어휘론의 대상으로 되지만 문장구조안에 자리잡을 때는 문장론의 대상으로 된다.

- 독불장군(어휘론의 대상)
- 정성이면 불우에도 꽃이 핀다. (어휘-문장론의 대상)
- 독불장군이라고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 (문장론의 대상)
- 정성이면 불우에도 꽃이 핀다는 격으로 일은 저집스때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문장론의 대상)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도 《결합》, 《접속》, 《병립》, 《원접》의 방면으로 된 유형들을 갈라낼 수도 있겠으나 《고정된 구조》라는 특성이 전면에 나타나는 이상 굳이 그러한, 유형을

3) 특수보조어적단어들의 결합관계(예: 잦다손 처더라도, 속히  
출생 지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단순  
한가, 복잡한가에는 관계없이 일관하여 《결합》, 《접속》, 《병립》,  
《연접》의 방법으로 연결된 유형을 갈라낼수 있다. 즉 단어결합관계  
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따라 단순결합관계, 전개(확대)결합관계, 고  
성된 구조의 결합관계 등으로 나눌수 있으나 이 모든 경우에 기본  
적으로 《결합》, 《접속》, 《병립》, 《연접》의 유형은 다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이 네가지 유형은 조선어의 단어결합관계의 기본구형으로  
된다.

제2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실현방식

문장에서 단어들이 맺는 결합관계는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연결성격과 실현방식에 따라서도 서로 차이가 난다. 이것은 문장구  
조의 다양성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단어들의 결  
합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의 연결성격과 실현방식의 차이에  
도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나선다.

단어들의 연결성격과 실현방식에서 특히 차이가 뚜렷한것은  
《결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의 경우이다. 이 결합관계안  
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일정한 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가진다.

예컨대, 《적을 짓다》라는 두 단어들의 결합에서 의존어 《적을》  
은 연결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짓다》의 대상적측면으로 되며 연결  
의 방식으로 보아서는 보충적측면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적을 짓  
다》라는 결합에서 《적을》은 대상적측면에서 《짓다》를 보충하는 관  
계에 있으며 《짓다》는 《적을》에 의하여 대상적측면에서 보충받는  
관계에 있게 된다. 이것은 《적을》과 《짓다》가 지니는 문장론적기능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문장론적단위가 지니는 기능은 결합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의 성격과 방식도 구분할수 있게 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에서 나타나는 해당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는것은 민족어의 문장구조의 다양성을 더욱 뚜렷이 하  
는 조건으로 된다.

실정할 필요는 없다.

우에서 조선어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주로 구조-문법적  
특성(단수 구조적측면도 포함하여)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묶어서 체계  
화할수 있다.

△ 단순단어결합관계

- 1)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관계
  - (1) 단어결합유형(예: ○ 자주의 길, ○ 독립을 이룩하다)
  - (2) 단어접속유형(예: ○ 낮과 밤, ○ 배우고 배우고)
  - (8) 단어병립유형(예: ○ 자주, 자림, 자위 ○ 품장에서, 농  
촌에서)

- (4) 단어연접유형(예: ○ 우리 모두, ○ 학생 셋이)
- (5) 단어들의 합성적결합유형(예: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말)

2)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들의 결합관계

- (1) 단어들의 단순결합유형(예: 조국에 대한, 먹어보다, 본  
대로)
  - (2) 단어들의 합성적결합유형(예: 보는바 그대로 말한다)
- △ 전개(확대)단어결합관계
- 1)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관계
    - (1) 단어결합유형(예: 문장에서 은 청년)
    - (2) 단어접속유형(예: 먹고 입고 쓰고사는)
    - (3) 단어병립유형(예: 교과서도, 학습장도, 연필도...)
    - (4) 단어연접유형(예: 정말 우리 모두 셋은...)
    - (5) 단어들의 합성적결합유형(예: 매우 높고 가파로운 언  
덕길)

2)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들의 결합관계

- (1) 단어들의 전개결합유형(예: 먹어본다마는)
- (2) 단어들의 합성적결합유형(예: 아룬다운것에 대한 이  
야기)

△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

- 1) 품고한 단어들의 결합관계(예: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 2) 성구문적단어들의 결합관계(예: 더위를 타다, 맥을 놓다)



지금까지의 문법적결해들이 문법적결해와 문법적결해를 넘두에 두  
고 단어결합의 유형을 설명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단어결합관계에서의 상관관계를  
동일한 기준전해들은 주로 의존어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고찰하였다.

문장성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유형을 문장성분에서의 유형대로 일컬어은데도 모순이 있지않  
는 단어들의 연결방식을 위주로 하는가 하면 때로는 단어들의 연  
결성을 위주로 하여 분류한데도 문제가 있다. 예컨대, 《주어결  
합》, 《인용결합》 등은 주어, 《인용보어》의 기능을 논다는데서 문장  
성분과의 명칭을 따르거니와 《주사적결합》, 《객사적결합》 등은 본  
리-의미적으로 주어, 보어로 된다는에서 본리-의미적결합에서의 문  
장성분과의 본을 기제적으로 따르거니와.

또한 《주어결합》, 《인용결합》 등은 연결성격의 측면에서 내세  
우는 대상, 놓여온 대상이라는데서 일반화되었다면 《보어결합》,  
《상황결합》, 《규정결합》 등은 보충, 상황, 규정의 방식으로 설명한  
다는 연결방식의 측면에서 일반화되었다.

한가지 현상인 《규정-피규정》의 결합관계를 《규정결합》, 《축성  
적결합》, 《규정어적결합》, 《한정적결합》 등의 이름으로 불러왔다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지난 시기의 유형화가 때로는 연결성을 위주  
로, 때로는 연결방식을 위주로 하면서 동요성을 가졌다는것을 엿볼  
수 있다. 즉 이 여러 명칭들의 밑바닥에는 연결성격과 연결방식의  
혼용 또는 무분별이 관여있는것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성을 연결성격과 연결방식에 따라 고찰  
하는것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어의 다양한 구조는 단어들  
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을 서로 달리하는 유형들로 이루어져있  
고 이것을 옮겨 밝히고 체계화하여놓는것은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  
며 문장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서 리듬기때문이다.

그러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유형을 그 연결성격과 연결방식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도 엄격히 구조-문법적결합에 서지 않는다면  
동요성을 면치 못한다. 구조-문법적결합에 엄격히 서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성을 고찰한다면 새로운 분류방법이 나올것이다.

### 1.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이란 결합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단어들이 맺는 호상존관계의 성격이다. 이것은 조선어에서 《의존  
어+주도어》, 《병렬어+병렬어》, 《병렬어+병렬어》, 《제어어+확인  
어》 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문법적결합에서 구체화되되 주  
도는 《결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남  
나. 예컨대, 《우리의 지람》이라는 결합은 《의존어+주도어》의 관  
계이지만 결합성격으로 보면 달리 설명할수 있는것이다. 즉 《제언  
을 축으로 하는 결합》이라 할수 있다.

조선어에서 호상존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문법적결합은 단어  
의 어휘-의미적상관성, 품사적특성, 형태구비성 등의 점도에 따  
라 제약된다. 이로부러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도 구조-문법적립  
상에서 보아야 할 필연성이 나온다.

단어들의 어휘-의미적상관성, 품사소속성, 형태구비성 등에 따  
라 제약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성은 결국 어떤 품사의 단어를  
축으로 하여 의존관계가 성립되는가 하는 문체에 귀결된다. 다시말  
하여 어떤 품사에 속하는 단어가 결합체의 축으로 되는가에 따라  
그에 의존하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의 유형이 달라진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조선어에서 단어들이 맺는 결합관계  
는 크게 제언과 용언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제언적  
품사에 의존하는 어휘 단어들의 결합관계와 용언적품사에 의존하는  
어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두 큰 유형이 갈라지며 그안에서 또다시  
단계적으로 여러 품사적단위(제언, 용언, 수식어, 보조어 등)들의  
결합관계가 갈라진다.

#### △ 제언을 축으로 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

- 박동무의 모습
  - 부지런한 박동무의 모습
  - 언제나 부지런한 박동무의 일하는 모습
  - 밤낮 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박동무의 참된 일군다운 모습
- △ 용언을 축으로 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
- 꽃을 거른다.

- 아름다운 꽃을 가꾼다.
- 물이 썩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가꾼다.
- 우리 집 뜰에 흰 아름다운 꽃을 매일 아침 정성껏 가꾼다.

체언적품사를 축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체언추결합관계라 할 수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체언추결합관계는 자기의 구성부분에 또 다시 체언과 용언을 각각 축으로 하는 결합체들을 가질수 있고 수식어, 보조어 등으로 확대된 결합구조를 가질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구조-문법적으로는 축앞에 자리잡는 모든 단위들이 축의 지배를 받으며 축에 의존한다.

용언적품사를 축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용언추결합관계라 할 수 있다.

조선어에서 단어들의 용언추결합관계는 자기의 구성부분에 또 다시 용언과 체언을 각각 축으로 하는 결합체들을 가질수 있으며 수식어, 보조어 등으로 확대된 결합구조를 가질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도 구조-문법적으로는 축앞에 자리잡는 모든 단위들이 축의 지배를 받으며 축에 의존한다.

체언추결합안에 다시 용언축 및 체언축 단어결합이 들어있고 용언추결합안에 다시 체언축 및 용언축 단어결합이 있는 유형을 합성적결합관계의 유형이라 할수 있다. 이때의 낮은 단계의 체언축 또는 용언축 결합관계는 단어들의 결합체안에서의 상관관계의 질서이며 단어결합체의 요소로 된다. 단어결합체의 요소들안에서의 《의존어》나 《병렬어》, 《병렬어》나 《확인어》 등의 성격은 대상적, 용언적 및 수식어적 단위로 되고만다. 이것이 복잡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조형적인 성격이다. 체언추결합관계, 용언추결합관계 및 합성적결합관계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나누는것은 단어결합의 성격을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는 공정한 태도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성격에 따르는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자립단어 + 보조적단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며 단순단어결합관계, 전계단어결합관계, 합성적결합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는 문장성분의 호상관계에서 작용하는 《추성적》, 《관련적》, 《상황적》, 《인용어적》, 《술어적》, 《주어적》 등의 갈래가 따로 필요없다.

이상에서 우리 말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기본유형을 중심으로 그런결성격을 보았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그런결성격에 따라 크게 체언추결합관계와 용언추결합관계로 나눌수 있다.

이 유형안에 서 축에 의존하는 단어들의 성격에 따라 다시 체언-체언추결합, 용언-체언추결합, 수식어-체언추결합, 보조어-체언추결합과 체언-용언추결합, 용언-용언추결합, 수식어-용언추결합, 보조어-용언추결합 등으로 작은 갈래를 나눌수 있다.

체언-체언추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체언으로 되는 결합을 말한다.

- 아버지의 책, 우리 나라, 국제주의적선언장

용언-체언추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용언으로 되는 결합을 말한다.

- 아름다운 꽃, 가을거리눈 등불, 살아움직이는 형상

수식어-체언추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수식어로 되는 결합을 말한다.

- 온 나라, 아주 야만, 산들바람, 적최박사

보조어-체언추결합이란 축으로 되는 체언의 앞에 이미 보조어와 결합된 단어결합이 오는 관계의 결합을 말한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투승리에 대한 소식

그리고 체언-용언추결합, 용언-용언추결합, 수식어-용언추결합, 보조어-용언추결합 등도 축으로 되는 용언에 의존하는 단어가 각각 체언, 용언, 수식어, 보조어적결합 등으로 되는 결합이다.

- 책을 읽다(체언-용언추결합)

- 앉았다(용언-용언추결합)

- 매우 아름답다(수식어-용언추결합)

- 시악에 의하여 검증되다, 보는데로 말하다(보조어-용언추결합)

이 모든 종류의 결합관계는 어디까지나 조선어단어결합관계의 기본유형을 다시 린결성격상으로 보고 나눈것이다. 이들 결합관계의 종류들은 호상 의존되어있다. 즉 구조상으로 본 결합관계의 유형과 편결성격상으로 본 결합관계의 유형은 많은 경우에 교차관계에 있으며 《한 현상의 여러 측면》의 관계에 있다. 예컨대, 《책을 읽다》는 《결합》의 방법으로 된 단수단어들의 결합관계이면서 린결

성적으로 보면 《어인-용인속결합》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 2. 조선훈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이란 결합체안에서 서로 맞물리는 구조적요소들인 단어들이 맺는 호상의존관계의 방식이다. 이것은 조선훈어에서 《의존어+주도어》, 《병렬어+병렬어》, 《병렬어+병렬어+병렬어》, 《제시어+확언어》의 구조에서 구체화된다. 예컨대, 《낮과 밤들》이라는 결합은 《병렬어+병렬어》의 관계이지만 결합방식으로 보면 한 단위에 다른 단위를 더하는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첨가적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훈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현방식은 체인축 및 용인속 결합관계의 테두리안에서 작용한다. 즉 크게 체인축 및 용인속 결합관계로 갈라지는 유형을 다시 요소들의 연결방식의 측면에서 가른 유형이다.

- 노을이 비친 호수가
-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려본다

첫째 짝은 세 단어가 체인축결합관계에 있는데 그 세 단어들이 리는 서로 보충하는 관계, 한정하는 관계에 있다. 이 보충하는 관계, 한정하는 관계 등이 결합관계의 방식이다.

둘째 짝은 4개의 단어가 용인속결합관계에 있는데 그 4개 단어가 들끼리는 서로 한정하는 관계, 보충하는 관계로 작용한다. 이것이 결합관계의 실현방식이다.

조선훈어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의 실현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한정적, 보충적, 《첨가적》 결합관계의 유형이 나온다.

단어들의 한정적결합관계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한정해주는 방식으로 결합된 관계이다. 즉 일정한 내용을 담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 상태, 표시, 대상 등 내용을 한정해주는 관제도 결합되는 방식이다.

- 백두산의 모습
- 장엄하게 솟아있는 포탑
- 은세계의 자주화
- 플레살피 들어서다

1) 메우 민록해하다

테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정적결합관계는 체인축결합에도 있고 용인속결합에도 있으며 단순결합이나 전개결합에도 있다. 또한 한 형식결합관계에서 《의존어》의 품사소속성과 형태는 여러가지이며 《주도어》는 대상과 상태, 행동 및 표식을 나타내는 품사들이다.

한정적결합관계에서 《의존어》의 어휘적의미, 품사소속, 형태 특성에 따라 규정적, 수식적, 표시적 결합 등의 유형을 더 자세히 가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주판에 빠지기 쉽다.

단어들의 보충적결합관계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결합된 관계이다. 즉 일정한 어휘적내용을 가진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 상태, 표시, 성질 등 내용을 보충해주는 관계로 결합된 방식이다.

- 백두산을 바라보다
- 그 모습이 웅장하다
- 조종의 산이라고 한다
- 삼지연에서 바라보다
- ( 보산보다 더 높다

테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충적결합은 주로 용인속결합관계안에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배어》는 주로 용언(또는 대상적용언형)으로 되고 있다.

보충적결합관계에 있는 단어결합체들을 다시 그 작은 결합체로서 대강적보충, 관련적보충, 시공간적보충, 인용적보충 등 결합류형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치기 쉽다.

단어들의 《첨가적》결합관계란 두개이상의 단어가 서로 상관하지 않거나 다른것에 귀일되거나 첨가되는 방식으로 결합된 관계이다. 즉 일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일부 단어가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에 기능상으로 통솔되는 관계로 결합되는 방식이다.

- 단과 수령의 평도 야래
- 자주, 산림, 자원의 원칙
- 담, 이는 우리의 성정
- 학생 생이 포아라
- 문우, 배추, 오이, 로박 들의 남재류

테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가적》결합관계는 주로 체인적품사들

의 《접속》과 《병립》, 《런접》 등 결합에 고유하며 제3의 요소(지어어)와의 재결합을 필수적관계로 하는 결합관계라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합방식의 유형은 독특한 유형이다.

《첨가적》결합관계의 유형을 동종적, 별거적, 결속적, 확인적 결합 등의 관계로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으나 논리적인 것에 치우치지 쉽다.

세 개의 상의 여러개 단어가 결합되면서 결합관계를 이루는 복잡한 단어결합체들을 연결방식상으로 가르는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3개의 유형이 단계적정격을 떠면서 얽혀붙어갈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성의 원칙에서 동일한 질서안에서의 단어결합관계의 단위를 바로잡고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 또는 보다 높은 단계로부터 보다 낮은 단계로 그 유형들을 갈라야 한다.

우에서 본 조선어단어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은 조선어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의 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과 성격에 따르는 결합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문장의 구성체로인 단어결합체들을 분석하는 방법과 방법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이다.

우에서 이야기된 조선어단어의 결합관계의 성격과 방식에 따르는 유형을 묶어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 단어들의 연결성격에 따르는 결합관계의 유형

1) 체언추결합관계

(1) 체언-체언추결합관계

○ 아버지<sub>지</sub>의 책

○ 승리의 요인

(2) 용언-체언추결합관계

○ 아름다운 꽃

○ 울뢰이는 기계

(3) 수식어-체언추결합관계

○ 은 나라

○ 혁명박사

(4) 보조어-체언추결합관계

○ 전투승리에 대한 소식

2) 용언추결합관계

(1) 체언-용언추결합관계

○ 책을 읽다

○ 그림을 그리다

(2) 용언-용언추결합관계

○ 앉아서 기다리는

○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3) 수식어-용언추결합관계

○ 매우 아름다운

○ 빈방 불다

(4) 보조어-용언추결합관계

모종의 말과 진에 의하여 분배된다

△ 단어들의 연결방식에 따르는 결합관계의 유형

1) 한정적결합관계

○ 백두산의 모습

○ 매우 바쁘다

2) 보충적결합관계

○ 땅 하고 소리치다

○ 산을 바라보다

3) 《첨가적》결합관계

○ 지주, 자립, 자위의

○ 낮과 밤을 지세다

### 제3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유형인

#### 조선어의 《구》

조선어에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주어+술어》(정확하게는 《제언주격형+용언시술형(또는 시술적대상형)》)의 구조를 가진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라고 일컬어왔다.

조선어의 《구》가 어떤 성격의 단위인가 하는것은 내외의 문법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하여온 문제이다.

많은 문법연구자들은 《구》를 《문장형식을 취하고있으면서도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또는 《구 성분》), 단일문의 안 구

성단위로 보았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체언주격형+용언(또는 체언)의 종결형》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문장성분의 기능을 노는 단위를 따로 《문장으로 될 성분》이라고 하였다(예: 우리는 그가 이 일을 해내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체언주격형의 《주자》가 없이도 서술형으로 끝나는 전계단어결합관계의 구조만을 따로 《단어결합성분》으로 보았다.(예: 방금 공장에서 돌아온 청년을 맞이하였다.)

이상의 견해들의 공통점은 《단어결합체-문장성분》으로서의 한 큰 유형을 설정하려는데 있으며 그안에 《문장-성분》, 《구-성분》, 《단어결합-성분》의 작은 갈래를 설정하려는데 있다.

○ 끝없는 모세과 랑구로 이어진 화진의 나날이여! (단어결합-성분)

○ 제양버들이 무저진 감기숨의 오솔길에 말파리 한대가 나타났다. (구-성분)

○ 그는 아버지가 돌아오시었다고 기뻐서 돌아왔다. (문장-성분)

이와 같은 팀장에 싼 문법적 견해들은 《구》에 진술성이 없다는 데 대하여서도 대부분의 경우 일치되거나 때로는 《구》에 《반술어성》은 있다고도 보는 일이 있다.

(붙임) 좋은 의미에서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의 구조만을 《구》라고 하나 넓게는 《문장-성분》, 《구-성분》, 《단어결합-성분》을 다 포함하여 《구》라고 말할 수도 한다. 어쨌든 《구》를 문장성분으로 보고 있다.

조신어의 《구》를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를 문장성분이 아니라 문장으로 본 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구》를 《결합복합문》의 구성단위로만 국한시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절》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특수한 유형의 문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구》를 문장으로 보는 견해들은 제외없이 《구》에서 술어, 주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 따위의 구성성분을 따로 가르며 진술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외국의 조건어연구자들은 조신어의 구체적 실정에 대한 고찰도 없이 《구》를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 보면서 《형동사형부문》, 《부동사형부문》, 《미정형부문》 등 이름 밑에 일반화하였다.

○ 우리는 술용차가 몇기를 기다렸다. (미정형부문)

○ 꽃이 만발한 언덕우에 집 한채가 보이었다. (형동사형부문)

○ 해가 눈이 부시게 비치었다. (부동사형부문)

문리주의적 팀장에 싼 학자들은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의 구조는 물론, 《주어》가 없더라도 《관념상으로》 주어론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는 《용언적》단위를 《구》라고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이 《관념적》인 《구》도 복합문의 구성단위라고 하였다.

○ 가면 날이 장날이다. = 내가 가면 날이 장날이다.

○ 가면 날이 장날이었다. = 내가 갔다. 그러면 날이 장날이었다.

이 모든 견해들과는 달리 최근에 와서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구》를 아무런 진술성도 가지지 못하는 《단어결합성분》으로 확정하면서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구조적 단위 받아내려 모든 전계단어결합관계를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런데서 견해도 《구》에는 진술성은 없다고 보면서 문장성분과 같은 상관계를 《구》안에서도 다시 찾는 제약성을 보이었다.

《구》를 둘러싼 지난 시기의 모든 견해들의 본질적 약점은 문장이 포식을 갖추지 못한 구조적 단위에 문장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거나 《구》에서 그 어떤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도 같은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 결국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재료의 한계를 뚜렷이 그어놓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문법적 현상을 엄밀한 구조-문법적 팀장에서 보지 못한 데서 나온 약점이기도 하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 유형으로서의 조신어 《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오직 주체적 팀장에 토론히 서서 그 구조-문법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1. 조신어 《구》의 구조-문법적 특성

조신어의 《구》가 어떤 문장론적 단위인가 하는 것을 풀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 밝혀져야 한다. 즉 그 하나는 《구》가 문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가 어떤 질서의 단위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의 구조-문법적 특성을 해명하는 기본 노리이다. 《구》가 문장이 아닌가 하는 것은 구조적 단위로서의 독립에 관한 문제이며 《구》가 어떤 질서의 단위인가 하는 것은 《구》의 위치적 특성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첫째 측면에 대하여 먼저 밝히기로 한다.

《구》에는 문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포식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는 문장인기, 문장이 아니라면 단어들의 결합체인가 하는 문제가 나뉜다.

조선어 《구》에서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체인주격형 + 용언 시술형(또는 시술적대상형)》의 구조를 중심에 놓고 분석해보자.

- 저희들은 승용차가 대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 저희분은 승용차가 대기름 기다렸습니다.
- 저희들은 승용차가 대도록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문에서 《승용차가 대는》, 《승용차가 대기름》, 《승용차가 대도록》이라는 단위는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아 문장이 갖추어야 할 아무런 표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들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의 결합체로서 문장조적이전의 구성체로이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구》에 있는 상관적단위(《승용차가》와 《대는》, 《대기름》, 《대도록》)의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의 상관적단위로 될 수 없다. 즉 《구》의 구성성분의 어느 하나가 따로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오직 《승용차가 대기름》은 그것자체가 《기다렸습니다》와 상관하면서 그 《보어》로 된다.

《구》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구성요소(단어)들은 문장의 구성체로 보만 될 따름이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는 되지 못한다. 문장의 구성체로 문장의 표시가 있을 수 없으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와 맞먹지 못하는 단위에 문장의 자격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구》 자체구조가 다른 단위의 맞물리는 경우에도 개별적단어 또는 문장성분과 판계를 맺으며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 전체 문장과 상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일문》으로서의 자립성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문장의 표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단일문》의 자격도 못가지면서 개별적인 단어에만 의존된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결합전일체임을 말하여준다.

셋째로, 《구》에는 전술어양의 요소가 없으며 복합문의 구성부분이 갖추어야 할 통일성과 구획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역양상 표시도 없다.

전술어양이 없는 곳에 문장의 자격을 줄 수는 없다.  
셋째로, 후에서 배로 든 《승용차가 대는》, 《승용차가 대기름》,

《승용차가 대도록》 등과 같은 《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술성의 어퍼한 구조-문법적표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는》, 《대기름》, 《대도록》으로 표현된 규정형, 시술적대상형, 상황형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일반에서 의존어가 가지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형태에는 말차림, 시간, 범용 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물질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에는 문장의 기본표식이 없다.

다섯째로, 《구》에서 《주어》라고 이르는 단어의 형태가 보통 《가(이)》로만 표시된다는 사실은 문장이 가져야 할 응당한 의미-론리적표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는(은)》도를 가진 형태가 세시, 강조 등의 《론리적표식》을 나타낸다면 《가(이)》도를 가진 형태는 그런 《론리적표식》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써 언제나 단어에만 의존되는 단위로밖에 되지 못한다.

《구》의 《주어》가 《는(은)》 형태를 취한다면 문장의 론리-의미는 파괴되거나 어색하여진다. 예:

- 저희들은 승용차가 대기름 기다렸다.
- X 저희들은 승용차는 대기름 기다렸다.

《구》의 《주어》에 《는(은)》이 총체로 붙을 수 없다. 이것은 《구》가 문장으로서의 론리-의미적계기를 완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실상 정 의 완결성이나 언어행위의 끝맺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준다. 사실상 정 의 완결성이 없으면 단독적으로 언어행위를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는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문장이 아니다.

여섯째로, 《구》가 다른 상관단위와 연결될 때 정속이나 그밖의 결합방법이 아니라 오직 《결합》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도어에 밀접히 의존하는 결합체임을 증시하며 또한 문장으로서의 구획성과 독자성을 못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결합의 방법으로 상관하는 단위는 그만큼 독자적인 문장으로서의 표시가 없다).

이상의 몇가지 근거로 보아 조선어의 《구》는 문장이 아니며 단어들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이 아닌 곳에서 문장의 표시를 찾는다는 것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절어의 《구》는 오직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시술적대상형)》 또는 그것이 확대된 단어들의 결합체일 따름이다. 《구》에서 《체언주격형》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으로 된 단위는 술어가 아니다. 구조 문법적 견지에서 볼 때 단어 결합체로서의 《구》는 그 어부구조에서 그 구조의 전개정도 외 형태에는 관계없이 문장으로는 되지 못하며 본질에 있어서 다 같은 질서의 단어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측면, 즉 《구》가 어떤 질서에 놓여 있는 단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기도 한다.

문장의 구조적 단위들이나 《단일문》들이 사실적으로 연결되는 인도-구파적어와는 달리 조선어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단계적 성격을 띠며 나아가서 문장의 모든 구조적 단위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 성격을 가진다.

예컨대, 조선어에서는 복합문도 포함하여 문장 질-문장 성분-단어 결합-단어 결합요소 등 서로 다른 질서의 계열이 단계적 성격은 띠면서 배열되며 때로는 서로 교차되기도 한다. 이 성우이 문장은 절보다, 절은 문장 성분보다, 문장 성분은 단어 결합보다, 단어 결합은 그 구성요소들보다 각각 높은 질서의 계열로 된다, 단어 결합은 구체적 인 언어행위 작품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질서의 일부가 없거나 뛰어넘어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보거나 낮은 단계의 질서도 보거나 높은 단계의 질서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불임) 《절》이란 《문절》, 다시 말하여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이다.

《구》는 언제나 단어 결합으로서 문장 성분으로 되거나 단어 결합의 요소로 된다. 말하자면 《구》는 문장의 구조적 요소들의 단계적 질서의 어느 하나에 속하면서 문장의 구성 성분 또는 구성재로 된 다. 그리고 조선어에서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낮은 질서를 높은 질서와 같은 계열에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는 데로부터 《구》도 반드시 조선어 문장구조의 단계적 질서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우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일부 문법 연구자들은 《구》에서 각종 《서술형》을 취한 단위를 곧 《술어》로 보면서 그것에 2중성을 부여한다. 즉 그 《술어》는 다음에 오는 《지배어》에 대한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기능도 품

시에 수행하면서 규정어, 《린절어》 등의 성분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의 《진술형》에서 진술화의 기능까지 부여하면서 《구》안에서는 술어, 전일적인 구조에서는 각각 《규정어》, 《린절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였다. 하나의 단어에 《2중성》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성분》으로 규정하면서 1차적으로는 비술어적 성분으로, 2차적으로는 술어적 성분으로 되는 《단계》가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질서의 상관적 단위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계열(문장 성분이라는 계열)에 놓고 《단계성》을 설정한 것이다.

《눈이 내리는 밤은 참 좋아 보인다》를 놓고 보더라도 《내리는》은 어디까지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서 《눈이》와 상관하는 것이지 《밤》과 단독으로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 문장 성분으로서의 상관관계는 오직 《눈이 내리는》과 《밤》사이에 설정되며 그것은 다른 질서의 것이다. 따라서 《내리는》이라는 개별적 단위에 《2중성》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우기는 개별적 단위 《내리는》, 《봄이》 등에 진술화의 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으로 되지 못하며 전일적인 문장의 구성재로 토만 되는 단어에서 서술어(술어)니, 《주어》니 하는 것을 찾는 것부터가 모순이며 《봄아》를 《보인다》의 그 무슨 《린절어》로 보는 것 자체가 혼란을 일으키는 시초로 된다.

《눈이 내리는》은 오직 용언 특성 결합으로 된 하나의 단위(단어 결합체)이며 《의존어+주도어》의 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성분이며 《내리는》은 용언성이 있고 부정적 방적으로 《제배어》와의 결합관계가 표시된 단위이다.

《참 좋아 보인다》의 《봄아》에 단계적 성격의 《2중기능》이 있다는 해석은 더욱 인위적이다. 《참》과 《봄아》 그리고 《봄아》와 《보인다》가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봄아보인다》가 상관하며 《봄아》에 바로 그 어떤 진술성, 진술화의 기능이 없으며 따라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그 어떤 표식도 없다. 《참 좋아 보인다》는 하나의 뜻명기, 하나의 통일적인 단어들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어 문장의 구조적 단위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 최소 단위가 한 단계 낮은 질서의 최대 단위로 된다는 단계적 성격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눈이 내리는》은 단어 결합체로서 하나의 문장 성분(《단어 결합체》)이라 할 수 있다.)으로 된다.

결국 조선헌어의 《구》는 문장이나 문장성분관계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의 질서에 속하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에 들어가는 단위이다.

전일적인 상관관계와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단위들의 구조-문법적 특성은 서로 다른 질서의 제별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중심성분》의 형태에서 《2중성》(2중적기능)을 부여하는 전례의 부담성을 말할 수 있다.

○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우리는 집에서 가면서 이야기하였다.

《중심성분》에 《2중적기능》을 부여하는 견해들은 이 예문에서 《비가 오고》와 《집으로 가면서》를 같은 질서로 보며 특히는 《가면서》가 2차적으로는 《구》의 《술어》이며 1차적으로는 문장의 《접속술어》라고 한다. 여기에 서도 서로 다른 질서의 결합관계를 한계선에 놓고 기제적으로 《2중성분》의 《단계성》을 해석하는 물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가면서》를 《술어》로 잡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문법적 해석이 아니라 본리적 해석이다.) 단독적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전일적인 구조적단위의 상관시키는데는 더욱 문제가 있다.

조선헌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아 《집으로 가면서》 전체가 《이야기하였다》와 상관하는 단위이며 《집으로》는 《가면서》와 개별적으로만 상관하는 단어결합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집으로 가면서》는 전일적인 상관관계의 단위로서의 《비가 오고》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단위이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한 질서에 속하는 유형인 조선헌어의 《구》는 그것이 확대된 구조이전 단순한 구조이전, 또한 그것이 《체언주격형+용언주격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형식을 띠었던 《체언주격형+용언주격형》의 형식을 띠었던, 그리고 그제 《의존어+주도어》의 형식을 띠었던 다 문장의 구성제로서 문장이나 절보다는 낮은 단계의 질서에 속하는 문장구조의 단위이다. 다만 그 구조적 형식이 《체언주격형+용언주격형》으로 된 유형만을 일반 단어결합체와 구별하여 따로 이름지을 수는 있을 것이다.

(붙임) 《체언주격형+용언주격형》의 구조로 된 유형만을 《진술적단어 결합》, 《주격적단어 결합》, 《대상적단어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과학적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더우기 《주어처결합》, 《술어처결합》, 《문장형식의 결합》 등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진술적단어 결합》, 《주격적단어

결합》이라는 것은 진술어의 포식을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문장성분의 관계이며 《주어처결합》, 《술어처결합》은 지배적인 문장성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름이며 더우기 《문장형식의 결합》이라 함은 진술성(또는 받침을 성)을 《구》에서 찾는 데로 되기 때문이다.

《체언주격형+용언주격형》의 구조로 된 《구》도 본질에 있어서 는 용언추결합의 보충적결합유형에 속하는 단어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헌어의 《구》는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아, 특히 단계적특성적으로 보아 문장과는 다른 질서의 단위이며 문장구성이전의 구성제료이며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유형에 속하는 단위이다.

## 2. 조선헌어 《구》에서의 진술성문제

아직 학계에서 《구》에 그 어떤 《반술어성》 혹은 《술어성》이 있느냐는 것이 여기는 경향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술성이 문장의 기본포식이고 끝맺기가 있는 언어행위에 있어야 할 필수적요소인것만큼 문장이 아닌 《구》에 그 어떤 진술성(《술어성》 또는 《술어성》)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구》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의하여 인식되고 평가되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특수유형인 《구》에 진술성이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되는가?

무엇보다도 《구》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주판적관계, 즉 말차림, 빙범주 등이 표시되지 않는다.

언어행위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만큼 거기에는 진술의 주자와 객자, 그리고 그의 행동, 상태, 포지 등이 언어적으로 현실적인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다 시 말하여 진술성을 가지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회적관계, 언어행위와 관련된다는 인물과 사물과의 호상관계, 사건과 사실의 현실성정도 등이 언어적 수단과 수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언어적 수단과 수법이란 말차림도, 범도, 현실성정도물 나라



내는 《양태어》, 보조어 품이다. 《구》에는 이러한 수단과 수법이 체계성을 띠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구》에는 그 어떤 진술화의 주관적 제기도 표현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관계도 표현되지 않는다.

《구》에는 사상의 완결성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현실성 점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없다. 진술내용과 언어행위의 순간과의 시간적 관계도 체계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객관적 현실의 모든 사실은 일정한 시간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언어행위는 이를 반영하여 시간관계로 형식화된다. 그것이 바로 문법적 시간의 표시이다. 《구》에는 그러한 시간범주가 체계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구》의 《규정형》에 나타나는 《는》, 《던》, 《근》 등의 로는 언어행위의 순간과 진술내용의 시간적 관계라기보다도 《상대적 시간》을 나타내면서 《주도어》에 대한 의존관계, 한정성의 기능을 논하는 것이다. 예컨대 《승용차가 뗏는》, 《가던 날》, 《가없이 넓은》에서의 《뗏는》, 《가던》, 《넓은》은 언어행위가 진행되어 가는 것보다 이전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면서 《의규정어》에 대한 한정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도 인 것이다.

《구》에는 또한 어떠한 진술역양도 없다. 《구》의 구조 자체에 전일성과 구획성으로 특색지어지는 성분-물동적 통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배어》의 구획되는 중단역양도 뚜렷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구》에는 진술화의 물질적 표시가 없으므로 진술성이 없다.

그러면 《구》에는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이 있는가? 월총적인 문법적 범주란 원래 과학적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이란 원래 애매한 절충적인 개념이며 문법적 범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문법적 범주란 언어적 수단과 수법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반진술성》로 나타나는 수단과 수법이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시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의 범주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장에 고유한 범주가 아니라 《서술성》, 《용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상 《구》에는 서술성, 용언성, 대상성과 판별되는 물질적 표시가 뚜렷하다. 그런데 서술성, 용언성과 진술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

는 단어나 품사론에 고유한 범주이고 다른 것은 문장론적 범주인 것이다.)

《제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이 곧 《주어+술어》가 아닌만큼 《구》에는 그 어떤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의 표시도 없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구》에 있는 마지막 단어의 규정형, 상황형, 서술적대상형 등은 서술성, 용언성의 물질적 표시이다.

· 조건의 《구》에 나타나는 서술성, 용언성 등의 표시는 일면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승용차가 뗏는 곳》, 《힘이 장수인 김동무》에서 주도어인 《뗏는》, 《강수인》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의하여 서술적으로 설명된다는 뜻에서 서술성이 있으며 《뗏는》에는 용언이 나타내는 일반 특성이 있다는 뜻에서 용언성도 있다.

《승용차가 뗏기를》, 《힘이 장수임을》과 같은 구조에서 주도어인 《뗏기를》, 《장수임을》에는 역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의하여 서술적으로 설명된다는 뜻에서 서술성이 있다. 이것은 조건의 바깥쪽과 그 바깥쪽의 기능을 분석일반화한 데 기초하여 얻어진 결론이다. 이리하여 《구》는 서술성으로 일관되고 용언성으로 상내적 차이점까지는 단어 결합체이다. 이때의 서술성, 용언성 등은 《반진술성》(또는 《반술어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법적 범주이다.

이상과 같이 조건의 《구》는 진술성은 물론 《반진술성》도 없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이다. 《구》의 기본표식은 오직 서술성, 용언성이다.

### 3. 조건어 《구》의 순위상 특성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통일체인 《구》는 진일적인 문장구조 안에 이 그 순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구》의 상관관계가 문장 초·중·말 또는 문장 성분 호상간의 상관관계의 질서와는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순위상 제한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는 그가 힘장수임을 알았다.》, 《행방들이 거리의 아성을 이부시게 비치었다.》 등에서 《그가 힘장수임을》, 《눈이 부시게》, 《독수한 경우를 내놓고는 그것같이 의존하는 주도어》(《알았다》),

《비치였다》)의 앞에만 위치한다. 그리고 이불 《구》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어느 하나도 위치를 바꿀 수 없다. 이불 《구》가 필요에 따라 주도어의 좀 떨어지는 경우에도 특수한 문체를 제외하고는 주도어의 뒤에 가는 일은 존재로 없다. 이 모든 사실은 《구》가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부여된 전일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 전일체의 구성 요소들의 위치가 제멋대로 바뀐다면 의미상연체는 끊어지고 문장전반의 뜻은 혼란되고 마는 것이다.

《구》가 부여된 전일체라는 데로부터 그 구성 요소들의 일부가 위치를 바꾸어 단독으로 문장의 다른 단위의 상관할 수 없다는 특성이 나온다. 여기에서도 《구》가 문장이나 문장성분들이 맞물리는 질서보다 질적으로 구별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가 전제된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일 경우에도 비록 결합전일체의 테두리안에서는 그 구성 요소들의 자리를 약간 바꿀 수 있을지 언정 결합전일체 밖으로까지 자리를 옮길 수는 없다. 이것도 《구》의 순위가 문장의 다른 단위들보다 다른 점이다.

○ 한동안 눈속에서 문해 포근히 잠들었던 데지는 또다시 급작스럽게 달리는 북방의 강추위에 시달리며 우-우-비명을 질렀다.  
이 때에서 《한동안 눈속에서 문해 포근히 잠들었던》은 전제된 단어 결합체로서의 《구》이다. 이 《구》의 요소들 가운데서 《한동안》, 《눈속에서》 등은 약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나 그밖의 요소들은 뜻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자리를 옮길 수 없다(예: 눈속에서 한동안 문해 포근히 잠들었던). 그리고 이불 구성 요소들의 어느 하나도 그 《구》의 말하리밖으로 벗어나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 《구》를 제외한 《데지는 또다시 급작스럽게 달려든 북방의 강추위에 시달리며 우-우 비명을 질렀다.》에서는 그 구성 요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지어 《구》의 앞에까지 자리잡을 수 있다.

《구》는 문장의 앞부분을 차지하진 그밖의 가운데나 뒤부분을 차지하진 언거나 결합전일체로서 옮겨진다.  
이 모든 사실은 《구》가 문장이 아니며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와도 다른 관계에 있는 문장론적단위, 즉 단어들의 밀접한 결합체임을 말하여 준다.

조섭어의 《구》는 이와 같이 구조-문법적 특성, 상관관계의 특

성, 순위상 특성 등으로 보아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도 아니며 《문장-성분》도 아니다. 조섭어의 《구》는 조섭어적인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전일체이며 특수한 유형에 속하는 단어 결합체이다.

### 제 4 절.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으로서의 《부》

조섭어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구조적단위들의 단계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확대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여러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확대구조로 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유형 가운데는 《체언주격+용언서술형》 또는 그와 등가적인 것으로서 서술성을 가진 《의존어+주도어》의 구조가 아닌 결합전일체, 즉 서술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어 결합 또는 단어절속 및 단어병립 등의 전일체가 있다. 이것을 《부》라고 일컬어 왔다.

문법연구자들은 이 《부》가 어떤 성격의 단위인가 하는 문제에 용담한 주의를 돌리었다. 그러면서도 《부》에 대한 이해에서 한결 같지는 않다.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의 단계적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단위들 다 문장성분으로 보는 견해들은 《부》를 《단계적문장성분》으로 다루고 문장의 구성체로서의 단어 결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여 《주성분에 대한 부성분》,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 《확대구조의 부성분에 대한 다음 단계의 부성분》 등의 관례로 보았다.

다른 문법적 견해들은 문장구조의 단계적성격과 《부》를 결부시킴이 없이 그저 《확대문장성분》의 한 변종으로 보면서 《주어부》, 《수식부》, 《술어부》 등을 갈라냈다. (예: 수길이의 그의 아버지는 매우 빨리 글을 읽어내려왔다.)

문리주의적립장에 선 학자들은 문장에 두 개의 중심을 설정하고 《주어부》, 《술어부》 또는 《주체부》, 《침명부》의 대응관계만을 설정하였다. (예: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주격부) (설명부)

최근에 와서 이 모든 견해들과는 달리 《부》를 본질상 분장의 구성체로서 단어결합체라고 인정하는 견해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부》를 문장구조의 《확대된 어음절》, 《확대된 구조를 이루는 결합체》로 보았다.

다만 전제들을 제외한 지난 시기의 모든 견해들의 약점은 권일치인 문장구조와 상관하지 않는 질서인 《부》의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동일시하였거나 문장구조의 단계적 성격과 용례 결부시켜 《부》의 특성을 밝히내지 못한 데 있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이라 할 수 있는 《부》문제를 좀더 깊이 연구하여서는 여기에 서도 문장구조의 민족적 특성을 충분히 고찰한 데 기초하여 그 단계적 성격을 좀더 리해하여야 한다.

### 1. 조선어 《부》의 구조-문법적 특성

조선어의 《부》가 어떤 문장론적 단위인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측면이 밝혀져야 한다. 그 하나는 《부》의 구성요소들이 품문장성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단어결합체를 이루는 요소들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 어떤 질서에 놓이는 단위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측면에 대하여 먼저 해명하기로 한다.

《부》의 구성요소들에 문장성분이 가쳐야 할 모든 특징이 있는가, 다시말하여 《부》는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졌는가?

《부》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어결합체일 것이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 《결합》, 《접속》, 《병립》의 결합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수평에 대한 중심성 문제: 문장성분의 역사적 위업 수행에서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 혁명과 전설은 인민대중이 창조적 활동으로 하여 추진된다.

○ 사상, 기술, 문화의 공적혁명을 수행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사수성 실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서 《로동제급의 역사적 위업》, 《그 운명을》, 《혁명과 전설은》, 《사상, 기술, 문화의》는 《부》이다. 즉 《결합》, 《접속》,

《병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된 단어결합체들이다.

이 단위들은 구조-문법적으로 보아 각각 그위에 따르는 지배이인 《수평에서》, 《좌우하는》, 《추진된다》, 《3대혁명》 등을 설명하면서 전일체로서 의존관계에 있는 확대구조의 결합체들이다. 이 확대구조로서 《부》의 개별적 단위들은 분장성분이 아니라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의 구조안에 있는 개별적 요소들은 어느 하나도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기능적단위와 상관하지 않는다.

이들 결합전일체의 개개의 구성요소들은 단독으로 분장성분과 상관하지 않기에문에 결합전일체로서의 《부》안에는 문장성분의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로, 위에서 예로 든 결합체들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어느 한 단위(또는 문장성분)와 상관하는 경우에도 문장성분보다 낮은 위치의 계열(또는 문장성분과 교차하는 계열)에 속하게 된다.

개별적인 문장성분과 상관하는 경우에도 단어결합체전체로서 관찰할 때들이기때문에 《부》의 개별적 구성요소는 문장성분이 아니라 단어결합의 요소(또는 단어결합체의 성분)이다.

셋째로, 《부》들에는 전술적 양은 물론 서술적 양의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다.

구회성과 통일성이 결합되었거나 구회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선을 분동기동일이 뚜렷한 양의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각 구성이나 서술성의 어음적고기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넷째로, 《부》에는 전술성은 물론 서술성을 나타내는 형태-문법적으로도 없다.

《부》에는 전술내용의 현실성정도, 대상과 현상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문법적 수단과 수법이 물질화되어 있지 않다. 《부》에는 수평적 대상이나 대개는 물질적포식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부》는 문장도 아니며 그 구성요소들은 문장성분도 아니다.

다섯째로, 《부》의 개별적 요소들의 순위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결합체는 상대적으로 분할되었으나 밀접히 연관된 통일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전일적인 통일체로 된다.

어섯째로, 《부》의 요소들의 연결방법은 《결합》, 《결속》, 《병립》으로 되어있으며 그 결합체전체는 체언속 및 용언속 결합으로만 되어있다. 이것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전일체에 고유한 특성이다.

일곱째로, 《부》가 아무리 확대된 구조라 하더라도 결합의 외적 형태는 오직 격토, (절대적까지 포함), 상황형토토만 되어있어 그것이 전일체의 문장론적기능을 대표한다. 이것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전일체에 고유한 특성이다.

이상의 모든 근거로 보아 조립어 《부》는 그 구조적요소들의 관계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되어있지 않으며 한갓 단어들의 결합 전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부》 안에서 그러면 문장성분을 찾는것은 잘못이다.

조립어의 《부》는 《결합》, 《결속》, 《병립》의 방법으로 밀접히 의존되어있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보다 진밀한 전일체이다.

(붙임) 《연결》의 방법으로 결합관계를 이루는 《학생 셋이》, 《우리가 두가》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조》로 되는 측면이 《결합》, 《결속》, 《병립》의 그것과 좀 다르며 《대상화인》이라는 성격이 좀 두드러진다. 보다 넓게는 단어결합체에 들어가서는것만은 사실이다.

블쎄 측면, 즉 《부》가 어떠한 단계적질서에 놓여있는 단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기로 한다.

조립어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띤다는 일반적인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인 《부》도 그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단계적성격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그 단계적성격은 서로 다른 질서들의 계열상 체계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기초우에서만 유효하게 파악된다. 즉 문장절 문장성분 단어결합-단어결합요소 등의 계열이 단계적성격을 띠면서 배열된다는 조립어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만 유효하게 이해된다.

《부》의 추도어에 그 어떤 《중기농》을 부여하여 1차적으로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구성성분, 2차적으로는 《부》의 《문장성분》으로 볼것이 아니라 《부》안의 요소들은 문장성분과 다른 질서이며 《부》전체 구조만이 문장성분과 대응한다는 필장에 서야 한다.

그런데 일부 문법언어가들은 《부》의 추도어에 다음과 같이 《중기농》을 부여하고있다.

부

○  $\frac{\begin{array}{c} \text{구성어} \\ \text{구성어} \\ \text{구성어} \end{array}}{\text{구성어}}$   $\frac{\begin{array}{c} \text{구성어} \\ \text{구성어} \\ \text{구성어} \end{array}}{\text{구성어}}$   $\frac{\begin{array}{c} \text{구성어} \\ \text{구성어} \\ \text{구성어} \end{array}}{\text{구성어}}$

부

○ 우리는 교육과 생산노동은 결합시킨다.  
 $\frac{\text{교육}}{\text{교육}} \frac{\text{생산노동}}{\text{생산노동}}$

이것은 서로 다른 질서의 상관적단위를 같은 계열에 놓고 《단계성》을 인위적으로 설정한것이다. 《부》의 구성요소들에 문장성분의 자격을 주는때도 문제가 있지만 《추도어》를 따로 떼어내어 거기서 《중기농》을 부여하는것은 혼잡성만을 주는 비현실적인 태도이다. 오직 《교육과 생산노동》의 동일체로써 《결합시킨다》와 상관시키며 《노동체급의 역사적위업》의 전일체로써 《수행에서》와 상관시키며 《노동체급의 역사적위업》의 전일체로써 《수행에서》와 상관시키는것은 문장성분을 극복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노동》만을 《결합시킨다》와 상관시키거나 《역사적위업》만을 《수행에서》와 상관시킨다면 《부》의 동일성과 의미적연관은 파괴되며 마땅히 문장의 뜻은 바로 파악되지 못한다.

《부》에서의 단계적성격은 기본적으로 《구》에서의 그것과 같다. 조립어의 《부》는 《구》의 마찬가지로 문장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의 질서에 놓이는 단어들의 결합체의 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부》도 더 복잡하게 확대된 구조를 이룰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는 추도어에 대한 수식성, 대상성을 잃지 않으며 의존어(또는 절속, 병립되는 단위)의 체언속 및 용언속 결합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으로서의 조립어 《부》는 그것이 단순한 구조이건 확대된 구조이건 진실성이나 서술성을 가지지 않으며 문장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의 질서에 속하는 문장론적구성단위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조립어의 《부》는 구조-문법적특성으로 보나 단계적성격으로 보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단위는

아니며 문장구성이전에 있는 문장의 구성재로이던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한 변종이다.

### 2. 조선어 《부》의 기본표식

문장의 기본표식이 진술성이고 《구》의 기본표식이 서술성, 용언성이라면 《부》의 기본표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부》라는 구조적단위를 설정하는 모든 문법가들이 《부》에 문장의 표식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일이 없는것만큼 여기서 진술성문제는 논의의외의것으로 된다.

그러나 일부 문법적전해들이 규정형, 상황형도 《풀이형》으로 보는베는 문제가 있다.

《풀이성》이라는 용어가 《풀이말》의 기능을 일반화한 개념으로 리해되기 쉬운것과 마찬가지로 《풀이형》이라는 용어도 풀이형(또는 《진술형》)과 같이 리해되기 쉽고 저기에 그 어떤 《진술성》, 《서술성》이라고도 있는것으로 취급되기 쉽다.

서술성이란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하여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개념인것만큼 용언성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그런것만큼 용언의 서술형으로 되는 《구》에는 서술성이 있으나 오직 대상형이나 상황형으로 되는 《부》에는 이런 서술성이 있을수 없다.

그러면 《부》의 기본표식이 서술성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한마더로 말하여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한 서술적전명이 없는 《부》에는 대상성과 수식성만이 있다.

《부》의 구조전반에는 물론 그 구조의 《주도어》에는 용언성이 없으며 대상성이 있다. 행동성이 없고 대상성만이 있는곳에 서술성이 있을수 없으며 오직 대상성밖에 있을것이 없는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상성은 《부》의 기본표식이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기본표식이 수식성인 경우를 보자.

○ 생산실적은 날마다 매우 높<sup>이</sup> 뛰<sup>어</sup>올랐다.

이 예에서 《부》인 《매우 높<sup>이</sup>》라는 단어들의 결합전체는 《뛰<sup>어</sup>올랐다》에 상관한다. 이 《부》는 그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면서 정도나 한도를 표시한다. 이것은 행동성이 아니라 상태의 정도에

내한 수식성이다.

서술성과 수식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술성이 행동적인것이 라면 수식성은 양적 및 질적 규정인것이다. 따라서 이 예의 《부》에 는 서술성이나 용언성은 없고 수식성만이 있다. 이때 수식성은 《부》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이와 같이 《부》에서는 대상성이 아니면 수식성만이 그의 기본 표식으로 된다. 《부》의 《주도어》의 형태가 제외없이 대상형이나 상황으로 되어있다는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잇닿아있다. 동일한 단어들의 결합전일체인 《부》와 《구》의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의 기본표식은 오직 수식성과 대상성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단어들의 결합전일체들의 서로 다른 류형의 기본표식을 밝힘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특성, 주도어의 문법시특성, 결합전일체와 상관하는 문장성분과의 요상관계의 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학적타당성을 일게 된다.

### 3. 조선어 《부》의 순위상 특성

조선어 《부》는 권일적인 문장에서 그 배열순위가 자유롭지 못하다.

《부》는 그 순위가 문장성분보다도 꽤 자유롭지 못하며 《구》의 구성요소들보다도 그 구성요소들의 순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 《부》안에서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문장호상간, 문장성분호상간의 상관관계보다 그 방식이 다른 탓이며 《구》보다도 더 공고한 단어결합체인 까닭이다.

《부》는 그것들이 관계하는 주도어의 앞에만 위치할뿐아니라 《부》안의 구성요소끼리 서로 위치를 바꿀수도 없다. 단일 《부》가 구성요소들의 위치를 제멋대로 바꾼다면 전일체로서의 뜻명이는 위무되어 파악되며 마침내 문장의 본뜻도 혼란되고만다.

《부》의 구성요소들의 순위는 매우 공고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부》가 순위상 매우 공고한 특징을 가진다는데로부터 다른 질의 단위의 한계선에 놓을수 없고 그 구성요소들도 단독으로 문장 다른 단위의 상관시킬수 없다는 특성이 나온다. 여기서도 《부》

의 구성요소들이 문장이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질서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을 보게 된다.

《부》가 더 전개된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결합전일체안에서 구성요소들의 순위는 좀체로 바꾸지 못한다. 이것도 《부》가 문장의 모든 질서보다 다른 점이다. 예컨대, 《식란은 자부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중요한 원료이며 원료이다.》에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는 여러개 단어들의 전개된 결합체인데 그 구성요소들의 어느 하나도 순위를 바꿀수 없다. 그리고 이 전개된 구조의 《부》는 언제나 주도어 《중요한 원료》의 앞에만 위치한다. 이것이 《부》구조의 결합상공고성을 말해주는 측면이다.

《부》는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진, 가운데에 위치하진 또 뒤부분을 차지하진 언제나 결합체로서만 있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은 《부》의 구성요소들이 문장성분이 아니며 문장이나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도 다른 질서의 단위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조선어의 《부》는 구조-문법식특성, 문장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상관관계의 특성, 순위상 특성 등으로 보아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에 속하는 공고한 결합체이다.

우에서 조선어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합법칙성, 빈축적특성을 밝힐데 기초하여 단어들의 문법적연결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조선어 《부》, 《구》가 가지는 여러 특성들을 밝혔다.

상대적인 구획성과 통일성의 표시으로 특징지어지면서 독자적인 진출도 되지 못하는 조선어의 단어결합체들은 문장이전의 단계에 속하는 질서의 단위로써 전일적인 문장의 구성재료를 이루는 언어적구조이다.

조선어의 《구》나 《부》도 다 상대적인 구획성과 통일성이 갖추어진 공고한 통일적 뜻명으로서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 고유한 구조적유형이다. 그 구성요소들의 연결성격과 연결방식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나 문장의 구성재료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단어들의 결합관계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상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구조-문법적특성과 단계적성격의 특성을 밝히는데 기초하여 단어결합의 요소들과 문장성분의 호상

관계도 밝혔다. 이것은 문장의 성분화를 과학적으로 다루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

(붙임) 《부》와 관련하여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 문제가 제기된다. 종전에 대부분의 문법적전해들은 《수길이와 그의 아버지》는 매우 빨리 끝을 잃었다.》에서의 《수길이와 그의》, 《예우》라든지 《나의 아버지의 가방》에서의 《나의》와 같은 단위도 《부성분》으로 보았다. 《수길이》, 《그의》, 《예우》, 《나의》 등에는 그 어떤 문장성분으로서의 포착도 없다. 이것은 《단어결합의 성분》 또는 《단어결합체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의 설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간다.》, 《아버지의 책을 가져온다.》, 《담뱃이 매우 높다.》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예우》는 《부성분》에 대한 부성분》이 아니므로 문장성분의 대상으로 잡는것이 옳다. 이것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의 1차적인 상관적단위(또는 2차적인 상관적단위)로서의 문장성분이며 단어결합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 제3장. 문장성분

친에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글을 잘 쓰자면 우리 말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면 단어나 문장 표현이 매우 단순합니다. 단  
어나 문장 표현이 단순한것은 우리 말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 쓰려면 우리 말 공부를 많이 하여 조선어에 대한 풍부  
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선어문장성분에 고유한 제반 특성을 리론적으로 해명하는것  
은 문장성분회론 과학성있게 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문장조직  
능력을 키워주는 데서 리론실천적의의가 크다.

문장성분은 문장의 구조적요소를 이루면서도 단어들의 결합관  
계의 질서와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문장의 구조적요소는 형식적  
측면, 양측면의 강화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기능적측면, 질  
적측면파의 통일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문장성분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문장성분에 관한 문제는 문장론에서 기본을 이루는 문제의 하  
나로서 문장에 적용하는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민족성원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 주요고리의 하  
나이다.

사람들이 문장을 짜는 구체적인 활동은 이러저러한 문장성분들  
을 맞물려놓아 사상감정의 매를 잘 이어놓는 과정이다. 문장이  
잘 짜였다는것은 그만큼 문장성분의 맞물림이 잘 되었다는것이다.

말과 글이 짜이고 순간적으로 되자면 언어교체의 단위인 문  
장의 구성성분들의 맞물림을 제대로 리해하고 제대로 짜야 한다.  
문장의 구성성분들의 맞물림을 제대로 리해하고 제대로 짜는 과정  
을 통하여 문장조직의 능력을 키우게 되며 나아가서 언어사용의 능  
수로 된다.

문장성분에 관한 과학적해명은 문장조직의 능력을 키우며 문간

리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같은것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되는 문장성분과 문장론과 보편  
적 조선어문성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기능적특성을 깊이 기이므로 고  
찰하게 된다.

### 제1절.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과 단위

문법이 과학으로 성립된 이래 문장성분에 관한 문제, 특히 문  
장성분의 본질적표식을 어떻게 보며 그 단위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논쟁적인것으로 되어왔다.

오래동안 문법학계를 지배하던 론리주의는 문장성분을 론리적  
법주와 동일시하면서 모든 문장구조를 《주사》와 《비사》 또는 《주  
사》와 《제사》 그리고 《비사》의 상관관계로 보았다. 이리하여 문법  
적성분화는 사실상 뒤로 밀리고 문장구조에 대한 론리적해석이 문  
법에 도입되었다. 문장성분을 론리적법주로 바꾸어 《보편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언어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론리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서 태어난 형식주의는 문장구조  
의 형식상의 표식을 절대시하는데로부터 문장안의 형태단어와 문장  
성분을 직선적으로 판별시켰다. 그리하여 주격형태로 된 모든 단위  
는 주어로, 그밖의 모든 《사격》(《보충형태》)으로 된 단위는 보어  
로, 조격형태로 된 단위는 부를말로만 보았으며 《무형태단어》로 된  
단위는 수식어 또는 양상어로, 서술형(또는 진술형)으로 된 용언  
또는 체언은 술어로만 보는것과 같은 결과를 빚어왔다.

지난날 일정한 시기까지 일부 문법학자들은 품사와 문장성분  
의 한계를 석연히 못지 못하였거나 동일시하는 일도 있었다. 이리  
하여 《4품사》, 《5품사》와 《4성분》, 《5성분》이 대응되었으며 품사론  
적법주와 문장론적법주가 뒤갈리게 되었다. 구태에 이르러 《5성분  
설》이 문법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문법학계를 지배하게 된 《5성분설》도 그 밑바닥에는 적지 않게  
론리적해석이 깔려있다. 그리하여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주성분》, 《부성분》의 도식이 도입되었으며 《5성분》의 성분화  
가 하나의 《진동》으로 되었다. 이 되었다.

그밖에도 조선훈어의 문장성분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서로 다르게 보고 문장성분의 형태를 3개로부터 8개로까지 설정하는 일도 있다.

(별임) 주시경은 문장성분을 문장의 구성부분으로 이해하고 크게 임이불이(주자부), 삼이불이(물자부), 남이불이(결자부)로 나누었다. 이리하여 3개 성분만을 문장의 기본성분으로 인정하였다.

문리주어적법장에 선 학자들은 《붉은 해당화가 아름답게 피어났다.》와 같은 문장에서 《붉은》이나 《아름답게》를 같은 성분으로 보는가 하면 《박동무의 일하는 모습》에서의 《박동무의》는 때로는 주어, 때로는 규정어, 때로는 보어로도 보았었다.

평식주의적법장에 선 학자들은 문장성분을 단어결합체의 요소들과 동일시하거나 《어종-어사-어》의 체계에서의 《어》에 해당하는 단위로 봄으로써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의 의미-기능을 무시하였다. (이때의 《어종》은 형태부, 《어사》는 품사, 《어》는 형태간어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이 모든 견해들의 제약성은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과 그 단위 설정 문제를 조선훈어의 구체적현실에서 출발하여 풀어나가지 못함에서 나왔다.

조선훈어문장구조를 옮겨 성분화하기 위하여서는 구조-문법적립장에 본뜬히 서서 문장성분의 본질적표식을 밝혀내 기조하여 조선훈어문장에 고유한 성분단위를 잡아야 할것이다.

### 1. 문장성분에 대한 일반적해설

조선훈어의 문장성분은 어디까지나 전일적인 문장을 구조-문법적법장에서 나누는 의미-기능적단위이다. 이때의 의미-기능적단위는 전체 문장을 그 구조적특성과 문법적특성에 따라 일련의 상관적단위로 나누는 결과 얻어진다. 전일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문장은 일정한 의미-기능적단위들의 맞물림으로 통일된다.

문장성분이란 주어전 문장에서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의미-기능적단위이다. 다시말하여 문장성분이란 일정한 전일체를 이루는 문장구조에서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림관계에 놓인 의미-기능적단위를 갈라놓은것이다.

문장성분은 두엇보다도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나누어놓은 일

련의 의미-기능적단위,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는 의미-기능적인 구성성분이다.

○ 조선훈어의 전도는 참으로 암암하다.

○ 민족적 궁극과 자부심이 높은 인민은 단결력도 강하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림관계에 있는 의미-기능적단위의 기획성, 즉 일정한 문장구성성분이 맞물림관계속에서 그 의미와 기능으로 구획된다는데 문장성분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다.

맞물림관계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기능은 곧 문장의 전체 내용인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구성단위의 어휘 문법적의미와 문장론적기능이다. 이러한 구성단위의 어휘-문법적의미와 문장론적기능이 상대적으로 구획되어나올 때 비로소 전체 문장의 대상-루리적의미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실속있게 파악되는것이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상감정으로 얽혀진 문장의 전체 내용이란 단계를 에 파악되는것이 아니라 루리적과정을 밟아 서로 맞물리는 단위들의 연결시키면서 순차적으로 파악되기때문이다. 이 경우의 맞물리는 단위가 바로 문장성분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안에서 맞물림관계에 있는 단위의 의미와 기능의 파악 이것은 문장성분을 갈라내는 전제이며 문장의 뜻과함의 현실적표식이다. 문장성분이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질서, 단어들의 결합체의 구성요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어들의 결합체는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질서이며 문장구성체의 각도에서 갈라본 단위이다. 따라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구성 요소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단위인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성체로들의 맞물림이다.

물론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요소들과 문장성분이 서로 교차되거나 일치되는 때도 있으나 전개된 구조에서는 보통 아무런 교차관계도 없이 서로 다른 질서로 나타난다.

단일한 구조이전 전개된 구조이전 문장성분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이며 전일체인 문장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획된 단위이다.

문장성분은 다음으로 구조-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단위이다.

문장안에 있는 요소들은 문리-의미적으로도 맞물릴수 있고 이



음-불동적으로도 맞물릴 수 있으며 현실-내용적으로도 맞물릴 수 있다. 그러나 문장성분은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물리는 단위이다.

앞에서 예로 든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하다.》에서 4개의 문장성분은 《의존어+주도어》의 맞물림관계를 가지는 단순단일문의 구조속에 서만 확정된다. 만일 문장구조가 바뀌면 구성단위들의 문법적연계가 탈리되어 동일한 형태단어로 된 문장성분도 다른 기능으로(즉 다른 성분으로) 될 수 있다.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외판성분》을 가진 문장에서 그 특수한 하나의 단어, 《외판성분》을 규정짓는 요인도 바로 그러한 문장구조에서 문법적인 상관관계가 특수하다는 데 있다.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문법적으로 일정한 의존관계에 있는 맞물리는 단위라는 데 문장성분의 포하나의 본질적속성이 있다.

문장성분은 또한 문리적분석에 의하여 파악되는 맞물림단위이다.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물림관계에 놓인 의미-기능적단위인 문장성분은 삼관하는 단어(또는 단어결합체)들의 어휘적 및 문법적 의미에 기초하여 그 기능이 확정된다. 이러한 기능은 전일적인 문장구조를 문리적으로 분석할 때 파악된다. 이러한 문리적분석과정이 없다면 도대체 의미-기능적단위인 문장성분의 구조도 불가능하다. 문장성분을 일명 문리-문법적범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문장성분이 문리적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맞물림단위라는 것은 전일적인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문리적분석, 문리적구조획이 없이는 어떠한 맞물림관계도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문장성분의 의미-기능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문리적분석을 통하여 맞물림관계가 파악되는 단위라는데 바로 문장성분의 다른 또하나의 본질적속성이 있다.

이상에서 조선어문장성분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쌓았다. 이것은 조선어문장성분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면 조선어문장성분은 어떤 질서의 단위인가?  
조선어문장성분은 첫째로,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지는 단

위이다.

문장의 구조적단위들은 그 성분화의 성격에 따라 문장내용파악의 정도에서도 다른 영향을 준다.

예컨대, 일정한 말소리동경에 따라 토막짓는 어음 의미적성분화(예: 우리의 신념은 / 그 누구도 / 깨지 못하리!)에 의하여 얻어진 단위들은 주로 입말의 정확성과 그 내용파악의 신속성에 도움을 준다면 현실-내용적성분화(우리의 신념은 그 누구도 <sup>(후이진장)</sup> 깨지 못하리!)에 의하여 구획된 단위들은 입말과 글말의 문리성과 그 내용파악의 정확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문법적성분화에 의하여 일정한 기능적단위로 구획된 성분들은, 주로 글말의 내용을 정확하고도 적절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우리의 신념은 그 누구도 깨지 못한다. <sup>(후이진장)</sup>  
규정이 보여 주어 <sup>(세지)</sup> <sup>술어</sup> 못한다.

일정한 실수에 배열되는 글말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물리는 단위로 하나하나 파악해나갈 때만이 옮겨 리해된다. 이렇게 문장구조를 문법적으로 맞물리는 단위별로 구획하고 하나하나 파악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문법적성분화이다.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산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문법적으로 형식화되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어에 상 그러한 형식화의 수단은 토, 보조적단어, 어음-구조적요소 등이다. 이 문법적형식화의 수단에 의하여 문장성분의 기능도 확정되는 것이다.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진 단위이라는 것, 여기에 그것을 다른 모든 성분화의 단위와 구별해주는 기본특성이 있다. 조선어문장성분은 둘째로, 문장론적관계속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맺는 문장론적관계란 단어가 맺는 현실과의 관계,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단위로 되는 단어(또는 단어결합체) 호삼간의 문법적연계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의존어+주도어》의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단위와 하나의 단어(또는 하나의 단어결합체), 《외판성분》도 조건어에서는 문장성분으로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여

기에 있다.

문장성분이 문장론적관계에 들어간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진 단위라는 특성은 조건의 모든 문장구조를 남김없이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조건어문장성분은 셋째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파악되는 상대적차립성의 뜻들이들의 맞물림단위이다.

이것은 문장성분이 상대적으로 구획되어 파악되는 단위라는 본질적표식에서 나오는 특성이다.

상대적으로 구획되어 파악되는 뜻들이들의 맞물림이라는 특성이 없다면 하나의 의미-기능적단위가 파악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구획되어 파악되는 뜻들이로서의 문장성분의 특성은 문장의 전체 내용을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기초단위로서의 문장성분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뜻들이의 파악이 없이는 그 어떤 의미-기능적단위도 구분할 수 없으며 문장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뜻들이라는 특성, 이것은 문장성분의 내용적 측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조건어문장성분은 넷째로, 일정한 기능성분으로도 되며 그 기능성분을 보충전개하는 전개성분으로도 될 수 있는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기능》과 《전개》의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문장성분화에서 기본성분과 전개성분(확대성분) 또는 주도성분과 의존성분을 잘라낼 수 있는 기초로 된다.

조건어문장성분은 다섯째로, 문장구조속에서 일정한 뜻마루를 가질 수 있는 단위이다.

언어행위과정은 여양상 동일체들의 리해파장이기도 하다. 여양의 구성요소로 되는 뜻마루는 진술의 논리적 및 정서적 구조를 형성화해함으로써 문장내용의 정확한 파악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 때 뜻마루는 바로 문장성분을 단위로 하여 표시되며 문장성분에 떨어진다.

문장성분이 뜻마루를 가지는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그것이 문장내용파악의 《안대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성분이 어음문장론적단위로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조건어문장성분은 여섯째로, 그것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속에서

어순배열의 제약을 받는 단위이다.

어순이란 더불어나인 문장성분의 배열순서이다.

어순은 민족적특성을 지니면서 일정한 규칙밑에서 문장성분을 단위로 하여 확정된다. 조건어에서는 단어결합체의 어순이란 비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문장성분의 어순이다. 조건어 《구》나 《부》의 순위상제약성도 바로 그것들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문장성분이 어순배열의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문장성분을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적단위로 잡는 힘있는 근거로 된다.

조건어문장성분은 일곱째로, 문장구조안에서 별거 또는 중첩되는 단위로도 될 수 있는 단위이다.

구체적인 언어행위과정에는 일정한 기능적단위를 지급하여 별거하거나 의미 제시한 기능적단위를 세화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능적단위를 포개여 중첩시킬 수 있다. 이때 별거되거나 중첩되는 단위도 문장성분의 자격을 얻게 되며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문법적으로 구획된 기능적단위로 된다. 이것이 《기능성분》, 《동격어》, 《제시어》, 《총괄어》 등으로 일컬어지는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문장구조안에서 별거 또는 중첩되는 단위로 된다는 특성은 조건어문장성분화에서 특수한 문장성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이상에서 본 조건어문장성분의 단위상특성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의미-기능적단위로서의 문장성분에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단위상 특성을 꿰뚫고 있는 일관된 것은 조건어문장성분의 구조-문법적특성이다. 이 일곱까지의 단위상 특성은 이리저리하게 구조-문법적특성이라는 일반화된것에 귀결된다.

결국 문장성분이란 구조-문법적특성에 기초하여 구획되고 확정된 문장의 의미-기능적상관단위이다.

## 2. 조건어문장성분의 단위에 대한 확정

조건어문장구조의 특성에 맞게 문장의 성분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장성분으로 될 수 있는 단위를 용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장성분으로 될 수 있는 단위, 즉 문장성분의 단위를 용재 잡을 때

문장의 성분화는 과학성을 띠게 되며 그 성분화의 결과를 인민대중이 쉽게 파악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문장성분화는 문장의 내용을 풍부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조가 단계적정적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으며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방식이 다양한 조선어문장구조는 처기에 알맞는 문장성분화를 요구하는것만큼 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때에도 조선어적인 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문법적전해들은 문장성분의 단위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단위사이에서 서연한 계선을 갖지 않은데로부터 문장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상관관계의 단위까지 모두 문장성분으로 잡았다. 그리하여 문장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단위(단어)는 곧 문장성분으로 되게 하였다.

이렇게 문장성분의 단위를 잡고 문장성분화를 한다면 문장의 내용파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서로 다른 질서를 뒤섞어놓는것으로 된다.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은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것이다.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단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어휘-의미적상관성, 구조기능성, 그리고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수단과 수법의 특성 등을 통일시켜 고찰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구조-문법적표시를 위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문법적성분화란 다분히 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기초하여 단일적구조로서의 상관단위를 가르고 그 문장론적기능을 규정하는 과정이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어 문법적성분화의 원칙은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서 문장론적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을 통일적으로 고찰하는것이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성의 별로 빛나는 려사들이 매성산 주작봉마루에 영성의 모습으로 빛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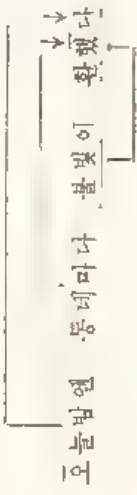
이러한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재료는 자립적단어, 단어들의 결합체, 《부합어》, 《어음론적단어》 등이다. 그런데 이 구성재료들이 맺고있는 문장론적관계, 상관관계의 성격과 질서는 똑같은것은 아니다. 어떤것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제투리에서 상관관계에 놓인다 면 어떤것은 전일적인 구조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인 상관관계의 질서에 놓인다. 상관하는 단위들의 단계적정적과 구획되는 단위가 서로 다른 질서에 있다.

이 전일적인 문장에서 1차적으로 구획되어나오는 상관적단위는 《총성의 별로 빛나는 려사들이》, 《매성산 주작봉마루에》, 《영생하는 모습으로》, 《빛나게 되었다》이며 2차적으로 구획되어나오는 상관적단위는 《총성의 별로 빛나는》, 《려사들이》, 《매성산》, 《주작봉마루에》, 《영생의》, 《모습으로》이며 3차적으로 구획되어나오는 상관적단위는 《총성의 별로》, 《빛나는》이다.

3단계로 구획되는 이 문장구조에서 《려사들이》, 《주작봉마루에》, 《모습으로》, 《빛나게 되었다》는 전일적인 구조의 상관관계에 있는 단위이며 《총성의 별로 빛나는》은 자립적단어들의 결합체이며 《매성산》, 《영생의》는 전일적구조에서의 《의존어+주조어》의 관계에 있는 자립적단어들의 의존관계의 단위이다. 《빛나게 되었다》는 《자립어+보조어》의 결합체의 단위이다. 문장성분이 1차 및 2차 단계로까지 상관하며 3차단계로부터는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단위로 된다.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와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교차되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

○ 오늘날엔 동네마다 불빛이 환했다.  
이 문장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4개의 전일적인 상관적단위로 가진 구조이며 1차적으로 4개의 성분이 구획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의 구성성분들이 상관하는 단계적정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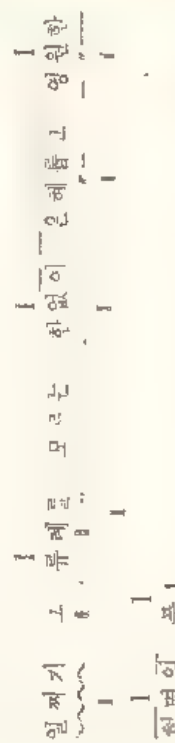
모든 단위가 1차적으로 구획되면서 3개의 의존어가 하나의

후도어 《환했다》에만 상관하는 이러한 구조의 문장에서는 문장성분과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단위는 일치한다. 이러한 구조는 문장성분과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요소들이 한줄우에 놓이는 관계에 있다.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여러 점으로 포개여지면서 주도어 의존하 : 구조의 문장도 있을수 있다. 이런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 혁명의 품!  
이 《영령 감탄문》은 9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규정 + 피규정》의 관계로만 서로 상관하는 4개의 단위(《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 《혁명의》, 《품》)가 1차적으로 구획되어나오는 구조이다. 2차적으로는 《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한없이》, 《은혜롭고 영원한》의 상관관계가 구획되어나오며 3차적으로는 《그 류례를》, 《모르느》, 《은혜롭고》, 《영원한》의 상관관계가 구획되어나온다. 상관관계를 더 조개여보면 4차적으로 《그》, 《류례》의 상관관계가 구획되어나온다.

이 문장의 구성성분과 구성요소들이 상관하는 단계적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든 첫째문은 단어결합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된 4개의 1차문장성분중 3개의 2차 문장성분(규정어)을 더 가진 문장이다. 즉 이 예에서는 총체적으로 7개의 문장성분의 단위가 구획된다.

둘째 예문은 자립적단어들의 턱걸(또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포개어이루어진 4개의 1차문장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즉 4개의 문장성분의 단위가 구획되었다.

셋째 예문은 단어결합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된 4개의 1차적 문장성분이 《규정 + 피규정》의 관계로 상관하는 질서의 문장이다. 즉 셋째 예문에서는 3개의 규정어와 1개의 《피규정어》로 문장성분의 단위가 구획된다.

여기서 일수 있는바와 같이 모든 1차단계에서 상관하는 단위는 제외없이 문장성분으로 되며 전일적인 구조에서의 상관관계에 있는 규정어만은 2차단계에서도 문장성분으로 된다. 즉 1차단계에서 규정어가 문장성분으로 되는 경우와 같다.

(별임) 전례에 따라서는 1차단계에 속하는 상관적단어만 구성성분으로 삼는데로부터 2차단계에 속하는 규정어를 문장성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개서 규정어, 특히 화자성분으로 뒤 규정어의 7조-문법적, 으뜸-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문장성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상으로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문장성분화의 이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조선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의 단어(또는 그와 동가적인 결합체)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하나의 단어가 문장성분으로 된다.

○ 《조규 1》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어버너...  
《들》을 ~~가~~ ~~나~~ ~~?~~  
《아 ...》 역종의 외마디 대담이다...  
예(1)에서 《조규 1》은 하나의 단어로 된 《명령-감탄문》이다. 세 가지 수 대화는 하나의 단어(또는 그와 동가적인 결합체)로 된 문장성분이다.

지금까지 이피한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 《하나의 단어》가 어떤 구성성분인가 하는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성분문장》도 아니며 《단어문장》도 아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어》는 문장론적관계속에 놓여진 단어이며 따라서 상관관계에 놓인다. 하나의 단어인것만큼 단어결합의 질서에 놓이지 않으며 전일적인 구조로서 상관관계에 놓인다. 즉 현실과 상관하는 단위, 전일적인 구조에서 상관하는 단위, 문장성분이나, 말하자면 이들 문장은 구성성분의 질서에서 볼 때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무성분문장》이란 구성성분이 없는 문장이라는것인데 문리에 명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성성분이 없는 문장이란 성립될수 없는것

이러면 따라서 《무성분문장》이란 사실상 문장이 아니라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조절어 에서는 이들 《하나의 단어》앞에 수많은 관계구조의 의존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생산적인 유형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로 훌륭히 접속단위를 이루는 이러한 문장 유형에서 문장성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문장성분화를 피한다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며 조선훈어문장의 모든 유형의 구성성분을 다 파악하고 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의 단어》앞에 전개된 구조의 의존어가 온다면 그것은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실서와 문장성분의 실서가 교차하는 것으로 된다. 이 경우 **우**에도 문장성분화는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주도어는 《하나의 단어》인 것이다. (예: 화려하게 꾸러진 창광원!)

하나의 단어로 접속단위를 이루는 문장은 하나의 성분으로 된 문장이며 **하나의 단어** 결합체로 된 문장은 전개된 하나의 성분으로 된 문장이다.

물론, 두개 이상의 자립적단어가 전일적인 구조에서 상관관계에 놓일 때 그 모든 자립적단어는 문장성분으로 된다.

○ **우리** 달은 언제나 **우**의 **인**민의 **살**을 **빛**내어준다.  
이 문장에서 자립적단어들은 자립적단어끼리 상관하면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조선훈어문장성분의 전형적인 단위이다.

셋째로, 전일적인 문장에서 하나의 뜻영역을 나타내는 《문장론적단어》는 문장성분으로 된다.

○ **우리** 인민은 드높은 **민족적** 긍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빛**명한 **혁명적** **가부**심을 안고 산다.  
이들 문장에서 《**민족적** 긍지》, 《**혁명적** 자부심》, 《**남조선** 피로도 남이야말로》는 이른바 《문장론적단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장론적단어란 문장안에서 하나의 뜻영역을 나타내는 단어 복합체이며 띄어쓰기에서 상대적자립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붙여 써서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로 만는 것이다. 모든 《복합어》는 다 《어음론적단어》 또는 《문장론적단어》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상관관계에 놓인 《문장론적단어》 또는

《어음론적단어》는 사실상 동일한 질서에 놓인 하나의 자립적단어와도 같이 구획되는 문장성분이다. 조선훈어에서 이 단위는 매우 생략적이다.

셋째로, 모든 《군어전 구조의 단어결합체》(《성구론적단어》)는 그것이 자립적단어와 등가적인 관계에 쓰이는 한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성을 구원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시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내용**으로서였다.

○ **오수덕**은 **그야말로** **하늘아래** **첫**동네였다.

이 문장들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각각 하나의 군어전 뜻영역으로 파악되는 단어들의 결합체이며 《**하늘아래** **첫**동네》는 성구이다. 이와 같은 《**군어전** 단어들의 결합체》(성구론적단어)는 전일적인 문장에서 문장구조의 상관적단위로 되는 한에 있어서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다섯째로, 반복형태로 된 자립적단어들의 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단위로 된다.

○ **옛날** 옛적에 **아름**이라는 **술**기름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있었다.

○ **창년** **전**자들은 **받**이면 **밤**대도 **송**성의 **불**꽃을 **번**속 **피**웠다.

이들 문장에서 《**옛날** 옛적에》, 《**받**이면 **밤**대도》 등은 반복형태로 된 자립적단어들의 군어전 결합체이다. 이것들이 전일적문장구조에서 상관적단위로 되는 이상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된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단위는 사실상 《**용**감한 **단어**결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위인데 반복형태로 강조의 뜻영역을 더하여준다는데 특색이 있다.

여섯째로, 문장론적관계를 가지는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들 또는 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 **수령**에 대한 **총**일성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기** 술명을 **취**우하는 **근**본문제이다.

○ **박**동주는 **얼**어나**자**바함으로 **삼**을 **늘**고 **나**갔다.

이 두 문장에서 《**수령**에 **대한**》은 《**자립**적단어 + **문법**화된 **보조어**》, 《**얼**어나**자**바함으로》는 《**자립**적단어 + **문법**화되고있는 **보조어**》의 결합체이다. 이것들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하나의 상관관계(단위로, 하나의 통일된 뜻영역의 표시자도 되고 있다)는 데서 공통

적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의 문장성분단위로 된다. 일괄체로, 조선훈어문장에서 2차단계에 있는 문장성분단위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의 단위로 된다.

특히 2차단계에 있는 《구》와 《부》 등의 확대된 구조적단위는 하나의 문장성분단위이다.

《구》나 《부》에서는 어느 한 요소도 단독으로 전일적인 문장구조의 상관단위로 못되며 오직 그 결합체를 한 덩어리로 하여서만 전일적인 상관단위로 된다. 이러한 단어결합체는 하나의 문장성분단위로 된다. 따라서 조선훈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성분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2차단계의 질서에 있는 단어결합체가 문장성분의 단위로 되는 경우가 앞의 조항(여섯가지 조항)의 조건과 다른 점은 앞의것들이 단순성분의 단위라면 이 일괄체 경우는 확대성분의 단위이다.

이상에서 조선훈어문장성분의 단위를 확정할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을 들어서 밝혔다.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조선훈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알게 밝히고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의 중요성이 있다.

문장성분의 단위를 과학적으로 확정한 데서만 조선훈어문장성분의 관계도 과학성있게 나누어볼 수 있다.

### 제2절. 문장성분의 관계

조선훈어문장성분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고 그 단위를 확정하는데 기초하여 실제로 문화어문장성분의 구체적인 관계를 잡는 것은 과학적인 문장성분화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

과학적인 문장성분화를 위하여서는 문장성분의 관계를 올바르게 잡기 위한 이론적기초를 쌓아야 한다. 문장성분의 관계를 올바르게 잡기 위하여서는 이론적문제인 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을 비로

하고 모든 문장류형에 해당하는 문장성분을 설정하는 것이다.

### 1.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을 세우는 데서도 중요한 것은 조선훈어문장구조에 반영된 민족적특성을 옳게 포착한데 기초하여 전일적인 문장의 상관적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문장론적기능, 어휘-문법적의미 등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조선훈어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은 구체적으로 전일적인 문장의 상관적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문장론적기능, 어휘-문법적의미 등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전일적인 문장의 상관적단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어휘-문법적의미 등을 분명없이 고찰할 때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문장성분분류기준을 일체 된다.

이상과 같은 립상에서 출발할 때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1)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서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서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연관성을 맛물리는 문장의 구성성분(문장성분)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의 통일로써 실현된다. 예컨대,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우다》에서 전일적인 구조의 맞물리는 단위는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우다》, 《참으로 영광스러우다》,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우다》, 《참으로 영광스러우다》, 《조선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우다》 등과 같은 문법적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가 통일되어 상관단위들의 의미적연관성을 이루는 것이다.

두 개의 상의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에 상관단위들의 의미적연관성이 없다면 도대체 문장성분이란 같아지지 않는다. 의미적연관성이 없는 단위들의 성분화관 사실상 무이므로 일이다. 이렇게 되면 문장의 뜻도 옳게 파악할 수 없다.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의미적연관성이 비

잡디기 않고서는 그 문장론적기능도 확정할수 없고 문장성분의 이  
름도 알수 없다. 그러므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  
이 의미서리관성의 파악은 문장성분화의 선차적조건이며 과학적문  
장성분류의 일화적인 기준이다.

2) 문장성분으로 되는 단위의 문법적현태, 문법적의미, 문법적  
기능을 통일적으로 고찰하는것이다.

문장성분이 문법적성분화의 결과 얻어지는 단위인것만큼 그 분  
류에서 문법적현태,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을 통일시켜보는것은 오  
필수적인 요구로 나온다. 모든 문장론적단위의 문법적표적은 오  
직 그 단위들의 문법적현태, 문법적의미, 문법적기능을 통일시켜  
고찰할 때 어느 구단에 빠짐이 없이 공정하게 살필수 있다.

문법적표식의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시하여도 문법적성분화는  
체대로 되지 않는다. 예컨대, 문법적현태만을 절대시하여 문장성분  
을 가른다면 문법적의미의 다양한 측면, 문장론적기능의 차이를 과  
악할수 없으며 문법적의미만을 절대시한다면 문장성분의 수표는 종  
잡을수 없이 많아지며 문장론적기능(문법적기능) 일면만을 절대시  
한다면 구체적인 문장성분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도외시되고 마침  
내 문장성분의 갈래는 성급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도 문장성분화에서 한 형태의 다기능, 다의성을 고려  
하며 한 의미의 다형태화, 다기능화를 넘두에 두고 어디까지나 문  
장의 전체 뜻을 옳게 파악하는 방향에서 문장성분의 갈래를 잡는것  
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하여 《우리.학교는 가까이 있다.》의 《가까이》나 《우리 학  
교는 근방에 있다.》의 《근방에》, 그리고 《얼음이 풀로 되었다》,  
《얼음은 두렵게 덮어졌다.》에서 《얼음이》와 《얼음은》은 각각 같은  
문장성분이며 《학생의 본분》, 《학생을 만나다》 등에서 《학생의》,  
《학생을》은 언제나 다른 문장성분으로 된다고 보는 립장에 서는것  
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분류태도로 된다.

3)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맞물리는 단위들의 구조적제약성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다.

문장성분들의 구조적제약성은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표식의 하나이다.

조서어문장성분들의 구성계대로 되는 품사들의 결합가능성의

특성, 규정어의 고정된 위치, 그리고 모든 상관단위들의 배열상제  
약성 등은 문장성분의 구조적제약성을 낱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므  
로 구체적인 문장성분화에서는 문장성분의 구조적제약성을 조건짓  
는 이러한 요인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예컨대, 《1967년초 어느날  
이었다.》에서 《1967년초》를 규정어로 볼수 있는 힘있는 근거는 그  
것들이 전일적인 문장속에서 발현되는 구조적제약성에 있다. 《대상  
의 추성을 규정하면서 그앞에만 자리잡는다.》

주어란 술어와 상관해서만 존재하는 성분이며 보어나 삽입어  
등도 술어에 의존하는 성분이며 규정어만큼 오는 《대상성》을 나  
타내는 문장성분에만 의존하는 성분이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의존  
관계는 제외없이 구조적으로도 제약된다. 어떻게 놓고 볼 때 문장성  
분의 상관성이란 결국 구조적제약속에 있는 단위들의 맞물림인것이  
다. 그러므로 문장성분분류에서서는 반드시 전일적인 문장의 구조적  
제약성에 눈을 돌려야 문정한 갈래가 생하여진다.

4) 문장성분의 분류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두 구성문》이나 《학대구조를 가진 문장》에서만 문장성분화가  
진행된것이 아니라 조서어의 모든 문장분류에서 분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문장성분의 분류가 주로 《주어+술어》의 구조를 중  
심으로 하고 거기에 뒤따라 《부성분》이 붙는 문장분류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러하여 러다한 특수분류의 문장은 문장성분화  
의 대상에서 빠졌다. 바로 조서어적인 특성이 짐중되어있는 특수류  
형의 문장의 성분화가 도외시되다보니 다른 나라 말에서와 같은 문  
장성분의 갈래가 설정될수 있었다.

조서어문장구조의 다양한 구조적특성에 맞는 문장성분분류를  
위하여서는 특수분류의 문장으로부러 시작하여 모든 유형의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과 특수, 보편적인것과  
고유한것을 다같이 고려한 기초우에서 문장성분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순이야, 놀라지 말라.》, 《장광원!》, 《늦가을 어느  
날이었다.》, 《늦가을이라?》, 《혜별이 따사로이 뿌려지는 화창한  
분날, 만경제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아니요, 저는 그  
새...》 등과 같은 문장에서도 성분화가 진행될수 있게 문장성분분류

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조건이 긴장성분류나 사각기 기준은 문장성분화  
 의 일면성과 동요성을 극복하고 조건어의 모든 분장류형에서 분장  
 성분을 가분수 있게 하는 기본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 이러  
 한 요구가 판철될 때 낱은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합리적인 문  
 장성분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2. 문화어문장성분의 길래

문화어문장성분의 길래를 과학적 기준에 기초하여 잘 설정하자  
 면 선행한 견해들이 설정한 조건어문장성분의 길래에 대하여 비관  
 적으로 대하야 한다.  
 지금까지 문장론분야에서 가장 논쟁적 성격을 띠었으며 가장 많  
 이 연구된 것의 하나가 분장성분의 길래에 관한 문제였다.

조건어문장의 다양한 구조적 유형에 따르는 모든 구성성분을 남  
 겹없이 분류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일관한 구조-문법적 입장을 견지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시기의 견해들이 더 훌륭한 점이 없  
 았다.

이전의 문법적 견해들은 주로 《맞물리는 성분》에만 그 을 돌리디  
 나머지 《외단성분》에 속하는 비성분적 성분을 《독립어》, 《문장밖어  
 있는 어》, 《성분밖에 있는 단어》이라고 하여 분장성분으로 다루  
 지 않았다. 그렇기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외단성분》도 《맞물리는 성  
 분》의 울타리 안에서 다루었다.

지난 시기의 모든 문법적 견해들은 하나의 단어(또는 단어들의  
 결합체)로 된 문장에서 분장성분화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것을 《부성분문장》으로까지 보았다.

《맞물리는 성분》만을 정우에도 때로는 문장성분의 기능  
 을 위주로 하는가 하면 때로는 형태 구조를 위주로 하였으며 때로  
 는 문리적 해체를 일색했다. 문장성분의 이름을 다는 경우에도 때로  
 는 상판의 성격을 위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판의 방적을 위주  
 로 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르게 보거나  
 다른 현상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민족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 어떤 《보편성》의 《리투》이

나 과학지나당성이 부족한 《전통》적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  
 과학이 분장성분에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과학의 구  
 개성 현실에 맞는 문장성분화를 진행할 수 없다.

문화어문장성분의 과학적인 길래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주체  
 적 입장에 더욱 튼튼히 서서 조건어문장구조에 대한 새로운 고찰방  
 법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맞물리는 문장성분과 외단성분의 고찰에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문장이 문장론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결합으  
 리 이루어진다는 전체로부터의 느낌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반드시  
 일정한 문장론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그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인 상관관계의 성  
 격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단독적으로 현상만이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문장에서 문장성분을 그  
 개사도 속 (1) 맞물린 성분, (2) 외단성분, (3) 단독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맞물린 성분이란 전연적인 문장구조에 (1)에나 하나나 다른  
 직접 결합하고 하나가 다른 것 (2)의 직접 결합된다는 관계에  
 있는 문장이 구성성분이다.

외단성분이란 전연적인 문장구조에서 외따로 있는 구성성분으  
 리 전연적인 구조와 직접적으로 상관하는 관계에 있는 문장이 구  
 분이다.

단독성분이란 그 자체가 기일적인 문장구조를 이루는 7지체로  
 서 현실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조건어문장성분은 이와 같이 구조-문법적 결합에서 그 상관관  
 계의 성격을 볼 때 크게 맞물린 성분, 외단성분, 단독성분으로 나  
 눌 수 있다.

다음으로 맞물린 성분을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나누는 문제에서  
 우선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건어문장구조의 민족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모든 문  
 장은 주성분, 부성분으로만 나누어진다. 한편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부성분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문법적, 구조적 기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성분을 문장의 관격을 이루며 진술화를 실현하는 주되는 성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왔다. 그리하여 대다수 전례들이서는 주어와 술어를 추성분에 넣었으며 일부는 그밖에도 《객어》(또는 《목적어》)를 추성분에 넣었다.

지금까지 또한 부성분을 문장의 관격에 붙는 살과 같으며 진술화를 실현하는 필수적성분이 아닌 《부차적성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왔다. 그리하여 대다수 전례들은 부성분에 주어, 규정어, 상황어를 넣었으며 일부는 그밖의 성분류형을 새로 설정하고 그것들은 부성분에 넣었다.

최근에 술어만을 《주도성분》(추성분과 대동소이한 개념)에 넣고 그밖의 모든 맞물린성분을 부성분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났다. 이 견해는 술어의 우위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능의 주도성을 일반화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대다수 전례들은 맞물린성분을 《량분법》의 고찰로써 추성분 대 부성분, 또는 주도성분 대 비주도성분의 관례로 보았다.

그러나 다양한 조선어문장구조는 이와 같은 《량분법》적고찰로써만 다 해결되지 못한다. 그것은 조선어문장구조의 다양성이 주어, 술어만을 관격이라 볼수 없고 주어, 규정어, 상황어 등을 언제나 동일한 질서에 놓고 부차적인 성분으로만 볼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 김동무는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곳은일도 가리지 않았다. 1

○ 1976년 6월하순 어느날이었다. ②

첫째 예에서 문격을 이루며 진술화를 실현하는 주되는 성분은 《김동무는 +가리지 않았다》(주어+술어)뿐일수 없다. 그것으로써는 또대개 진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말이 되지 않는다. 오직 《김동무는 +곳은일도+가리지 않았다》로써만 진술화가 완전하게 실현되며 진술의 관격을 이룬다. 이 경우에는 《주어+직접보어+술어》가 《주되는 성분》으로 된다.

둘째 예문에서 《1976년 6월하순》은 《어느날이었다》에 대한 종어(규정어)로 되지만 그 어떤 《2차적기능》(부차적기능)만을 수행하는것도 아니다. 이 문장에서 오직 단어들의 결합체편제가 진술의

관격, 진술화의 담당자도 되며 정 나눈다면 《1976년 6월하순》은 《어느날이었다》에 대한 1차적의존어인것이다. 여기에는 주어도, 술어도, 보어도 없지만 진술화의 담당자, 진술의 문격은 이루어졌다.

《주어+직접보어+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직접보어도 《목적성분》에 붙어야 하며 단독성분으로 된 문장에서는 그 단독성분이야말로 유일한 목적성분으로 되는것이다.

《부성분》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처리를 할수 없다. 조선어에서 보어나 상황어는 《추성분》에 1차적으로 의존되지만 규정어는 1차적으로도 의존되고 2차적으로도(또는 그이상의 차원으로) 의존된다. 그리고 조선어에는 보어, 상황어, 규정어로만 볼수 없는 《의존성분》이 그밖에도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부터 조선어문장성분의 갈래를 크게 《추성분》과 《부성분》으로 《량분》할것이 아니라 조선어문장구조의 구성에 맞게 더 정밀하게 갈라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문법적문장에서 조선어문장의 구성성분들의 갈래를 크게 《기초성분》, 《주도성분》, 《의존성분》으로 나누고 그안에서 더 작게 구분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하하여 《기초성분》에는 단독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그 단독성분과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진술어》가 붙이리며 《주도성분》에는 《주어+술어》의 구조에서의 주어, 술어 그리고 직접보어가 있는 문장에서의 직접보어가 붙어가며 《의존성분》에는 《기초성분》, 《주도성분》에 의존되는 모든 성분이 들어갈것이다.

○ 책사의 향 포행!  
(의존성분) (기초성분)

○ 정녕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일어나 뜻깊은 이튿으로 간직된  
(의존성분)

우서있습  
(의존성분)

○ 방안에는 와하고 웃음소리가 리저 울랐다.  
(의존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 《동생은 태리고 정기장으로 가리라.》  
(의존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 4월 중순 이었다.  
(기초성분)

○ 우리의 혁명 정열을 라무 하였다.  
(주도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이와 같은 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하나의 주도어를 핵심으로 하는 단어 결합체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에서 단문단어는 진술화의 모형을 더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장에서 단어의 어휘-문법적의미가 바로 사상의 완결성을 조건짓는 기초를 이룬다. 단문성분인 단어 또는 주도어가 나타내지는 구체적인 어휘-문법적의미를 떠나서 그 어떤 현실에 대한 관해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뜻을 떠나서는 진술의 내용이 성립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단문성분으로 된 문장은 단어 하나로써 사상의 완결성, 완결된 진술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한 단어로 또는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단어 결합체는 시간, 양해성, 말치림, 범 등의 진술화의 수단을 가지며 진술역량의 모든 요소들도 가진다.

한 단어로 또는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장에서 성분 또는 주도어는 그 자체로써 진술의 공간을 이루며 다른 맛물린 성분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 단어, 한 주도어는 단어 결합체의 질서에도 놓여가지 않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이상의 특성으로 보아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주도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주도어는 술어와도 구별되며 주어와도 구별되는 특수한 문장성분이다. 이 문장성분을 진술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진술어는 한 단어로 된 문장에서 기초적성분으로 된다. 그리하여 진술어는 모든 문장성분화의 1차적인 대상으로 된다.  
(붙임) 술어가 그 어떤 문장성분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진술화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뜻에서 그것을 진술어에 넣을 수도 있다. 하나의 단어로만 된 문장의 《술어》는 진술어이다. 그러나 《주어+술어》의 구조에서 술어와 진술어는 같은 것이 아니다.  
더듬으로, 지금까지 문법적성분화에서 대상으로 잡지 않았거나 합리하게 처리한 그밖의 문장성분의 갈래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권혁, 최광수, 리광... 참으로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다. ①  
○ 고기타는 코가 길다. ②  
○ 학생 셋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③

이 문장은 지금까지 공백으로 남았던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문법적절해들은 이 유형의 문장을 성분화의 대상으로 잡지 않았거나 《주어+술어》, 《단어문장》, 《술어》, 《주어》 등으로 불렀다.

다음으로 한 단어로 또는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단어 결합체는 시간, 양해성, 말치림, 범 등의 진술화의 수단을 가지며 진술역량의 모든 요소들도 가진다.

한 단어로 또는 하나의 주도어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문장에서 성분 또는 주도어는 그 자체로써 진술의 공간을 이루며 다른 맛물린 성분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 단어, 한 주도어는 단어 결합체의 질서에도 놓여가지 않는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이상의 특성으로 보아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주도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단어 또는 주도어는 술어와도 구별되며 주어와도 구별되는 특수한 문장성분이다. 이 문장성분을 진술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진술어는 한 단어로 된 문장에서 기초적성분으로 된다. 그리하여 진술어는 모든 문장성분화의 1차적인 대상으로 된다.  
(붙임) 술어가 그 어떤 문장성분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진술화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뜻에서 그것을 진술어에 넣을 수도 있다. 하나의 단어로만 된 문장의 《술어》는 진술어이다. 그러나 《주어+술어》의 구조에서 술어와 진술어는 같은 것이 아니다.  
더듬으로, 지금까지 문법적성분화에서 대상으로 잡지 않았거나 합리하게 처리한 그밖의 문장성분의 갈래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권혁, 최광수, 리광... 참으로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다. ①  
○ 고기타는 코가 길다. ②  
○ 학생 셋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③

① 직감크스 배제기에 구멍이 뚫어 놓여 있다. ② 입을 쳐다보는 것, 그자체가 그곳에 씌어 있다.

이러한 문장틀에서 《모두가》, 《코가》, 《셋이》, 《들이》, 《그자체가》 등이 어떤 단위, 어떤 문장성분이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지금까지 색연한 해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붙임) 지금까지는 이러한 단위들의 일부(예컨대 ①)는 《소주어》 또는 《총괄어》(예 ①)로 처리하였거나 문장성분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예 ②, ④와 같은 문장에서 《들이》, 《들이》는 《2중주어》로도 보고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로도 보았으며 문장성분의 대상으로 아예 잡지 않기도 하였다.

이들 성분의 공통적인 구조-문법적특성은 언제나 별거 또는 제시의 문장성분뒤에 오면서 그 앞성분의 위치를 재확인하거나 보충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는데 있다. 그 차이점은 《논리적의미의 무제》가 같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2중주어》, 《소주어》 또는 《총괄어》로 몰릴 수 없고 따로따로 확정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지금까지 《2중주어》로 다루었던 예 ②, ④의 《코가》, 《들이》만을 놓고 보더라도 《대주어》인 《코끼리는》, 《구멍이》와 《논리적의미의 무제》가 각각 다르며 그 기능과 문법적의미체제도 똑같지 않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조절어에서 《2중주어》, 《2중술어》, 《2중보어》 등 《중복성분》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형식을 질대시하거나 틀리를 지나치게 앞애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고 있다. 이것들은 나아가서 《3중》, 《4중》 이상의 《중복성분》을 생각해 낼 가능성은 주며 문장성분화의 리해에서 복잡성과 착잡성을 일으키게 된다. 《3중》, 《4중》 등으로 포개여 지는 경우에 실제로 어느 것이 《대주어》이고 어느 것이 《소주어》인가 하는 것도 갈라낼 수 없으며 사실상 《대주어》와 《소주어》의 기능과 의미의 형태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코끼리는》와 《코가》는 기능에서 주어와 단어결합체의 구성요소소의 관계이고 형태도 《는》과 《기》의 차이로 표시된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는》은 오직 《코가 길다》전체와만 상관한다.

이리하여 조절어에는 《대주어》, 《소주어》의 현상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장성분과 단어결합성분의 중첩현상이나 《한 형태의 다기

능화》의 현상이 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 《총괄어》, 《능격어》 등으로만 다루었던 예 ①, ⑥의 《모두가》, 《그자체가》의 경우를 본다면 이것들이 단어결합성분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이것들은 그앞에 떨어져되거나 제시되는 문장성분과 위치적기능도 같고 상관하는 방식도 같다. 이것들이 특수한 맞물린성분으로서 별거 또는 제시되는 성분의 뒤에 위치한다는 특성으로 보아 특수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다.

예 ③에서 보는 《학생 셋이》는 어느모로 보나 그자체는 단어결합체이다. 따라서 《셋이》는 따로 《소주어》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 셋이》를 합해서 주어로 봐야 할 것이다.

예 ④의 《구멍이 뚫이》에서의 《뚫이》도 본질에 있어서는 예 ③의 경우와 같으나 《2중주격형태》로 중첩되었다는 데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예 ③, ④의 경우 앞 《주격》(또는 결대격)체언이 배의 없이 속격형태를 취하면서 규정어로 될 수 있다는 측면도 독특한 것이다. 이 특수류형의 《중첩》성분도 따로 독자적인 문장성분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요컨대, 조절어의 《중복성분》에서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을 것은 거기에 넣고 나머지는 다 문장성분화의 대상으로 삼겨 일부 경우에 특수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전일적인 문장의 모든 상관단위를 빠짐없이 성분화하며 문장성분의 질서와 단어결합의 질서에 넣을 것은 거기에 넣고 나머지는 다 문장성분화의 대상으로 삼겨 일부 경우에 특수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전일적인 문장의 모든 상관단위를 빠짐없이 성분화하며 문장성분의 질서와 단어결합의 질서를 뚜렷이 가르며 조절어적인 구성성분들의 특성을 옮겨 가르는데 있다. 이 점에서 조절어 문장성분의 결매를 구조-문법적립장에서 기정화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해온 데 근거하여 문화어문장성분의 결매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		맞물린 성분	외면 성분	단독 성분
기능				
기초 성분		《진술어》		《진술어》
주도 성분	《진술어》, 주어, 술어, 목적어	《진술어》, 주어, 술어, 목적어		(《진술어》)
의존 성분	간접보어, 상황어, 규정어	간접보어, 상황어, 규정어	계명말 이음말 부호말 느낌말	

(붙임) 이밖에도 《특수성분》이라 하여 《결속어》, 《확인어》 등을 세로 설정할 수 있으며 《출발어》, 《동격어》, 《제시어》 등은 그대로 《특수성분》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 한숨, 그것은 형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짓제가는 의무이다.  
제시어(주어) 확인어

문장성분의 차례에서 《인용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용말》설정의 근거를 갖지 못하며 다른 질서인 음권법에 속하는 구조적단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맞물린 성분, 특수적으로는 술어와 주어의 《우위성》 문제가 나선다.

우에서 이야기된 기초성분(탐구적성분), 주도성분, 의존성분(2차성분) 호상관계에서 기초성분과 의존성분은 보통은 주어, 술어의 맞물린관계가 없으므로 《우위성》문제에서 논의될 것이 없다. 그리고 주도성분이 의존성분보다 《우위》에 있고 의존성분 가운데서도 차원이 높은 것이 차원이 낮은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앞의 진술로써 스스로 명백해졌다.

주어, 보어, 술어 가운데서 보어가 술어에 의존하는 만큼 보어와 술어의 관계에서 술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문제는 주어와 술어사이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 다시 말하여 주어가 주도어인가, 술어가 주도어인가 하는 문제가 날카로운 것으로 제기된다.

지금까지 많은 문법적전해들은 주어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그 주되는 근거는 주어가 문장에서 《내세워진 말》이며 주어의 표현에 따라 술어부분의 문법적표식들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래동안 지배적인 것이었으며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까지 인정되어왔다. 그리하여 민족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통화》되어 있었다.

최근 시기 문법학계는 이 《전통화》된 견해가 비문법적인 고찰의 결과이며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을 외면한데서 나온 편견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문법학자들은 술어의 《우위성》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서술들이 나왔다.

문장성분으로서의 술어의 지위를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주어보다 술어가 《우위》에 있다. 술어는 주어에 대한 주도어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내세워진 말》이란 논리해석이며 실지로 현실 내용적(논리적)성분화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내세워진 말》이란 비문법적인 분석의 결과에 얻어진 용어이다. 문법적으로 《내세워진 말》이란 부의미하며 주어는 오직 술어를 설명하고 술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맞물리는 문장성분이다. 따라서 술어가 주도어로 된다.

주어의 표현에 따라 술어부분의 문법적표식들이 《좌우》된다는 데서도 주관주의적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 아버지가 출장 떠나시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라는 주어가 먼저 있고 그것이 《존경의 대상》을 나타내기때문에 술어부분에 해당한 시간도, 범도, 말차림도가 붙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존경도는 수의적인 것이다. 문법적으로 《아버지가》가 존경의 대상이라도 문법적으로는 《떠나시었다》와 맞물리는 관계에 있으며 《일치》했음따름이다. 존경도 자체만으로는 《우위성》의 정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가 주도어로 될 근거는 없다.

2) 술어는 문장의 기본표식인 진실성을 물질적으로 형식화하는 요소들이 집중된 단위이며 문장의 진실화를 끝맺어주는 핵심적단위이다.

○ 이 편지는 반드시 남녕동보통에게 가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진실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어휘적수단과 이 문장의 전반적술구조 및 억양 등 요소에 의해서도 물질화되지만 우선은 술어부분에 있는 앞대성의 표현(《가람아야 할 것이다》)과 시

간, 말차림 등 판제의 표시자에 의하여 형식화된다. 말하자면 술어는 진술화의 물질적표식의 《결정체》이며 진술성표현의 물질적수단들이 집대성된 단위이다. 진술의 핵은 술어에 있지 주어에 있지 않다. 술어라는 진술의 핵이 있기에문에 주어도 있고 그밖의 성분도 있는 것이다. 술어는 주도이며 맞물린성분의 핵으로 보는 성분이다.

3) 조선행어에서 모든 결합관계, 맞물린관계에서 의존어가 앞에 있고 주도가 뒤에 온다는 법칙적현상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구현되고있는것의 하나가 주어와 술어의 맞물림이다.

보통의 문장에서 술어가 뒤에 오고 주어 앞에 오는것은 조건어에서 법칙으로 된다. 술어는 주어도 포함한 모든 맞물린성분을 구조적으로 통솔하는 주도어이다.

○ 우리는 매일 담보를 독보한다.



4) 조선행어에서 술어(또는 술어의 확대구조)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은 있어도 주어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은 있을수 없다. 이것은 술어의 《우위성》을 말해주는 또하나의 징표이다.

○ 《집에 있자라, 민자 가마.》  
《예, 기다려겠습니다.》

주어없는 문장은 있을수 있어도 술어없는 문장은 보통(《진술어》로 된 단독성분문장을 제외하고)은 있을수 없다는 사실은 술어야말로 문장을 조직하는 주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장성분화의 시발점을 이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5) 조선행어에서 술어는 억양의 요소와 함께 문장의 양태적류형, 문장의 한계와 성격물 분간하여주는 결정적요소의 하나로 된다.

○ 비가 많이 오오.

비가 많이 오오?

비가 많이 오오!

○ 비가 오기만 우리는 일손, 멈추지 않았다.

우에서 본 맞물린성분의 즉종관계문제는 문장성분의 지위를 문법적으로 가르는때서와 문장론적현상을 중요없이 분석하는때서 중

3) 한 의의를 가진다. 맞물린성분이 주종관계를 출제 식별하는것은 문장의 뜻과어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문장성분의 길래를 논하며 특히는 문장의 성분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할 문제는 또한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에 관한 문제이다.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란 일정한 내용을 가진 문장을 문리-의미적구조단위로 나누어보고 그 맞물린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현실-내용적성분화에 의하여 구획되는 단위는 제시부, 주제부, 진술부 등이며 그것들은 《제시어》, 《총괄어》, 《제시주어》(제시보어, 제시상황어 등도 해당), 《진술어》(또는 술어)와 연관되어 구조적표현을 가지게 된다.

○ 주체의 태양은 온 누리를 비치고있다.

○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 두 문장에서 ---줄을 그은 부분은 진술의 주제부이며 줄을 그은 부분은 진술부이다.

주제부란 문장에서 내세워진 대상이며 진술의 출발점으로 되는 단위이다. 내세워진 대상이란 이야기거리의 《주제》로 되는것이며 진술의 출발점이란 이야기대상의 《제시》로 되는것이다.

진술부란 주제부를 풀이하여주며 진술의 귀결점으로 되는 단위이다. 주제부를 풀이하여준다는것은 이야기거리의 《주제》를 전개하여 설명한다는것이며 진술의 귀착점이란 《제시》된 내용을 마무리하여 줄다는것이다.

문장에서 내세워진 대상, 진술의 출발점이 있고 그것을 풀이하여주며 마무리하여주는 귀착점이 있어 편단은 완결된것으로 되며 문장은 문리-의미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구성단위로 형식화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주제부와 진술부는 문장을 현실-내용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의미-논리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구성단위로 된다.

주제부는 구조-문법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주어뿐아니라 보어, 상황어로도 이루어진다. (우에서 예로 든 주제부는 《주어적주제》라 할수 있다.)

○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있다.(《보어주제부》의 예)

○ 이른 아침에 - 행수마찰을 한다.(《상황어주제부》의 예)

진술부는 구조-문법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술어와 그 술어

를 지배어로 하는 일련의 단어결합 또는 확대성분결합들로 이루어진다.

(補입) 현실-내용적성분화를 일명 의미-론리적성분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주체부는 《제시어》, 《진술의 출발점》, 《주어진것》 등으로 불리우며 진술부는 《술어》, 《진술의 귀결점》, 《세것》 등으로 불리운다. 《주어진것》이란 이야기행방간의 화제에 이치 모른 《가지》의 대상이라는 뜻이며 《세고술것》이란 세로 밝히려는 이야기내용이라는 뜻이다.

진해에 따라서는 주제부와 구분하여 《진술의 전제, 출발점, 완결점, 완결 등을 나타내게 위하여서 문장의 앞머리에 배제워린 구획단위》를 《제시부》라고도 보는 일이 있다.

○ 《속도전》의 기세 도봉이 총진군의 복소리 세차례 울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시부를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 것도 논리-의미적성분화이기도 하는 하나 많은 경우에 구조-문법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분장성분의 차배상 문제이고 분장론적 및 문체론적 기능에 관한 문체이기 때문이다.

우려 말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의 대상으로서의 주제부와 진술부는 그 표현에서 고유한 민족특성을 지닌다. 예컨대, 주제부는 문장의 맨앞머리에 오며 도음로 《는(은)》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과 진술부는 진술성의 물질적표시자를 《집중적》으로 대표하면서 문장의 끝머리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실-내용적성분화는 문장의 뜻을 포괄적으로 인쳐 파악하며 논리적모순이 없이 이해하게 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문장의 현실-내용적성분화도 어디까지나 문법적성분화에 기초해서 문법적성분화와 밀접히 령관되어서만 의의를 가진다. 실제로 《주제부》라고 하는 단위는 문법적성분화의 《제시어》, 《총괄어》와 밀접히 령관된 명명이며 《진술부》도 진술어와 관련된 명명인 것이다.

문장의 문법적성분화야말로 문장의 모든 구성단위, 상관단위를 동요성없이 파악케 하는 기본고리이며 모든 성분화의 바탕에 놓이는 기초적이고도 항구적인 문장구조의 분석과정이다. 문법적성분화가 잘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제 파악될 때 모든 사회성원들이 문장 조직의 능수로 될 수 있는 것이다.

### 제3절. 문장성분의 표현

부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도록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은 문장성분의 표현에서도 풍부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표현에서 잘 나타낸다.

문장성분의 표현이 풍부하다는것은 다양한 언어적수단에 의하여 여러 문장성분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 류형의 문장성분의 표현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것은 조선어문장성분의 표현수단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기초로 된다.

(補입) 문장성분의 표현에 대하여 보봉 주어의 표현, 술어의 표현, 상황어의 표현 등과 같은 제구밀에 표현 수단과 수법을 다룬다. 이것은 학과문법이나 서술문법의 일반적서술형식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서술체계를 따르지 않고 문장성분의 큰 분류에 따라 문체성있는 특권을 위주로 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맞물린성분, 외판성분, 단독성분의 표현에서 나서는 비론적문제를 해명하기로 한다.

#### 1. 맞물린성분의 표현

조선어문장성분의 표현에서 가장 다양한 특성을 띠는것은 맞물린성분의 표현이다. 맞물린성분은 그것이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 상관관계에 있고 그 갈래가 여러가지이며 상관관계의 성격과 방식이 또한 다양하다는데로부터 여러가지 표현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표현형태는 각각 일정한 문법적의미나 문법적기능을 나타낸다. 여기로부터 문장성분의 표현에서는 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문제가 초미의것으로 나선다.

문장성분의 표현문제에서 《한 형태의 한 기능, 한 형태의 한 의미》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불피코 형식주의적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리하여 모든 주격형태는 주어, 모든 시격형태는 보어로 처리하는것과 같은 경향에도 나갈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 형태》의 다양한 의미》를 본리적인 것에서만 찾  
 나면 종합을 수 없이 갈라진 성분의 종류를 인위적으로 가르치게 된  
 다. 그리하여 속격형태에서 여러 문장성분을 찾으려 모든 이음형  
 (질속형)에서 슬어를 찾는 것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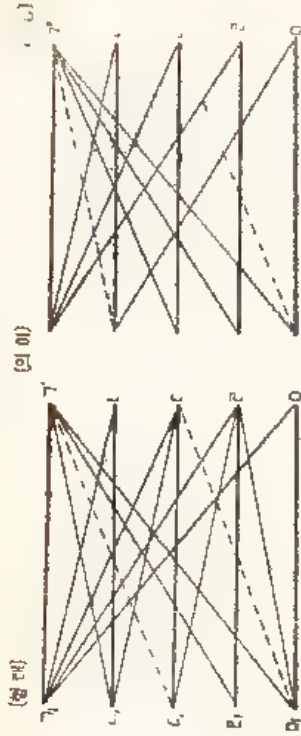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서 한 형태의 다의성, 다기  
 능성, 한 의미의 다형태, 다기능, 한 기능의 다형태화, 다의미화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처리방법이다.

이제 이러한 립장과 방법에서 문장성분표현의 형태, 의미, 기  
 능의 호상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장문법기능
질매체(○형태)	대상, 포지, 속성, 관련...	진술어, 주어, 보어, 규정어, 상 황어, 부동말, 끼움말, 끼서어...
주격 가(이)	주자, 개자...	주어, 보어...
속격 의	소속, 포식...	규정어
여격 어제, 한때, 예,	개자, 관련...	보어, 상황어...
대격 문(을)	개자, 방향...	노어, 상황어...
조격 모(으로)	도구, 방향, 인과...	보어, 상황어...
위격 에서	장소, 대상...	보어, 주어, 상황어
호격 어, 야	대상, 개사...	부동말, 진술어...

(붙임) 문법적의미의 《다의성》은 범주적의미의 《단의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 형태의 여러가지 의미의 《쓰임》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의적의미》, 《색채상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다의성》과는 다르다. 예컨  
 대, 속격로의 범주적의미는 하나이나 그 구체적인 발현으로서의 《소범주  
 격》의미는 《대상》, 《속성》, 《관결》, 《포식》 등이며 그밖의 쓰임에서의 의  
 미도 있다. 그러나 이 《소범주적》의미도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의미이므로  
 문맥과 어휘적의미의 상관에서 얻어지는 《무수한 색채적 및 문리적 의미》  
 와는 다르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표현형태, 문법적의미, 문장문법기능의 호  
 상관계에서 나타나는 조건어적인 특성을 일반화하여 표시하면 다음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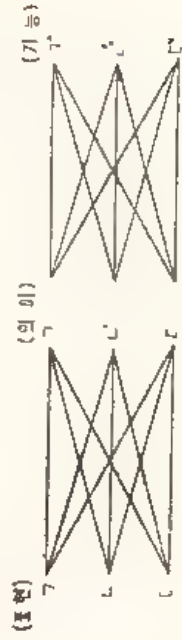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문법적형태, 문법적의미, 문  
 법적기능의 호상관계를 고찰한다면 행태상으로는 주격에 놓이는 성  
 분이 주어로도, 보어로도 될 수 있고 설대격형태로 된 문장성분은  
 더 다종다양하며 그밖의 격형태에 놓인 체언들도 여러가지 문장성  
 분으로 될 수 있다.

문장성분표현에서 문법적 의미, 형태, 기능의 호상교차관계는  
 트를 가지지 않는 단어, 《무형태단어》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 관계의 전형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형태) (의미) (기능)
- 《어간형태》 대상성, 용언성 전술어, 술어, 주어, 보어, 규정어
- 《무형태》 포식, 수식 규정어, 보어, 상황어, 술어
- 《고정형태》 이음, 느낌 이음말, 부동말, 끼움말, 느낌말

이 관계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붙임) 이 경우의 표현, 의미, 기능의 관계도 모든 항목에서 교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관계적으로는 교차관계에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신어에서는 한 문장성분표현이 다양한 형태와 의미와 기능을 가지면서 서로 교차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

문장성분의 표현이 한 형태의 다의미, 다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 다기능, 한 기능의 다형태와 다의미화의 필장에서 고찰될 때 조신어문장성분의 표현과 관련된 문체는 질로 분명하게 해결된다.

예컨대, 진술어, 술어의 표현에서 맺음형(종결형), 이음형(접속형), 《어간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 거기에 따라 이음술어, 맺음술어의 정연한 체계가 갈라진다는 것이 옳게 해명된다. 또한 체언의 이음형은 이음술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어로도 되며(예: 《봄이면 진달래 만발한다.》에서의 《봄이면》) 사격형태의 체언이 보어로도 되며(예: 봄을 맞이하다.) 상황어로도 된다는 것(예: 평양을 진다.) 등도 쉽게 파악된다.

이러하여 우리 말에서 맞물린성분의 표현은 일단 다음과 같이 묶여진다.

- (1) 진술어와 술어의 표현
- ① 맺음술어의 표현...맺음형, 이음형, (《어간형》, 《무형태형》)
  - ② 이음술어의 표현...이음형, 맺음형, 《무형태형》, 보조어의 일정한 형태
  - (2) 주어의 표현...주격로, 《위격로》(에서), 도움로, 《어간형》
  - (3) 보어의 표현...모든 사격로, 《어간형》, 《무형태형》
  - (4) 상황어의 표현...부사, 모든 《사격로》, 《어간형》, 《무형태형》, 보조어의 일정한 형태, 이음형
  - (5) 규정어의 표현...규정형, 속격형태, 《어간형》, 관형사

(붙임) 일부 문장성분의 표현들에는 서로 넘나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특수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진술어》는 맞물린성분이 아니나 맺음술어의 표현과 기본적으로 같다. 맞물린성분의 표현에서 가장 가려내기 힘들고 논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보어와 상황어의 관계를 갖는 문제이다.

지금은 이 경우에도 한 형태의 다의미, 다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 다기능, 한 기능의 다형태화, 다의미화의 필장에 서는 수밖 에 없다. 그것은 보어와 상황어는 질적으로 다른(즉 하나는 대상의

보충, 다른 하나는 동작과 포식의 상황) 성분인데 그 표현형태와 기능과 의미의 구별은 다양하기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능을 분명하게 일반화하는 길만이 성분화의 옳은 방법인 것이다.

○ 당중상을 목적으로 사수하자!

○ 우리는 밤에도 책을 읽었다.

이때의 《꼭숨으로》, 《밤에도》는 보충적인 대상이 아니며 행동의 방식 또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며 그 상관의 방향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보어로 될 아무런 포식도 없다. 이것들은 상황어이다. 즉 상황어가 격형태를 취하면서 방식적 및 시간적 한정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밖의 모든 맞물린성분의 표현에서도 형태, 의미, 기능의 상관계를 통일시켜 고찰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장론적기능을 위주로 하여 그 류형을 확정한다면 문장성분은 그 어떤 《고정된 형태》에 신예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속에 있게 될 것이다.

## 2. 외판성분의 표현

조신어문장성분의 체계에서 외판성분은 그 표현이 맞물린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로가 발전되어있고 감정적 색채를 나타내는 언어적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외판성분의 표현에서도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붙임) 외판성분을 문장성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어》, 《성분밖 에 오는 단어》 등으로 보는 견해는에서도 그 표현관계에서 크게 상반되는 문 이는 없다. 예컨대, 《독립어》로서의 조신어의 부를말, 느낌말, 이음말, 끼음말 등은 문장성분으로서의 부를말, 느낌말, 이음말, 끼음말 등의 표현과 별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제시어(보임말)도 외판성분으로 넣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배로 들지 않는다.

우리 말 외판성분의 표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기능, 한 의미 의 다형태화》의 원칙이 두드러지게 적용된다.

외판성분의 표현에서의 기능, 의미, 형태의 호상관계를 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하면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그것들을 이음말의 작은 갈래의 표현으로 잡는다.

여기에서도 형태, 의미, 기능의 호성관계를 통일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이 표현을 가진 단어들의 문장론적기능을 정밀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음말의 본질적기능이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다른 단어나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데 있다면 끼움말의 본질적기능은 진술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이는데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먼저》, 《다음으로》, 《다음》, 《마지막으로》 등은 한 진술처단위와 다른 진술처단위를 연결시켜주면서 뒤문장의 앞머리에 자리잡는다는 특성으로 보아 이음말의 표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음말이 조격형태, 절대격형태 등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또》, 《또한》도 전형적인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큼 이음말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첫째》, 《셋째로》, 《처음》, 《처음으로》, 《둘째로》, 《셋째》, 《셋째로》 등은 이음을 나타내다기보다 진술내용의 차이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덧붙이는 단위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끼움말의 표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끼움말이 수사의 절대격이나 조격형태로 표현되지 못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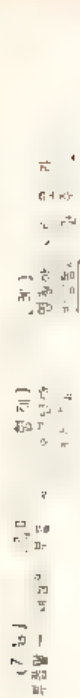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외면성분의 작은 갈래의 표현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한 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화》의 입장에서 문체를 풀어나간다면 공정하게 외면성분의 유형과 표현을 확정할 수 있다.

(붙임) 끼움말로서의 《첫째》, 《셋째로》, 《처음으로》 등과 상황으로서의 《첫째》, 《셋째로》, 《처음으로》 등은 상관하는 방식, 어순 등에 의하여 구별된다.

○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자력개생의 혁명적립장을 지키는 것이다. (끼움말)

○ 자력개생의 혁명적원리를 지키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상황어)

이리하여 외면성분의 다양한 표현과 그 작은 갈래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여기에 리론문법이 해결하여야 할 또하나의 과제가 있다.



외면성분의 표현에서 《한 기능, 한 의미의 다형태화》의 원칙의 적용은 비교적 외면성분들의 갈래를 뚜렷이 구분해 준다. 의미, 기능과 형태와의 일부 교차관계도 크게 성분의 한계를 쉬갈리게 할 정도로 복잡할 것은 아니다.

- 조선정년들, 속히 달떠나와서 함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부름말)  
경주야, 맥을 놓지 말아. (부름말)
-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모두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끼움말)  
아마, 오늘도 책포적잡에서는 계획을 훨씬 초과했을걸. (끼움말)
- 안, 잊을수 없는 포쟁나무여! (느낌말)  
좋아 좋아, 그곳에 가면 포식이 있어. (느낌말)
- 가노카도 장님이말이었고 또 꾸루 눈판이었다. (이음말)  
하여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있게 되었다. (이음말)

외면성분의 표현과 판권하여서는 일부 작은 갈래들의 표현에서 한계를 뚜렷이 짓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끼움말의 일부 작은 갈래의 이음말의 작은 갈래의 표현이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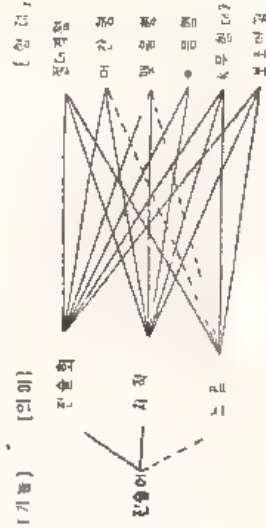
많은 문법책들에서는 《첫째》, 《셋째로》, 《둘째》,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으로》, 《다음》,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먼저》, 《또한》 등을 끼움말의 한 갈래의 표현으로 잡는가

### 3. 단독성분의 표현

조건설어문장에서 단독으로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서의 단독성분은 진술어 하나이다.

단독성분인 진술어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하나의 진술단위를 이루지만 그 표현은 다종다양하다. 하나의 문장론적 기능을 나타내는 진술어가 다종다양한 표현을 가진다는 데로 부러져 기에는 주로 「한 기능의 다의미, 다형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는 단독성분, 진술어를 따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 기능, 의미, 형태의 호상관계를 밝힐 수 없었으며 진술어의 다종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체언으로 이루어진 명명문」, 「단어분문」, 「무주어문」, 「술어만 가지고 있는 불완전문」 등으로 불리우는 「비성분화문장」, 「무성분문장」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비성분화문장」, 「무성분문장」의 실정이 타당성을 잃고 있는 조건에서 단독성분, 진술어의 표현의 다양성에 대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필박한 문제로 나신다.

단독성분, 진술어의 표현이 다종다양하다는 특성은 그것이 단독적인 구성성분으로서 자체안에 풍부한 진술화의 언어적 표현을 담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

「담에 대한 충실성!」, 「혁명!」, 「술지 않니?」, 「아니...」,

「경주야, 끝하지 말아.」, 「저너무법이였습니다.」 등과 같은 문장에 서 단어(또는 그와 동가적인 것)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성성분들은 절대적이나 어간형, 보조어의 첨가로 된 각종 맺음형, 「무형태」, 「절어적형」 등의 표현을 가졌다. 이 모든 표현형태는 진술의 형식화에 똑같이 이바지한다는 데서 진술형이라는 하나의 큰 표현형태에 묶이여진다. 이리하여 진술어의 표현은 다름아닌 진술형이라는 가장 일반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붙임) 진술형은 술어의 각종 표현도 다 포괄하는 큰 범주로서 이용형, 맺음형, 「어간형」, 「무형태형」 등으로 표현된 진술어나 술어의 표현형태이다. 여기에서도 술어를 붙이는 진술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진술형, 이것은 조건설어문장의 항구적성분의 표현형태이며 진술화의 형식화가 집중적으로 실현되는 표현형태이다. 진술어를 항구적인 문장성분으로 되게 하며 단독성분에서도 현실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문법적표식도 바로 진술형이다.

진술어가 확대구조의 의존어를 가지면서 전개되는 경우(예: 담에 대한 태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에도 진술화의 직접적담당자는 진술어이며 그 본질적표현형태는 진술형이다.

단독성분의 다종다양한 표현과 그 구조-문법적특성을 분석할 반화하고 단독성분, 진술어의 표현형태, 의미, 기능의 호상관계를 옮겨 붙어가는 것은 이론문장론의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된다.

### 제4절. 조건설어문장성분의 상관상 특성

조건설어문장성분의 고유한 특성은 그 단위설정과 갈래에서, 그리고 그 표현에서 뚜렷이 나타남뿐아니라 그 상관관계의 성격과 방식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조건설어에서만 볼 수 있는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고유한 특성은 특히 문장성분의 결합관계, 위일관계, 조용관계(어울림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1. 문장성분의 결합관계

일반적으로 문장론적단위들의 결합관계라 할 때에는 문장의 구성요소나 구성성분들이 거론되거나 포개여지는 관계를 말한다. 조건의 경우 그것은 단어결합의 결합관계, 문장성분의 결합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합관계는 단어나 문장성분의 접속, 병립, 거듭 등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건어에서 결합관계의 전형은 병립, 거품의 방식으로 된 결된 성분배열에서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병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를 보고 다음에 거품의 방식으로 된 독특한 상관관계를 보기로 한다.

문장성분의 결합관계는 한 문장안에서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두개 이상의 동일한 성격의 문장성분이 다른 하나의 문장성분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상관하는 관계이다.

두개 이상의 동일한 성격의 성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하나의 성분에 상관한다는 것은 결합관계에 있는 두개 이상의 성분이 같은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성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 어버이수령남계서는 인민을 위한 토교를 기쁘고, 막으로 여기서 '었다.

○ 전진이다 전진이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결합성분은 같은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의 별거인것만 클 의미-기능적관계의 성격에서나 구조-문법적표식에서 모용은 동일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로부터 그 표현형태는 호히 같으며 별거되는 성분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넣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음말이 별거되는 성분사이에 들어갈수 있고 때 결합성분앞에 규정어, 삽입어, 보어가 붙을수 있다.

○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인력도 다 알뜰하게 꾸며졌다.

○ 2학년반장동무는 깊은 물속이진 찬 얼음한이진 그리고 깊은 지상 솟이진 가리지 않았다.

결합관계의 본질적특성은 관계의 성격에 있어서나 방식에 있어서 동일성을 지닌다는데 있다. 즉 별거되는 문장성분들의 문법적형태 및 문법적의미의 동일성, 문장론적기능의 동일성, 그리고 상관되는 성분의 성격상동일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볼 때 조선어문장성분에서 《능중성분》문제는 더 정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법적전제들은 경험현상과 접속방식으로 된 결된 확대성분 또는 동일한 성분의 변종들끼리의 결속적현상을 동일시하면서 《능중성분》으로 잡았다.

○ 생산도 화산도 생활도 힘일유려대식으로! (결합성분의 별거) ①  
○ 학습이 끝나자 학생들은 책과 연필과 치우계를 한데 넣었다. (접속적현상으로 된 확대성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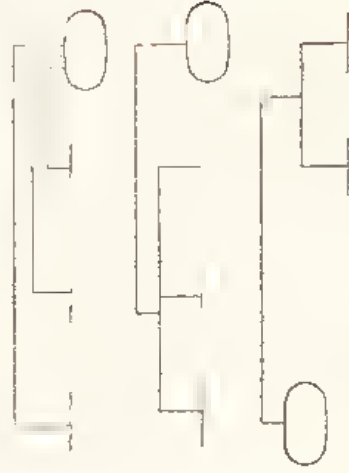
○ 그는 토동자이면서 공정대학생이다. (동일한 성분의 두 《변종》) ③  
여기서 《생산도 화산도 생활도》나 《책과 연필과 치우계들》, 《로동자이면서 공정대학생이다》는 같은 질서의 상관관계로 되지 않는다. 앞의것만 결합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본질적차이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첫째로, 뒤의것들(예 ②, ③)은 형태의 동일성이 보장되어있지 않으나 앞의것(예 ①)은 형태의 동일성이 보장되어있다.

둘째로, 뒤의것들은 별거되는 성분들의 자격에서도 동일성이 보장되어있지 않으나 앞의것은 별거되는 성분의 자격에 있어서도 다 같은 종류의 문장성분으로서의 동일성이 보장되어있다.

셋째로, 뒤의것들은 상관하는 성분에 동시에 결합하여 의존되지 않지만 앞의것은 상관하는 성분에 각각 분리하여 의존된다.

예 ①, ②, ③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위의것들은 접속으로 된 《별립관계》의 렬기(단어들의 결합체)이기 앞의것은 점립관계의 렬기(동종성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별립관계》의 확대성분 또는 성분이 변종들의 렬기는 동일성이 불완전한데 비하여 점립성분은 동일성이 완전하다. 동일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는 렬기만이 고유안 의미에서의 동종성분으로 된다. 이리하여 조선어에서 동종성분은 결합성분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어문장에는 점립관계의 한 변종으로서 문장성분의 거듭현상이 있다.

- **나가지** 나가지 싸우러 나가지  
용감한 기세로 어기 벌고 나가지
- **배야**, 배야, 자유로운 배야  
적 하늘을 높이높이 날아다오

여기서 《나가지》, 《배야》의 거듭현상과 《높이높이》의 거듭현상이 서로 다른 점은 앞의것은 문장문적수법인데 비하여 뒤의것은 단어조성적수법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뒤의 경우에는 그 어떤 문장성분의 점립이나 거듭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나가지》, 《배야》의 거듭에는 문장문적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한다. 즉 형태상으로도나 의미상으로도나 기능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성분으로서 하나의 동일성 성분에 관계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또는 동일성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중복에 지나지 않는 한 성분의 두 번 또는 그 이상의 거듭인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문장성분으로서의 점립관계는 있다.

(별립) 앞에서 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를 실제점립관계라 한다면 《나가지 나가지》는 형식점립관계라 할 수 있다. 실질면에서는 다른 문장문적 몇 문체를 섞어 수법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같다.

우에서 본 조선어문장성분의 점립관계의 특성은 조선어문장성분을 더욱 성밀화하여 분류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를 준다. 이리하여 《동종성분》과 확대구조의 비동종성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 2. 문장성분의 귀일관계(한글바치기현상)

조선어의 문장문적단위들의 상관관계에서 고유한 현상의 또 이

나는 귀일관계이다.

귀일관계란 두 개의 상의 문장문적단위들이 넘림, 접속의 방법으로 연결될 때 위단위가 위단위의 문장문적관계까지 받아서 나타나거나 현상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두 개의 상의 문장문적단위가 접속될 때 그 문법적의미가 더러막단위에 귀일하는 현상을 말한다(말하자면 《집단적형식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상점**에는 무우, 배추, 시금치가 가득 차있다.
- 그는 로동자이며 대학생이다.
- 우리는 언제나 투쟁속에서 보람을 보고 앞으로만 전진한다.

이들 문장에서 접속되는 단위들의 마지막단어 《시금치가》, 《대학생이다》, 《전진한다》가 각각 그 앞 단어들에 위치적기능까지 맡아나타내었다. 즉 마지막단어에 내추된 위치도들은 각각 그 앞 단위들의 문법적의미까지 다 맡아서 나타내었다. 이것이 귀일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귀일현상은 단어들의 결합관계,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 문장과 문장의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며 각기 자기의 고유한 성을 가진다.

- **남과 수레** 언덕에 흥성으로 보답하라.(단어들의 결합관계의 현상)
- 그는 방도 잘고 도구도 수리하였다.(문장성분의 귀일)
- **사람이 불고 비가 온다**.(문장과 문장의 귀일)

(별립) 일부 문법체에서는 이 귀일관계를 《의미연관》(또는 《의미적 결합》), 《한글바치기》(혹은 이 글꼴에 고산하였다. 포괄내용과 고찰의 남남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접속되는 2개의 상의 단위들의 문법적의미가 똑같다. 여기서, 문장성분의 귀일관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조선어문장성분의 상관관계에서 작용하는 귀일현상의 본질적 특성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만 나타낸다는 데 있다. 점립관계의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의 결합의 방식으로 연결된 문장성분들 사이에는 귀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나 《아름다운 집》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귀일관계의 표현적특성이 동일안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의 결합의 방식으로 려지되는 데 있다는 사실은 범립관계로

《봉착하더라도》와 《수행할 것이다》의 관계는 동일한 성격의 성분이 접속의 방식으로 상관한 것의 의미이다. 《봉착하더라도》는 의미-기능상으로나 구조-문법적으로나 이음술어이며 맺음술어 《수행될 것이다》와 대응한다. 이를 술어가 관련하는 주자(주어)는 《나》와 《우리는》이며 이음술어와 맺음술어사이에는 어떤 《중속》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봉착하더라도》와 《수행할 것이다》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성분의 접속이라 하면 마땅히 여기에는 귀일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면 이 두 문장성분의 귀일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이음술어 《봉착하더라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시간, 법, 말차림 등의 문법적 의미는 잠재해 있으며 《수행할 것이다》에 귀일하면서 비로소 표면화된다. 이때에 개별적인 문법적 범주(시간, 법 등)들은 이음술어에 표시될 수는 있어도 흔히 뒤의 맺음술어의 시간, 법, 말차림에 《합류》되며 전술화의 물질적 포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의 귀일관계에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잠재성을 가지는 범주들이 하나에 《합류》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의 이음술어와 맺음술어의 귀일관계에서 나타나지는 문법적 의미의 잠재성과 《합류》현상은 이음술어나 접속부합문, 그리고 접속적 단어 결합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조건어 문장성분의 본질과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접속의 방법으로 상관하는 모든 문장성분이 귀일관계에 놓일 수 있다.

○ 그는 약하나 알지 않는다. (술어의 귀일관계)

○ 아름다운 꽃과 수줍은 남자를 가득 실고 돌아왔다. (보어의 귀일관계)

○ 미래는 아세아의 이르는 곳이다. 라틴비주의 대부분, 그리고 아프리카대륙에서 날로 고립배경당하고 있다. (상황어의 귀일관계)

이들 《동종성분》에서 문법적 의미(시간, 법, 말차림, 격위치, 주격 등)의 잠재성과 《합류》는 오직 이들 문장성분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힘 있는 포식으로 된다.

문장성분들의 상관에서 나타나는 귀일현상, 이것은 문장성분의

된 합침방식의 열거에서도 귀일관계가 나타난다는 근거를 준다.

○ 성질에는 불직한 무우, 신선한 배추, 소담한 시금치가 가득 차 있다.

○ 상징에는 불직한 무우와 신선한 배추와 소담한 시금치가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건어 문장성분의 귀일관계가 이음술어와 맺음술어사이에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침관계에 있는 모든 확대성분의 상관에서도 설정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문장성분의 귀일관계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열거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은 또한 서로 다른 주자에 관련되는 두 개의 술어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성분의 연결은 귀일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시켜 준다.

○ 《술적조에 참가시켜달라고 런대장동지에게 말씀드렸더니 허락해주 시었어.》

○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기와 불결치는 곳

이 예문들에서 《말씀드렸더니》와 《허락해주 시었어》의 주자는 각각 다르며 《봄이면》, 《가을엔》은 다 서술형으로 표현되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문장성분이므로 이것들 사이에 어떠한 귀일관계가 적용하지 않는다.

문장성분의 귀일관계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한 성격의 문장성분들이 접속의 방식으로 열거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리해하는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의 문장에서 귀일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기어이 혁명파업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는 《봉착하더라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귀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봉착하더라도》가 상황이라면 귀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행할 것이다》와 동일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착하더라도》가 이음술어라면 《수행할 것이다》와 동일한 성격의 성분이기 때문에 귀일관계는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는 귀일관계가 좀 더 뚜렷하여진다.

○ 나 개인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우리 집단은 기어이 자기 임무를

상관관계의 조선어적 특성을 규정하는 고유한 현상이다.

### 3. 문장성분의 조용관계(어울림관계)

우리 말 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 있는 또한 문장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단어나 표현들이 의미-기능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어울려서만 쓰이는 현상이다. 이것을 문장성분의 조용관계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문장성분을 중심으로 조용현상이 일어난다.)

문장성분의 조용관계란 문장성분들이 상관관계를 맺을 때 그 구성부분의 표현이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서로 어울려서만 쓰이는 특성을 말한다.

○ 할아버지께 저녁상을 드리었다.

○ 비록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결의한 파제는 꼭 수행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께》와 《드리었다》는 존경의 관계에서 서로 어울렸으며 《비록》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파》와 《수행해야 한다.》는 양태적관계에서 조용하였다. 이때의 존경의 어울림, 양태적관계의 조용은 구체적으로는 《끼》와 《드리다》, 《비록》, 《~더라도》, 《꼭》, 《~야 한다》와 같은 어휘적 및 문법적수단들에 의하여 물질화되었다. 이것은 조용현상이 문장의 의미-기능적 및 문법적 특성에 의하여, 문장성분의 표현 수단과 수법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문장성분의 이와 같은 조용현상은 언어행위의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우리 인민의 언어행위는 주자와 그의 행동 및 상대, 양태적관계의 표시, 물음의 설정 등에서 일정한 조용관계를 가진 것으로서만 정상적이고 순탄한 언어교제를 실현한다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은 오랜 기간의 언어생활을 통하여 굳어지고, 규범화된 현상으로 된다. 문장안에서 성분들이 조용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언어행위를 민족적특성에 맞게, 의사소통을 구색에 맞게 할 수 있게 실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점이다.

조용현상은 문장론어현상이며 따라서 전일적인 문장의 일원의 구조 문법적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인으로 된다.

조용현상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미-기능적으로

러 판된 문장성분들 사이의 특수한 상관관계이다.

문장과 문장성분들 사이의 어울림이 주어 주어, 주어 보어, 규정어 피규정어 사이에 작용한다든지, 양태적관계의 조용이 문장의 직수형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는 것도 부름말, 물음을 나타내는 말의 성격에 따라 그뒤에 오는 문장성분들의 표현 등이 제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등은 다 문장성분의 구조적 제약성 및 문장론적 기능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조용현상이 적어도 두개 이상의 문장론적단위들의 공고한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구조-문법적 약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용현상은 다음으로 두개 이상의 문장론적단위들이 서로 어울림이 의미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조용하는 문법적현상이다.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의 상관관계를 논의할 때 그 상관하는 단위들의 어휘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된 문법적관계도 파악할 수 없다. 이때의 어휘적 의미란 문리적인 것이 아니며 문법적인 것과 구분된 현실적 의미이다. 모든 문법적관계는 이 현실적 의미의 바탕에서 실현되는 상관관계인 것이다. 이리하여 문장성분들의 조용관계도 문장론적단위들의 어휘적 의미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도 어디까지나 문장론적현상으로 된다.

조용현상은 또한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작용하는 현상이며 전체 문장의 구성과 관련되는 언어행위의 표현형식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존경의 어울림, 양태적조용, 부름말과 관련된 어울림 등 1 배외없이 전일적인 문장안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전체 문장구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조용관계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작용하는 현상이며 전체 문장구성과 관련되는 언어행위의 독특한 표현형식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와 같은 몇가지 근거로 보아 문장론적조용의 대상으로 되는 문장성분의 조용현상은 조선어문장의 고유한 특성을 이루며 우리 민의 언어행위의 전통적관습을 반영한다.

조선어문장성분들의 조용관계: 그 조용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인다. 그것을 체계화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용하는 내용과 성격에 따르는 질적
- (1) 문장론적 특성의 어울림

- ① 추경과 관련한 어휘
- ② 비추경과 관련한 어휘
- (2) 언어행위의 대상과 관련한 어휘
  - ① 언어행위의 주자와 관련한 어휘
  - ② 언어행위의 객자와 관련한 어휘
- (3) 진술의 대상과 관련한 어휘
  - ① 진술의 주자와 관련한 어휘
  - ② 진술의 객자와 관련한 어휘
- (4) 문장의 성격과 관련한 어휘
  - ① 문장의 양태적 성격과 관련한 어휘
  - ② 문장의 감정-의지적 성격과 관련한 어휘
- 2) 조용하는 형식과 방식에 따르는 갈래
  - (1) 전체와 부분관계의 어휘
    - ① 전체적인 어휘
    - ② 부분적인 어휘
    - ③ 형태와 형태의 어휘
  - (2) 상관방식에 따르는 어휘
    - ① 맞물린성분의 어휘
    - ② 외판성분의 어휘
  - (3) 표현방식에 따르는 어휘
    - ① 적구적인 어휘
    - ② 갈래적인 어휘

(붙임) 우와 같은 조용관계에서 1)과 2)의 작은 갈래들은 서로 교차관계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류는 측면을 서로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서로 다른 갈래로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할아버지께 거별상을 드리었다」에서 「할아버지께」와 「드리었다」의 어휘는 단어와 형태로 존성관계의 어휘이며 동사 동시에 전체적인 어휘이며 진술의 대상과 관련된 어휘일 수도 있다.

존경관계의 어휘에 관한 진술에 참가하는 인물들 또는 그와 관련한 사물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문장성분들의 상관관계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할아버지께 찜치를 드리었다. (존경)
- 원추님들의 매질통이 들벽락을 안겼다. (비존경)

언어행위의 대상과 관련한 어휘에 관한 언어행위의 주자와 객자와 관련하여 문장성분의 구조가 제약되는 것을 말한다. 서술에서 언어행위의 대상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조용관계는 언제나 인정관계, 말차림관계에서 구체화된다.

- 제가 그 일을 맡아보겠습니다. (언어행위의 주자와 관련한 어휘)
- 너희들은 인쇄나 복지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언어행위의 객자와 관련한 어휘)
- 진술의 대상과 관련한 어휘에 관한 진술의 주자와 객자와 관련하여 문장성분들의 구조가 제약되는 것을 말한다.
- 진술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주어, 보어로 나타나는 것만큼 이 조용관계는 술어와 주어, 술어와 보어의 관계로 구체화된다.

○ 「명철공부, 직장장동지가 부르시네.」(진술의 주자와 관련한 어휘)

○ 어머니에게 말씀을 올린다. (진술의 객자와 관련한 어휘)

문장의 성격과 관련한 어휘에 관한 서술의 일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히 양태적판제나 감정-정서적판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성분들을 어울려 놓는 것을 말한다.

- 제발 그 일만은 동생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양태적 성격과 관련한 어휘)
- 누가 그런 아름다운 소행을 저질렀고 있습니까? (감정-의지적 성격의 어휘)
- 전체와 부분관계의 어휘에 관한 조용관계가 전일적인 문장구조로 해당되는가, 문장의 부분적인 구조에만 해당되는가에 따라 나누어 살펴야 한다.

- 아버지께 드리었다. (전체)
  - 부지런하신 할아버지의 일솜씨에 모두가 감탄하였다. (부분)
- 언어수단에 따르는 어휘에 관한 조용관계에 놓인 문장성분이 언어언어적자료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나누어 갈래이다. 조용관계에 이는 단위의 언어적자료는 단어일 수도 있고 형태부일 수도 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히신 위대한 강령. (형태와 형태)
  - 할아버지께 찜치를 드리었다. (단어와 단어)
  - 아무런 타쁘더라도 꼭 성에 풀겠다 가사다. (단어와 형태)
- 상관방식에 따르는 어휘에 관한 조용관계에 놓인 단위들이 맞물린 성분인가 외판성분인가에 따라 나누어 갈래이다. 맞물린성분의 조

용관제는 결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외주성분의 조용관제는  
런접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높은 부모님 모시고 걱정없이 시낸다. (실합)(맞물린성분)

○ 아따 태일은 깨일것이다. (타절)(외주성분)

표현방식에 따르는 어울림이란 조용관계에 놓인 단위의 표현상  
특성에 따라 나눈 것인데, 조용관계에 놓인 성분은 그 표현이 표  
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다.

○ 어찌 출장에서 돌아오신 남인선생님, 신행신부너 샅으시었다.  
(표면)

○ 박친생은 출장에서 돌아와서 신행실을 찾고는 곧 신행에 착수하시  
었다. (잠재)

우에서 본바와 같이 조신어문장성분의 조용관계의 유형은 다양  
하다. 이 다양성은 그만큼 우리 말 문장구조의 정밀성과 풍부한 특  
성을 말하여준다. 문장구조의 정밀성과 풍부한 특성은 언어교제란  
더 유효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 제5절. 우리 말 어순의 특성

문장성분의 배열순서 즉 어순은 언어마다 다르다.

우리 말 어순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가장 뚜렷이 간직되어 있  
는 문장론적질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순문제를 출제 해명하는  
것은 우리 말 문법현상에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출제 살리기 위한  
이론적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된다.

어순문제를 출제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어순에 대한 과학적리해  
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우리 말 어순배열에 작용하는 법칙적현상을  
집면적으로 고찰하며 어순의 유형에 따르는 여러 문장론적특성을  
밝혀야 한다.

### 1. 어순에 대한 과학적리해

구체적인 민족어를 교제수단으로 삼고있는 모든 인민들의 언어  
행위는 그 구성단위의 배열순위에 있어서 고유한 자기 특성을 가

진다. 다시말하여 어순은 민족기특성을 가진다.

민족어를 가늠해는 어순의 배열방기를 같이하는 언어도 있지만  
달리하는 언어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어순이 나타내는 기  
능, 어순의 표현수법 등은 꼭같은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는 하나의 언어교제의 단위가 서로 다른 언어  
이수단, 서로 달리 배열된 어순의 수법으로 나타나는것이 각 인민  
의 언어행위의 구체적현실이다.

어순이란 일정한 문장안에 차리장은 문장성분의 차례이다. 다  
만하여 두개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두개이상의 문장성분의 상  
관관계에서 그 상관직단위들의 배열순위이다.

그때면 왜 어순이라는것이 있게 되며 왜 민족어들이 서로 다른  
이상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가?

어순이 있게 되는 근본요인은 객관세계에 실재하는 사물현상과  
그것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언어행위표현방식에서의 불일치에  
있다.

객관세계의 여러 사물현상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동시에 인  
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객관세계의 존재와 운동은 사람의 인  
식대상으로 될 때 동시에 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결과를 인  
식이므로 나타낼 때에는 한줄우에 차례를 지어 배열해놓을수밖에  
없다. 이것을 언어행위의 《선조성》, 또는 《선렬성》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물현상의 반영은 필체적일수 있으나 그 언어  
표현은 평면적이면서 일선상에 놓이는것으로밖에 되지 못하는것  
이다.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도 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몇개의 토막을 이룬 단위들이 한줄우에 배열되  
는런세로 이루어진다.

문장은 판단을 나타내는데 그 판단은 개념들의 순차적원결로  
구성된다. 이리하여 적어도 두개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는 구성단위들이 일정한 차례로 배열된다. 이로부터 어순이란것이  
생기게 된다.

어순이 있게 되는 요인은 또한 언어행위의 목적지향성있는 성  
기사도 관련되어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그 어떤 수동적인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목적의식적으로 꾸러나가는 자주적인 요구의 창조적능력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람은 문장을 통하여 창조적사색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때 보다 효과있게 사상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진술의 도마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배열한다. 이러한 창조적언어행위는 문장을 이루는 단위들의 순위를 변형시키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얻어진 개념을 더 정밀화하기 위하여 그 일반화된 개념에 설명을 덧붙이거나 여러가지 다른 개념으로 수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단위에 다른 단어가 단계적으로 덧붙여진다. 이것을 언어행위실현의 단계적투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또한 무엇에 대한 판단을 언어로 나타낼 때 출발점과 귀착점, 제시와 물이를 세우며 판단의 어느 한 요소를 문리적으로 강조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도 한다. 예컨대, 진술의 무제가 무엇을 앞에 놓고 그것을 불이하는 것을 뒤에 놓는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의 구조를 변형시켜 진술의 문장, 작은 것을 구분하려고도 한다. 이것을 언어행위실현의 문리적투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에는 감정-의지적요구도 반영된다. 즉 언어행위에서 표현적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언어단위들을 이리저리하게 옮긴다. 이러한 표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단위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 이것을 언어행위실현의 표현적투성이라 할 수 있다.

언어행위실현의 단계적투성, 문리적투성, 표현적투성은 문장의 해당 구조적특성을 자극하여 그 구성단위들의 배열순서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하여 일정한 어순이 생기며 어순배열의 규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왜 민족어마다 고유한 어순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인민의 언어행위의 관습 및 전통에 따라 제약되는 민족어의 구조 문법적특성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각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 자체는 해당 인민의 언어의식과 언어관습의 반영이며 언어실현의 경험에 의하여 굳어진 사회적산물을 부여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말과 같이 형태체계가 발전되어 있고 문법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 풍부한 언어에서는 어순에 자유로운 성격을 부여하

는가 하면 포함어나 고립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어순에 엄격한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인민의 언어의식과 언어관습 및 언어실현은 민족어의 고립 구조 문법적특성을 낳게 하며 그로 하여 그 민족에게만 인정되는 어순배열의 순위가 고착된다.

각 민족어마다 고유한 어순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또한 어순현상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규범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언어규범은 사회적성격을 띠며 그 언어를 쓰는 사회집단의 《약속》에 따라 오랫동안 형성되고 변화발전한다.

인간의 사유가 유치한 단계에 있고 언어적수단이 발전총부파되어 있지 않을 때의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그 단위의 배열순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수단이 발전총부파됨에 따라 차차 언어적수단들의 연결 방식과 수법이 달라지고 어순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자주 접촉하는 민족성원들끼리 일정한 규칙을 요구하게 된다. 이리하여 민족성원들에게만 접수되는 어순배열의 규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글자가 생겨나고 글자생활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순의 규범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요구는 더욱 커진다. 이 경우에도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과 해당 인민의 언어실현상 요구를 반영하여 어순의 규범성은 더욱 민족적특성을 더면서 공고화된다. 이리하여 민족어들사이에 어순배열상의 규칙이 달라지게 된다.

민족어의 구조-문법적특성,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의 규범의 사회적성격에 따라 제약되는 어순의 민족적특성을 옮겨 해명하고 그 리용방도를 내놓는 것은 리론문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된다.

## 2. 우리 말 어순에 적용하는 법칙적현상

우리 말 어순은 자유로운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하여 일정한 조건 밑에서 어순이 자유롭게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도 문장성분의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 말 어순은 문장론적기능도 수행하며 표현-본체론적기능도 수행한다.

(備인) 어순이 주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며 합부로 이동됨을 허용하

지 않는 어순배열의 규칙을 가진 언어를 자유로운 문장 어순을 가진 언어라 하며 어순이 주로 문체론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 경우 문체론적 자유로운 언어를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언어라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우리 말에도 어순배열의 규칙은 있다. 그 규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더욱 정밀한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문체론적 기능과 문장론적 기능을 나누어놓아 주어져 있으며 자유로운 이동기능성이 없다는 우리 말 어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문체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해당한 어순배열의 규칙이 있고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해당한 어순배열의 규칙이 있으며 이동이 자유로우면 그만큼 어순배열의 규칙도 다양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 점령의 지하조병을 예술선진에 환영!

○ 우리는 혁명전통학을 꾸준히 진행한다.

첫째 예에서 《지하조병들》과 《예술선진대》가 주어와 보어로 되어 있어 《환영》에 각각 의존된다는 것은 어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때의 모든 어순은 바뀌지 못한다. 만일 일부 문장성분의 어순이 바뀌었다면 문장성분의 기능은 달라지거나 파괴되며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도 달리 된다. 이것은 어순이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위이다.

둘째 예에서 주어(《우리는》), 보어(《혁명전통학을》), 상황어(《꾸준히》), 술어(《진행한다》)의 차례는 서로 자유로이 바뀔 수 있다. 이때 어순이 바뀌어도 문장성분의 본래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예가 성분이 나타내는 의미적색채는 달라진다. 이것은 어순이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 표현-문체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의 문장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어순은 문장구조와 구성성분들의 문법적특성(표현, 의미, 상관성)에 따라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표현-문체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 말은 문장론적 기능과 문체론적 기능을 다 수행하는 어순의 특성을 지닌 언어이면서도 주로는 둘째 예와 같이 이동기능성이 많은 어순을 가진 언어이다.

이동기능성이 많은 어순을 가진 문장구조에서 이동이친의 《중성어순》, 오랜 관습에 의하여 굳어진 보통의 어순, 아무런 문체론적색채도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의 어순을 《규범어순》 또는 《정상

어순》이라 하는 예 ②가 바로 그 전형으로 된다.

《규범어순》을 가진 우라 말 문장에서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뀌기 가능성은 매우 많다.

예 ③의 현실적의미, 대상-론리적의미를 크게 변용시킴이 없이 그 어순의 이동가능성은 대수학적인 차례감으로 해이될 수 있을 만큼 많다.

○ 우리는 혁명전통학을 꾸준히 진행한다.

○ 우리는 꾸준히 혁명전통학을 진행한다.

○ 우리는 꾸준히 진행한다, 혁명전통학을.

○ 우리는 혁명전통학을 진행한다, 꾸준히.

○ 우리는 진행한다, 혁명전통학을 꾸준히.

○ 우리는 진행한다, 꾸준히 혁명전통학을.

이것은 《우리는》을 축으로 하여 그밖의 어순을 바꾼 예이다. 《혁명전통학》을 축으로 하면 또 그만큼 수효의 어순의 이동가능성이 생기며 《꾸준히》, 《진행하다》를 각각 축으로 하여도 그만큼 수효의 어순의 이동가능성이 생긴다.

말하자면 이 《규범어순》의 문장은  $4 \times 3 \times 2 \times 1 = 24$ 의 수효(차폐값의 총수)만큼 이동가능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우리 말에서 《규범어순》이 《이동어순》으로 되면서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차폐값의 몫의  $N!$ 에 해당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붙임)  $N!$ 에서  $N$ 은 어순단위(문장성분의 수)이며 !는 차폐값을 표시한다. 이리하여 《규범어순》에서 어순단위(문장성분)가 3개 있다면 그 이동가능성은  $3 \times 2 \times 1 = 6$ 이 되며 어순단위가 5개 있다면  $5 \times 4 \times 3 \times 2 \times 1 = 120$ 이 된다.

단약에 《규범어순》인 《우리는 혁명전통학을 꾸준히 진행한다》라는 문장구조를 《론리적구조》로 변경시키(그것을 《개편구조》라 한다.) 《혁명전통학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은 우라다.》나 《우리가 꾸준히 진행하는 것은 혁명전통학이다.》와 같이 개편한다면 그 어순의 이동수효는 더 늘어난다. 이때의 늘어나는 어순의 수효는  $((N-1) \cdot (N-2)!)!$ 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 말 어순은 바로 《규범어순》의 이동범위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어순》과 《이동어순》(바뀐어순)의 대응이 생기며 《규범어순》의 이동범위의 테두리밖에서 그밖의 어순류형(《개편구조의 어순》, 《뒤

질된 어순», 《제시구조의 어순》 등)이 대응된다. 이것이 하나의 법적 현상으로서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말에 고유한 어순배열의 법칙적 현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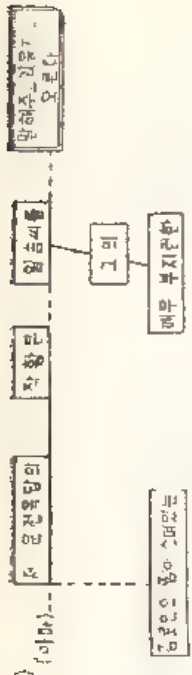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우리 말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는 모든 의존어가 주도어의 앞에 위치하며 주도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성분, 의존성분, 2차성분, 확대성분 능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에 위치한다. 이것을 어순의 《주종관계》의 특성(법칙)이라 할수 있다.

- ① 나는 어제 상점에서 만년필을 샀다.  
(주도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 ② 화창한 봄날이었다.  
(의존성분) (주도성분, 기초성분)
- ③ 아마 힘 칠드린의 구슬땀이 스며있는 저 문진우담의 좌황은  
(의존성분) (2차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주도성분)

예우 부지뻔한 그의 일흔셋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2차성분) (의존성분) (주도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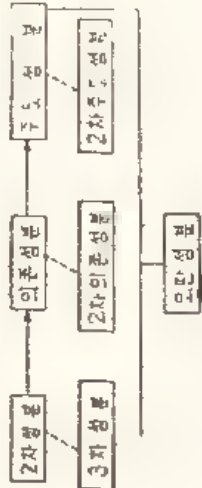
예①에서는 주도어 《샀다》(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2개의 주도어 성분과 2개의 의존성분이 앞에 위치하였으며 예②에서는 주도어 《봄날이었다.》(진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전개성분(의존성분)이 앞에 위치하였으며 예③에서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도어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좌황은》, 《일흔셋들》과 같은 주도성분과 《저 문진우담의》, 《그의》와 같은 의존성분과 《김로인의 구슬땀이 스며있느》, 《예우 부지뻔한》과 같은 2차성분이 단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아마》라는 의존성분이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대응하여 자리잡았다.

이들 주종관계의 어순배열의 규칙을 그림같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같이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말의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 주종관계의 질서는 모든 의존단위가 앞에 위치하고 모든 주도 단위는 그뒤에 자리잡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주도성분끼리도 앞에 오는 것이 뒤에 오는 것에 의존되며 같은 의존단위끼리도 앞에 오는 것이 뒤에 오는 것에 다시 의존된다.

《주종관계의 특성》의 일반적 구조를 그림같이 포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순에서의 《주종관계의 특성》(규칙)은 우리 말의 모든 문법적 현질의 단위에 작용하는 기본특성이다. 이것은 판단의 구조가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고유한 특성이다. 우리 인민의 언어의식과 오랜 언어관습에 의하여 굳어진 어순배열에서의 《주종관계의 특성》은 어순의 문장론적 및 문체론적 기능을 분간할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다음으로 우리 말 어순배열에서는 의존성분이 주도어에 가까이 자리잡을수록 의미적 현상은 밀접해지고 주도어에서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그 의미적 현상은 멀 밀접해진다는 법칙적 현상이 작용한다. 다시 말하여 주도어에 가까울수록 문장성분의 의존성이 강하며 주도어에서 멀수록 문장성분의 자립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법칙)이라 할수 있다.

○ 접착관계, 2차업반원들은 오늘날 자기 제의를 훨씬 넘쳐왔을 것이다.

여기서 《남쳐됐을것이다》라는 주도에 의미적으로 가장 밀접히 접근해있는것이 《월쎌》이며 그다음으로는 《자기 계획을》, 《오늘도》, 《2차원반원들은》의 순위로 주도에 대한 접근 또는 《리탈》의 정도가 나타났으며 《집착권배》는 가장 의존성이 약한것(차림성이 강함)이며서 주도어의 의존권안에서 벗어나기까지 하였다.

주도에 대한 의존어들의 이러한 의존성과 차림성(의미의 접근과 리탈)의 정도를 수자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존성)	1	2	3	4	5	0
(차림성)	5	4	3	2	1	0
(주도의 의존성)	6	6	6	6	6	0

여기서 수자6은 《의존성의 크기 + 차림성의 크기》의 총화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말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 주도에 대한 의존어의 의존성과 차림성(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정도를 언어나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그 총적균형치는 언제나 같다.

(붙임)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은 어순배열에서 《규범어순》이 리탈성의 균형을 보장하는 작용으로 보고 《상대적균형보장어순》(법\*)이라고도 할수 있다.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은 《규범어순》(정상어순)이 이러한 목적에서 바뀌는 경우(이동어순)에는 차림성과 의존성 정도와 균형이 《파피》된다. 이 균형의 《파피》가 바로 이러한 뜻밖의 결과로, 본리처무제의 《강약》을 나타내는 효과물 거꾸레 하는것이다.

어순의 균형이 《파피》되어 거꾸레 효과의 정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어제 나는 만년필을 상점에서 샀다

(의존성)	1	2	3	4	0
(차림성)	3	4	1	2	0
(주도의 의존성)	4	6	4	6	0

(붙임) 여기서 6으로 표시된 《나는》과 《상점에서》는 정상어순을 《리탈》함으로써 균형을 《파피》하였으며 따라서 가장 강한 본리처무제를 얻고 가장 강조되었다. 그러나 4로 표시된 《어제》, 《만년필을》들은 그만큼 《본리처무제》가 약화되었다.

이것을 《규범어순》(정상어순)의 차림성, 의존성의 정도와 대비하면 그 균형치의 《파피》가 가져오는 뜻밖의 표시, 《본리처무제의 강약》정도도 뚜렷이 알수 있다.

○ 나는 어제 상점에서 만년필을 샀다.

(의존성)	1	2	3	4	0
(차림성)	4	3	2	1	0
(주도의 의존성)	5	5	5	5	0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동어순》에서 가장 높은 균형치(8)를 가진 《나는》과 《상점에서》는 본래차림을 올짐으로써 《균형의 파피》를 가져왔으며 그로 하여 뜻밖의 표시, 본리처무제의 《강약》에서 가장 높은 정도에 올랐다. 즉 표현적색채를 세게 하였다. 2와 반면에 균형치가 적어진 《어제와》, 《만년필을》은 그것대로 표현적색채를 약하게 하였거나 본리처무제를 약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적《파피》를 거꾸레 하였다.

어순배열에서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은 《주종관계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우리 말 고유어의 어순배열규칙으로서 언어행위의 본리적흐름, 문장의 의미의 파악을 순환케 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 말 어순배열에서는 또한 일정한 문장성분의 표현적기능을 특별히 높일 목적으로 일부 문장성분을 《규범어순》(정상어순)에서 나카게 벗어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고정된 특유의 어순배열의 수를 쓰는 일이 있다. 이때 《규범어순》에서 심하게 벗어난 어순을 《이질한 어순》이라고 하며 특수적으로 고정된 특유의 어순을 《고정어순》이라 할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 특별한 본리-표현적기능을 높이는때 작용한다. 이것을 《기능제고의 특성》이라 할수 있다.

○ 로복대중아 일어나라, 앞제의 쇠사슬 끊는 싸움에.

○ 옛날옛적에 할 마을에 민 잘하는 농민이 살고있었다.

예①은 본리적 및 표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규범어순》을 넘겨놓은것이고 예②는 옛스러운 뜻밖, 표현적색채를 더시키 하여 《고정어순》을 적용한것이다. 말하자면 이 예문에서 예제 문장성분은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진것이다.

《기능제고의 특성》은 《주종관계의 특성》, 《의미의 접근 및 리탈의 특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어순을 특적의외적으로 바꾸어놓지

1. 주로 《주종관계의 특성》과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어순배치가 유형을 말한다.

고정어순은 그 굳어진 정도와 성격에 따라 품고한 어순과 고착어순의 작은 갈래로 나누인다.

○ 《심산도 화승도 생활도 활일무력대식으로!》(공고한 어순)  
 ○ 《날의제에 한 마을에 일 잘하는 농민이 살고있었다.》(고착어순)

이동어순이란 낱말의 생동성, 명료성 등을 들우기 위하여 정상어순의 일부 성분을 바꾸어놓은 어순배열로서 주로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유형이다.

○ 만년필을 이제 나는 상점에서 샀다.  
 ○ 부지런한 김로인의 일솜씨를 나는 본받았다.  
 뒤집힌 어순이란 표현-문체론적효과를 위하여 주도어와 의존어의 위치를 정반대로 바꾸어놓은 어순배열로서 한갓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유형이다.

○ 통일하자, 우리 조국을.  
 ○ 일터서라, 최후의 경전에.  
 특수어순이란 어느한 문장성분의 문리-의미적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장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여놓은 어순배열의 유형이다.

특수어순은 그 낱말의 성격과 문장성분의 구조-기능적특성에 따라 제시구조의 어순과 개원구조어순의 두 작은 갈래로 나누인다.

○ 만년필은 내가 어제 상점에서 샀었다. (제시구조)  
 ○ 내가 어제 상점에서 샀것은 만년필이다. (개원구조)

우리 말 어순의 기능은 어순배열의 특성, 문장구조의 특성, 어순의 유형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우리 말 어순의 주되는 기능은 문장-문체론적기능이다. 그것 자유로운 어순이동 그자체가 많은 경우에 문장의 의미-문리작용에나 문장성분의 기능에 큰 편동을 주지 않고 표현적효과를 지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언어행위이기때문이다.

어순의 문장-문체론적기능이란 문장성분의 어순배열에 따라 표현적효과를 거두는 기능이다.

우리 말 어순의 문장-문체론적기능은 특히 바뀐어순가운데서 이동어순의 일부와 뒤집힌 어순의 전부가 담담한다. 이때의 이동어

나 고정시켜놓음으로써 특별한 문리적 및 표현적 효과를 높이는 어순배열의 특별한 수법이다. 《기능제고의 특성》을 가지는 어순배열이 목적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언어생활의 전통을 최대한 살린다는데 고유한 특성이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말 어순에 작용하는 별적현상은 자유로운 어순배열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으로 일관되어있는 우리 말 어순현상의 민족적특성에 기로하고있다.

### 3. 우리 말 어순의 유형과 기능

우리 말 어순의 유형과 기능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하여서는 위에서 본 어순배열의 특성(법칙)뿐만 아니라 고역한 기초우에서 낱말의 목적과 성격, 문장성분의 구조적특성, 언어행위의 문리-표현적효과 등에 따라 성립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낱말의 목적과 성격, 문장성분의 구조적특성, 언어행위의 문리-표현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선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순유형을 설정할수 있다.

- 1) 정상어순(《규범어순》)
  - (1) 기초어순(바탕어순)
  - (2) 고정어순 {공고한 어순, 고착어순}
- 2) 비정상어순(바뀐 어순)
  - (1) 이동어순
  - (2) 뒤집힌 어순
- 3) 특수어순(달라진 어순)
  - (1) 《제시구조》의 어순
  - (2) 《개원구조》의 어순

기초어순이란 전통과 관습의 힘에 의하여 정상적인 배열순위를 가지며 주로 《주종관계의 특성》과 《의미의 접근 및 퇴할의 특성》을 가지는 어순배열의 유형을 말한다.

○ 나는 어제 상점에서 만년필을 샀다.  
 ○ 그는 김로인의 부지런한 일솜씨를 본받았다.  
 고정어순이란 전통과 관습의 힘에 의하여 배열순위가 굳어졌으

순의 일부라 하는 것은 이동어순가운데서 의미-론리적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한 정상어순의 자리바꿈을 말한다.

○ 이제 만년필을 나는 상점에서 샀다.

이동어순은 결국 정상어순에서의 의도적인 《리탈》인 것만큼 문맥에 《제사롭지 않는》 흐름을 준다. 이 《제사롭지 않는》 흐름이야말로 표현적체체의 구현자인 것이다.

앞의 예에서 《만년필을》은 슬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억양의 요소도 정상어순보다도 달리 튀어서 목자의 추의를 짐작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 문장성분은 뚜렷히 강조되며 표현-문체론적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균형》의 《파괴》는 그만큼 《만년필을》에 강조점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강한 논리-정서적강조가 덧붙는다. 이와 같이 이동어순에서 균형의 《파괴》는 표현적효과와 크기와 정비례한다.

우리는 슬어에서 이동어순이 나타내는 효과는 주도어의 앞에 있는 모든 의존어의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뒤집힌 어순은 전적으로 표현-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진술에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호소성, 전투성 등의 표현적효과를 주며 긴박감과 여유를 남기거나 일정한 운물형식을 맞추게 하는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 나가자 최후의 절전에, 일머서마 억압대충할아!

○ 별리 잠아추시오, 저 달리는 말을.

○ 자랑이란말이요, 우리 공장외...

슬어 상황어, 슬어 주어, 슬어 보어, 피규정어-규정어 등으로 뒤집혀진 이러한 어순에서 문장성분의 의존성과 자립성의 균형이 심히 《파괴》된다는 사실은 바로 진술에 여러 표현적효과를 부여한다는 증거로 된다.

우리 말 어순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의 다른 하나는 의미-론리적강조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즉 어순을 비꿈으로써 문장의 일부성분을 의미-론리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이다.

우리 말 어순의 의미-론리적기능은 바뀐 어순가운데서 이동어순의 일부의 달라진 어순의 전부가 팔는다.

○ 《김동무에게 왜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까?》(=김동무야말로 저당사입니다.)

○ 만년필을 나는 상점에서 샀다. (1)은 만년필을 샀다.(2)와 비교하여 2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순으로 일로 되었다. (=2배의 1배로 늘어났다는 뜻은 배가 배 삼십에서 60이었다.)

2배로 늘어났다는 뜻은 배가 배 삼십에서 60이었다. (=2배의 1배로 늘어났다는 뜻은 배가 배 삼십에서 60이었다.)

첫째 배는 이동어순으로써 《김동무에게》 의미-론리적무게가 1배로 늘었고 둘째 배는 《제사구조》의 어순으로써, 셋째 배 《개편구조》의 어순으로써 《만년필을》, 《김동무에게》를 2배로 늘어난 것은 각각 의미-론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의미-론리적으로 일정한 문장성분을 강조함으로써 진술의 《무엇인가》에 대하여 슬리게 하는 어순의 이러한 기능은 언어행위에서 《제사구조》의 《말이》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며 진술의 《출발점》과 《귀착점》, 《어떤것》과 《새것》 등을 구분해줌으로써 현실-내용적문장성분화 의미-론리적성분화)를 가능케 하는 기초를 준다.

(참고) 일부 문법책에서는 진술의 《출발점》을 《주어진것》으로, 《귀착점》을 《어떤것》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개념은 문리적범주론 문법에서 다루어진다.

나 어게 왔다.  
누가 어게 왔다.

이 두 문장은 어순이 같지만 이야기하는 주와 듣는 속이 이미 아는 사실, 즉 누가 어게 왔는가에 대한 차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관점이 정중되는 데로 이동어순의 이동과 문장구조의 재조정으로 이리한 것을 표시하면 순서적으로 나타낸다.

어순의 의미-론리적기능에 의하여 강조된 성분이 그 의존성과 자립성의 차이로 인하여 균형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때의 문리적강조의 효과도 바로 이 균형의 《파괴》가 가져다준 산물이다.

어순의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문장론적기능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성격의 문장을 떼어내어 문장론적이라 하더라도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말에서 정상어순이 생산하는 사실 자체가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간형, 절대격형, 《무형태형》 등으로 문장성분이 표현되어 있을 때 그 문장성분의 기능은 사실상 정상어순을 대충살아 가르칠 때부터이다.

예컨대, 《김덕의 지하초병들 예술선전대 환영》에서 문장성분끼리 다른 기능도 《김덕의 지하초병들은 예술선전대를 환영한다.》는 문장성분끼리 다른 기능의 자리와 형태를 예상해서만이 확정되는

것이다.

우리 말에 토나 보조어, 억양 등의 문법적관계표현의 수단과 수법이 풍부하다는것도 또한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안받침해주는 요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토나 보조어, 억양 등의 수단과 수법은 많은 경우에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더욱 보장하여주는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 김로인의 부지편한 일흔세를 본받았다.

이때의 속격로, 규정형, 대격로, 석술형은 바로 이를 문장성분의 기능을 확정해주면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정상어순에서의 문장성분의 차이는 여러 문법적수단과 함께 바로 문장론적기능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고정어순에서의 문장론적기능은 절대적성격을 띤다. 즉 고정어순에서는 오직 어순에 의해서만 문장성분의 기능이 확정된다.

○ 소년단속하단 대희참가자를 축하.

○ 불이 일음이 된다.

○ 장물은 기술패를 썼으며 발리 흐른다.

이때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뀌면 곧 문장의 문리-의미적내용이 달라지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은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을 뚜렷이 보여 준다.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은 엄격한 규제성을 가지는것이 특징적이니, 만일에 이러한 엄격한 규제성이 없다면 도대체 고정어순, 정상어순, 탈락진 어순 등의 갈래가 성립되지 못할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어순배열의 유형들은 정상어순을 기준으로 하여 갈라지며 정상어순은 문장론적기능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말 어순은 미세한 효과적인 기구적 하는 액터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요소이다. 다종다양한 어순배열의 질서, 다채로운 어순의 기능, 그리고 정연한 체계의 어순배열의 기능성 등이 갖추어져있는 여기에 우리 말의 우수한 점의 도하나가 있다.

## 제 4 장. 문장류형

사람들의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끝맺어가는 언어행위의 토막으로 완전히 나타내는 기본수단은 문장이다. 문장류형이 다양하면 그만큼 언어행위의 문리적 및 심리적 과정을 실현시켜주는 데 더잘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문장류형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집대성되는 언어행위의 토막늘이다. 이터하여 각 민족어는 거기에 고유한 문장류형이 체계화되어있게 된다. 문장론에서는 바로 문장류형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저기에 반영되는 민족적특성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문장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확정하고 그 구성재료와 구성성분을 고찰한데 기초하여 문장류형을 전면적으로 살피는것은 과학적문장론전설의 필수적과업이다.

문장류형에는 구체적으로 문장구조의 민족적특성, 민족어에 그 한 문장구성의 문법적특성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문장류형에 대한 과학적고찰은 우리 말 문장구조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그 유형을 체계화하는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에는 문장류형에 관한 연구가 깊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선어문장류형에 대한 과학적고찰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최근 시기에 이르러 문장을 크게 내용상측면과 형식상측면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늘어 지배적인것으로 되였으나 그 분류각도와 구체적인 문장류형의 설정은 한결같지 않다.

조선어에 단일문과 복합문의 구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개별적인 문장류형의 성격을 규정짓는데서 모든 견해들이 다 철저한 문법적립장에 설것은 아니다. 일부 경우에는 우리 말 문법구조의 특성에 꼭 맞는 분류를 하는데서 미흡한 점도 남기였다. 《무주어문》, 《단어문장》 등의 조선어적인 독특한 문장류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납득성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였으며 《불안전문》과 같은 설정에 맞지 않는 류형도 오래동안 묵과되어왔다.

〔附記〕 《무주어문》이 설정되던 《무술어문》, 《무보어문》...등이 설정되





시킴문에는 많은 경우에 행동의 주자가 나타나지 않고 분장구  
에 있어서 《시킴》에 고유한 특색이 나타난다. 시킴문의 역양이  
체로 축급하며 문장의 마지막에 보물의 높은 어조의 세기마루가  
어진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표시이다.

- 《학에 먼저 오르세요.》
- 《나를 따라 앞으로!》
- 《80년 내속도》창조윤동우에 한결같이 펼쳐나서자.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문법적기능이 이상과 같이  
이상 문장의 대상-론리적의미가 나타내는 진술의 차극과 반응의 특  
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문법적으로 일반화되지 못한 《진술의  
특색》을 나타내는 다른 류형의 문장들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하에 《간접적의문문》, 《수사학적의문문》은 문법적현상이 아니며  
《정문》, 《부정문》은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류형에 넣을 수 없으며  
《진유문》에도 《명령》의 변종을, 시킴문에도 《권유》, 《약속》 등의  
변종을 실정하려는 시도는 의의를 볼 수 없다. 문법에서는 《추동문》,  
《호소문》, 《금지문》, 《요청문》, 《축하문》, 《선동문》 등과 같은 허  
다한 문법적이 아닌 일반화는 허용될 수 없다.

《진유문》에 대하여 말한다면 진술자의 의지적태도가 반영되어  
내편의 일정한 행동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그 일반화된 문  
장문법적기능은 시킴문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형태론적현상으로  
《진유도》가 따로 있는 사실로 하여 《진유문》을 시킴문의 한 갈래로  
볼 수도 있고 독자적인 류형으로 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조건어에는 맺음형토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어 《권유  
토》(～자, ～日시다)뿐 아니라 약속, 추동, 요청 등을 나타내는 여  
러가지 토(～마, ～다, ～다, ～자구나, ～러구나, ～럼, ～구려...)가  
있어서 수많은 서술목적에 따르는 문장갈래를 가릴 수 있는 가능성  
을 준다. 사실은 고려할 때 《진유문》문제는 보다 복잡성을 띤다.  
문장의 내용상분류의 하나인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류형을 《포에  
따르는 문장류형》과 동일시함으로써 문장론적현상을 형태론적현상  
에 용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는 것이다.

우에서 이야기된 모는 사실로 보아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  
분류에서는 형태와 의미, 기능의 로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보고 해당  
문장이 나타내는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진

중 하자는데 기본사명이 있다.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을 옮겨 가르치면 이기적인 기본  
사명에 맞는 문장론적기능을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문장의 모질문  
적기능의 확정은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대상-론리적의미와 해당 문장  
의 구조-문법적표식, 전일적인 문장에 덧붙이는 역양의 표시 등이  
동일적으로 고려한 때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알림문은 진술자가 인식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단정하는  
대상-론리적의미를 가지며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문장구조와 전달  
역양에 의하여 다른 문장류형과 구분되는 문장이다.

- 조선혁명역사는 명생불멸의 추해사상이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전  
리하여 온 역사이다.
- 그는 적통적인 말로 사담들을 감동시켰다.

알림문이 《무엇은 무엇이다》, 《누가(무엇이) 어떠한가(어찌하  
다)》 등의 론리적구조를 가지며 일련의 어휘들과 문법적형태(특히  
술어의 맺음형)에 있어서 《알림》에 고유한 특색들을 가진다는 것 등  
은 이 문장류형을 다른 문장류형과 구분하는 주요표식으로 된다.  
알림문의 역양의 요소들은 시작과 끝이 비교적 낮고 가운데가 높은  
선형-물통적요소들로 통일된다.

물음문의 문장론적기능은 물음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차극을 주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의 반응이란 행동사 반응  
인 수도 있고 대답이라는 언어적반응일 수도 있다.

- 모험산에 갔어 언제 막소?
- 밤도 길있네 주무시지 않겠습 ?

물음문은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 들는 사람으로 부  
나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거나 바라는 내용을 가진다. 그것은 진술  
의 론리-의지적태도를 강조하는데 알맞는 문장구조와 들음의 역양  
에 의하여 다른 문장류형들과 구분된다.

물음문은 물음을 나타내는 어휘적 및 문법적 표시를 가진다.  
물음을 나타내는 어휘적요소에는 뜻마루와 맺음형이 오는  
높은 어조를 가지는 것도 물음문의 고유한 구별적표식이다.

시킴문의 본질적기능은 진술자의 언어적차극이 상대방의 행동  
상 반응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시킴문에는 진술의 강한 의지적태  
가 나타난다.

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은 문장의 기능적분류, 내용상 구분에 따라 나눌것으로서 그 일반화될 갈래는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이 더욱 특유하게 《권유문》이 설정될수 있다.

## 2.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진술의 성격이란 문장내용이 현실에 대하여 어떤 성격의 관제를 맺는가 하는것으로서 진술자의 주관적평가가 권일적인 구조에 반영되는 문장분류기능이다. 따라서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이란 진술자의 주관-평가적제기가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문장이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진행은 느낌문장이다. 그것은 느낌문으로 구현된 진술의 내용은 언제나 일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언어행위에 진술자의 주관-평가적제기가 구조적으로 덧붙여 현실에 대한 관제의 성격으로 나타나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인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등에 감탄의 제기가 두르는 문장, 즉 진술자의 주성이 구현된 문장이 느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이 1차적성격을 띤다면 느낌문은 2차적성격을 띤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말에서 느낌문은 《감탄의 토》로 이루어진 맺음형으로도 형식화되며 시술로, 의문토, 명령토, 권유토 및 그밖의 진술형으로도 끝맺어진다.

- 금강산은 정말 친하평산이로구나! ①
- 남조침 군사불한남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②
- 아니, 그렇게 많은 거들을 어찌 다 날랐단말인가? ③
-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④

위에 든 모든 예문은 대상-문리적의미에 감탄의 제기가 덧붙여 다는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문장은 다 느낌문으로서 진술의 성격, 2차적성격으로 가름 분류된것이다.

이런 문장에서 감탄의 제기가 없다면 예 ②, ③, ④는 그 1차적성격으로 보아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으로만 될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느낌문이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보다 성격이 다른 문장류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모든 유형들(예컨대, 《부주어문》, 《불안진문》) 그리고 보충문과 복합문 등을 1차적질서로 볼 때 제기에 감탄의 제기 부는것들은 다 2차적질서로서의 느낌문으로 된다.

1938년 겨울 어느날이었다! (부주어문-느낌문)

아! 배! 산! 조종의 산! (명명문-느낌문)

그렇다! 이 말이 내가 같 길이다. (간어문장-느낌문)

밤이 깊었으나 데오는 묵묵히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복합문-느

낌문)

느낌문은 서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뿐 아니라 그밖의 다른 문장류형이라도 2차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면서 이루어지는 문장

이다.

1) 감탄문?!

《아! 그야...!》

1) 예를 보던 ①은 명명문이 물음문으로 되고 다시 느낌문으로 되고 ②는 《간어문장》이 《중단문》으로 되고 다시 느낌문으로 되고 ③은 복합문으로 된 알림문이 느낌문으로 된것이다.

《산! 배! 산!》은 진술자의 주관-평가적제기를 담으면서 현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인 느낌문은 이상과 같이 전술의 제기에 따라 2차적으로 분류된 문장류형이다. 느낌문이 2차적질서로 분류된다는 특성은 느낌문이 다시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으로 되지 않으며 복합문의 어느 하나의 《단일문》에만 감탄의 제기가 덧붙이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글에서는 감탄의 제기가 붙는 문장을 《!》부호로만 끝맺어주는것이다. 《!》, 《?!》만 표시되지 《!?》, 나 《!》로 표시되지 않으며 복합문의 뒤 《단일문》에는 《?》를, 앞《단일문》에는 《!》를 붙는 일이 있을수 없다.)

《불안》과 《부주어문》은 일부 문체해설에서 느낌문의 문장분류특성군을 유세 못하면서 《!》를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부류에 넣었거나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분류에 넣으면서도 2차적성격을 의미한것들은 이상과 같은 문장류형이 아니라 바로작가에서야 할 문체라고 본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은 느낌문뿐 아니라 일련의 다른 문장류형도 해당된다.

조선어에는 문장내용이 현실에 대하여 맺는 관계를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로서 나타내는 문장류형으로서 문법적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다. 이것은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긍정문과 부정문을 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잡아야 할 근거는 그것이 언제나 일정한 목적으로 진술되는 내용에 진술자의 긍정-부정이라는 주관-평가적계기를 첨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 혁신이 일어났지만 그날만이 아니다.

○ 그때 밤안에서 열쇠를 보지 못했다?

이 문장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이나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술자에 의한 부정의 계기가 첨가되면 서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다. 이 문장은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유형으로 보아 부정문이다.

긍정문과 부정문을 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잡아야 할 근거는 또한 이 두 문장이 배외없이 2차적인 분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장류형이기 때문이다.

○ 혁신은 그날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 그때 밤안에서 열쇠를 보지 못했다.

이 문장들은 1차적으로는 다 알림문이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알리기만 하는 내용을 가진 문장이다. 그러나 2차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두 문장의 하나는 긍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문이다. 다시 말하면 알림문으로 된 1차적질서에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긍정과 부정)가 덧붙은 2차적질서의 문장인 것이다.

모든 다른 유형의 문장은 2차원 이상의 질서에서는 긍정문이 아니면 부정문으로 된다. 긍정문과 부정문이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으로 되는 유효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명명문이다.

명명문은 1차적으로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무성분문장」이다. 즉 1차적으로는 구조상특성에 의하여 독특하게 분류된 문장이다(이 점이 앞에서 이야기된 느낌문, 긍정문, 부정문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특성을 가진 명명문은 「가신이니 헌신은 온갖을 나타내리라는 기능」(주 명명하는 기능)을 나타내게 해서 일차적으로 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류형에 속하게 된다. 말하자면 명명문은 「원어서는 단독성분으로 진술을 나타내어서 다른 「차원」서는 「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문장이니, 명명문이 이 《2차원적격》이 그것을 -검문이나 긍정문,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진술의 기능으로 문장류형으로 보기에는 근거를 준다.

지금까지의 대가수 문법체에서는 명명문이 이 《2차원적격》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1부구성문》(또는 《위구성문》)에 넣어서, 영의 문장으로도 다루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름도 모른다. 이것은 명명문이 어간행이나 절대적형태의 단어 또는 단어군집으로만 되어있다는 한 측면만을 보고 그 어간행이나 절대적형태 속에서 대응하는 그 어면 《주어》로 가장한데서 나온 잔류이다.

명명문의 단어 또는 단어결합체는 《주어》도 아니며 《술어》도 바로 진술어이며 단독성분인 것이다. 단독성분으로서의 기능은 명명적기능을 겸하고 있는 여기에 명명문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된 모든 사실로 보아 조립어에서 진술의 성격에 관한 문장류형은 진술자의 주관-평가적계기가 구조적으로 덧붙은 것으로서 감관과 공부정 및 명명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들이다.

### 3.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진술의 방식이란 문장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으로서 기본진술에 전달자의 립장이 반영되는 문장문체기능이다. 따라서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이란 기본진술과 전달자의 립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장이다.

조선어에서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부류로서는 무엇보다도 긍정문과 끌어올림문을 들 수 있다. 바로 올림문과 끌어올림문은 진술이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된 문장이며 기본진술외에 전달자의 립장도 반영되는 문장이다.

바로 올림문이란 기본진술을 객관의 립장에서 그대로 고스란서 나타내는 문장류형, 즉 남의 말을 그가 말한대로 전달하는 문장이다.

바로 옮김분에는 전달자의 밑도 섞이는데 그것은 현실의 객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리하여 바로 옮김분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직접적인 시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 학문적 관점, ○ 모든 학습종류이다. 라고 말하며, ○ 비록 옮김분이란 기본진술을 전달자의 주관적 필경이 가지고 전달하는 문장 유형, 즉 내적 말을 본인이 전달자의 필경에서 전달하는 문장이다. 옮겨 옮김분에서는 전달되는 말(남의 말)이 주관의 필경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 학습반장동무는 모두가 학습종이라고 말하였다. 바로 옮김분이면 옮겨 옮김분이 전 다 일정한 진술내용을 가진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장이다. 이때의 방식은 많은 경우에 문장구성의 구조-형식상 특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리하여 전달방식상 차이에 따라 바로 옮김분과 옮겨 옮김분의 구별도 생기는 것이다. 조선훈어에는 또한 옮김분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목적문》과 《이중 옮김문》이 있다.

《목적문》이란 일정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문장이다.

○ 또는 논 학습하고 있거나, ○ 이웃 농장에서는 사철 남새를 팔구지 알습니다. 《목적문》에서 전달자의 필경은 술어의 맺음형과 어양의 요소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중 옮김문》이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전달된 말이 다시 전달사에 의하여 전달되는 문장이다.

○ 또는 논 학습하고 있습니다. ○ 지체인동무는 전설현장에 있습니다.

《이중 옮김문》에서 전달자의 필경은 술어의 맺음형에 다시 맺음형도가 덧붙는 방식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말하자면 《이중 옮김문》은 옮겨 옮김문의 특수 유형이다.

《목적문》이나 《이중 옮김문》이 교착의 방법으로 맺음형술어에 《전달의 토》가 붙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조선훈어에 고유한 특성이다.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특수한 문장류형의 다른 하나로써 《삼입

있다.

《삼입문》이란 기본진술의 삼입자가 문장에서는 문장이다.

○ 그가 진하는바에 의하면 모두가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 불동무(그는 작업반장이다.)는 오늘도 새벽녘에 포전에 나갔다. 이 예를 예시 《모두가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모두가 새벽녘에 포전에 나갔다》는 기본진술이고 《그가 진하는바에 있다》, 《그는 작업반장이다.》는 전달자의 필경을 지칭하는 문장이다. 전달자의 필경을 밝히는 문장인 《삼입문》은 《그가 진하는바에 있다》, 《그는 작업반장이다.》를 가리키며 그것을 위하여 기본진술에 덧붙었다.

《삼입문》이 나타내는 전달자의 필경은 객관적 사실(제1)을 표현하며 주관적인 방식(제2)으로도 표현된다. 조선훈어에서 《삼입문》은 상대적으로 자성을 지니는 문장구성이기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로써 조선훈어에서 《삼입문》은 부립문구 성분분으로 보거나 단독적인 말임문으로 볼 수 있는 여가가 많지만 전일성이 전달단위안에 끼여들어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조선훈어는 보충으로 된다는 특성으로 하여 전달단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 여러 다른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류형은 《삼입문》, 《목적문》, 《이중 옮김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자(진술자)의 필경이 지니는 방식》으로 분류되므로 기본진술의 전달방식을 규정하는 데서 통일되어 있다.

(불입) 기술, 목적,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에 의하여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구분이 직접 내용적인 것이 아닌 지간 사실이다. 이것을 형식상 유형에 넣을 수는 없다. 진술의 방식은 여섯은 진술의 기와 관련된 문장내용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전달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구분을 언어행위에 참가하는 인물들 사이의 제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문장형식의 형태론적적소식만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그러나 조선훈어 《존대의 문장》, 《해오의 문장》, 《하오의 문장》, 《해라의 문장》, 《반말의 문장》을 설정하였다.

또한 존경로 《서》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삼아 《존경의 문장》과 《비존경의 문장》의 대립을 굳이 설정하기도 하였다.

합축된 문장과 전개된 문장, 특수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생긴다.

이와 같은 언어표현식의 다양성, 언어행위단위들의 다양성이 상의 구조적 유형의 다양성을 낳으며 문장의 형식상 분류의 편면하게 나타난다.

문장의 형식상 분류란 문장조직의 복잡성정도, 문장의 구성성구비정도, 문장구조의 전개정도 등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문장조직이 몇개의 전술단위로 나누어지는가, 문장성분들이 다 갖추어져있는가, 문장성분들의 맞물림이 몇개 몇 단위로 포개어져있는가 하는 것 등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문장의 형식상 분류는 문장구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이고도 할 수 있다. 이제 문장의 형식상 분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본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문장구조의 복잡성도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이런 시기의 많은 문법적전해들은 조성이문장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문장을 크게 《단문》과 《혼문》(혹은 《복문》) 또는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단문》 또는 단문문을 《단단의 문장》, 《주어+술어》, 《주어+술어의 단위를 하나가 있는 문장》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혼문》(혹은 《복문》) 또는 《혼문을 그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최근에 와서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유형을 단일과 복합문으로 더욱 정밀화하여 부르면서 집자를 《하나의 풀이단위》, 《가지고있는 문장》, 후자를 《두개 이상의 풀이단위를 가지고있는 문장》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를 《단단의 파로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리주의적원형장의 발현이며 《주어+술어》구조를 질태, 미태, 전태는 형식주의적현상이다. 《단단의 파로필》이란 문리학적적으로 문장과 단단을 동일시하는 태도이며 《주어+술어》구조의 상대적 조성이문장의 다양한 표현형식과 루하는 문장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런 것은 문장문법적현상을 형태분석표식에 축소시키는 태도이며 구체적인 언어현실과도 맞지 않는 분류이다(현실적으로도 말차림이 가능하므로 되어있지 않다). 실사 말차림의 형태론적표식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기술기 방식이라기보다 언어행위의 표현형식에 관한 문제이다.

전술의 방식에 관한 이와 같은 협소한 지적은 수많은 집단사실부진유형을 설정케 함으로써 조건의 문장유형을 그 내 단술화하는 취지를 빚어내게 한다.

이상에서 전술의 목적과 전술의 성격, 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유형의 특성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조건의 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관련된 기본문제를 보았다. 여기에서 다른 일부 문장유형은 구조-형식상 분류에 넘나드는 경우도 있고 내용상 분류에 대응하여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다른 문장유형 범에도 내용상 유형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장유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어문장의 내용상 분류에서 제기되는 기본문제, 조건의 문장의 내용상 분류의 전모를 면전없이 볼 수 있도록 문장유형의 분류를 더 정밀화하고 더 세분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인다. 여기서 본 문장의 내용상 분류는 조성이문장의 유형을 정밀화한 것이다.

### 제 2 절. 문장의 형식상 분류

일정한 내용을 담은 언어표제의 단위들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언어표제단위들의 형식은 언어행위의 환경이 단순하지 않고 그 대상이 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띤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객관적현실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복사한 것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언어행위의 담당자가 처한 구체적환경도 여러 가지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언어행위단위의 구조는 단단의 구조보다 복잡하며 언어행위의 담당자의 수준과 처한 조건이 또한 한결같지 않다는 점에서 언어행위의 표현형식도 각이하다. 즉 어떤 때는 같은 내용의 전술도 더 단순하게 또는 더 복잡하게 표현되기도 하며 그 문장구성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구조가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복합문은 단일문의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단일문의 5장에서 한다.)

(참고) 정립화된 개념으로서의 단문은 문법학에서 일반적으로 「단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래에 복합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던 「단문」은 구문학과어문법을 잘못 분할해서 나온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시기 문법책에서는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또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서 단문과 화제문의 대립을 설정하고 성립화하였는데 이것도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단문이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단문성분들로만 된 문장이다. 단문에도 단문성이 있을 수 있고 복합문에도 단문성이 있을 수 있다.

화제문이란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의 전개되는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하나이상의 화제성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화제문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그 모두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일부(또는 하나)가 확대될 수도 있다.

○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이 기쁨실고 또다시 찾아왔다.

○ 동생은 요새 갖나온 혁명소설을 열심히 읽고 있다.

지나 시기나 지금이나 일부 문법적해들은 문장구조의 복잡성 정도에 따르는 문장 유형으로서 《주성분》과 《비전개문》의 대응을 식히고 그 《비전개문》을 《주성분인 <주어+술어>로만 이루어지므로, 그 《전개문》을 《주성분외에 부성분도 있는 문장》으로 하였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은 조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어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필수성은 없는 것이고, 《주어와 술어만이 《주성분》으로 되는 것도 아닌만큼 《비전개문》, 《전개문》의 설정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일부 문법책에서는 《단문》과 《전개문》의 대응을 설정하고 앞의 것을 《단문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으로, 뒤의 것을 《전개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이때의 《전개성분》이란 《화제성분》의 개념으로 쓰여졌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문법적해들은 단문과 화제문을 해석하면서 《단문성분》과 《화제성분》, 《단문성분》과 《화제성분》의 대립화도 식연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단문이란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의 전개되는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하나이상의 화제성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화제문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그 모두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일부(또는 하나)가 확대될 수도 있다.

단문이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단문성분들로만 된 문장이다. 단문에도 단문성이 있을 수 있고 복합문에도 단문성이 있을 수 있다.

화제문이란 문장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의 전개되는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하나이상의 화제성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화제문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그 모두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일부(또는 하나)가 확대될 수도 있다.

○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이 기쁨실고 또다시 찾아왔다.

지나 시기나 지금이나 일부 문법적해들은 문장구조의 복잡성 정도에 따르는 문장 유형으로서 《주성분》과 《비전개문》의 대응을 식히고 그 《비전개문》을 《주성분인 <주어+술어>로만 이루어지므로, 그 《전개문》을 《주성분외에 부성분도 있는 문장》으로 하였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은 조문장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어문장에서는 《주어+술어》의 필수성은 없는 것이고, 《주어와 술어만이 《주성분》으로 되는 것도 아닌만큼 《비전개문》, 《전개문》의 설정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일부 문법책에서는 《단문》과 《전개문》의 대응을 설정하고 앞의 것을 《단문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으로, 뒤의 것을 《전개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이때의 《전개성분》이란 《화제성분》의 개념으로 쓰여졌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문법적해들은 단문과 화제문을 해석하면서 《단문성분》과 《화제성분》, 《단문성분》과 《화제성분》의 대립화도 식연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는 순문과 확대문의 구별은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졌는가에는 관계없이 문장성분의 상관관계가 1차적성격을 띠었는가 2차적성격을 띠었는가, 즉 단순성분으로 되었는가 확대성분으로 되었는가에 따라 나뉘어져야만 혼선이 없이 된다.

## 2.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의 유형

전통적으로도 조선어에서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 유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근래에 이르러 문장성분에 대한 고찰이 깊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문장의 다양한 유형을 갈라놓으려는 의도에서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준을 돌리었다. 그리하여 조선어적인 특성을 띠는 의도에서 《1부구성문》, 《단어문장》 등의 갈래를 따로 내왔으며 《1부구성문》, 《2부구성문》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지나치게 매여달리던 나머지 실질적인 맞지 않는 《불완전문》을 칼라내기도 하였다.

《무주어문》, 《단어문장》을 다 《1부구성문》에 넣고 있는 실정에서 《1부구성문》(외구성문)과 《2부구성문》(중구성문) 문세부되기로 한다.

지금까지 《1부구성문》과 《2부구성문》의 대상을 실정한 모든 문장적해는 배외없이 전술구성의 《조직적중심》을 주어와 술어의 차이로 보면서 그 《조직적중심》이 다 구비되었는가, 그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없는가 하는에 대하여 말하였다. 말하자면 전술의 《조직적중심》에 기초하여 《1부구성문》과 《2부구성문》을 나누었다. (《전술의 조직적중심》인 주어, 술어에서 어느 하나가 없는 문장을 《1부구성문》이라고 하였다.)

조선어에서 과연 주어와 술어만이 전술의 《조직적중심》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다.

조선어문장에서 기초성분은 전술어이고 술어, 주어, 적접보어 주도적성분이며 그밖의 성분들은 의존성분뿐이다. 따라서 조선어에서 《수성분 부분》의 대상을 실정하는것도 불합치하며 주어와 술어만을 《주성분》으로 보는것도 부담하다.

《조직적중심》을 《주성분》과 관련시키고 있는만큼 주어와 술어만이 《주성분》이 아니라면 주어와 술어만이 전술의 《조직적중심》이 아니라라는것은 명백하다.

주어와 술어의 구비가 필수적이것이 아닌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조선어문장에서는 전술의 《조직적중심》이 《주어+술어》에만 고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대다수 인도-구라파어에서 자동사는 물론, 타동사 하나만으로 전술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일부 인도-구라파어에서 주어, 술어의 필수성이 강한 경우와 조선어에서 전술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조선어에서는 《그는 온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는 온을 온다》와 같은 구조로 되어야 문장이 완결된다. 즉 《주어+적접보어+술어》의 구조를 가져야 조직적중심이 제대로 살아난다.

한편 조선어에서는 《아침이다》, 《새임》 등으로도 전술이 완결되고 전술의 조직적중심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사정은 조선어에서 《주어+술어》의 구조가 전술성의 필수적구조가 아님을 말하여준다.

단어 하나 또는 단어결합체로만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오직 술어(또는 전술어)만이 조직적중심이며 여러가지 맛물린성분이 다 갖춰져있지 않는 문장에서는 주어, 술어, 적접보어가 다 갖추어져있지 않고서는 전술의 중심을 잃을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주어, 술어, 적접보어가 조직적중심을 이루며 《주어+술어》로만 되어있는 문장에서 주어, 술어, 적접보어가 다 조직적중심으로 되는 때도 있고 술어만이 조직적중심으로 되는 때도 있다.

이러하여 《주어+술어》의 필수성을 원칙으로 하여 설정된 《1부구성문》과 《2부구성문》의 대응은 조선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문법적해에서 《1부구성문》으로 보는 《무주어문》, 《단어문장》, 《명명문》도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붙임) 최근에 나온 일부 문법책에서는 《무주어문》이라는 용어의 비과학성을 포착하고 《술어말문장》이라고 하였다. 문체의 본질을 바로 포착하였다고 본다. 다만 《술어말》라는 용어를 더 세련시킨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명명문》을 《지각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체의 본질을 바로 포착한데서 나온 새로운 착안이다. 그러나 아직 그것으로 《명명문》의 특성을 다 밝혀내지 못한 점도 있다.

《무주어문》이 조선어에 고유한 문장 유형인것만은 사실이다. 행동이나 상태의 주자가 밝혀지지 않으며 또 밝혀 필요도 없는

문장인 《무주어문》은 진술어나 또는 진술형으로 된 용언이나 용언형으로 끝맺어진다.

-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진산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 화장한 불년의 별이 불리드는
- 카도카도 풍
- 1938년 겨울

조성어에서 매우 생산적인 이러한 문장류형을 《무주어문》으로 다루게 된 때는 《주어+술어》의 필수성을 전제로 하여 모든 구조-형태적 문장류형을 보는 밑받침이 깔려있다. 말하자면 주어+술어 구조에 이르면 이루어지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주어와 상관할 수도 없는 구조에서 술어를 찾는다는 것은 '사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주어를 《있고》 《술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1부구성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주어+술어》의 구성성에 기초한 《조직적중심설》의 원천에서 나온 것이다.

주어가 생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살릴 수도 없으며, ... 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생략될 필요도 없는 조직적중심설의 필수성을 고려하여 결론코 이 류형의 문장을 《무주어》문장이라고 불 수 는 ... 주어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나 《1부구성분》의 독립된 존재 ... 고 무한 구조적 류형의 자외선 ... 이 조서어계의 문장 ... 진술어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최초어문장》은 ...

《문장》 《조서어문장》 ... 조서어문장 ... 《술어문장》 ... 《조직적중심설》 ... 문체에 술문체, 회상기체, 정문체, ... 조서어체, ... 고 고문체 문체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 조직적중심설 문장류형 《주어+술어》의 필수성을 전제로 하는 《조직적중심설》에서 벗어나려면 긍정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단어문장》도 조서어에서 생산적인 류형에 속하는 문장류형의 하나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법에서는 《문장성분은 ... 될 수 없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단어문장》에 대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었다.

《문장》 《단어문장》 ... 이 문법이다. 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표시를 중요시안대시 나온 이름인데 조서어에서 《단어로만 된》 문장은 여기서 말하는 《단어문장》만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어문장》을 주로 《감동어문장》 문장에만 국한시켰다.

- 《예》
- 《아니오》
- 《그렇소》

《단어문장》이란 특수한 단어(감동사 또는 《감동어적단어》)라 나로 이루어지면서서 진술자의 감정-의지적체계를 나타내는 문장이 ... 《단어문장》이 나타내는 감정-의지적체계기완 물음에 대한 대답, 어떤 사실에 대한 충동적인 부인, 확인, 반문, 인사 등이다.

- 《출근하오》
- 《아니...》
- 《아무렴! ... 새와! ... 새아름을 이고 쓸 수 없! ...
- 《그때, 그때! ... 모방산은 수려하고 웅장하! ...

《단어문장》은 그 구조가 극히 단순하면서도 긴 사연을 힘 주어서 나타낸다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로부터 수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맞물린 성분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성분의 각도에서는 문장을 이루거나 문장안에 들어 있는 문장론적관계속에 있는 또는 단위는 성분으로 되거나 전체와 조인어는 《무성분문장》이란 사실상 없지는 힘집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어문장》도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예로는 《아니...》, 《아무렴!》, 《그때, 그때!》 등은 감동어적단어들이며 성분으로서는 진술어인 것이다. 말하자면 ... 말로 된 진술어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는 것이다.

진술어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는 문장은 부필에 있어서 단독 성분문장이며 기초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느낌문이다. 이것은 진술의 성격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느낌의 체기가 확연히 벗실린 문장이라는데서 제외없이 느낌문으로 된다.

- 《오늘도 밤을 새웠느냐?》
- 《예!》
- 아!

물론 경우에 따라 느낌말이 꽃맺음을 가지지 않고 비상관성분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전형방식으로 편결편 느낌말이라는 문장



○) 《자, 말하듯 기세.》

○) 《나...아, 학교에 갔다왔어...》

이상의 모든 사실로 보아 《단어문장》을 따로 실정한 근거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독성분문장의 한 유형이며 《진술어문장》의 한 갈래인 느낌문이다. 문장성분으로서는 느낌말이다.

(붙임) 전체에 따라서는 《단어문장》을 《작문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느낌문이다.

《단어문장》에서 느낌의 제기가 별로 없는 유형은 성분으로서의 느낌말 또는 상황어, 피움말(살입어)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1부구성문》에 명명문도 포함시킨 이상 이에 대하여서도 다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명명문은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유형의 하나로써 《구조-기능적부류》의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1부구성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 대명된 조건에서 구조적부류의 각도에서 명명문의 본질을 더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명명문이라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체언(또는 체언적질합체)으로 이루어진 단독성분문장 또는 단어결합문장이다.

만약에!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보아, 명명문에서 주동어는 어간형, 절미적형태, 《무형태단어》로 된 성분이다. 성분은 바로 전술어인 것이다. 명명문은 단어결합체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의존어는 규정어지만 될나 그것도 구조상투성의 하나이다. 명명문은 《주어토만 2장》도 아니며 《술어토만 2장》도 아니다.

《1부구성문》의 설정과 관련하여 좀 다르게 본 또 다른 한편에 가 최근에 나왔다. 이 절제는 《단일구성문》이라는 이름밖에 《주어, 술어 등 구성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구성문》과 대응시켜 설정하였다. 이 절제의 주장자들도 《단일구성문》에 《주어문》, 《명명문》, 《단어문장》 등을 포함시켰다.

《주어, 술어의 중심선》에서 약간 벗어나 《하나의 구성체적》, 《하나의 구성부분》을 기본표식으로 삼아 《단일구성문》(1부구성문)

을 설정한 이 전체에서는 《주어문》에 종래까지 다루던 《술어문장》인 《문장》외에 《복수한 표현형태의 문장》으로서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모두다 제2차7개년계획 초과완수에로!》와 같은 문장유형도 더 넣었고 《명명문》에는 책표지의 제목이나 기관이름과 같은 것까지 넣었으며 《단어문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의의를 못까지》 오직 《다른 문장과 동행함으로써만 사상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문장》을 넣었다. (예: 《오늘 비가 오겠지?》 - 《글썩.》, 《필요.》) 이 절제는 문장성분의 구비성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구조를 가진 문장의 조설어적인 특성을 침탈하게 체계화하려고 한 데서 일부 더 권진했다.

그러나 《주성분》의 《융합》으로 된 《하나의 구성체적》, 《하나의 구성성분》이라는 표시를 더 남도록 있게 전개하여 설명하지 못한 것, 기술성의 발전이 불충분한 구조에서까지 문장의 표시를 찾은 것 등은 이 전체의 약점이다. 그리고 이 전체도 궁극에 가서는 종전과 같이 《주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구성문》과 《두구성문》의 대응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성분의 구비성도에 따르는 문장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따라 나눈 결과를 벗어났다.

《무주어문》, 《명명문》, 《단어문장》 일반이 《두구성문》(2부구성문)에 적용되는 《단일구성문》(1부구성문)으로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광분법적대용이 우리 말 문장유형의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붙임) 원래 《1부구성문》이요, 《2부구성문》이요 하는 도식은 《우주어인장문》, 《부인장문》, 《일반인장문》, 《보편인장문》의 구별이 확연한 일부인도-구라파어에 해당한 개념이다. 논리적으로 최우선 종전의 일부인도-구라파어문법에서는 흔히 《술어문장》, 《주어문장》, 《주어문장》의 개념을 적용하여 《1부구성문》을 갈라냈다.

《주어문》, 《단어문장》, 《명명문》이 《1부구성문》으로 되지 못한다면 대하여서는 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특수표현형태》의 《단일구성문》(1부구성문) 문제만을 가지고 더 분하여보기로 한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문예잡지 <조선문학>》 등이 과연 《단일구성문》(1부구성문)이겠는가? 즉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된 문장이겠는가?

면저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분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는 주어도 없고 술어도 없으며 종전의 방식대로 분석한다면 오직 《상항어 + 상항어》의 구조만이 있다. 따라서 성분의 구비점도 로 보면 두개 성분으로 된 문장이며 기능적으로는 시김-느낌문이 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 어떤 《하나의 주성분》, 《하나의 구성부 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가 진술성의 절대성단위 이며 그 자체로써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표현 한다는 의미에서 《진술어》로 된다. 이 문장은 본질에 있어서 《확대 구조》로 된 진술어부 가진 《단독성분문장》이다.

- 나를 따라 앞으로!
- 돌적 앞으로!
- 어찌 용!
- 포는 다 모내기뵈우로!

축약하고 긴절한 육구를 제기하며 강한 호소성과 추동을 나타 내는 이러한 문장은 그 자체로서 《주어 + 술어...》의 려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구성부분》으 만 되어야 한다는지 하나의 《주성분》으로만 짜여져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진술어》를 핵으로 하여 성분의 확대 또는 단어결합체 성분의 배열이 가능한 문장인 것만 사실이다. 앞에서 예로 든 문장 들에서 《나를 따라》, 《돌적》, 《어찌》, 《모두나》는 어찌는 문장성분 인 것이다(그 이름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편지이다). 이리하여 《특수한 표현형태》의 시김-느낌문(또는 시김문)은 《1부구성 분》이 아니며 《단독성분문장》 또는 《확대성분문장》의 독특한 유형 을 이루는 문장인 것이다.

다음으로, 《문예잡지 <조선문학>》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는 주어, 술어...는 물론, 도대체 문장성분이란 없다. 이것은 판단이나 완결된 시상감정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동일적인 개념》, 《단 련적인 표상》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진술내용의 현실에 대한 관계가 물질화되어 있지 않은 문장이전의 단위이다. 따라서 문장으로 되지 못한 단위에서 문장성분을 찾을 수 없으며 문장이 아닌 것에 《명명 문》의 자격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기판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언어행위의 환경》이 동반되

여기에는 표상과 개념의 명명밖에는 없다. 만일에 이러한 단 위에까지 문장의 자격을 준다면 모든 《글썽지》, 모든 사람의 이름, 물질이름도 다 문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어와 언어 행위의 단위는 그 개념이 식연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담변문장》으로서의 《단어문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1부구성문》이 아니며 구조적으로는 《단독성분문장》, 기능적으로는 《느낌문》(또는 알림문)이란 데 대하여 이미 앞에서 밝힌 조건에서 더 밝혀야 할 것은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과 느낌말로만 문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담변문장》은 기능상 말때로 될지언정 《1일구성문》의 표시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어문장》은 《단독성분문장》의 한 유형, 《진술어》로만 이루어 문장으로서는 확대구조를 이룰 수도 있으므로 《2부구성문》에 대응 《단일구성문》이 아니다.

(붙임) 《담변문장》으로서의 《느낌말문장》을 여러 《느낌말문장》(진술 성격에 따르는 문장 유형의 하나)과 구분하기 위하여 《단독느낌말문장》이라 는다.

결국 《특수한 표현형태》의 《단일구성문》까지 포함하는 모든 《1 구성문》(《무주어문》, 《명명문》, 《단어문장》)과 《2부구성문》의 데 는 불합리한 것이다.

문장성분의 구비점도에 따르는 문장분류에서 지금까지 가장 불 리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완결문》과 《불완결문》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불완결문》을 있어야 할 문장성분을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며 언어행위의 장면이나 문맥에 의하여 그 《생략 성분》을 쉽게 되살릴 수 있는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 ) 《아버지는 언제 온다더냐?》
- 《...일 아침에 온답니다.》
- 《...일 아침에?》
- 《예!》
- 가득 ... ..
- ... ..
- 《아! ...! ...!》

구조상으로 생략된 문장성분이 있는 불완전한 모든 문장은 《불 결문》으로 본다 고 보는 견해들은 《불완결문》에 대응시켜 《완결

분》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문리주의적립장에 선 견해들은 문리적주사에 맞먹는, 《주어가 없거나》 문리적비사에 맞먹는 《술어가 없나》 또는 문장을 《불완전문》으로 다루며 《갖추어야 할 문장성분이 구비되지 못한 문장》이라고 해석하였다.

판단의 성분이 결여된것은 판단의 《불완전성》이라 할수 있지만 문법적현상으로서의 문장은 반드시 모든 성분을 다 갖추어서야만 언어교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아니다(사실상 문장성분의 결여는 어디까지로 보며 모든 성분의 구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하는것도 문제이다),  
 판단의 구조의 문장의 구조는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언어행위의 다양성, 특히는 《주어 + 술어》이 필수성이 없는 조건어문장의 특성으로 보아 문장성분의 《결여》가 곧 진술내용이나 구조에 그 어떤 《불완전성》을 주는것은 아니다.

형식주의적립장에 선 문법적견해들은 모든 문장구조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생략된것이 《예측》되지만 허면 다 《불완전한것》으로 보았으며 지어 불가피하게 문장성분이 생략되지 않으면 안되는 《생략문》까지 《불완전문》으로 보았다.  
 생략된 문장성분을 먹지로 《예측》한다거나 《완비된》 문장을 진세로 하여서만 그 생략된 성분을 재생한다는것 자체가 인위적인것이이며 당연한 일이다.

언어행위가 순탄하게 진행되며 진술성이 충분히 표현되고 문장내용이 어색하지 않게 안겨온다면 그 문장은 그것으로 완전한것이 다. 이런데서 굳이 문장성분의 생략을 《예측》할 필요도 없으며 생략된 성분을 되살릴것도 없다(그렇게 되면 언어행위는 오히려 논란하지 못하며 조원어다운 맛도 없어진다).

앞에서 든 《불완전문》의 예를에서 몇개라도 《완전문》으로 재생시킨다면 그 어색함을 놓히 알수 있다.

- 《아버지는 언제 온다더냐?》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온답니다.》
-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온다?》  
 《예,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온답니다.》

입말체나 문학예술문체 등에서 어떠한 《완전문》만으로 문장을

쉬는다면 언어교체의 순탄성은 그사하고 민중적정서까지 잃게 될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문장이야말로 진술의 순탄성을 마수라는 뜻에서 《불완전한》 진술단위로 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문장성분의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것이 있으면 《불완전한것》으로 보고 일일이 그 재생을 전제로 하는 문장류형의 분류방법에서 불합리를 찾은 일부 문법적견해들은 이범에는 끝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표현이 《불완전한것》만큼 《불완전문》으로 보는데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맺음술어가 없는 문장만을 《불완전문》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인위》를 조성하였다.

- 《제가 다중나가볼가요?》  
 《어누워오는데 어떨...》  
 《만일 우리 멀초가...》

《범비지 마십시오. 벌써 직장에 도착했을것입니다.》  
 이 견해도 결국은 문장성분의 《결여》나 《생략》을 전제로 하여 문장의 구조와 내용의 《불완전성》을 규정하고 재생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불완전문》을 《완전문》과 대용시킨것이다.

여기서 단순맺음술어의 《결여》나 《생략》으로 된 문장은 본질에 있어서 중단문 또는 생략문이며 불완전문은 아니다.

클이성의 담당자가 문장의 어떤 개별적으로소인것이 아니라 전일적인 문장구조와 관련된것이란것을 고려할 때 《불완전한 불이성》을 《불완전성》의 표식으로 잡은 이 견해의 일면성을 더욱 똑똑히 알수 있다. 이 견해는 언어행위의 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그 《생략》은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볼으로써 도리어 그 《생략》의 불가피성과 그 언어행위의 《완전성》을 반증하였다.

우에서 본 모든 사실로 보아 《불완전문》은 그 자체로서 언어행위의 순탄성을 보장하는 조건인민의 언어 의식과 관습에 맞는 언어 현상적이며 그것은 내용과 형식에서 완결성을 보장한 완전한 자연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조건어에는 《불완전문》이란 없으며 《완전문》, 《불완전문》의 대응도 없다.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분류와 관련하여 《생략문》, 《중단문》을 따로 설정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신다.

생략문이나 중단문은 언어행위의 환경이 급변한다거나 돌발적인 장애가 이루어졌을 때 문장성분의 어느 하나 또는 그이상이를

어드는 문장이다.

○ 《저 볼... 어쩌나... 빨리 꺼요.》

○ 《만일 내가...》

《어서 말하게, 진정하여...》

생략문 또는 중단문은 여운, 촉박감, 다감한 정서 등의 색채를 문장에 부여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의식성으로부터 문장구조의 일부를 빼지게 한다. 이 문장 유형은 구조의 생략이나 중단이 내용의 생략이나 중단과 일치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생략문 또는 중단문에서 생략형이나 생략형, 진술형 등으로 된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진술성의 담담자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진술성은 단어의 형태에 내속되는 개념인 것이 아니라 더 까칠까진 진술적인 문장에 내속되는 범주인 이상 언어행위의 환경에 의하여 현실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출통히 표현되는 것으로 된다. 역양의 요소도 비록 중단은 되었으나 진술역량의 다른 것이 아니며 하나의 목적지향성을 가지는 선술-출통적 통일체이다.

이러하여 생략문이나 중단문에도 진술성이 있으며 독자적인 진술단위로서의 포식이 있다. 생략문, 중단문은 글에서는 보통 《생략》된 부분이 출임포(...)에 의하여 표시된다.

(붙임) 생략문과 중단문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략》이 목적의식적인 것 이는 외부로부터의 장에 의 한 불가피한 것은 문장성분의 《결여》라는 의미에서 구분하지 않고 통칭의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생략-중단문》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낫다.

우에서 본 문장의 형식상 분류, 구조적분류에서서는 문장의 구조적특성과 기능의 다양성에 따라 더 작은 단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복합문의 여러 작은 유형, 확대문의 여러 작은 유형, 단독성문장의 여러 작은 유형, 그리고 생략-중단문의 작은 유형 등을 더 가릴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그 작은 단위가 말하는 문장본체기능의 다양성도 《한 형태의 다의미, 다기능》, 《단 기능의 다의미화, 다형태화》의 원칙에서 문제를 처리한다면 무리없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문장의 기능-구조적 유형

(붙임) 문장의 기능-구조적 유형에 관한 문제는 문장의 내용상 분류나 형식상 분류에서 이미 《넘나드는》 유형으로 다루었거나 특히는 형식상 분류에서 기능적특성이 뚜렷한 부류들로 규정된 것들을 유형화의 각도에서 다시 고찰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내용상 분류나 형식상 분류에서 《넘나드는》 유형을 각도를 달리해서 유형화한 것이다.

문장의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 다시 말하면 문장의 기능상 분류와 구조적분류의 두 큰 부류에서 서로 넘나드는 유형들이 있다. 이것은 내용상 분류에도 속하며 형식상 분류에도 속하는 문장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를 접한 기능-구조적 또는 구조-기능적 유형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성격을 규정하는 데서는 먼저 구조적 측면을 보고 다음에 기능적 측면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먼저 기능적 측면을 보고 다음에 구조적 측면을 볼 수도 있다. 이점은 구조-기능적인 것으로 되든지 기능-구조적인 것으로 되든지 하나의 독특한 문장 유형이 나온다.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 《[부구성문]》(외구성문)으로 다루었던 예부분의 유형이 구조상으로 보면 《단독성분문장》이며 기능상으로는 보면 명명문, 《진술어문장》, 《느낌말문장》(느낌문) 등으로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들도 다 기능-구조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명명문은 구체적으로 구조상 분류로서는 《단독성분문장》이며 기능상 분류로서는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 유형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독특한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형식상 유형이 《대상에 대한 지적》으로써 그 주관-평기적 체계가 뚜렷해지는 성격을 가진 문장 유형인 것이다. 명명문의 이와 같은 《2중 지성격》으로 하여 그것은 기능-구조적분류의 대상으로 된다.

명명문이 단어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어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 명명문의 작은 구조-기능적 결합체로 볼 수 있다.

- 만정재! ①
- 만정재고향집! 여가시 위대한 태양! 솟았다. ②
- 영원히 잊을수 없는 초사하의 옛집. ③

《진술어문장》은 종전의 《부주어문장》을 기능적분류의 각도에서 이틀지은것이다. 다시말하면, 《진술어》로만 이루어진 형식상 유형이 《사실에 대한 진술》으로써 알려지는 알림문으로 된 문장유형인것이다. 이 문장유형은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유형이지만 구조상으로는 여전히 《단독성분문장》이다. 《진술어문장》은 조선어문장의 기능-구조적유형의 독특한 부류이다.

- 봄이다! ①
  - 1945년 10월 어느날이었다. ②
- 《진술어문장》에도 그 구성제도와 구조적단위의 결합방식에 따라 복합문도 있고 단일문도 있으며 단순진술어문장, 확대진술어문장 등의 작은 갈래도 있을수 있다. 즉 《진술어문장》은 단독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2차적으로 된 확대된 성분외 상관관계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진술어문장》을 《단독성분문장》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1차적관계에서 진술어가 단독으로 진술성의 담당자로 되며 그것으로써 문장의 기본포식을 구형하고있기때문이다.

《느낌말문장》(느낌문)은 종전의 《난어문장》을 기능상 분류의 각도에서 이틀지은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어로만 된》 문장이 현실적인 거부, 확인, 반문 등으로써 평가되는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유형인것이다. 구조상으로는 여전히 단독성분문장이다. 그런데 《느낌말문장》은 느낌문의 한 변종이라고 볼수 있기때문에 기능-구조적유형에 별을 근거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어 하나》 또는 《하나의 기초성분을 핵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구조-기능적유형가운데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생략문 또는 중단문(《생략-중단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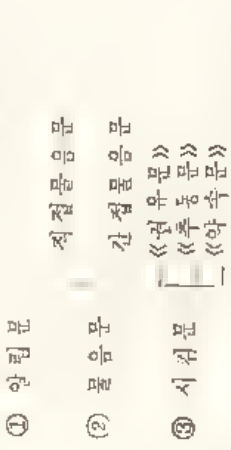
-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 저는 딸애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기종 사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니, 이렇게 밤을 지어...》
  - 《예, 이를밤을 세운셈이...》

《생략-중단문》은 단독성분문장도 아니며 그렇다고 주도어볼 핵으로 하는 상관성분의 구조를 가진 문장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언어행위의 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생략되었거나 중단된 부분의 성분을 알수 있기때문에 진술이 가능한것이다. 회화체나 문학예술편체에 고유한 이런 문장유형은 조선어에 매우 발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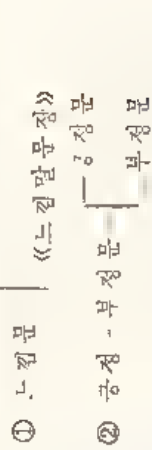
《생략-중단문》에는 많은 경우에 주어-술어, 보어-술어, 상행어 술어와 같은 정연한 대응관계가 없으며 특히 술어가 없으나 쉽게 생성된다는데서 《잠재적권술성》을 가졌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생략-중단문》은 구조-기능적유형에 속하면서도 《잠재성》이나 《미완결성》을 가지는 독특한 문장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조선어문장유형을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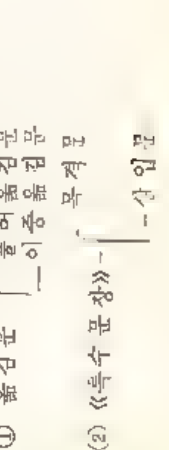
- 1) 문장의 내용상 분류
- (1)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유형



- (2) 진술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유형



- (3)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유형



## 제5장. 복합문

### 2) 문장의 형식상 분류 (1) 문장구조의 복잡성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

- ① 단일문
  - └ 단순단일문
  - └ 확대단일문
- ② 복합문
  - └ 절속복합문
  - └ 병립복합문
  - └ 연결복합문

### (2) 문장성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문장류형

- ① 단순문
  - ② 확대문
- ### 3) 문장의 기능-구조적분류
- (1) 단독성분문장류형
    - ① 명명문
      - └ 단어명명문(단순명명문)
      - └ 단어결합명명문(확대명명문)
    - ② 《진술어문장》
      - └ 단순진술어문장
      - └ 확대진술어문장
    - ③ 《단독~결말문장》
      - └ 생략문
      - └ 종단문

(붙임) 진술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류형의 하나인 시경문 가운데서 그 것은 갈래인 《천유문》을 독자적으로 따로 떼어 고유한 의미에서의 시경문과 같은 계열에 놓고 그안에 다시 작은 갈래로서 《추동문》과 《약속문》을 둘 수도 있다.

복합문이 갈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이야기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복합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주기 위하여 우리 말 복합문의 구성단위들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밝히고 복합문의 이름수단, 유형 등에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해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복합문에 대한 연구는 문장본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문장의 구획문제, 복합문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문의를 거들한 나머지 복합문 전반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하여 미해명문제를 적지 않게 남기었다.

오늘날에 와서 거의 모든 문법적해설은 조선어에도 복합문이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일련의 이론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고 일정한 합의를점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도 학제에는 복합문의 구성단위를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일문과 복합문의 제건, 복합문의 유형 등 문제에 서 서로 다른 이해들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이 장에서는 조선어복합문에 대한 올바른 해를 위하여 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장본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에 대한 이론적해명을 주게 된다.

### 제1절. 복합문에 대한 일반적해설

#### 1. 복합문의 개념

지난 시기 조선어문법연구가들은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견해들이 있었다.

문장의 기본포식을 《관단의 단정》에서 찾으며 완결된 사상의 《절대성》과 문장형식의 《두립성》을 중요시한 일부 문법적해설들은 맺음형으로 끝나는 언어행위의 단위만을 완전한 문장으로 잡았기 때

문에 조선행어에서는 복합문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리하여 본티작 주사와 빈사에 맞먹는 《주어+술어》의 구조(또한 그와 등가적인 구조)가 맺음형으로 《단정》되지 않으면 문장이 되지 못하므로 조선행어에는 복합문이 없다는 것이다.

문장의 기본포식을 맺음술어의 형태구비성에서만 찾는 일부 문법적 견해들도 그 어떤 복합문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조선행어에는 여타가치 복합한 구조를 가진 언어행위의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단일문의 테두리 안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두 구단에 전 견해들은 복합문의 고찰에서 조선행어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하면서도 문체의 전면을 보지 못하였다.

인류의 사유는 그 구조에 있어서 복잡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한 것들의 파열일 수도 있다. 사유의 형식인 문장은 복잡한 전일체도 조직될 수도 있고 단일한 진술단위들의 독자적인 배열로 조직될 수도 있다. 이리하여 각 민족어마다 문장의 연결형식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선행어문장들의 연결형식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복합문의 구조-문법적 특성이 달라질 따름이다.

문체는 조선행어 복합문에 있는 구조-문법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때 기초하여 복합문의 계선을 꼭바로 그어놓는데 있다.

복합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늘날의 문법적 견해들에 있어서도 복합문의 기본포식과 그 구성단위의 한계, 그리고 복합문의 분류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데서 한결감지 않는다.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문장이 맺음술어와 이음술어로 이루어졌을 모든 경우에 《술어적중심》이 《그 수효(누계이상)만큼 있기》때문에 복합문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하나의 진술단위에 여타가치의 《술어적중심》을 설정함으로써 단일문과 복합문의 한계를 해소시켰다. 이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문장을 복합문으로 다루었다.

- 우리는 창작열에 불렀고 두정의옥에 가득 차있었다. ①
- 조선의 하늘을 맑고 푸르다. ②

이 예들은 더 하나의 진술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①은 하나의 현실적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진술내용의 현실성정도 한 번 나타나며 진술성도 하나 있다. 예②에서

《로'고》와 《가득 차있었다》에 대하여 말한다면 물론 《이음술어+맺음술어》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하나의 주어에 맞물리는 이 이음술어와 맺음술어는 하나의 진술단위안에서의 《중심성분》이며 권일문인 하나의 《술어적중심》의 단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단일문이다.

예①에서 《맑고 푸르다》는 《이음술어+맺음술어》의 관계에도 있지 않는 접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체이며 하나의 《술어》이다. 여기에 《술어적중심》이 하나만 있더라도 대하여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창작열에 불렀고 두정의옥에 가득 차있었다.》나 《조선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를 《우리는 창작열에 불렀고 우리는 두정의옥에 가득 차있었다.》나 《조선의 하늘은 맑고 조선의 하늘은 푸르다.》와 동가적인 것으로 본다는지 모든 진술형을 곧 진술성의 단위자로 본디는지 하는 것은 극단한 논리주의적 해석이다.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또한 조선행어에 종속복합문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맺음술어를 가진 문장을 《주문》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견해들은 종속복합문을 《주문진술절단위+부문진술절단위》의 도식에 넣어놓았으며 논리적인 주종관계의 테두리안에서 그 상관관계 설명하였다.

결합방식으로서의 접속이 곧 논리적 주종관계는 아니며 따라서 하나가 다른 것에 논리적으로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다. 결합과 구별하는 접속의 방식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접속으로 된 복합문은 《종속복합문》이 아니다.

- 북풍이 자기 시와하면서 날씨는 갑자기 온화하였다.
  - 비가 오면기(부터) 벼모는 더욱 푸르르 성장하였다.
- 이러한 예들에서 《~면서》가 나타내는 시간적 관계는 동시성이므로 따라서 《종속관계》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런데 《명령적관계》를 나타내야 할 《고》로 연결된 문장에서 도 《종속적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바람이 세져갈 일고 그에 따라 나무뿌리들까지 흔들렸다. ①
  - 봄 오고(시야) 이 지대의 농토들도 녹기 시작하였다. ②
- 이러한 예들에서 《고》가 나타내는 기능은 《인과관계》이다. 《이관계》는 병렬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문장론적인위들의 견학방식이 인노 구라과어와 다르며 복하는 이름토의 기능이 다양하여 한 형태가 종속적인것과 병렬적인것은 다 나타나게 하는 일이 혼한 조선어문장에서 미리 정해놓은 그 어떤 《종속적 또는 병렬적》인 현상을 찾으려 하거나 《종속복합문》에서 《주문》과 《부문》을 갈라내는것은 교조적인 태도이다.

《구》를 가진 문장을 단일문으로 다루는 견해도 있고 복합문으로 다루는 견해도 있다. 이 두 견해는 결국 《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차이난다.

이른바 《주어+술어》의 형식을 취하면서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를 가진 모든 문장을 복합문으로 보면서 특별히 《결합복합문》이라는 유형을 설정한 문법적 견해는 문장의 기본표식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만 《구》가 성분이면서도 《문장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2중성》만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것은 과학적태도가 아니며 복합문에서도 《결합》과 《절속》의 대응관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태도이다.

이와는 좀 달리 《주어+술어》의 형식을 취하면서 문장성분의 기능을 노는 《구》를 가진 모든 문장을 특히 《내포문》 또는 《임베드》이라고 한 문법적 견해도 있었는데 이것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외면하고 《구》의 《2중성》만을 범두에 두고있는데서 앞의 문장과 같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일문과 복합문의 그 무는 《절속형》을 설정하려는 시도이라는 점이다.

《구》는 본질에 있어서 단어들의 결합체이며 문장의 구성체로인해서 어떠한 유형의 문장으로도 되지 못하며 진술단위가 아니다. 문장이 아닌 단위를 복합문의 구성단위로 잡는것은 모순이다. 《구》는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도 아니며 《구》를 가진 문장은 《두수류형》으로서의 《내포문》이나 《임태문》도 아니다.

우에서 본 모든 부당한 견해들은 결국 문장의 기본표식, 특히 단일문과 복합문의 기본표식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고 진술단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테서 나왔다.

물론 최근에 나온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문장의 기본표식을 《완이성》에서 찾고 그 《완이성》을 가지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단일문과 복합문의 한계를 그음으로써 문장론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진지를 보았다. 그러나 이 견해도 아직 진술단위에 대한 전면적인 고

찰이 없고 복합문의 유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족하며 복합문의 구성요소들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대한 파악이 없는데서 계약성이 있다.

복합문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깊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복합문의 본질과 그 기본표식이 무엇이며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 《단일문》의 한계와 진술단위의 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옮겨 옮겨 밝혀내야 한다.

그러면 복합문이란 어떤 문장이며 그 기본표식은 무엇인가? 문장의 본질은 완결된 사상과 목적지향성있는 감정을 일정한 문법적형식에 담아 토막지어놓은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라는 데 있어 그 기본표식은 진술성을 구원하고있는데 있다.

단일문이건 복합문이건 그것이 문장론적대상으로서의 문장이 이상 이거나 기초적인 문체정에서 벗어날수 없다. 따라서 단일문이나 복합문도 사상감정의 완결성과 목적지향성을 탐으며 일정한 문법적형식화토막 토막지어지는 언어행위의 단위이며 진술성을 가지고있는 단위이다. 문체는 단일문과 복합문이 각각 어느 정도의 완결성과 목적지향성, 얼마만한 수효의 진술성을 가지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형식화되는가 하는 데 있다.

복합문은 두개이상의 단일문이 문법적으로 편결되어 이루어진 단일체이다. 단일문과 복합문은 대응되는 범주이다. 단일문이 두개 이상 편결되면 복합문이 되고 복합문이 있으면 그안에 두개이상의 《단일문》이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복합문의 구성단위는 《단일문》이며 그 《단일문》이 최소의 진술단위로 된다.

그러므로 단일문의 본질과 기본표식을 확정하는것이 복합문의 본질과 그 기본표식을 옮겨 밝혀내는 실마리로 된다.

단일문이란 하나의 진술단위로써 하나의 완전한 구획성을 가지는 언어행위의 최소단위이다.

-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특사의 세시대이다.①
- 조선혁명의 앞날은 휘황하고 찬란하다.②
- 1927년 4월 어느날이었다.③
- 룬종!④

이 때들에서 네개의 문장은 그가 담고있는 현실적내용, 그 구성성분의 수효와 문장의 길이 등이 한결같지 않으나 다같이 하나의



진술단위로서는 단언문이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단일문의 단일문에 광통되어있는 공통적인 기본표식은 각각 하나의 진술성을 가지고 한편의 언어행위의 토막으로도 될 수 있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진술성, 한편의 구획성을 가지며 단일적인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하나의 진술성, 한편의 구획으로 도막지어지는 단일체, 이것이 바로 단일문을 하나의 진술단위로 되게 하는 기본표식으로 된다. 진술단위를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전일적인 구조에 나타나는 진술성표현으로서의 어휘-문법적수단과 진술어양이다. 바로 이 진술성표현으로서의 어휘-문법적수단과 진술어양에 의하여 하나의 진술단위가 구획되며 그 계성도 확정된다. 단일문을 하나의 진술단위,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단일문의 이와 같은 본질과 기본표식으로부러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표식도 스스로 밝혀진다.

복합문이란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를 포써 하나의 통일적인 복잡한 진술내용을 담고있는 언어행위의 고진단위이다.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복합문의 구성단위가 《단일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통일적인 복잡한 진술내용을 담고있다는 것은 복합문이 《단일문》의 산술적총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합문으로서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단위가 상대적으로 구획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단일문과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단일문》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행위의 고진단위라는 것은 한편의 언어행위가 실현되는 한도안에서의 가장 긴 진술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합문의 기본표식은 상대적구획성과 전일성이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라는 데 있다. 다시말하여 상대적으로 두개 또는 그이상의 진술성과 진술어양을 가지며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성과 진술어양을 가지는 통일체라는 것이다.

○ 조건동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맺나게 해결한 위대한 담임이 조건인민은 수없이 많은 후계자들 이 모신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 남이 어느 위치와 함 부경바에. 새라.이 크오기 시작하였다.  
○ 바합이 분다, 문을 닫아따.

이 예를에서 3개의 문장은 현실적비유, 그 구성단위들이 상관하는 성격과 방식, 그 구성성분의 연결수단, 문장의 길이 등에 있어서 결지 없으나 각각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의 진술단위로 이루어졌고 총체적으로는 하나로 밀접히 연관되고 복잡한 사상으로 일된 언어행위의 단위로서의 복합문으로 되나는데서 같다.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표식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복합문은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인 진술단위인 《단일문》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큰 진술단위이다.

앞에서 든 예에서 《조건동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시결한 위대한 담임이다》나 《조선인민은 수령의 참다운 후계자를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인민이다》는 다 확대《단일문》이며 각각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진술단위이다. 이들 진술단위에는 각각 하나의 진술성이 물질화되어있으며 진술어양이 동반되어있다. 이 복합문은 진술적으로는 두개의 진술단위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진술단위로 된다. 여기에 복합문의 부정적특성의 하나가 있다.

만일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이 광통되고 두개의 진술단위가 그대로 열거된다면 하나의 큰 진술단위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복합문이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오직 상대적으로 구획되고 전일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만 하나의 진술성으로 묶어지는 하나의 큰 진술단위, 즉 복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단일문들의 열거와 다른 점이다.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들의 연결과 개별적단일문들의 열거에서 나타나는 통일성, 구획성, 자립성의 정도와 진술성의 표현양식 등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문》의 열거는 (U × U) n (UH'N)

단일문의 열거: U n + U' n U N · U' N

(U'N) U, U' N... 복합문안의 《단일문》

U, U' N... 개별적단일문. (복합문과 관계 없음)

U... 개별적진술성. 예시의 진술성. 물질적표식.

U'... 단일체에 있어서의 진술성. 물질적표식

그러므로 (B X B) N = (B B B) N'는 복합문임을 나타내며 B + B + B = N, B + N'는 개별적인 단일문들의 단순한 별거를 나타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일문과 《단일문》과는 서로 다르다. 앞의 것은 독자적인 문장으로서의 개별적인 진술단위이며 뒤의 것은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진술단위이다. 복합문은 단일문의 별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문》들의 별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합문은 절대적으로 구획되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일문의 별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 개 또는 두 개의 《단일문》의 문법적 연결체이며 하나의 전일적인 큰 진술단위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일문》의 연결분제를 보자.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단일문》이란 진술구조에 있어서나 진술성의 어휘-문법적 표현수단과 진술의 양 등에서 독자적으로 구획되는 단일문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문》은 그 사상의 완결성이 우선 상대성을 띤다. 이러한 언어 환경에서는 그 두 부분을 떼어 놓고 그 사상의 완결성을 논한다면 어느 하나도 완전한 완결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두 《단일문》의 호상 의존성을 말해주며 문장론적인 호상제약성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복합문의 구성단위인 《단일문》들은 서로 다른 것에 의하여 더 보충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완결성을 다 갖추지 못한다. 진술성을 나타내는데서도 상대적으로 자립성만을 가진다.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에 실리는 진술의 양의 상대적 자립성은 더욱 뚜렷하다. 《단일문》의 어느 하나에도 개별적인 말뭉치에서와 같은 자립적인 진술의 양이 없으며 오직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어양의 요소들의 맞물림이 있을 따름이다. 이 관계론 실험을 성립적 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는 해문을 가지고 표시하기로 한다).



(붙임) Y와 표의 불결의 지: 노남이 B 나타내며 X와 표에서의 출과 임 등은 길어, 후지 등을 나타낸다. 이 화표에서는 세기, 음색 같은 것은 나타내지 않았다.

앞 《단일문》의 《조선》의 부분과 뒤 《단일문》의 《인민이다》의 부분에만 자립적 단일문에서 보는 전형적인 진술의 양의 머리와 끝이 나타날 뿐이고 그밖의 모든 어양의 요소와 후지에 이르기까지 자립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단일문》의 양이 상대적으로 자립성, 상대적으로 구획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별적인 단일문에서는 오직 절대적 완결성을 가지는 어양이 있을 따름이다).

이상과 같이 단일문과 《단일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이것을 묶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

① 개별적인 단일문이나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은 어양의 사상의 완결성을 나타내지는 것.

② 단일문이나 《단일문》이 다 하나의 진술 내용을 구획지어주는 진술단위라는 것, 즉 다 완결성을 가지며 진술의 양, 진술구조를 가진다는 것.

③ 문장이 갖추어야 할 구조-문법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차이점:

① 단일문은 절대적으로 완결된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완결된 진술단위이지만 《단일문》은 전일적인 사상 감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만 완결된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진술단위라는 것.

② 단일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진술구조를 가지나 《단일문》은 호상 보충되며 의존되는 진술구조를 가진다는 것.

③ 단일문은 독자적인 진술의 양을 가지나 《단일문》은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진술의 양》을 가진다는 것.

④ 단일문은 문법적 형식화에서 완결성을 가지나 《단일문》은 문법적 형식화에서 불완전 완결성을 가진다는 것 등이다.

단일문과 《단일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바로 복합문을 단일문의 별거와 구별하며 비진술적 단위(헤전대, 《구》나 《부》)와도 구별하는 본질적 차이점으로 된다.

(붙임) 지난 시기 복합문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견해와 복합

1. 「진정한 언어학」... 복합문의... 문법적... 인원이 있다.

복합문은 또한 하나의 복잡한 사상을 나타내는데 그 고전 언어에서 단위가 있다.

이러한 까지의 대부분이 문법해설에서; 보합문과 단일문의 각각에 대한 논을 들었다. 이것은 복합문의 내외산 특성과 문법적 분석을 시키기 위한 자료이다.

단순단일문으로 되었지만 확대단일문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단일문》들의 문법적 연결로 이루어진 복합문은 단일문보다 앞서 분해되어 내외산 특성을 띠고 있다. 같은 경우에 진술내용의 《무제》는 총량에 있어서 단일문보다 부합문이 더 크다.

○ 날이 어두워졌다. (그러자) 압록강반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단일문의 별거)

○ 날이 어두워져서 압록강반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복합문)

일부 문법적 진해설이 복합문의 내외산 특성을 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합문이 확대단일문보다 《단일문》과 함께 이 책은 문체의 통일성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단일문으로 된 복합문은 확대된 만큼 더욱 복잡한 것이다.

복합문이 단일문보다 복잡하다는 사실, 즉 진술구조, 진술성의 차이, 문법적 표시, 문장성분구성 등에서 복합문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은 모든 구조적 단위, 문장의 구성요소들은 문장내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진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하여 복합문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크고 긴 단위로 할 수 있다.

언어행위의 크고 긴 단위라는 것은 언어교제를 (위계) 하는 언어행위의 단위가 의미상 더 전개되지 않는 한도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복잡한 단위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일문》은 가장 작은 언어행위의 단위이며 단일문은 그 다음가

문의 제선을 필요이상 확대하여 비진술적단위에까지 《단일문》의 사준전개의 약점은 바로 단일문과 《단일문》을 구별하는 이 정도임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복합문이 크고 긴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단위라는 데 대하여 보자.

전일적으로는 하나의 큰 진술적단위로 된다는 것은 복합문의 비-기능적으로나 진술구조, 진술성의 표현, 진술의 양의 표시 등에서 하나의 통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에서조차 개별적인 두 단일문이 각각 독자적으로 나타내는 현실적내용으로써는 언어행위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두 《단일문》이 밀접히 연결되어서만 하나의 용근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복합문의 진술구조는 《주어+술어+보어+술어》로 이루어진 완전문이다. 그런데 뒤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는 오직 앞문장을 전제로 하여서만 생성될 수 있다. 《바람이 분다. 그러니 나는 문을 닫아라.》라는 동일한 진술구조가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라는 진술구조로 함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두 《단일문》의 밀접한 호상의 존성을 말해주며 전일적으로는 복합문이라는 하나의 진술구조에 통합되고 만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술성의 물질적표현에서 위의 두 《단일문》이 더 맺음형술어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진술성이 각각 완전히 표시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다른 경우라면 독자적인 단일문으로 되어야 할 이 진술단위가 전일적인 통일체의 하나로 되었다는 거기에 벌써 진술성표시의 불완전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복합문에 있는 진술의 양의 구체성과 전일성의 통일성은 더론 어떠한 자립적인 진술단위에도 없는 현상이며 바로 이것이 두개가 합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의 양으로 되는 표정이다. 이러한 표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바로 복합문은 하나의 통일적인 진술단위로 된다. 복합문을 크게 하나의 복잡한 구조의 문장, 하나의 통일된 진술단위라고 부르는 여기에 다른 모든 진술단위와 구별해주는 또 하나의 본질적정표가 있는 것이다.

(붙임) 지난 시기의 일부 문법적진해설이 맺음형술어를 전제시하였거나 복합문의 구성단위로서의 《단일문》의 특성을 보지 못함으로써 복합문자

는 큰 단위이며 복합문은 가장 큰 단위이다. 복합문의 한계를 넘어서서 단락, 문단, 편 등 단위는 한문의 언어행위의 단위인 단일문, 복합문 등을 넘쳐나 자기의 구성요소로 삼는다.

복합문이 한문의 언어행위에서 가장 큰 단위라는 징표는 바로 복합문이 하나의 단일적인 큰 통일체라는 특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복합문은 복잡한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행위의 큰 단위이다.

복합문은 또한 문법적형식화에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단일체로 되는 구조적단위이다.

앞에서 예로 든 《단일문》인 《날이 어두워지자》의 술어에 시시, 밤, 말차림 등이 표시되지 않고 짐체해있든지 뒤의 《단일문》인 《모이기 시작하였다》에 그러한 문법적의미가 《귀일》하면서 필수없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든지 하는것은 다 이 단일체의 관계를 할하여 준다.

조선어복합문의 문법적형식화에서 단일성은 《단일문》들의 위치상 제약성, 구조·의미적제약성, 의상상의 호상의존성 등과 더불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법적형식화의 단일성은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와 같은 문법의 방식으로 《단일문》들이 연결되고 앞 《단일문》의 술어가 맺음형으로 표현된 경우에조차 나타난다. 앞의 《단일문》의 시간, 별, 말차림 관계는 뒤에 오는 《단일문》의 술어에 의존하며 단일적으로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로 쓰인다.

예: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라.  
바람이 분다, 문을 닫겠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아야 하겠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닫았느냐.  
바람이 분다, 문을 닫자.  
바람이 분다, 문을 닫게!

이 경우에 뒤의 《단일문》의 시간, 말차림, 양태관계 등의 표현은 변할수 있으나 앞의 《단일문》의 그것은 고정상태로 고정되어있다는것자체가 두 《단일문》들의 의존성, 단일성을 말하여준다. 이것이 바로 문법적관계에서 복합문이 단일성을 가진다는 특성이다.

복합문안에 있는 《단일문》들이 많은 경우에 《주어+술어》의 구성을 가지지 않고 《불안전문》의 구조로 되어도 쉽게 언어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앞뒤 《단일문》들의 문법적형식화의 단일성, 의존성과 관련되어 있다.

○ 혁명적 현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하여야 혁명을 빨리 성취시키고 객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 예문은 《불안전문》으로만 이루어진 복합문이다. 앞의 《단일문》에 표시되지 않는 여러 문법적계기들을 뒤 《단일문》이 《절결》하거나 나타낸다는것은 언어행위 두 단위가 《술어적중심》을 두 개 가지고 있다는것 등은 다 이 복합문의 문법적형식화에서 단일성이 구현되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문법적형식화에서 단일성은 복합문의 필수적인 징표이다. 위에서 본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포식, 그리고 구획성과 단일성구체적인 징표로 보아 복합문은 단일문이나 단문과는 다른 언어행위의 큰 단위이며 단어결합체나 문장성분사이의 상관관계와는 다른 질서의 상관관계에 놓인 《단일문》들의 결합체라는것을 알 수 있다.

### 2.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단일문》의 구조, 《단일문》의 연결의 성격과 방식, 《단일문》에 나타나는 문법적범주들의 표현형식과 기능, 그리고 복합문의 전체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구성단위인 《단일문》들의 구조에서 나타난다.

복합문의 구성단위인 《단일문》의 구조적특성은 기본적으로 개체적인 단일문의 그것과 같다. 즉 기본성분이 다 갖추어있는것(주어+술어+적정보어의 구조). 기본성분외에 전개된 성분까지 있는것, 기초성분으로만 버리고있는것(단독성분문장, 독립말문장 등), 기본성분에 전개성분까지 있는것, 그리고 이 모든 성분들 가운데서 일부분이 표시되지 않거나 《생략》된 구조 등이 있다.

○ 우리는 책을 읽고 그들은 여타까지 화구유를 삼다.(기본성분이 다 있는것)

○ 음강상의 경치는 보는 사람됨을 황홀경에 이끌렸으며 삼일포의 “  
 숨은 모든 탐승자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기본성분에  
 성분까지 있는 것.)

(1) 탐이 불자 비가 역수로 내렸다. (기본성분과 의관성분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은 기본적으로 개별  
 인 단일문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에서 다양하다.

어제 복합문의 구성성분인 《단일문》이 여러가지 구조로 이루어  
 진 경우 그리고 모든 성분들 가운데서 그 일부가 표시되지 않거나  
 《생략》된 구조의 경우를 분석해보자.

- 끝없는 도색과 탐구로 이어진 화전의 나날, 그담부러 왔던 역사  
 님은 울었다. ①
- 봄, 단풍이 소생하고 활기를 띠었다. ②
- 강가로 나오니 여울물소리가 요란했다. ③
- 일을 성공하면 몸을 들여야 한다. ④
- 아니오, 아니오, 천만에 말씀! ⑤
- 그 무슨 뜻이 있으려면, 아, 그 예비소리는... ⑥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의관성분》(부  
 말, 이음말, 끼움말, 느낌말)이나 보임말을 가지는 단일문과 느낌  
 말문장, 명명문, 전술어문장 등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복합문을  
 밀접 구부러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것에서는 성분들 사이의 상관관  
 계가 제기되거나 위의 것에서는 《단일문》사이의 상관관계가 나선다.  
 따라서 위의 것에서는 두개 이상의 전술의 단위가 연결된 복합문  
 이다.

- 아 그 불소! (단일문) ⑦
- 봄, 그것은 활력을 부여주는 계절(단일문) ⑧
- 그렇지 않소, 땅치 않은 소리, (복합문) ⑨
- 봄, 파릇파릇 움들이 떠올랐다. (복합문) ⑩

앞의 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합문의 구성단위들이 《단일문》  
 구조적요소들은 개별적단일문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술어의 단일문의 구조가 다양함만큼 복합문  
 의 《단일문》구조도 다양하다.

《단일문》의 구조와 개별적단일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  
 니다. 복합문의 《단일문》들이 상대적으로만 완결성을 가진다는 것

구 고려에 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제모 든 복합문  
 에서 그 구성부분들의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서 독립적인 문장으로  
 수는 있으나 그 언어행위는 불완전한 것으로 안겨온다.

더우기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이 전사이의외의 어휘·문법  
 《단일문》이 아니라 된식되며 《단일문》에 각종 양태어, 《조용어》는  
 1. 첨가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단일문》과 단일문의 구  
 2. 성 특성은 다른데가 많다.

3. 작의 개성이 보이는가 하면 큰 강률도 보이였다. ①  
 4. 약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

1. 비록 몸 이 시하 얼마나 후 지터는 노 마음만 = 연제나 / 세다  
 이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단일문》들의 어휘·문법적수단(～는  
 나 하면, 만약 ～:다면 ～근것이다, 비록 ～나주 치니라도)과 《단  
 기문》들의 전단구조의 독특한 특성은 문법적형식화의 특성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요컨대 조선어복합문의 《단일문》은 크게는 개별적단일문의 구  
 조와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 고유한 특색이야말로 《단일문》의 장한 의  
 조성과 복합문전체구조의 전일성을 조적지어주는 첩표이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다음으로 전일체안에  
 《단일문》들의 연결방식에 서도 나타난다.

복합문을 이루는 구성부분들의 상관관계는 《단일문》과 문장성  
 분·사이에 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문》과 《단일문》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법칙적현상은 조선어적인 특성이다. 다시말하여 인  
 조·구라과어어나 그밖의 다른 말에서처럼 《부문》이 《주문》의 한 성분  
 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문》의 한 성분에 대한 《설명어》인 것이 아  
 니라 《단일문》들끼리 서로 접속하거나 병렬하면서 호상의 상관관계  
 이 된다. 이것은 인도 구라과어이나 다른 많은 복합문에서 《부문》에  
 있는 접속사나 접속어(개별적단어 또는 성분)가 연결의 기능을 놀  
 아서 문법적연결의 성격을 규정해두는 데 비하여 우리 말 복합문에  
 있는 앞 《단일문》의 이음형이 연결의 기능을 놀면서 문법적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해두는 특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복합문의 구성성분들사이의 문장론적관계가 《단일문》들사이에

만 실현된다는 것은 복합문이 문장의 자격을 가지는 단위, 전술적단위끼리만 상관관계를 맺는 전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조선훈어에서는 전일적인 문장의 한 성분적단위로 되며 또 그러한 성분적단위에 상관하는 《부》나 《구》와 같은 단위는 복합문의 구성부분으로 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선훈어의 《부》나 《구》는 언제나 전일적인 문장의 한 성분적 단위로 되며 또 그러한 성분적단위에 상관하는 문장이전의 단위이다. 따라서 《부》나 《구》만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문》을 이루는 문장은 복합문으로 될수 없다.

《구》와 《단일문》의 본질적차이를 밝혀놓으면 조선훈어복합문의 구조 문법적특성, 복합문의 한계성 문제를 더 뚜렷이 밝힐수 있다. 《구》가 《단일문》이 아니라면 《부》는 더욱 그러하므로 《구》와 《단일문》만 비교찰하기도 한다.)

《구》와 《단일문》의 본질적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와 《단일문》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질서에 놓이는 단위들이다.

《구》는 확대단어결합체이며 하나의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며 전술성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지지 못하는 비전술적단위이다. 《구》가 문장의 형식을 떠뒀다는 것은 피상적고찰이며 《주석형체언 + 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단어결합체로 보는 것이 과학적태도이다. 따라서 《구》는 문장이 아니며 복합문의 구성단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일문》은 전술성을 가지며 상대적완결성을 가지는 전술단위이다. 《단일문》은 언제나 구체적인 문장성분들로 이루어진 문장, 상대적으로 구획되는 전일체이다. 그러므로 《단일문》은 복합문의 구성단위이다.

② 《구》와 《단일문》은 그 상관하는 성격과 방식에서 서로 다르다. 《구》는 전일적인 문장구조에서 어느 한 성분에만 상관하는 문장단위로써 언제나 결합의 방식으로 주도어에 의존하여 대체되고 주도어의 바로 앞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단일문》은 언제나 결속이나 병립(또는 편집)의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구획된 전일적인 구조인 복합문의 다른 《단일문》과

나 상관한다.

③ 《구》와 《단일문》은 억양상으로도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구》는 억양상으로 상대적인 자립성이나 구획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전술억양을 가지지 못한다. 즉 《구》와 그 주도어(피규정어, 상황어)사이에는 어떠한 억양의 후지도 없고 끝맺이도 없다.

우리의 문법이 오가다 / 가버렸다.

그러나 《단일문》은 전술억양을 가지는데 그것은 뜻마루와 높낮이, 길이, 일정한 휴지 등을 동반하는 전술-동동적통일체이다.

④ 《구》와 《단일문》은 령결수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구》는 문장성분의 표현에 고유한 문장성분의 위치적기능을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주도어와 령결된다. 규정로(규정어의 표현), 상황로(상황어의 표현), 격로(보어, 주어 그밖의 표현) 등 이러한 형태로 그 결합체전체의 성분적자격을 표시한다. 그리고 《구》가 가지고있는 《술어》(서술형로)에는 전술성의 어떠한 표시도 없다.

그러나 《단일문》은 전일적인 전술적단위에 고유한 문법적수단, 즉 1)의 단위를 매들짓는 성분의 형태로 되는 술어(또는 전술어)를 통해서 그 전술단위전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문법적수단을 의하여 령결된다. 즉 앞 《단일문》의 술어가 가지고있는 이름, 맺음형, 격형태, 어간형(절대격형태), 《무형태형》 등으로 《단일문》전체를 령결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술어의 형태가 전술성을 표시하여준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단일문》들로 령결된 조선훈어복합문은 《단일문》들의 상관관계로써만 실현되는 하나의 큰 전일체이다.

조선훈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특히 앞 《단일문》의 술어와 《단일문》의 술어가 취하는 전술형에서 나타난다. 즉 《단일문》을 구성어가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들의 표현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 삼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진 햇빛이 비쳐내리키 시작됐다.

○ 땅이 췌질 췌렸으나 푸얍속으로 웃음소리가 날아갔다.

이 두 복합문에서 《단일문》들의 술어(전술형)들은 시간, 법, 가림 등 문법적범주들이 물질화되어있는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다. 뒤 《단일문》의 술어는 제외없이 그러한 문법적범주들을 간헐히 다 나타내는데 앞 《단일문》의 술어는 그러한 범주들가운데

1 일부만을 때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나 흔히 표현이 된다.

《단일문》들의 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해주면서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앞단일문》의 슬어가에는 시가, 법, 말차림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 이 여러가 번주가 나타나는 것을 모호하지 않는다. 이 《단일문》에는 시간, 법, 말차림 등이 잠재해있으며 뒤의 《단일문》의 슬어가 《귀인》하면서 각각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된다. 《단일문》들은 진술단위에만 고유한 문법적수단을 가지는데 바로 그것이 슬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당당한 진술단위인 앞 《단일문》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 법, 말차림 등은 나름대로 문장론적 단위로서의 상관관계에서의 귀일관계, 《의미연관의 법칙》의 작용으로 뒤 《단일문》의 슬어에 나타나는데 문법기법수 《의거》라고. 이것이 바로 조선어기인 특성이니, 말하자면 앞 《단일문》에 잠재하는 문법적의미는 뒤《단일문》에 귀인하는 관련하면서 실제화하는 것이다. 이것, 이음슬어의 맺음슬어에 대한 의존성에서 나오며 조선어에 고유한 접속의 연결방식이 가지게 나누는 귀일관계의 특성에 의하여 생겨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귀일관계, 《의미연관의 법칙》은 시간, 법, 말차림, 접속 등 문법기법수 《의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 삼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릴것이다.
  - 삼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릴것이다.
  - 삼시에 구름이 걷더니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리더라.
- 시간법수의 표현은 《말이 철철 흐르나 폭양속에서 웃음소리가 날아날것이나.》 등으로도 될수 있다. 이것은 시간적범주가 잠재적으로 있다. 가로출되었던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드물게는 법, 말차림, 준성 등 범주에서서도 있다. 문법적의미의 잠재현상과 도출현상의 자유로운 변화, 이것도 조선어에 고유한 문장론적현상이다. 《단일문》의 슬어에 나타나는 귀일관계의 특성, 문법적의미의 잠재현상과 도출상태의 특성은 조선어복합문의 가장 뚜렷한 구조-문법기법수이다.

조선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은 또한 복합문의 세 구조?

높고보아도 뚜렷하다.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단일문》들의 문법적연결로 이루어지는 단일체인 복합문은 앞 《단일문》의 의존관계에 있고 뒤 《단일문》이 주도적관계에 있다는것이 의미-기능적으로도, 구조-문법적으로도 뚜렷하다. 앞에서 예로는 《삼시에 구름이 걷고 눈부신 해빛이 비쳐내리키 시작하였다.》, 《날이 어두어지지 암흑장판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분다, 문을 달아라.》, 《끝없는 모래와 람구로 이어진 화전의 나날, 그날부터 참회 특사의 밝은 물랐다.》 등 모든 복합문의 구조는 두 《단일문》의 문법적의존관계에 의하여 밀접히 통일되어있다. 앞 《단일문》의 이음슬어의 이음형 또는 맺음형이 어더까지나 그 《단일문》의 슬어로 되고있는 단어에 내포된 형태이라는것을 전제로 할때 그 《단일문》들의 순위를 바꾸어 볼수 없고 한 《단일문》안의 일의의 성분도 다른 《단일문》의 구성에 따라 병을수 없다.

《삼시에 구름이 걷고》가 비록 접속의 방식으로 연결되었나 하더라도 그 시간적특기성, 인과관계 등의 성격으로 하여 주도문에 긴밀히 의존되어있다는 사실은 조선어복합문의 전체 구조의 통일성을 말하여주는 표정으로 된다. 《바람이 분다》는 비록 맺음형으로 끝났으나 슬어나 의미-기능으로 보아 주도문에 긴밀히 의존되어있으며 거기에서도 조선어에 고유한 문장론적단위들의 《의존-주도》관계의 문법적현상(순위배열의 제약성)을 엿볼수 있다.

조선어복합문의 전체 구조에서의 전일적성격은 특히 억양의 긴밀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상대적으로 구획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전일적인 진술억양의 요소들로 통일되어있고, 복합문의 선률-불동적흐름은 앞 《단일문》과 뒤 《단일문》의 구조-문법적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붙임) 《단일문》으로 된 복합문의 선률-불동적흐름을 하나의 개별적인 단일문의 그것과 대비하고 다시 그것들을 개별적인 단일문으로 맺어진 《단일문》과 비교하면 복합문억양의 전일성을 더욱 뚜렷이 알수 있다

- 날이 어두워지지 암흑장판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 파사로울 해빛은 이곳 농장의 어느 마을에도 비쳐들었다

찾이는 있다. 그러나 이음수단의 기능에 대하여서는 견해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일부 경우에는 조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분류까지 하였다.

조건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의 체계와 그 기능을 옮겨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이음수단전반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아야 한다. 그리고 《단일문》들의 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고 이음수단의 각종 문장론적판재를 조건의 구조-문법적특성에 맞게 일반화하여야 한다.

### 1.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

조건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은 다양하고 체계정연하다. 오늘날 문어는 조건어에 고유한것을 살리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하여 세련 풍부화한 복합문이음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전경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 1) 어휘-문법적수단
- (1) 문법화되는 어휘적수단
  - ① 문법화되어가는 보조적단어
    - 1) 피규정보조적단어
      - ~는바람에, ~는음에, ~는 할
      - ㄴ) 관련보조어
        - ~기는 표시하고, ~라 하더라도, ~노래도 불구하고, ~기때문에
    - ② 문법화된 어휘-문법적단위
      - ㄱ) 접사-보조어
        - ~이 때로, ~르뿐, ~르뿐아니라, ~르뿐더러, ~던것이...
        - ㄴ) 접신 접속어
          - ~나 그러나, ~아치 그런지, ~나 또, ~며 따라서
        - ㄷ) 조동어
          - ~만약 ~하야면, ~면 ~라든
        - ㄹ) 부접사-접속어
          - 밤, 그러나 데오루...

(붙임) 문법화되어가는 보조적단어의 《분화된 어휘-문법적단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데 들었다. 즉 앞의 것은 어휘-어휘적의미를 상당히 간하고 있는 어휘적수단으로서이 보조어이며 뒤는 어휘나 어휘적의미를 잃었거나 국한된 뜻으로만 쓰이면서 《문장론적관계》의 표시자로 되는

○ 날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모이였다.

우에서 본 조건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으로 하여 조건어에는 인도-구라파어나 그밖의 다른 말과 구별되는 고유한 형식의 복합문이 있으며 그것도 다종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는 결론을 저울수 있다.

### 제2절.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과 그 기능

복합문의 이음수단이란 《단일문》들의 문법적연결수단을 말한다. 문법적연결수단인 이음수단은 일정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은 다종다양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 어휘-문법적 및 어음-구조적 수단의 체계를 이룬다. 그것은 각종의 위치로와 도움로, 끝어전 형태로 된 보조어와 《부수어》, 그리고 역양의 여러 요소와 《단일문》의 순위 등 수단들에 의하여 구해 된다.

- 그가 가기에 나도 따라갔다. (격조) (㉠)
- 비가 억수로 퍼붓는때 어디로 가느냐? (이음로) (㉡)
- 화가 완전히 멎고 석야 내며도 내리지. (이음로와 도움로) (㉢)
- 동생이 부산을 떠우른중에 참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보조어) (㉣)
- 나는 《합투감》, 너는 누구냐? (역양의 요소) (㉤)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이 노는 문법적기능은 《단일문》들을 접속 또는 병립의 형식으로 이어주며 그 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며 다양한 문장론적판재를 나타내는데 있다.

(붙임) 복합문을 인정하는 국내의 모든 문법적해들이 그 이음수단을 확정하고 분류하는데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 다만 일부 어휘-문법적수단을 도외시켰거나 어음-구조적수단들에 적게 눈을 돌렸거나 하는 정도의





과 같다.

○ 조선은 기후도 순화하거나와 땅도 기름지다. (병렬복합문)

○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며 그것을 바로 불사조아수 제더미에서 소생한 조진인이다. (종속복합문)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복합문이 아니라 《주어+확대이음술어+확대잇음술어》로 된 단일문인 첫째 해문을 복합문이라고 보는 것부터가 문체로 되지만 실사 복합문이라고 하더라도 《기후도 순화하지니와》와 《땅도 기름지다》가 《동등한 자격》에 놓인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의미-내용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타면 그것은 종잡을 수 없는 일이다. 의미-내용적으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취가》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렬》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된다. 구조-문법적으로는 의존-주도문의 관계에서 접속되어 있는 이 문장의 연결성격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접속적》일 따름이다.

둘째 해문을 《종속복합문》이라고 본 이유는 《~다면》토에 의하여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권제의 관계를 나타낸 《면》의 기능은 훨씬 다양하고 폭이 넓다. 즉 전제, 조건, 양보, 대비, 가칭 등 여러가지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면서 《단일문》을 접속하는 기능을 논다.

다음과 같은 예는 《~면》이 《종속적》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瞭히 보여준다.

○ 지난해는 눈이 많이 내렸다면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렸다.

아마 앞 예문의 제시자들도 이때의 문법적관계는 《대비》라고 할 것이다. 《대비》, 《권제》 등은 다 《종속적》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병렬적연결》이요, 《종속적연결》이요 하는 것은 이음수단의 기능인 것이 아니라 많이는 《단일문》이 담고 있는 현실적내용의 대응관계에서 얻어지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적색에 의하여 얻어지는 의미이다.

《종속복합문》추장자들이 배외없이 설정하는 《주문》도 논리주의 뒷받침의 산물이다.

다른 문법적전제들은 복합문의 이음수단이 나타내며 《단일문》연결의 성격을 의미-기능적립장에서 보면서 복합문의 2대류형을 《결합복합문》과 《접속복합문》으로 나누고 다시 접속복합문에서 《병

렬적접속복합문》과 《종속적접속복합문》의 갈래를 설정하였다.

앞 전해와 다른 점은 《구》를 복합문의 구성요소로 보면서 《결사부합문》을 따로 설정하고 그대신 《결사부합문》을 접속복합문안에 이어버린 것이다. 독특한 립장에 서있는 듯한 이 전해도 결국 《종속적연결》과 《병렬적연결》을 설정하는 데서는 앞 전해와 대동소이하다.

상당한 정도로 구조-문법적립장에 서서 조선어적인 특성을 강조하려고 한 일부 문법적전제에 있어서조차 조선어부합문의 3대류성, 즉 정침복합문, 이음복합문, 앞침복합문을 설정하고 이음복합문 안에 《법림복합문》과 《이음복합문》의 두 갈래를 나누어놓음으로써 결국은 《병렬》과 《종속》의 현상을 인정하였다.

《병렬》이요, 《종속》이요 하는 갈래는 문법적인 것이라기보다 의미-내용적 내지는 논리-의미적 포식을 위주로 한 갈래이다. 문법적이며 아닌 방법으로는 이음수단의 문법적기능을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일문》연결의 성격과 방식을 면천없이 분간하지 못한다.

물론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에서도 그러하였지만 모든 문장론적 단위의 맞물림에서 의미적측면의 맞물림을 무시할 수 없다. 어휘의 의미의 맞물림에 따라 그리고 문장의 현실적내용의 상관에 기초하여 문법적일 것의 맞물림을 고찰하여야만 삼관하는 단위들의 기능 원리를 확정한다. 그렇다고 하여 문장론적단위들의 연결성격을 논리-의미적립장에서만 규정한다면 첫째로는 문법적인 것을 볼 수 없고 둘째로는 주관을 면할 수 없으며 셋째로는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밝혀낼 수 없다.

다른 나라 말의 복합문에 합당한 《병렬》이요, 《종속》이요 하는 개념을 굳이 끌어올 필요는 없다. 우리 문화어복합문에서 《단일문》연결의 수단이 나타내는 연결의 성격은 오직 《의존문-주도문》의 관계로만 일관되어 있다. 다만 그 연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른 류형들이 여러가지로 갈라진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에 의하여 《단일문》불이 연결되는 방식은 조선어의 모든 문장론적단위들이 상관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즉 정속, 병립, 권정이 그것이다. 《부》나 《구》에 문장으로서의 포집이 없으므로 복합문의 구성단위의 상관에서 《결합》



일부 견해들은 《단일문》과 《단일문》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문법적관계를 곧 문법적의미로 보면서 이음수단의 《무수한 다의미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 문법적 견해들은 극히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의미만을 문법적의미로 간주하고 《범주적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일부 경우에는 동일한 이음수단도 서로 다른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로 보는 일까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 형태의 다기능, 다의미, 한 의미의 다기능화, 다형대화, 한 기능의 다의미, 다형태의 립장에 설으로써만 이음수단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와 문법적기능을 다 밝혀낼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단일문》과 《단일문》들의 상관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미색한 보충적의미는 문법적기능에 속한다고 본다. 이리하여 문법적의미는 문법적수단이 갖는 일반화된 몇개의 의미이며 문법적기능은 문법적의미의 보다 세부화된 미색한 의미적색채까지 나타내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접속도 하다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구조와 문법적기능의 미세한 차이를 《~고》로에 의하여 령결된 다음의 복합문구조에서 대비보기로 한다.

- 가늠나루가 우겨지고 시간이 불루네, 짜리나루 무대기에도 부질없다. (합동) ①
- 삼시에 짐은 구름이 출어가고는 부신 해빛이 미쳐내리기 시작하였다. (계기) ②
- 우리 부녀회원들은 떠방아를 쟁고 남정들은 배지정을 차비를 하였다. (대조) ③
- 송유차가 멎고 그 안에서 한 간부가 나왔다. (이어받기). ④
- 고개너머에는 무연한 평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로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사밀에는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서있고 학교도 아담하게 세워져있고... (연속성) ⑤
- 그는 비가 온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겼다. (대립) ⑥
- 일정이 없고 일이 질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제) ⑦
- 네가 나가고 집안일은 누가 하겠니? (조전) ⑧
- 마지 날세도 출고 두면강에는 얼음이 두터웠다. (인과) ⑨
- 내가 밀적 떠만테도 위인이 있고 또 철수가 도착하지 못한데도 하이 있었다. (첨가) ⑩

거의 모든 문법색들에서 《병렬》(또는 《병렬》)의 성격과 《합동》

의 방식으로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는 이음도로 다루고있는 이 《~고》구체적인 문법적의미와 문법적기능은 이밖에도 더 나눌수 있다.

여기서 ①, ②, ③, ④, ⑤, ⑥은 그레도 그 이음수단의 기능 《병렬》(병렬)의 성격과 《합동》, 《대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⑦, ⑧, ⑨, ⑩는 《중속》의 테두리에 들어가있고 그 문법적의미는 조전, 인과관계, 전제 등의 《상황적》색채를 띤다. ⑩은 《병렬》도 아니고 《중속》도 아닌 그야말로 《첨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조-문법적립장에서 보면 이 문법적 의미와 기능은 《병렬》이나 《중속》 그리고 《합동》, 《대립》, 《분리》 등인것이 아니라 《의존-주도》의 관계로 질속되었다는것으로 일반화된 몇개나 관계적의미와 여러개 맞물림색채로 구체화되고있을따름이다. 바로 이 《의존-주도》의 관계, 일반화된 몇개의 관계적의미, 여러개 맞물림색채를 나타내는것이 이음수단의 구체적인 기능인것이다. 앞에서 10개의 예문에서 이음수단 《~고》도 바로 《의존-주도》의 관계, 일반화된 몇개의 문법적의미, 나중나올만한 맞물림색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의 이러한 기능이야말로 《단일문》들의 상관관계를 공정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 표식으로 된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으로 되고있는 모든 언어적수단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이와 같은 일반화된 몇개의 관계적의미와 구체화된 맞물림색채를 나타내는 문법적기능을 수행한다.

### 제5절. 문화어복합문의 유형상 특성

앞절에서 광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이나 《단일문》나 이음수단과 관련된 테두리안에서 복합문유형에 관한 견해를 이야기하였다. 이제 문화어복합문의 유형상 특성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자 가장 합리적인 분류기준을 세워 복합문의 유형을 체계화하여야 할 과업이 남았다.

본문은 오는 각도에 따라 그 유형을 이르기까지로 설정할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복합문의 갈래는 주로 이음수단이 《단일문》의

면결 성격과 방식을 나타내는데서 노는 기능을 위주로 한 것이다.) 복합문도 언어행위의 단위이며 문장인 이상 크게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에 따라 몇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합문의 내용상 분류란 주로 기능상 분류를 말하며 형식상 분류란 주로 구조적분류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상 분류와 형식상 분류에서 과학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어복합문의 구조적 유형들에 작용하는 특성들을 잘 알아야 한다.

### 1. 문화어복합문의 유형

지금까지 문법학계에서 이야기된 《병렬》과 《중》 문장, 《부문》과 《주문》, 《내포문》과 《일대문》 등의 유형은 이것까지도 내용상 분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합복합문》, 《절속복합문》, 《연결복합문》 또는 《절첩복합문》, 《이음복합문》의 유형이나 《절거복합문》, 《합성복합문》(또는 《절첩복합문》)의 유형도 더 내용상(방식상) 분류의 해두러만에서 이야기되었다.

복합문의 내용상 분류에서 가장 중요성있는 방법은 《단일문》에서의 이음수단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문화어복합문을 그 연결의 성격에 따라 의존-주도문으로 나누고 그 연결방식에 따라 절속복합문, 병렬복합문, 연결복합문으로 가르는 것이었다. 그 합리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논술했다. 이러한 내용상 분류는 그 형식상 분류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을 때 보다 정밀화되고 중요성있는 것으로 된다.

문화어복합문의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중요성있고, 분류를 위한 복합문의 형식상 분류를 하려면 그 형태-구조기류형을 잘 분석일반화하여야 한다. 복합문의 형태-구조기류형에는 민족적특성이고 스타일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문장의 고유한 구조-도법적특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이란 《단일문》들의 이음수단과 문법적특성과 전일적인 기술구조의 특성에 따르는 복합문의 형태를 말한다. 이음수단의 문법적특성과 기술구조의 특성은 가장 중요성있는 표시이다.

문화어복합문의 형태-구조적류형은 다음과 같다.

### 1) 이음-도법적수단으로 이루어진 복합문

- (1) 순수 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① 피규정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그가 서, 그날에 나도 서하 않았고 문하였다.
- 한편 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오기는 그날에 바람도 불었다.
- (2) 합성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① 접사-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비꽃이 흠 떨어졌을 뿐 바람도 불지 않았다.
- 접사-접속어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오나 그날에 우기 떠나왔다.

### 2) 조음관계복합문

- 석사 비가 오더기도 우리- 계속 일리겠다.
- (3) 특수어적연결의 복합문
- ① 피규정채언지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온구럼이 더 더웠다.
- ② 특수어표현연결의 복합문
- 아버지 가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카방을 뒤졌다.

### 2) 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1) 순수 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① 이음형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가자고 그려나.
- ② 맺음형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온다. 문을 닫아라.
- (2) 접사-도음도적연결의 복합문
- ① 이음형-도음도적연결의 복합문
- 그가 오고서야 모든 문이 열렸다.
- ② 맺음형-도음도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내렸따마는 문을 닫지 않았다.
- (3) 이음-문법적수단으로 이루어진 복합문
- (1) 이음-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① 이음맺음형연결의 복합문
- 그가 언제 올지 너는 아느냐?

- ② **제언명명형면결의 복합문**  
○ 이것은 자물쇠요, 자錠은 열이다.  
(2) **무정사적면결의 복합문**  
① **어간형면결의 복합문**  
○ 나는 토동자, 너는 학생.  
② **제시형면결의 복합문**  
○ 밤, 데오는 계속 행군해갔다.  
③ **구형태면결의 복합문**  
○ 그는 보습보습, 비는 뿌르뿌르였다.

4) **합성복합문**

- (1) **어휘-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어퍼니가 나오고 다마지까지 나오는바람에 모는 이리동전하였다.  
(2) **어음-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사위는 조용, 뜻새도 잠들고 사람들도 잠들었으나 박동무의 심장판은 울레였다.  
(**붙임**) 이들 유형을 다시 세분하여 작은 갈래를 내놓을 수 있다. 특히 합성복합문은 여러 자도에서 작은 갈래의 문장유형으로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기본적인 것만 열거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술문법의 과업으로 남긴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 유형이다** 《단일문》들의 이음수단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 이음수단의 형태란 앞 《단일문》 술어의 형태(또는 진술어의 형태)이다. 이것이 개별적 단어(성분적단어)의 형태라 해서 이 분류를 형태론적표식에 의한 분류라고만 보는 견해는 부당하다. 문장론적과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인 이상 그것은 문장론의 대상으로 되며 《단일문》과 《단일문》의 상관관계의 표시자인 이상 그것은 문장론적 현상이다. 여기에 형태론적 현상과 문장론적 현상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문화어복합문의 이음수단이 접사뿐 아니라 문법화된 보조어, 특수표현, 《단일문》의 구조와 순위, 억양 등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복합문의 이음수단을 형태론적표식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이음수단은 그 자체가 일정한 구조를 이루며 복합문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문화어복합문에서는 형태론적표식, 어휘-문법적표

기, 어음 문법적표식 등기 포함시키고 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는 문장론적현상이나, 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는 이음수단의 형태 구조, 이음수단과 문장구조어 특성을 위주로 하여 그 문장론적기능을 보는 문장론적분류이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 유형은 순수 구조상 유형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복합문의 순수 구조상 유형이란 《단일문》들을 이루고 있는 복합문의 구성성분들의 맞물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구성상 특성에 따라 나눈 복합문의 갈래를 말한다.

문화어복합문의 순수 구조상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의 복잡성전도에 따르는 유형**

- (1) **단순복합문**  
○ 누님은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남았다.

- (2) **확대복합문**  
○ 내가 어제 사온 책은 새로 나온 것이어서 보는 사람이 다 손에서 떨어졌다.

2) **구성부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유형**

- (1) **단독성분복합문**  
○ 화장한 봄, 만경대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 (2) **주도성분복합문**  
○ 비가 덮고 바람도 멎었다.

- (3) **확대성분복합문**  
○ 순용이의 아서지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사왔으며 우리 아버지는 소설책을 사왔다.

(4) **종합구성복합문**  
○ 밀영에 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별처럼 빛났으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문화어복합문의 구조상 유형은 주로 그 구성성분의 구조와 전체로서의 복합문의 구조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이 유형의 복합문은 수단은 앞서 본 형태-구조적 유형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구조선어복합문의 구조적 유형은 형태-구조적 유형의 전체 또는 전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조상 유형의 복합문이 예외없이 형



통일측에서 고찰할수 있게 한다.

② 앞의 문장론적단위가 뒤의 문장론적단위에 문법적으로나 의미-기능적으로 의존된다는 조선어고유의 법칙적현상을 더욱 뚜렷이 확충하게 한다. 조선어에서는 귀일관계, 《의미관련의 특성》이 단어결합이나 문장성분사이뿐만아니라 《단일문》들사이에도 작용한다는 일관한 특성을 더욱 뚜렷이 알게 한다.

③ 복합문의 전일성을 더욱 뚜렷이 알수 있게 함으로써 복합문의 본질과 기본포직을 더 잘 파악할수 있게 한다. 의존-주도문의 필차관계는 전일성의 정도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정도의 하나이다.

요컨대, 의존 주도문 관계로 모든 복합문의 성격상 분류를 특징짓는것은 조선어복합문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있는 일관한 특성인 일반화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분류원칙이다.

조선어복합문의 유형상 특성은 다음으로 그 구성성분들의 연결의 방식으로 보아 점속복합문, 병립복합문, 편집복합문의 정연한 체계로 나뉘는것이다.

점속복합문, 병립복합문, 편집복합문의 구분은 이음수단을 중심으로 구조-문법적으로, 의미-기능적으로 뚜렷이 알려진다.

○ 비가 의수로 쓴아저네티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으나 들격대원들은 고퍼하지 않았다.(점속) ①

○ 비가 의수로 쓴아저네티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무뢰가 운다, 사방은 삼시에 스산한 달씨로 변하였다.(병립) ②

○ 의수로 불어지는 비, 들격대원들은 그속에서도 일손을 멈출 줄랐다.(편집) ③

여기서 3개 복합문의 앞 《단일문》과 뒤 《단일문》의 연결방식이 각각 달라짐에 따라 그 이음수단의 기능상대, 문법적 및 의미-기능적 의존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편집대, 점속복합문에서 이음도, 절속의양, 《단일문》순위의 제약성, 병립복합문에서 맺음도, 렬기억양, 《단일문》들의 렬거 및 위치상 비자립성, 편집복합문에서 무절사, 편집연양, 《단독성분단일문》+《주도성분단일문》구조의 의존관계 등은 더 이 복합문류형의 구조-문법적특성 및 의미-기능적특성을 말해주는 표시들이다. 이러한 표시들이 뚜렷함으로써 바로 조선어복합문의 연결방식상 분류

의 합리성이 나타난다.

점속복합문, 병립복합문, 편집복합문 무형으로 나누는것의 합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조선어복합문을 연결방식상으로서는 다 포괄시켜 분류할수 있다. 모든 복합문은 제외없이 문법적연결방식에서 이 세가지 유형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자기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리하여 조선어에만 고유한 연결방식상 유형을 확정할수 있게 함으로써 문장류형분류에서의 온갖 교조의 주관을 피할수 있게 한다.

② 조선어의 문장론적단위에 고유한 연결방식인 절속, 병립, 편집의 현상이 복합문에도 작용한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어문법구조의 일관된 특성을 더욱 뚜렷이 하여준다. 단어결합, 문장성분, 《단일문》들의 상관관계에서 일관하여 절속, 병립, 편집의 방식이 가용하는것이 조선어적인 특성이란것이 더욱 뚜렷해진다.

③ 조선어복합문의 연결방식의 특성은 이음수단에 집대성된다는 특성을 보여줄수 있게 함으로써 인도-구라과어나 다른 말의 복합문연결방식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더욱 뚜렷해진다는것을 파악하게 한다. 이리하여 우리 식의 복합문유형을 설정할수 있게 되었다. 절속, 병립, 편집의 방식에 따라 복합문의 유형을 가르는것은 문화어의 문법구조상 특성에게 맞는 현실적인 분류원칙이다.

조선어복합문의 유형상 특성은 또한 그 이음수단의 구조-문법 특성에 따르는 형태-구조적분류로 나뉘는것이다.

크게 어휘-문법적연결로 된 유형, 어음-구조적연결로 된 유형, 합성구성적유형 등으로 나누고 그안에서 《단일문》들의 구조-법적 특성에 따라 다시 정밀한 갈래를 설정하는 이 분류는 조선어 고유의 복합문유형을 형태 구조적으로 넘김없이 일반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문장류형분류에서 온갖 중요성과 자의성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조선어복합문의 형태-구조적분류의 합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형태 구조를 위주로 하여 문장류형을 가르기때문에 주관성을 피하고 객관성을 보장한다. 이 분류에서는 높은 형태, 동일한 구조의 이음수단으로 이루어진 《단일문》들사이 문장론적관계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일



이 없게 된다.

조선훈의 이념은, 복합문의 이념이나의 형태와 기능을 넘나들며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념수단이 따라 문장문법기능이 교차되는 관제도 명백히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문의 현상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되며 그 어떤 복잡성, 은유적이지 않는다.

③ 복합문의 구성수단이 같아도 문장문법 기능은 다르다. 어음-구조에서 요소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훈의 이념수단이 범위의 《단일문》들의 구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④ 조선훈의 구조 문법적 특성이 이념수단과 《단일문》들의 문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기동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조선훈의 문법적 특성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복합문의 형태-구조적 분류 문장문법의 이해에서 혼선을 피하며 조선훈의 구조-문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실적이며 파악적인 분류적 특성이 있다.

조선훈의 복합문의 유형상 분류는 조선훈의 구조상 분류, 문장분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순복합문과 확대복합문은 조선훈의 이념수단과 구조의 확대구조의 특성에 기초한 분류이며, 단순복합문, 구조상 복합문, 확대복합문, 조선훈의 복합문들은 조선훈의 《단일문》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한 대조 분류이다.

이 유형의 문장에는 조선훈의 복합문의 구성성능의 구조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분류의 합리성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있다.

① 복합문의 유형과 문장문법의 상관관계의 유형을 호상 밀접히 연관시켜 놓음으로써 조선훈의 문장문법기능에 연관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게 한다. 바로 문장의 단순성분, 확대성분, 단순성분, 기본성분, 전개성분 등 정연한 체계가 그대로 복합문의 구성부분들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합법적임을 알 수 있다.

② 문장문법기능의 상관관계의 이념적 특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조선훈의 복합문의 구성부분들의 내부구조도 분석할 수 있게

다. 복합문의 구성부분인 《단일문》은 문장의 단제적 특성으로 특이적이거나 문장문법기능(문장성분, 단어적합체 등)의 통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종전에 실렸던 많은 문장문법 《단일문》, 《복합문》, 《단일문》, 《복합문》 등의 혼란을 벗어나 조선훈의 이념수단과 《단일문》의 구성부분, 《단일문》의 구성부분, 《단일문》의 구성부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며 그 구성부분도 알아낼 수 있게 한다.

복합문의 구성부분도 조선훈의 특성에 맞게 문장문법 기능을 있게 하는 문장문법 원리의 하나이다.

### 3. 두개의 《단일문》들로 이루어진 복합문(중합구성문)

구체적인 언어현상에서는 복합문이 언제나 두개의 《단일문》를 연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합문은 여러개의 《단일문》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부터 하나의 복합문에 연결방식이 같은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연결방식이 서로 다른 《단일문》들로 이루어진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다시 말하여 3개 또는 그 이상의 《단일문》들이 선형적으로 통일되므로 병립이나 병립 또는 병립의 방식으로 하나의 복합문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복합문에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 아래의 예가 수동태의 조선훈의 복합문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아래의 예가 수동태의 조선훈의 복합문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아래의 예가 수동태의 조선훈의 복합문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아래의 예가 수동태의 조선훈의 복합문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서는 같다. 말하자면 서로 다른 연결법식으로 《연합》된 하나의 종합구성의 합성복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문법체들에서는 두개 이상의 《단일문》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합문을 합성복합문 또는 어휘복합문으로만 고찰하였다. 그러면서 내부구조를 《종속》과 《병렬》의 합성, 또는 《매임》과 《병립》의 어휘로 보았다. 이것은 조건의 “성에 맞지 않는” 결합법이다.

조건어복합문의 구조-문법적특성으로 하여 《종속》과 《병렬》이 따로 없고 연결성적상으로는 오직 《의존-주도》의 관계만이 있으며 연결법적상으로는 《접속》, 《병립》, 《연결》만이 있는 조건에서 《합성》(또는 《어휘》)의 내부구조는 달리 분제되어야 한다.

두개 이상의 《단일문》들의 《연합》은 같은 연결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연결법적(어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사회주의가 수립되면 좌파와 진공의 구원은 총국적으로 형성되지 만 사회성원들 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①

○ 투쟁을 멈추지 말라, 생활도 우리에게서 투쟁이다, 학습을 중단하지 말라, 문화적소양을 쌓으라, 기술서적도 읽으라, 누구나 다 투쟁하고 창조하고 전진하라. ②

○ 1974년 2월 어느날, 그날의 감격적인 사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 하려 나는 오래오래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③

○ 아버지는 파환자, 어머니는 의사, 그리고 나의 형은 기술자이고 저는 생은 노동자이다. ④

예 ①, ②의 복합문은 접속적연결과 병립적연결이 전개된 것이고 예 ③, ④는 연결과 접속, 병립과 접속이 합성한 복합문이다. 예 ①, ②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두개 이상의 《단일문》들의 연결이 전개된 것을 전개합성복합문이라 할수 있고 예 ③, ④와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두개 이상의 《단일문》들의 연결이 형성된 것을 유합성복합문이라 할수 있다.

이러하여 조건어에서는 세계 또는 세계이상의 《단일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보다 복잡한 복합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투형들을 크게 전개합성복합문과 고유합성복합문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모든 부류를 다 종합구성복합문(종합합성복합문)의 유형에 넣을수

있다. 이삼에서 이야기한 온갖 복합문의 분류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 1. 내용상 분류

1. 연결의 성격에 따르는 유형(의존-주도어적관계의 복합문)  
○ 두말장의 역할이 불리자 때후부이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 밖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와계시었다.

2. 연결의 방식에 따르는 유형

1) 접속복합문

○ 두말장기후에 꽃들은 피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남니다

2) 병립복합문

○ 보이니 나무술들이요, 틀리느니 바람소리뿐이라...

3) 편접복합문

○ 비가 온다, 문을 닫아라.

### I. 형식상 분류

1. 형태-구조적유형

1) 어휘-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1) 순수 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피규정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그가 보려는 흥에 그의 등생도 저들렸다.

(2) 관련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난지는 꽤 후웠음에도 불구하고 감풍은 열지 않았다.

(2) 합성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정사-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비꽃이 들 열어졌을뿐 바람도 불지 않았다.

(2) 정사-접속어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오나 그리나 우리는 떠났다.

(3) 조응관계복합문

○ 설사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하겠다.

(3) 특수어적연결의 복합문

○ 피규정보조어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올무렵에 그들은 떠났다.

(2) 특수어표현연결의 복합문

누님은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남았다.

(2) 확대복합문

○ 내가 어제 사온 책은 새로 사온 것이어서 보는 사람이 더 좋아했다.

2) 구성부분의 구비정도에 따르는 유형

(1) 단독성분복합문

○ 화장한 봄, 만경에는 사람들이로 봄이었다.

(2) 주도성분복합문

○ 비가 났고 바람도 몹시였다.

(3) 확대성분복합문

○ 순용이의 아버지는 제기있는 제기있는 그림책을 사왔으며 순용이는 그림책을 사왔다.

(4) 종합구성복합문

○ 민영에 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봄에 꽃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조선어복합문유형의 특성과 분류는 이상과 같다.

조선어복합문의 유형과 그 특성을 제표고있는 근본표식수 “1. 문장의 구조 - 문법적표식, 그 문장문법적기능의 표식이다. “1. 문장들의 구조 - 문법적표식, 그 문장문법적기능의 표식이다.”도 하여 바로 조선문화어복합문의 그 다양하고도 풍부한 유형이 실재한다.

(붙임) 문화어복합문의 종합적인 분류표에서 I의 전부와 II의 1,2의 일부는 이미 2점의 1,2에서 언급하고 분류표로 묶어보았었다. 여기서는 내용상 분류의 《종합구성복합문》의 세 분류까지 합하여 종합적인 분류표를 만든다.

이상에서 본 조선어복합문의 본질과 특성, 복합문의 구성단위의 연결상 특성과 이음수단의 기능, 그리고 복합문의 합리적인 유형화문제 등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어에 고유한 민족적특성은 복합문구조에도 밀관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버지가 돌아오기가 무척게 아이들은 가발을 뒤지었다.

2) 접사적연결의 복합문

(1) 순수 접사적연결의 복합문

① 이음형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오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② 맺음형접사적연결의 복합문

○ 바람은 쓸쓸, 비는 쓸쓸.

(2) 접사 - 도움로적연결의 복합문

① 이음형 - 도움로적연결의 복합문

○ 그가 오고서야 모든 문제가 풀리었다

② 맺음형 - 도움로적연결의 복합문

○ 비가 내렸다마는 평은 질지 않았다.

3) 어음 - 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1) 어음 - 접사적연결의 복합문

① 용언맺음형연결의 복합문

○ 그가 쉽게 울지 너는 아느냐.

② 체언맺음형연결의 복합문

○ 이것은 자볼죄요, 저것은 열쇠다.

(2) 무접사적연결의 복합문

① 어간형연결의 복합문

○ 나는 대학생, 너는 중학생.

② 체시형연결의 복합문

○ 밤, 때오는 계속 행군하였다.

③ 무형태형연결의 복합문

○ 눈은 보슬보슬, 비는 주룩주룩하다.

4) 합성복합문

(1) 어휘 - 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까지 나오는바람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2) 어음 - 문법적수단으로 이어진 복합문

○ 사위는 로롱, 눈새들도 잠들고 사람들도 잠들었으나 박동무의 심장은 울려퍼졌다.

2. 순수 구조상 유형

1) 구조의 복잡성에 따르는 유형

(1) 단순복합문

법(직접전달법)과 끌어옮김법(간접전달법)의 언어행위의 차이, 세로운 유형실정의 가능성 등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 제6장. 문장옮김법

수·말 옮김법은 언어의 언어생활의 민족특성이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것의 하나이다. 언어교체의 다양성은 언어행위의 단위를 옮기는 방법에서도 여러가지 형식을 낳는데 그 형식이란 민족적 특성으로 일반적이지 않다.

문장옮김법은 여러 형식의 언어행위 또는 언어행위의 구성으로 옮기는 방법에 작용하는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문장옮김법에 관한 옮은 해명은 이러저러한 언어행위의 단위들을 옮겨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기초를 주며 민족적특성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을 준다.

문장론에서는 문장과 그 구성부분의 옮김법에 관한 문체도 구별적으로 밝힘으로써 언어행위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해명한다.

(붙임) 옮김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문장옮김법이다. 일부 경우(예를 들어 문장 옮김) 옮기는 일도 있으나 그것은 언어행위(문장전달법)이라는 말과 옮김법이라는 말을 구별하는 것은 옳다.

지난 시기 문장옮김법에 관한 문체는 문장론에서 약하게 다루었거나 거의 관심밖의 분야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문장옮김법은 《전달법》, 《대화법》, 《화법》 등의 이름으로 문장론의 대상으로 잡혀왔다. 때로는 문체론, 수사학의 한 모퉁이에서 각도를 달리 하여 문장옮김법이 고찰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전달법》, 《담화법》, 《화법》 그리고 문체론적수법 등으로 분화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 언어학적특성이 전면적으로 고찰되지는 못하였다.

문장옮김법은 언어행위에 관한 문체론적기초, 언어교체나 상의 구성과 표현방법에 관한 문체론적기초를 문장론은 마땅히, 문장론의 구성과 표현방법에 밝히려야 한다.

이 장에서는 문장옮김법에 대한 일반적개념을 세우지 않더라도 기호하여 우리 말 문장옮김법의 구성상 및 유형상 특성, 바로 옮김

## 제1절. 문장옮김법에 대한 일반적개념

### 1. 문장옮김법의 본질과 특성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언어행위에 참가하는 인물이 여럿일 수 있고 언어행위가 성격이 다른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행위에는 때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대화자)뿐 아니라 제3자까지 끼일 수 있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대화자)만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단독으로(독백의 경우) 참가할 수도 있다.

언어행위는 또한 그 환경이 여러가지로 뒤섞인다. 예유 각각의 환경이나 복잡한 환경일 수도 있고 좀 완화하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언어행위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는다. 이미 이루어진 말이 언어행위의 순간 그대로 옮겨질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현시점에 서서 다른 시기의 말, 다른데서 이미 이루어진 말을 되새겨 옮길 수도 있다. 이미 이루어진 말을 전달하려 하면 일정한 구범에 맞는 옮김법이 있어야 한다.

문장옮김법이란 이미 이루어진 다른 인물의 말을 일정한 시기에 담아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의 자작시를 한 수 옮겼습니다. 예- 제국은 시대가의 작은 배, 웅장했지요.」 하며 청년은 ...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코종을 향해 돌아선다.

영희문학의 한 장면에 나오는 이 언어행위는 등장인물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옮김법으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한 형식이다.

문장옮김법에서 이르는 《이미 이루어진 말》이란 제3자의 말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말일 수도 있으며 듣는 사람(대화자)의 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야기하는 순간의 언어행위보다 이미



로 될 수 있다(1인칭대상, 2인칭대상인 때에도 그것이 전달자의 말과 구별된다는 뜻에서 제3자의 말로 바뀌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전달되는 말》을 《다른 사람》의 말, 《인입된》 말, 《인용된》 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러한 언어행위의 단위는 업제나 전달자의 말보다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달되는 말》이 이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대체 옮김법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옮김법이란 이야기하는 사람과 들는 사람의 언어행위가 아닌 다른 언어행위(또는 제3자의 것으로 따지면 언어행위)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행위가 있고서야 전달하는 대상이 생기기며 문장옮김법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달되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어행위의 단위인 것만 아니라 같은 《전달되는 말》을 구성하는 문장적 요소, 상대적 요소, 문장의 표식을 가진다. 즉 상대적으로 완결된 사상, 상대적으로 완결된 전달단위로 토막지어지고 진술화의 문법적 형식도 갖춘다.

하여 《전달되는 말》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문장으로 된다. 《전달되는 말》을 구성하는 문장구조로서의 문장도에 있어서 한결같은 말은 앞부분은 언어행위의 단위라는 측면에서 문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형식, 기본표시를 가진다. 비록하여 《전달되는 말》은 보통 구조-문법적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문장이며 《단일문》이다.

전달문이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의 전일체인 것만큼 그 본질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전달하는 말》이 성격도 구체적으로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말》이 전달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전달하는 말》과의 연관속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법체들이서는 《전달하는 말》이 전달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의 전달자의 말이며 《전달되는 말》의 소속관계, 정황, 전달의 양상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만 서술하였다.

《전달하는 말》의 본질을 더 파악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4.0비-기능적 및 구조-문법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전달하는 말》은 주고받는 언어행위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말이며 《전달되는 말》보다 뒤에 진행되는 전달의 주자의 언어행위이다.

《전달하는 말》은 옮김법의 문맥을 이루며 《전달되는 말》에 대항함으로써 되는 말이며 그것을 보충해주는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이로써 《전달하는 말》은 《자기의 말》, 《전달자의 말》, 《추적말》, 《비행》, 《보충설명문》 등의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달하는 말》은 문장옮김법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전달아령에서는 대화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전달하는 말》은 하나의 언어행위의 단위의 한에서는 문장의 표식을 가지며 문장의 형식을 갖춘다. 《전달하는 말》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문장이 구비하여야 할 본질적 표식을 나타낸다. 문장성분의 상관관계의 설정, 전술성 표시, 문장적 수단과 수법의 존재, 진술화의 여러 표현의 완비, 고찰이다.

이상과 같이 전달문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전달되는 말》, 《전달하는 말》에 문장구조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며, 그러나 전일체속에서 서로 맥관계에 놓여 있다. 이 '문부' 이후 구성부분들의 형질성과 관련방식의 특성이 생기, 인용한 것이 나타나어진다. 이것도 전달문의 본질이고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보조적인 하나로 된다.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편질성은 기본적으로 《구조-문법적 측면에 있다. 구조-문법적 관점에 보면 전달문의 편질적 구성부분인 《전달되는 말》이 의존적이라면 《전달하는 말》은 주

《전달하는 말》과 《전달되는 말》의 상관관계는 《전달되는 말》의 성격이다. 《전달하는 말》이 《전달되는 말》의 주어가 되며 《전달되는 말》의 목적어가 된다. 《전달되는 말》이 《전달하는 말》의 주어가 되며 《전달되는 말》의 목적어가 된다.

○ 자기는 원래 약하였는데 아첨받기에는 《전달되는 말》이 《전달하는 말》의 주어가 되며 《전달되는 말》의 목적어가 된다.

전달문인 두 언어행위의 단위가 《의존+주도》의 편질성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구조-문법적인 그 전일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독자성을 가지는 두 언어행위단위의 밀접한 의존관계의 밀접한 것은 이것이다.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편질방식은 조성이

문장론적단위들의 연결방식과 같다. 바로 결합, 접속, 병합, 병립, 리립  
방법으로 두 구성부분이 연결된다.

○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하는 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를 띠  
었다. (결합)

○ 명희는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흥분조로 나에게 단하  
였다. (전속)

○ 그들의 대화는 동질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한대라면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라는게 끝은 무슨 끝!》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정말 답답이야!》(병렬관계)

○ 《이 책은 꼭 보십시오!》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결합)

○ 전달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구성부분이  
조직상적인 기본적으로 우의 비가조 투형과 같다.

○ 《이 책은 꼭 보십시오. 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결합)

○ 명희는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흥분조로 나에게 단하  
였다. (전속)

○ 그들의 대화는 동질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한대라면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라는게 끝은 무슨 끝!》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정말 답답이야!》(병렬관계)

○ 《이 책은 꼭 보십시오!》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결합)

○ 전달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구성부분이  
조직상적인 기본적으로 우의 비가조 투형과 같다.

○ 《이 책은 꼭 보십시오. 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결합)

○ 명희는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흥분조로 나에게 단하  
였다. (전속)

○ 그들의 대화는 동질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한대라면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라는게 끝은 무슨 끝!》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정말 답답이야!》(병렬관계)

식으로 《전달되는 말》이 《문장-성분》 또는 《구》로 되면서 결합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이 각각  
관계로 연결되었을 때 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결합)  
그러나 병렬복합문으로 보기도 된다. 《이 책은 꼭 보십시오. 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전속)》  
이 명희의 말은 자못 흥분조로 나타났다. (결합)

○ 《이 책을 꼭 보십시오.》라고 명희는 흥분조로 말했다.  
(화디나일음)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결합)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전속)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결합)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전속)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결합)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전속)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결합)

○ 명희가 흥분조로 말했다. (전속)

## 2.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

문장중간성의 기본표식은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이다. (결합)

문장중간성의 기본표식은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이다. (전속)

○ 문장중간성의 기본표식은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이다. (결합)

○ 문장중간성의 기본표식은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이다. (전속)

○ 문장중간성의 기본표식은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이다. (결합)

○ 문장중간성의 기본표식은 문장중간성이 기본표식이다. (전속)





이 때에 이 문과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이 때는 물론 사람(人)과 권  
달하는 사람(仁)이 일치한다.

이 모든 경우에 구체적으로

인양하는 인물관계가 나타나는

언어수단인 전달하는 말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명사)가

위에 1유형사), 사람(인칭)대명

사 또는 가리키는 명사) 등으로 표현되는 수, 보어, 규정어 등이

나타나는 말이 있을 뿐이어서 이 전달하는 말이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명정상으로 된 문장은 2인칭대칭으로 쓴 사람 또는 수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달하는 말의 문맥은 다음과 같다. 《누가 누구

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가?》하는 문제를 나타내며 그것은

이 문맥을 보충하여 통기시켜 준다. 전달하는 말이 전달되는 말에

1. 대상성, 즉 누구로 된다는 구가 있고, 2. 주어, 3. 보어,

4. 인물관계가 받는다. 후개여져 있다. 따라서 두 문장문맥은 다음과

서 《단일문》 또는 《구》와의 융합관계가 형성된다.

두 축의 언어행위 자체가 두 축의 인물관계를 표시하면서 여러

인물관계의 축에서 본 조선어두상용집법의 도차나의 기본표적이

있다.

이와 같은 본 조선어두상용집법의 기본표적, 즉 전달의 형식화,

두 축의 인물관계의 언어적표시는 문장용집법의 언어적특성을 전면

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다음 바란으로 된다.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의 구조-문법적특성, 즉 문법적 기법으로서

통하여 나타나는 조선어두상용집법을 통해 파악하는 데에 문장용

집법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본질이 있다.

제정질. 그러 한 문법적의 유형과 그 특성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이 문법적 문법적의 구조와 그 구성의 문법적 특성으로 말과







형을 대충 삼아 잘라지게 된다.

### 3. 《축약》을 김법

문장울김법에는 바로 울김법에도 들어가지 않고 풀어울김법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말 문장구조의 다양성, 우리 말의 언어표제실현의 형식상 특수성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 말 문장울김법가운데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과 방법의 차이, 전달문의 구성상 및 표현형식상 특성에 따라 바로 울김법과 풀어울김법과는 다른 유형이 있다. 즉 울김법의 전달되는 말과 전달하는 말의 구조-문법적 특성, 특히는 전달문의 술어에 나타나는 문법적 체계의 특성 등에서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형이 있다. 그 하나가 《축약》을 김법이다.

《축약》을 김법이란 전달문의 두 구성부분의 내부구조는 기본적으로 바로 울김법과 같으면서 그런결방식, 표현방식은 풀어울김법의 《축약》형태로 되는 울김법의 유형이다.

○ 아버지지가 전하시는데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

○ 아버지가 전하시는데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

이 문장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말(전달되는 말)인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달한 전달문이다.

이 문장구조는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말+전달하는 말=전달문》으로 된 문장울김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내부구조의 표현방식은 독특하다.

이 전달문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가 전하시는데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라고 하더라》와 의미-기능상으로나 구조 문법상으로 같다. 다만 《~라고 합니다.》(또는 《~라고 하더라》)가 《~담니다》(또는 《~다더라》)로 《축약》되어 전달되는 말의 술어에 덧붙은 것으로 된다.

이러한 내부구조의 특성과 연결방식, 표현방식의 유형난 특성

은 조선어의 《특수전달동사》인 《하다》의 구조 기능상 특성과 이 교착식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다》는 뜻밖이 가장 넓은 동사의 하나로서 문맥과 정황에 따라 저의 모든 행동을 대진 나타내며 특히는 《말하다》, 《일겁다》, 《이르다》 등의 뜻으로 쓰이면서 《말과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생각동사), 《전달동사》로 된다. 이때의 표현형식은 보통 《~라고 하다》, 《~고 하다》로 된다.

이러한 《~라고 하다》, 《~고 하다》는 특히 입말에서 맺음형, 《~담니다》, 《~다더라》, 《~다더라》와 같이 《축약》되며 다른 맺음형 토에 《2중맺음도》로서 붙는다.

○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고 합니다. → 어찌 하(이) 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

○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고 하더라. → 어찌 하(이) 담임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시었다더라.

(붙임) 이러한 《축약》현상은 《생속》으로 된 문장구조에 시뿐아니 《구합》으로 된 문장구조에서도 생기기며 그밖의 다른 구조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은 조선어에만 표류한 현상이다.

○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었다. 하(이) 소문이... → 어찌 하(이) 임선생님이 찾아오시었다는 소문이...

○ 어찌 학급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었다고 하기에... → 어찌 하(이)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시었다기에...

울김법이 입말에 기초하고 입말에서 널리 쓰이는 현상으로서 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축약》현상이 자주 있게 된다. (글말에서도 문학적예술문체, 회상회성실기문체, 회화체 등의 문체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것도 입말을 반영한 특성에서 나온다). 전달문의 술어(또는 규정어, 보어 등)에 나타나는 이러한 《축약》은 술어의 고유한 특성이자, 그런데 이러한 《축약》에서 더욱 특이한 이리 할 수 있는 것은 이 《축약》된 도가 다시 다른 단어의 맺음형에 덧붙어서 전달문 전체의 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바로 그것이니, 이것은 조선어의 도가 모든 문장론적단위의 임의의 끝 단위에 붙어 되며 그 기능은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문장론적단위에 해당된다는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바로 여기로부터 《축약》을 김법으로 된 전달문은 내부구조가 두 전달단위(기단위, 말+전달하는 말)로 이루어졌으나 외형상으로 하나의 전달단위가

고나와서야.

《축이》를 읽기 전에, 《축이》의 문체를 보았을 때,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 이때의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때의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이때의 인물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그러나 《축이》의 문체가 《축이》의 문체와 다르다.

② 물음-물음문의 유형( ~냐니까)

- 아버지께 언제 오느냐니까?
  - ③ 시김 물음문의 부정( ~있디까, ~잡디까)
  - 선생님은 리우 보고 글씨를 좀더 깨끗이 쓰랍디까?
  -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함께 자시랍디까?
- (붙임) 조선어에, 《버디다》제형의 《추약》을김법에서 시김문으로 끝나는 유형은 없다. 《~디디라》, 《~디저》와 같은 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버디다》제형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다.
- 이밖에 《~더라》제형의 유형도 있는 것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유형의 갈래만큼 나옴수 있으며 《~나디디라》, 《~왔디디라》, 《~왔디디라》와 같은 시간상 변화구형도 있다.
- 또한 특수하게는 《~나디는것이다》에 제형도 있다.

○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배일부터 진단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중음김법》은 양태성의 형태론적범주로서의 고유한 《법》과는 달리 언어행위표현형식으로서의 《목적법》의 변종이다.

문화어음김법의 다양성, 특히 《추약》을김법의 다양성과 정밀성 은 이와 같이 주로 구성요소들과 표현수단의 구조-문법적특성에 기 초하고있다. 문장음김법의 구성요소들과 표현수단의 고유한 구조-문 법적특성은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과 우월성을 반영하는 집포의 하 나이다. 바로 이러한 민족적특성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문화어음김법 은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붙임) 언어교제실현의 다양성은 이밖에도 만 《특수투형》의 음김법을 설정할수 있게 된다. 그 하나가 《바로-물어음김법》(의진-간접진달법)이 다. 우리 학계에는 이러한 투형을 세로 설정하고 미문화한 설과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바로-물어음김법》이란 《바로음김법과 물어음김법의 특 성을 두루가지고있는 음김법》이라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이미 이루어 진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되 그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전달자 의 입장에서 다시 전달하는 《특수형식》의 음김법을 말한다.

○ 그 속으로 되뇌이고있었다, 아, 그 길을 택한것이 배번 올랐지 않는가!

이러한 문장구조에서 《아, 그 길을 택한것이 배번 올랐지 않는가!》는 본질에 있어서 특베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특베는 1인칭대상의 말이며 《전달되는 말》이다. 따라서 독특한 전달문의 구성부분이다. 말하자 면 《바로-물어음김법》은 《목적법》을 전달문으로 구성된것으로서 주관적 및 객관적 입장이 겹쳐 있으므로 된 문장음김법이다. 《바로-물어음김법》의

1. 《버디다》제형의 유형

- 1) 알림문을 기본으로 하는 유형
  - ① 알림-알림문의 유형( ~답니다)
  -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담임선생님이 오늘 집에 찾아온답니다.
  - ② 알림-물음문의 유형( ~답니까)
  - 담임선생님이 오늘 집에 찾아오십니까?
  - ③ 알림-시김문의 유형( ~답네라)
  - 담임선생님이 오늘 집에 찾아오진대라.
- 2) 물음문을 기본으로 하는 유형
  - ① 물음-알림문의 유형( ~남니다)
  - 비가 언제 오겠답니다.
  - ② 물음-물음문의 유형
  - 비가 언제 오겠답니다?
- 3) 시김문을 기본으로 하는 유형
  - ① 시김-알림문의 유형( ~탐니다, ~잡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를 빨리 오랍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도 같이 가지잡니다.
  - ② 시김-물음문의 유형( ~탐니까, 잡니까)
  - 아버지가 체를 언제까지 여기 있으십니까?
  -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가지잡니까?
  - ③ 시김-시김문의 유형( ~레라)
  - 어머니 보고 내 속신을 준비해두레라.

2. 《버디다》제형의 유형

- 1) 알림문으로 끝나는 유형
  - ① 알림-알림문의 유형( ~답디다)
  - 그는 배우등을 뺏다고 자랑한답디다.
  - ② 물음-알림문의 유형( ~답디다)
  - 형님이 물어보시는데 언제까지 여기 묵으시겠느냐디다.
  - ③ 시김-알림문의 유형( 람디다, 잡디다)
  - 선생님이 아버님을 빨리 오시랍디다.
  - 아버지가 어머니도 같이 가지랍디다.
- 2) 물음문으로 끝나는 유형
  - ① 알림-물음문의 유형( ~답디까)
  - 아버지도 같이 가지겠답니다.



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표식으로 된다.

문화어 풀이울김법의 표현수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전달되는 말의 슬어뒤에 《~고》 등의 이음토와 《전달동사》

(또는 《전달명사》)를 결합시키는 방법

○ 토론을 끝마치면서 기사장은 모두가 장마천준비를 민첩함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전달되는 말의 붙음형슬어뒤에 아무런 이음토도 붙이지 않고 그 진술단위의 문장문적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 매일까지 전대오의 행군준비를 끝낼 수 있겠는가 대대장은 다시금 속으로 따져왔다.

3) 전달되는 말의 슬어뒤에 규정형로 붙이고 《전달명사》 또는 그 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을 붙이는 방법

○ 반드시 이말함으로 삼반년계획을 끝내겠다는 총연원들의 한결같은 결의!

그 결의는 하루하루 앞당겨 실현되어나갔다.

4) 전달문의 언어적형식은 바로울김법의 그것과 같으면서도 여량의 요소로 《글에서는 《 》를 취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

○ 여제 사은 책이 어찌 있느냐, 아버지의 묻는 말씀. 풀이울김법에서 전달문의 구성부분들을 이어주고 그 내부구조에서 표현수단들의 구현방법을 특징짓는 표현수법들은 대체로 미상과 같다.

문화어의 바로울김법과 풀이울김법, 그리고 《축약》울김법 등에서 나타난 모든 특성들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의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우리 말에 있는 울김법의 유형들을 알맞게 적용함으로써 언어교제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문장울김법의 이리저리 유형을 선택이용하는 과정은 이렇게나저렇게나 이미 이루어진 말을 일정한 표현수법으로 엮어나가는 과정이다. 바로 문장울김법의 표현수법의 차이는 울김법의 유형을 서로 구분해 하는 요인으로 되며 특히는 바로울김법을 풀이울김법으로 고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전제를 이룬다.

## 2. 바로울김법을 풀이울김법으로 고치는 방법

언어행위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는 이리저리한 문장울김법을 서로 바꾸어쓰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부터 한 울김법을 다른 울김법으로 고치는 방법문체가 나신다. 한 울김법을 다른 울김법으로 고치는 과정을 언어행위의 《개작》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장울김법의 《개작》에서 기준으로 되는 것은 바로울김법이다. 왜냐하면 바로울김법이란 이미 이루어진 말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문의 전형으로 되기 때문이다. 바로 울김법을 기준으로 하여 풀이울김법, 《축약》울김법 등을 구성하는 것이다.

문장울김법의 두 기본유형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바로울김법을 풀이울김법으로 고치는 것이 《개작》의 기본으로 된다.

(붙임) 이미 이루어진 말을 이리저리한 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은 언어행위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한 울김법을 다른 울김법으로 고치는 《개작》과정도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2차적 《재현》으로 된 것이다.

우리 말에서 바로울김법을 풀이울김법으로 《개작》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바로울김법에서 전달되는 말이 가졌던 상대적자립성의 표시은 억양상 또는 직관상 상대적존성의 표시으로 바꾸고 전달하는 말의 슬어가 전달형식을 갖추게 한다.

○ 소대장은 《훈련에서 맘을 많이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다.》라고 강조하였다. (바로울김법)

→ 소대장을 훈련에서 맘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2) 바로울김법에서 표시된 시간과 공간, 인칭 등 판체를 나타내는 언어요소들은 풀이울김법에서 전달자의 입장에서 고친다.

○ 민첩전생님은 어제 《태일 너의 짐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 민첩전생님은 오늘 우리 짐을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 또는 《어기가 바로 친리마의 고향입니다.》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 그는 그곳이 비로 전리마의 모퉁이라고 자랑같이 언어 기괴코이 말을  
 니다.

3) 바로울김법에서 표현된 여러가지 말차림은 모두 《낯플》으로  
 바꾼다.

-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손님이 먼저 말하였다.
- 찾아온 손님은 반나서 반갑다고 먼저 말하였다.
- 《똥푸가 왔던 그 책을 구했소!》라고 나의 친구는 말하였다.
- 내가 왔던 책을 구했다고 내 친구는 말하였다.

문화어 풀이울김법에 쓰이는 말차림로는 다음과 같다.

법	풀이	대인뒤	동사뒤	명용사뒤
말차림	다	다	다(는 다)	다
물음게	나, L가	나, 는가	나, 는가	나, L가
시김	—	—	하	(마)
추김	—	—	자	(자)

4) 바로울김법의 전달되는 말에 붙어있는 독립성분(부를말, 는  
 김말, 끼움말 등)과 그밖의 일부 표현들은 다른 표현들로 바꾼다.

- 《아, 모항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가!》 하고 모두들 감탄하  
 였다.
- 그들은 모두가 모항산의 참말로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감탄하였다.
- 《안 가고말고...》라고 그는 맹세하듯이 말하였다.
- 그는 꼭 가겠다고 맹세하듯이 말하였다.

5) 바로울김법의 전달되는 말이 여러개 문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풀이울김법에서는 알맞춤한 이음로써 써서 확대단일문 또는 복  
 합문으로 바꾼다.

-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까지까지 내렸습니다. 잠시  
 에 사위는 스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짐안에서 쉬어가기도 했  
 습니다.》라고 김안배자는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였다.
- 김안배자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까지까  
 지 내렸으며 잠시 에 사위가 스산해졌기때문에 부득이 자기들은 귀를짐안  
 에 쉬여가지 않으면 안됐다고 하였다.

문화어의 바로울김법을 풀이울김법으로 《개작》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인민의 오랜 언어관습  
 에 의하여 굳어져고 일반화된 하나의 규정과 규정의 체계, 즉 규범  
 으로 되었다. 이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울김법의 표현방법은 방  
 향을 잃게 되며 따라서 언어행위는 민족적특성에 맞지 않는것으로  
 된다. 문장울김법에서 민족어의 규범을 정확히 구현하는것, 이것은  
 언어교체에서 민족적특성을 옹호 살려나감으로써 민족어의 사회적  
 기능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높여나가는 힘있는 담보의  
 하나로 된다.

(붙임) 바로울김법(또는 풀이울김법)을 《축약》울김법으로 《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전달문술어의 진술  
 형에서의 차이가 특이할뿐 바로울김법의 표현수단이 바뀌는 방법은 대체로  
 같기 때문이다.

우에서 본 문화어의 문장울김법에 작용하는 일반적합법칙성,  
 울김법의 본질과 기본표식, 기본류형과 특수류형의 차이, 그리고  
 이것들을 구별해주는 표현수법과 구성법에서의 특성 등은 제현된  
 다른 사람의 언어행위를 바로잡아나가는때서 기준으로 된다. 문화  
 어는 이러한 기준이 있음으로 하여 자기의 고유한 모습과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 문화어의 문장울김법의 고유한 모습과 생활력은 조  
 선민족어의 우수성의 하나로 된다.

우리 말 문장울김법의 위치를 잘 알고 그것을 언어실천에 구현  
 하는것은 언어와 언어생활을 개선해나가는때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앞에는 문화어울김법에 작용하는 체반 특성을 활용하며 대  
 사창조를 비롯한 문필활동에서 표현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할 과업  
 이 나르고있다.

우리 말의 문장울김법에 있는 민족적특성을 옹호 살려 대사의  
 형상성을 높이는것은 해당한 문필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믿  
 을직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오늘날 우리의 출판물에 널리 활용되는 대사창조에서의 문장울  
 김법은 우리 말의 형상적기능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으로 이바지하  
 고있다.

문학예술문체, 회상회상실기문체, 정론기사체 등의 언어작품과  
 그밖의 말과 글에서 널리 쓰이는 문장울김법은 말과 글의 사상에  
 실려 높은 예술성을 보장하는 믿을직한 공간으로 된다.

우리는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에 어울리는 대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문장풍김법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며 그 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진형을 이루어놓아야 한다. 문장론은 현실에서 창조되고 일반화되는 문장을 감범의 새로운 전형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의 과업으로 삼을 것이다.

## 조선어리본문법 (문장론)

저자 윤복사, 부교수 김동구 편집자 윤복사 윤복사 김홍선

민국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인쇄소 사회과학원 인쇄공작

인쇄 1986년 1월 3일 발행 1986년 1월 10일

편집 박복선 표정 김점선 장경 리경하

7-56347

13